성남의 역사와 문화



사
58
2ㅅ
00
성남시립중앙도서관
EM035853

성 남 문 화 원

제123항
911.58
人352人
1998

성남의 역사와 문화

성남시립중앙도서관
등 2002. 6. 11 록
035853

성 남 문 화 원

■ 책머리 ■

새로운 문화의 장

성남지역은 선사시대부터 한국문화의 중심축이었으며 백제 초기 한성시대에는 도읍지로 부상하여 역사성이 부각되었고 이런 맥락은 전근대 시대의 역사 유적에서도 면면이 짐작된다. 또한 근대의 성남은 서울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관계로 다른 지역보다 정국적인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 성남지역은 서울의 주변부인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중심부 운동을 포괄하는 한편, 운동 역량을 분산시켜 강화하는 기능도 수행하였다. 이런 관계로 성남지역의 민족운동은 반침략과 반봉건운동으로 구국 반일투쟁의 선상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어서 특이한 일면을 차지한다.

성남이 문화도시로 급신장함에 따라 성남시민들의 문화 요구가 분출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추세는 민주적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나아가 앞으로 다가오는 정보화시대는 치열한 생존경쟁을 강요하고 국제관계에서 자신의 위상을 확고하게 구축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성남인들이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자신이 살아 온 역사·문화 공간을 더듬어 보고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한 선인들의 지혜에 대해 이해하려는 일단의 노력은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문화란 인간이 작용하여 생산하는 생산기술이나 지식·신앙·도덕·예술·관습 등을 비롯하여 인간이 사회 성원으로 획득한 모든 생활능력의 복합체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즉, 이런 문화요소들은 서로 규제하고 자극하면서 조화를 이룩하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사회 생활을 운영해 나가는 통합적 기능을 발휘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문화가 갖고 있는 잠재능력이 계발되어 현대문화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새로운 문화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문화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성남사에 대한 집필작업은 성남 문화의 질적 성장을 반영하는 것이어서 지방자치화 시대에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 작업은 자기 반성의 단초일 뿐만 아니라 성남 문화의 역량이 축적되어 계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남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조망하는 작업은 성남지역의 사회구성원들이 남긴 과거사를 평가해 보고 현대적 가치관에서 새롭게 인식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있다. 한편으로 이런 문화사업은 자기 문화의 역량과 잠재력을 재음미함으로써 자긍심과 주체성을 고양시켜 세계화의 경쟁에서 이겨내기 위한 토대 구축의 일에 거듭 감사드리며 성남의 도약을 기원해 본다.

성 남 문 화 원

차 례

책/머/리 새로운 문화의 장

일/반/사

성남의 선사문화 1
백제 한성시대의 성남 13
고려시대 성남지역 23
남한산성의 축성과 역사·문화적 의의 33
남한산성과 병자호란 63
조선과 청의 외교관계 73
성남지역에서의 근대화운동과 민족운동 89
일제하 성남지역의 민족운동 101
광복 이후 성남의 역사 113
성남의 도시발달 131

문/화/사

성남시의 유적과 유물 151
광주 및 성남지역의 민속 169
전통음악의 계승 방안 181

일 반 사



성남의 선사문화

배 기 동

1. 지리적인 개관

성남지역은 남한산을 주위로 하여 그 서쪽과 남쪽 산록과 저지대를 포함하는 지역이며 현재는 분당지역을 포함하여 남으로는 수지를 경계로 하고 서쪽으로는 운중동을 포함하는 판교 일대도 성남지역에 해당된다. 이 지역에서는 선사시대의 유적이나 유물이 발견된 예는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러나 기왕의 조사에서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토기가 발견된 예가 있고 또한 지석묘들이 보고된 바 있어서 선사시대 이래로 주민들이 출현하고 살고 있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성남과 인접한 서울이나 하남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선사시대 유물들이 발견되어 한반도의 주민사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는 곧바로 성남지역에 출현하였을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특히 선사시대에는 현재의 행정적인 구분은 당시의 생활을 복원하는 데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성남지역의 선사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접지역의 선사문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인접문화와 관련지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성남지역은 경기-서울지역에서 한강의 중하류유역의 문화권에 해당된다. 물론 남한산을 경계로 한강반의 평야지대와는 구분되는 지역도 있지만 한강과는 용인쪽에서 흘러 북상하는 탄천으로 연결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남한산의 자락과 그 사이의 골짜기들로 형성되어 있는 지형이며 현재 성남의 서편 지역은 탄천과 그 지류들이 만드는 비교적 넓은 골짜기로 되어 있다. 강과 하천을 따라 발달하고 있는 좁은 평야지대는 선사시대 주민들의 생활기반을 이루었을 것이다. 선사시대에는 사냥과 채집 그리고 어로 등으로 생활하였는데 이러한 생활은 주변지역을 끊임없이 다니게 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국 현재 한강 남쪽의 중요유적들과는 문화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성남지역의 선사문화를 복원하는데는 성남지역의 유적과 유물 이외에도 서울지역 한강유역의 선사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성남 일대, 즉 한강 하류유역과 남한산 일대의 선사문화의 특징은 기원이 다른 문화의 복합성이라고 할 수 있다. 다

*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시말해서 한반도에 유입된 문화들이 복합되는 지역인 것이다. 한반도의 선사문화는 다양한 기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시베리아-연해주 지역에서 흘러 들어오는 동북지방의 선사문화와 중국의 북부 오르도스-내몽고를 거쳐 서만주 지역을 거쳐 한반도의 서북지방으로 들어오는 선사문화가 북방문화의 주요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요녕지방과 서북지방에서 독자적으로 발생한 고유한 문화양상도 있지만 위의 두 가지 방향이 북방에서 한반도에로의 문화유입의 가장 주요한 경로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주요한 문화흐름은 한반도 내에서 해안과 서해안 저평지를 따라 남하하게 되고 또한 지역적으로 새로운 문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화변동의 가장 중요한 지역이 한강 중하류 유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함경도 동북지역의 선사문화와 평안도 서북한 지역의 선사문화가 한강하류유역에서 복합이 이루어지고 다시 남하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성남지역과 한강중류지역은 결국 기원이 다른 선사문화가 복합되기도 하고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기도 하는 중요한 문화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2. 구석기시대

구석기시대란 타제석기를 사용하여 만들어 쓰던 시대로 약 250만년 전부터 12,000년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되지만 한반도에서는 수십만년전에서 12,000년전까지의 시기로 토기가 추출현하기 전까지의 시간에 해당된다. 그런데 한반도에서는 약 수 십 만년 전에서부터 인간이 출현한 흔적이 있으며 그 이후 지속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 이제까지의 구석기 고고학연구로 밝혀지고 있다. 구석기시대는 전기·중기 그리고 후기로 나누는데 각 시기별로 다른 석기제작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음이 알려져 있다. 한반도에서는 현재까지 50개소 이상의 구석기 지점이 알려져 있는데 이 중의 한강유역은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지역 중의 하나이다.

한강하류의 구석기문화는 전기구석기에서부터 후기구석기에 이르는 시기의 것이 발견되고 있는데 현재 성남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서울의 한복판이 된 면목동에서 이미 구석기가 발견되었거니와[1] 남한산의 동편인 양평 병산리에서 단구층의 상부에서 구석기가 채집되었고[2] 이 지역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지만 한강하류지역인 일산지역에서도 구석기 유물들이 발견되고 있다.[3] 그리고 최근에는 성남의 뒷

1) 황용훈, 서울 면목동 유적 발견 구석기의 형태학적 조사, 경희사학 2. 15-28, 1970.
2) 한창균, 윤내현. 양평 병산리 유적, 단국대 박물관-경기도, 1990.
3) 손보기 외. 자연과 옛사람의 삶-자연환경조사-고고학발굴조사보고:일산 새도시개발지역

편인 광주지역에서도 산중턱에서 구석기가 발견되고 있어서 성남지역에서도 구석기발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물론 현재 많은 지역들이 도시화로 인하여 훼손되어 있지만 탄천유역은 구석기유적이 분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

한강의 상류나 한강 지류의 구석기유적의 분포를 본다면, 임진강과 한탄강유역에서는 현무암의 분출로 인한 제4기 동안 지각변동을 거친 지역이어서 하상의 퇴적물이 현무암대 지상에 남아 있게 되어 많은 지점에서 석기가 채집되었고 발굴된 지점도 전곡리유적 등 수 곳에 달한다. 남한강에서 충주댐 지역 속의 수양개·창내, 그리고 명오리 등이 주요한 유적들이며 북한강에서는 상무룡리가 대표적인 유적이다. 단양-삼척의 석회암지대에서는 몇 곳의 동굴에서 구석기들이 발견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금굴유적이며 단양의 상시리와 구양굴 등에서 동물뼈들과 함께 석기들이 발견되었다. 구석기시대 동안 한강 상류의 고산지대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구석기유적이 발견되는 것으로 미루어 한강유역 전지역에서 구석기시대에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것은 짐작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며 성남지역도 분명히 구석기인들이 출몰하였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가 있다.

한강의 하류지역에서 언제부터 인류가 살기 시작하였던 가는 아직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강유역의 구석기문화가 홍적세의 중기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수 십 만년 전부터 살고있었다고 볼 수 있다. 연대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단양의 금굴유적이나 한탄강의 전곡리유적 같은 구석기유적은 적어도 이 시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유적인 것이다. 특히 전곡리유적은 이 시기 한강유역의 구석기문화의 독특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유적은 서구형의 아슐리안석기가 처음으로 발견되어 세계 구석기학계의 주목을 받은 유적인데 중부홍적세의 후반, 즉 약 20만년까지 오를 수 있는 석기문화로 생각되고 있다.[4] 아슐리안형의 주먹도끼들은 타원형을 이루거나 첨두를 가진 것들인데 큼직한 박편흔으로 덮혀있고 세밀한 가공을 보이는 것들은 아니다. 이 외에도 남계리, 금파리, 주월리, 원당, 고랑포 등의 지점들에서 이와 유사한 석기공작들이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지점들은 석기공작의 형태적으로 비슷하지만 시기적으로는 약간 달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기나 중기의 구석기들은 대개 석영암을 이용하여 만든 것이 가장 흔하다. 성남의 동편에 있는 양평 병산리의 한강 단구에서도 이러한 석영암제 석기들이 발견되었는데 중기구석기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발견된 광주의 구석기 유적에서도 석영암석기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것은 당시 사람

학술조사보고 I, 한국선사문화연구소, 1992.

4) 배기동, 전곡리-1986년도 발굴조사보고서, 서울대학교 박물관, 1989.

들이 가장 구하기 쉬우며 단단하고 오랫동안 날을 유지할 수 있는 석재로서 석영암을 선호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이와는 달러 후기구석기문화의 특징으로 석재 선택에서 보이는 선별성이다. 후기구석기가 되면 사람의 지혜가 훨씬 발달하여 정교한 석기를 만들 수 있는 치밀한 석재를 선호하며 특히 유리질이 많은 흑요석재의 출토가 특징적이며 한강반에서는 상무룡리나 수양개에서 보인다. 흑요석은 화산지역에서 나는 것이어서 당시 사람들이 상당히 먼거리를 이동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증거는 구석기시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동하고 있었던가를 보여주고 있다.

구석기시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채집과 사냥으로 생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사냥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겠지만 시대가 내려올수록 생계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을 것이다. 이것은 당시의 도구의 발달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후기로 오면서 날카로운 날을 가진 석기들이 늘고 수양개유적에서 보듯이 슴베찌르게 같은 것이 나타나는 것이다.[5] 이 슴베찌르게 제작기술은 일본 구주의 구석기문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당시 문화전파나 주민이동의 영역이 얼마나 광범위하였던 것인 가를 말하여 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성남일대의 낮은 구릉지와 계곡은 분명 한강유역에 거주하던 구석기인들이 채집이나 사냥감을 따라서 출몰하던 한 지역임이 틀림없었을 것이며 앞으로 구석기유적이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비교적 지형이 잘 남아 있는 탄천 서편지역의 구릉지대에 발견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신석기문화

신석기시대 우리 나라에서는 토기와 마제석기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이며 청동기가 출현하면서 끝이 난다. 현재까지 알려진 자료로 볼 때 약 8천년 전에서 1천년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된다. 이 시기는 주로 채집과 사냥 외에도 어로 생활을 많이 하였는데 이러한 생계 경제방식으로 인하여 주거지들이 대체로 큰 강이나 바다가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내륙에서도 주거지들이 발견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성남지역에서도 빗살무늬토기가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있다.[6] 이 빗살무늬는 중부지역, 즉 한강 하류역의 전형적인 신석기문화토기이다. 이 빗살무늬토기는 한강유역뿐 아니라 서북지역인 대동강유역에까지 연속적으로 발견되

5) 이융조, 단양 수양개구석기유적 발굴조사보고, 충주댐 수몰지구 문화유적발굴조사종합보고서-고고, 고분 분야 I. 충북대학교 박물관, 1984.

6) 이융조, 신갈-구리고속도로건설지역 발굴조사보고서, 충북대학교 박물관.

고 있다. 그러고 이 지역은 문화적인 공통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한강유역은 서북지역뿐 아니라 동북지역이나 동해안 지역의 토기문화도 보이는데 한강 상류의 춘천 교동유적에서는 동해안의 토기와 통하는 토기문화가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상무룡리 유적에서 구석기시대에 백두산 출토로 보이는 흑요석이 발견되는 것과 같이 주민의 이동이 동북지방에서 한강을 타고 넘어오는 경로가 일찍부터 개척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빗살무늬토기는 포탄을 잘라 놓은 모양으로서 바닥이 둥그스럼하거나 뾰족하게 만들어져 있고 몸통부에는 짧은 선문이나 기다란 선문 또는 곡선문 등의 기하학적인 무늬를 음각으로 넣은 것으로 학자에 따라서는 기하문토기라고 불리기도 한 토기문화이다. 이 토기는 한 때 시베리아의 빗살무늬와 같은 계통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던 신석기토기문화이다. 한강변은 한반도 빗살무늬토기문화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전기로부터 후기에 이르는 문화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토기를 반출하는 가장 대표적인 유적이 남한산의 북쪽, 한강반에서 발견된 암사동과 미사리 유적이다. 근래는 한강의 상류지방인 단양 등지의 내륙에서도 신석기토기가 발견되고 있고 일찍이 춘천 교동 등의 유적도 상류지방에서 출현하는 대표적인 유적이다. 그리고 한강의 지류라고 보는 임진강 유역에서도 빗살무늬 토기가 발견되고 있고 또한, 하류의 도서지방의 토기문화도 이 한강유역의 암사동-미사리 토기의 양식이 퍼져나간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실제로 한강반의 신석기토기는 한국토기의 시대 편년을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자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남지역에서 발견된 토기도 그 문양상태로 보아 시대가 내려오는 신석기토기라고 판단된다. 여하간에 성남지역도 신석기주민의 거주처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것이다. 암사동과 미사리의 신석기 토기문화를 보면 전기에서 후기에 이르는 시기의 것이 발견되었는데 가장 전형적인 빗살무늬토기는 전기의 것으로 토기 전면을 3구역으로 나누어 문양을 넣는데 구연부에는 짧은 사선을 촘촘히 열을 지어 넣고 몸통부에는 물고기 뼈모양 문양을 넣는데 이를 어골문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무늬는 시대가 흐르면서 점차 면적이 축소되고 후기에 이르면 문양이 정교하지 않고 엉성해지는 경향이 있다. 암사동의 하층은 결국 빗살무늬토기의 전기에 해당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는 토기가 구연부에 짧은 선문으로 장식하고 몸통에는 횡주어골문(橫走魚骨文) 저부에는 종주(縱走) 어골문을 시문하여 몸통을 3부위로 나누어 겉면에 음각(陰刻)으로 시문한 양식의 토기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토기가 주류를 이루던 시기는 대략 기원전 4천년 전후한 시기로 생각된다. 이 시기는 한강의 신석기문화의 극성기이며 이 문화는 한반도의 동남해안 지역에 큰 영향을 미쳐 결국 일본의 소바다토기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7] 이 시기의 주민들은 반수혈의 움집을 짓고 살

았으며 지붕은 아마도 원추형 또는 사각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암사동유적에서는 여러채의 집이 한자리에 모여 있어서 당시에도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었다. 집들은 대개 원형으로 지었는데 중앙에 불자리가 하나 또는 둘이 있고 입구가 벽의 한 쪽으로 나 있는 것이 보통이다. 집자리의 바깥에도 자갈이 깔린 화덕자리가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아마도 야외용의 조리시설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8] 집의 내부에서는 토기 이외에도 갈아서 만든 돌도끼·화살촉 등이 발견되고 갈돌도 발견되기도 한다. 어로도구로 어망추가 발견되고 또한 낚시바늘 같은 것이 보인 다.

당시 한강 일대의 신석기주민들은 주로 채집과 어로 그리고 수렵을 행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은 강가에서 어로작업으로 안정적인 식량을 얻었을 것이며 이와 함께 주변 일대의 골짜기, 구릉이나 산지 등에서 짐승사냥과 아울러 식량채집으로 생활하였을 것이다. 성남 일대도 이러한 생활의 터전이었을 것이며 소수나마 발견되는 빗살무늬토기는 이러한 과정에서 남겨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신석기후기에 이르러서는 한강의 전역과 서해 도서지방에도 널리 빗살무늬토기들이 산포하는 것으로 보아 인구가 늘어나고 있었고 늘어난 인구는 결국 보다 빈번하게 내륙지방으로 진출하지 않으면 안되었을 것이며 결국 농경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 갔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신석기시대 후기의 유적에서는 농경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원시농경이 생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 한강 유역에서는 다른 지역보다도 돌보습의 수량이 극히 적기 때문에 괭이 농사가 주류를 이루었을 것으로 보인다.

4. 청동기시대

청동기시대는 흔히 청동기의 출현을 그 출발점으로 잡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한강 유역의 청동기시대 시작은 무문토기의 출현이나 지석묘의 출현을 가지고 시대구분을 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성남지역에서 청동기문화는 지석묘의 출현으로 기준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성남지역에서 다수의 지석묘가 분당이나 성남 시내 지역에서 발굴되었지만[9] 아직도 이 지석묘의 건조자들이 사용한 유물들

7) 한영희, 신석기시대, 한국고고학의 반세기, 제19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한국고고학회, 1995.
8) 김원용, 한국고고학개설, 일지사, 1988.
9) 김병모 외, 분당지구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한양대학교 박물관-경기도, 1991.

이 발견된 예는 그다지 없다. 부장품이 극히 적은 이러한 지석묘가 가지고 있었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 앞으로 다른 지역과의 비교연구가 필요한 숙제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성남지역의 청동기주민의 문화도 결국 가까운 서울의 강남이나 잠실 그리고 하남 등지의 청동기문화를 살펴 봄으로써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남한산성의 북편자락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삼동, 명일동, 가락동 등지에서 무문토기시대의 주거지들이 발굴보고 된 예가 있다.[10] 물론 그 수효는 극히 적은 편이지만 본격적인 조사의 손이 미치기 이전에 이미 도시개발을 하여 그 전모를 알 수 없지만 상당한 규모의 유적들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적의 분포는 분명 탄천을 따라 연속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유적 이외에도 성남 부근지역인 하남 미사리 유적의 발굴에서 청동기시대에 해당되는 주거지들이 다수 확인되어 발굴되었는데[11] 이러한 주거지들은 이미 여주 흔암리나 부천의 고강동이나 파주의 옥석리, 교하리 등의 주거지 유적들에서 알려져 왔다. 그러나 본격적인 청동기를 공반한 유적의 존재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아서 한강 중-하류역의 청동기문화의 이해에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남아 있다. 이 지역의 청동기문화는 우선 토기와 분묘로 규정될 수 있는데 토기는 어형토기라고 부르는 무문토기류이며 그리고 분묘로서는 지석묘가 다수 분포하고 있다. 무문토기류 중에 한강유역에서 흔히 발견되는 각형토기는 서북지방계통의 것이다. 그러나 홍도나 공열토기들은 동북지방에서 흘러온 것으로 한강유역 청동기문화의 연원을 보여주는 유물들이다.[12] 지석묘도 한강을 경계로 북방식 지석묘 분포의 남방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물론 성남지역에서는 이러한 북방식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한강하류의 남쪽에 해당되는 안산과 광명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석기에서는 잘 알려진 마제석검이 많은 수 출토되고 있고 생산용구로서 특히 반월형석도가 이 시대의 주거지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분명 열매나 곡물류의 수확구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도구들은 이 지역에서 이미 농경이 상당히 보편화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이미 이 시기에 벼농사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이 흔암리에서 확인되었는데 상당히 발전한 단계의 생계기반과 사회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기에는 심발형(深鉢形) 무문토기로 대표되는데 이 토기는 구연에 각선문(刻線文)을 넣거나 구멍을 구연에 따라 돌리는 특수한 양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양식

10) 김정학, 광주 명일리 주거지 발굴조사보고, 고문화1, 1962.
광주 가락리 유적 발굴조사보고, 고문화2, 1963.
이백규, 경기도 출토 무문토기. 마제석검,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74.
11) 미사리선사유적발굴조사단-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 미사리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 1994.
12) 이백규, 전게서.

은 이 지역의 청동기문화가 동북지방, 즉 함경도 지방 청동기문화의 영향임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증거인 것이다. 이러한 공열토기(孔列土器)가 한강반에서 발견된 것으로 가장 오래된 것은 춘천의 내평유적으로 이는 한강 토기문화의 연원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겠다. 이러한 토기가 출현하는 시기는 대개 기원전 1000년경 내외로 이 토기문화는 신석기시대 토기의 발전형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서북지방의 영향을 받은 각형토기의 전통도 보이고 있는데 이 각형토기는 소뿔모양으로 생긴 것으로 좁은 굽이 있는데 가락리의 토기들에서 그 영향을 뚜렷이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유적으로 파주 교하리유적의 주거지들, 강화 삼거리의 주거지와 지석묘들, 서울 송파 가락동 주거지 등이 있다.

청동기시대 중기는 사실 전형적인 청동기문화 확산의 시기인데 유물로는 비파형동검문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시기이다. 그런데 한강반에서는 이 비파형동검이 발견된 유적이 없지만 춘천지역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해지는 비파형동검이 2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강 이남의 금강유역인 송국리 등지에서 다수의 비파형동검의 출현으로 미루어 이 문화가 한강반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은 틀림없다고 하겠다. 이 시기에는 비파형동검을 본따 만든 마제석검이 제작되었는데 이러한 형식의 마제석검이 한강반 유적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유적으로 파주의 옥석리, 식현리, 흔암리, 광주의 고덕리유적 등이다. 이러한 유적들의 연대 범위가 기원전 8세기에서 14세기에 해당되고 있지만 중심연대로 보아 대략 8세기경의 문화라고 보인다. 이 시기의 토기들은 지점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바닥이 좁은 각형토기, 공열토기, 적색마연토기, 호형토기, 고배형의 굽다리접시 등이 유행하고 있다. 이 시기의 주거문화에서 나타나는 사회상은 대규모의 주거지를 만들었고 또한 여주 흔암리에서 보듯이 많은 주거지가 구릉정상을 따라 분포되어 있어서 취락을 형성하여 살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 대로 이미 벼농사가 시작되어 농경지확보를 배려한 주거지 배치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청동기시대의 마지막 단계는 사실 흔히 초기철기시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소위 요녕식동검이 진화하여 세형동검이 만들어지던 시기이다. 보통 세형동검문화라고 하면 세형 동검 이외에 흑색마연장경호와 이중구연의 심발형토기(소위 점토띠토기)의 출현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러한 토기들이 발견되는 유적으로 대표적인 것으로 남양주시의 수석리주거지, 아차산, 웅봉 등이 있고 세형동검 관련의 유물이 채집된 유적으로 용인의 초부리유적, 영등포, 상일동, 고양군 원당리, 횡성의 강림리 유적등에서 세형동검이나 거푸집 또는 다른 종류의 청동기들이 채집되었다. 그런데 토기의 경우 대표적인 것이 점토대토기인데 이 점토대의 경우 비교적 오래된 형태인 반면 원형의 것만이 출토되고 있어서 한강의 청동기시대의 마지막 단계 또는 초

기철기시대는 원시형의 문화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지역은 당시 국가형성과정의 초기에 있어서 문화적인 자극이 그다지 크지 않았고 결국 백제세력이 남하할 때까지는 힘의 공백상태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고고학적인 성과를 토대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이다.[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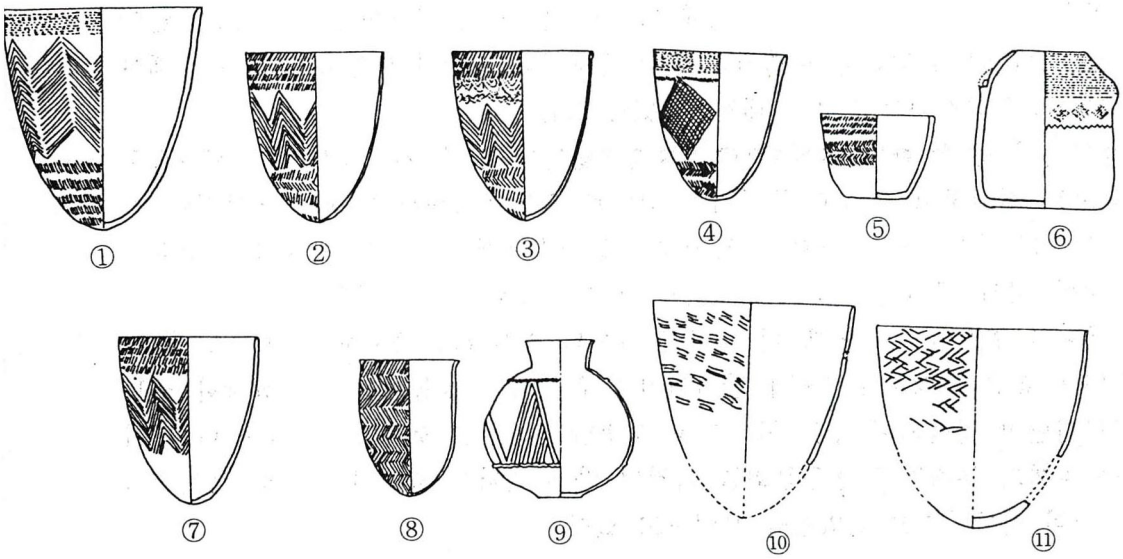
청동기시대 동안 한강 유역에서는 경제생활의 패턴이 채집에서 식량생산으로 본격적으로 전환하고 있었고 주거지는 점차로 강변에서부터 내륙의 구릉지에 이르는 전 지역에서 나타나는데 한강반에서도 구릉지에서 집단취락지가 발견되고 있는 것이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성남지역은 낮은 구릉성 산지가 많은 것이 지형적인 특색인데 이 지역에 다수의 지석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때 이 지역에 많은 청동기주거지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청동기시대에 상당한 규모의 인구집단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지역, 즉 일찌기 본격적인 청동문화를 가졌던 다른 지역의 집단과는 달리 점진적인 사회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남지역의 선사시대 자료는 아직도 미약한 편이다. 이것은 분명 선사시대에 주민들은 큰 강가에서 물과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크게 이상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이른 선사시대부터 주민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은 현재까지의 자료로서도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성남지역은 한강하류역, 즉 현재 서울지역의 선사문화와 분리하여 이해할 수 없다는 점도 이 지역의 선사문화 이해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점이다. 한강반의 선사시대 주민들은 성남지역을 배후 지역으로 삼고서 이 지역에 지속적인 진출을 하였을 것이고 거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동은 성남지역의 서부를 흐르는 탄천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이며 그동안 훼손으로 남아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분명 다수의 유적이 이른 선사시대부터 이 골짜기에는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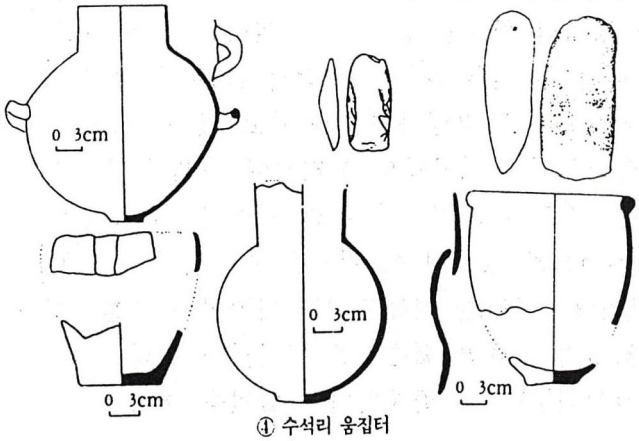
성남지역의 선사문화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한강반 선사문화의 일반적인 성격은 한반도 문화유입의 큰 흐름인 동북지역 선사문화의 갈래와 서북지역 문화갈래가 합쳐지는 지역으로 두 문화의 융합이 이루어지던 곳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은 구석기이래 주민의 흐름에서도 알 수 있으며 또한 문화의 공통적 요소로서도 찾을 수 있다. 선사시대 때부터 한강유역은 복합문화가 형성되는 지역이었으며 성남지역은 한강선사문화의 배후지역으로서 이러한 문화가 융화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터전을 제공하였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3) 박순발, 한강 유역의 청동기-초기철기문화, 한강유역사, 민음사,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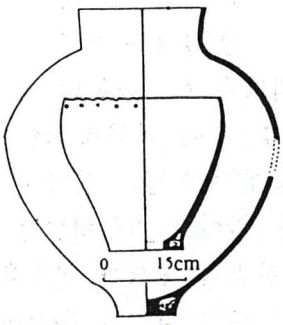
도1> 중서부지방에서 출토된 빗사무늬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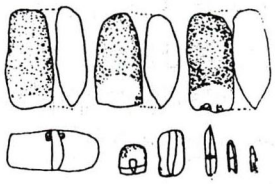
도2> 청동기시대 토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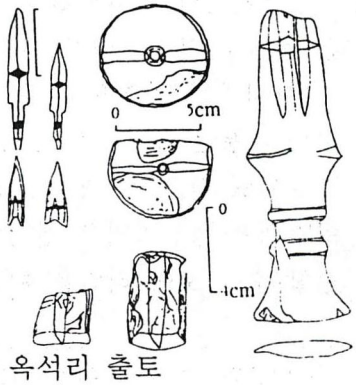
도3> 청동기시대 석기류



역삼동 출토



역삼동출토



파주 · 옥석리 출토

도4> 분당동 지석묘군



A－4－1號 上石 平·斷面圖 및 A－4號, A－5號, A－6號 下部 平·斷面圖

여 백

백제 한성시대의 성남

백 남 욱

오늘날 성남 지역은 지역적으로 한강 하류에 위치하며 탄천 및 남한산성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다. 이런 관계로 성남 지역은 일찍이 선사시대·청동기시대·철기시대에 한반도 중남부 지역의 중심적인 위치를 점하였다. 그에 따라 이곳은 우리 나라 고대사회의 전개 과정에서 백제의 국가 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지역이었고, 삼국 통일전쟁기에는 삼국의 전략적 지역으로써 비중이 높았던 곳이었다.

1. 백제 건국 이전의 성남 지역

백제의 건국 기반 조성은 한반도 북부로부터 선진문화 보급에 연유한 것이다.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 세형동검(細形銅劍)으로 대표되는 후기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의 전래는 기원전 4~3세기 무렵부터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 이르면 한반도 중남부 지역의 청동기문화는 요녕식(遼寧式) 동검의 형태가 세형동검으로 더욱 세련된 형식으로 변화되었으며, 청동 제품들도 의기화(儀器化)되면서 실용성은 둔화되고 상징성을 띄게 되었다. 또한 세련된 무문토기(無文土器)·홍도(紅陶)와 반월형석도(半月形石刀)·유구석부(有構石斧) 등과 같은 본격적인 농경 도구, 지석(支石)이 없는 남방식 지석묘(支石墓)와 석상분(石箱墳)이란 묘제(墓制) 등이 출현하였다. 이와 같은 한반도 중남부 지역의 문화적 변화는 고조선(古朝鮮) 지역의 정세변화에 따라 남하한 유이민(流移民)에 의해서 촉진되었다.

기원전 4세기 무렵의 고조선은 군장(君長)의 호칭을 왕(王)이라 하면서 중국 전국시대(戰國時代)에 강력한 세력이었던 연(燕)나라와 대등한 형세를 이루고 있었다. 그에 따라 이 지역의 상황은 연나라 소왕(昭王)이 그의 부하 진개(秦開)를 시켜 고조선의 영토 2,000여 리를 빼앗는 등 불안감이 조성되었다. 이것은 곧 고조선 지역의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불안하게 하여 그들의 남하를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 주민의 남하는 일찍이 그들이 경험한 선진적인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를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 보급하였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대유공업전문대학 교수

곧이어 중국에서의 진(秦)나라·한(漢)나라의 등장으로 인한 정세변화에 따라 고조선에서도 기원전 194년에 위만조선(衛滿朝鮮)의 성립이라는 정치적 변화를 맞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조선의 준왕(準王)은 근신(近臣)과 궁인(宮人)들을 거느리고 한반도 중남부 지역으로 남하하여 한왕(韓王)이라 칭하고 새로운 정권을 성립시켰다. 한왕이 성립시킨 정권으로 인해 오늘날 성남 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중남부 지역은 선진적인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권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한반도 중남부 지역의 지속적인 선진문화 수용은 이후 중국과 직접 통교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된 진국(辰國)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그리고 위만조선이 멸망하기 직전인 기원전 2세기 말엽에는 조선상 역계경(朝鮮相 歷谿卿)이 2,000여 호 규모의 집단을 거느리고 진국으로 이주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조선상 역계경의 집단 이주는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서 선진적인 철기문화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성남 지역은 한강 유역에 위치한 관계로 다량의 유적을 보유할 수 있었다. 한강 유역의 대표적인 유적지인 역삼동·명일동·가락동·방이동, 남한산성·청계산의 구릉, 그리고 탄천 지역에서 출토되는 유물이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분당지구의 지표조사에서 116기의 지석묘가 발견되었다. 분당의 인근 지역인 용인에서도 청동검(靑銅劍)을 제작한 용범(鎔范, 거푸집)이, 기원전 2세기 전후의 시기로 알려진 양평군 대심리와 가평군 마장리의 다양한 철제유물들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한강 유역과 이 지역에 연해져 있던 성남 지역에 철기문화가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철기문화의 수용은 후기의 유력한 세력집단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사회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 결과 한반도 중남부 지역은 진국의 해체와 더불어 삼한사회(三韓社會)로 이행되었다. 특히 경기도·충청도·전라도 지역의 마한(馬韓)은 목지국(目支國, 현재의 익산 혹은 직산 지역이라고 추정)의 진왕(辰王)을 중심으로 소국연맹체를 이루고 인근 지역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성남 지역과 남한산성 일대는 마한의 외곽지대에 놓여 있는 관계로 진왕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런 지역적 특성 즉 성남 지역이 한반도 중심부를 관통하는 한강과 연해져 있는 특성에 따라 선진문화 지역과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어 후기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의 수용이 유리하였다.

기원전 109년 중국 한나라의 위만조선 침략과 기원전 108년 위만조선의 멸망 및 한군현(漢郡縣)의 설치 이후, 낙랑군(樂浪郡)과 대방군(帶方郡)은 변진(弁辰)에서 철을 수입했고 그 이외 지역의 특산물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는 한군현의 경제활동에서 삼한사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

러한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한군현에서는 삼한의 군장인 신지(臣智)에게 관작(官爵)·인수(印綬) 등을 주었는데, 그 숫자가 1,000여 인에 이르렀다. 한군현과 삼한의 관계가 지속되면서 신분적 지위를 얻고 일종의 무역권을 부여받은 자들은 그 지역 내에서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었던 반면, 경제활동의 이익을 둘러싼 지역적인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어 갔다.

이처럼 삼한사회의 여러 지역과 한군현의 빈번한 교류과정에서의 성남 지역을 비롯한 한강 유역은 삼한사회의 다른 지역보다도 한군현과 근접한 지역에 위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삼한사회의 여러 나라들과 한군현을 이어줄 수 있는 유리한 지역이었다. 이에 따라 마한을 주도한 목지국의 진왕은 성남 지역을 비롯한 한강 하류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고구려에서 남하한 온조(溫祚)의 유이민 집단으로 하여금 이 지역 100여 리를 관장하게 하였던 것이다.

마한의 소국연맹체를 구성하던 여러 나라(馬韓諸國)들은 국읍(國邑)을 중심으로 반경 50여 리 내외의 지역에 성곽(城郭) 없는 상태였고 읍락(邑落)이 뒤섞여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들 지역의 국읍에는 신지·거수(渠帥) 등으로 불리는 군장(君長)들이 있었다. 이들을 중심으로 철기문화의 보급이 가속화되어 감에 따라 사회 운영질서의 변화와 농업 발전에 따른 생산력의 증가가 이루어 졌다. 이것은 곧 유력한 세력집단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지역범위를 확정하여 '부족국가(部族國家)·성읍국가(城邑國家)·군장사회(君長社會)'라고 일컬어지는 고대국가의 등장 즉, 성남 지역을 비롯한 한강 유역에서는 기원을 전후해서 부여계 혹은 고구려계의 남하에 따라 백제의 건국에 새로운 역사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2. 위례성(慰禮城)과 성남 지역

기원전 1세기를 전후해서 성남 지역을 비롯한 한강 하류 지역은 마한의 소국연맹체를 주도하던 진왕의 목지국과는 원거리에 있던 지역이다. 기원전 82년 진번군이 폐지된 이후에는 낙랑군이 진출을 시도할 수 있는 근접 지역이었다. 이 시기 성남 지역을 비롯한 한강 유역은 삼한사회·한군현(특히 낙랑군)과의 물자교류를 통해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낙랑군이 삼한사회에 대한 분열책을 시도하면서 그 지역적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 부여계의 온조집단이 남하하여 백제가 건국되고, 이어서 백제의 한성시대(漢城時代)가 도래함에 따라 성남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은 새로운 역사적 전기를 맞게 되었다.

백제의 시조 온조는 그의 아버지가 구모(鄒牟) 혹은 주몽(朱蒙)이라 한다. 주몽은 북부여에서 도망하여 졸본부여(卒本夫餘)로 왔다. 부여의 왕은 아들이 없고 세 딸만 있었는데 주몽의 인물이 비범함을 알고 둘째 딸을 시집보내 아내로 삼게 하였다. 얼마 되지 않아 부여왕이 죽자 주몽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두 아들을 낳았는데 장자는 비류(沸流), 차자를 온조라고 하였다. 주몽이 북부여에 있을 때 낳은 아들이 오자 그를 태자로 삼았다. 비류와 온조는 태자에게 용납되지 못할까 두려워서 마침내 오간(烏干)·마려(馬黎) 등 10명의 신하를 거느리고 남하하니 따라오는 사람이 많았다. 한산(漢山)에 이르러 부아악(負兒嶽)에 올라 살 곳을 찾아보니 비류는 해변에 살기를 원하였다. 10신(十臣)들이 말하기를 "생각건대 이 하남(河南)의 땅은 북쪽으로는 한수(漢水)를 띠고, 동쪽은 고악(高岳)을 의지하였으며, 남쪽은 비옥한 땅을 바라보고, 서쪽으로는 대해(大海)에 연접하였으니, 그 천험의 지리가 얻기 어려운 지세입니다. 여기에 도읍을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비류는 듣지 않고 그의 백성을 이끌고 미추홀(彌鄒忽, 현재의 인천)로 가서 살았다. 온조는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에 도읍을 정하고 10신으로 신하를 삼아 국호를 십제(十濟)라고 하니, 이 때가 전한(前漢) 성제(成帝)의 홍가(鴻嘉) 3년이다. 비류는 미추홀의 땅이 습하고 물이 짜서 편안하게 살 수 없었으므로 돌아와 위례를 보니 도읍이 안정되고 백성이 편한지라 참회하여 죽고 백성이 오니 후에 백제라 고쳤다. 그 세계(世系)가 고구려와 함께 부여에서 나왔기 때문에 부여로 성씨(姓氏)를 삼았다. ({삼국사기(三國史記)} 백제본기, 온조왕조)

위의 내용에서 보면, 백제를 건국한 온조는 부여계로서 고구려에서 남하하여 기원전 18년에 하남의 위례성에 자리 잡고 십제를 건국하고, 곧이어 미추홀에 자리잡은 비류가 죽자 그 지역을 합하여 국호를 백제라고 고쳤음을 알 수 있다. 백제의 건국 시기가 기원전 18년이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기원을 전후한 시기에 온조집단이 부여계인 주몽세력에서 분파하여 하남위례성에 자리잡았다는 것은 지금까지 목지국의 진왕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마한의 소국연맹체에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시사하며 위례성을 중심으로 하는 고대국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위례성이란 명칭은 '위례"가 나무로 책(柵)을 설치하고 흙으로 성곽을 쌓는다는 방언인 위리에서 연유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우리·우리재·울타리·울안 등과 유사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 마한의 여러 나라의 중심지 역할을 한 국읍 혹은 유력한 마을과 같은 보통명사로 사용되었다고 여겨진다. 위례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13세기 말엽에 쓰여진 『삼국유사(三國遺事)』에서는 사천(蛇川) 즉 현재의 직산(稷山)이라고 하였으며, 이는 조선중기까지 계승되었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직산현조(稷山縣條)를 보면, 세종 11년(1429) 7월에 직산현에 온조왕의 묘가 세워졌다고 한다. 이후 조선후기 이전까지의 여러 지리지에서도 직산현의 성거산 북쪽 5리쯤에 있는 흙으로 쌓은 성을 위례성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성의 둘레는 1,690척, 높이는 8척, 성 안에는 우물

등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위례성의 규모와 성곽의 상태를 비교적 자세하게 서술하였다.

그러나 위례성의 위치가 직산이라는 조선중기까지의 인식은 조선후기에 쓰여진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대동지지(大東地誌)』 등에서 보면 삼각산(三角山, 현재의 북한산) 동쪽 기슭의 한양동(현재의 미아리고개 근처)이라고도 하였다. 이후에는 위례성의 위치를 한강 북쪽에서 찾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나, 아직까지 그 위치에 대해서는 삼각산 동쪽 기슭·세검동 일대·서울 강북·중량천 일대라고 하는 등 정설화되지 못했다.

> 온조왕 13년(기원전 6)에 우리 나라의 동쪽에는 낙랑이 있고, 북쪽에는 말갈(靺鞨)이 있어 영토를 침략하니 편안한 날이 없다. 그리고 불길한 징조가 자주 나타나고 국모(國母)가 돌아가고 편안할 수 없는 형세이니 반드시 나라를 옮겨야 하겠다. 어제 내가 한수(漢水, 한강)의 남쪽을 순시하여 살폈는데, 땅이 기름져 거기에 도읍을 정하여 영원히 안정을 도모할 것이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왕 13년조)

이 자료는 백제가 낙랑·말갈의 침략, 국모의 사망과 같은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국가의 체제정비가 절실하게 요구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도성(都城)인 위례성을 온조왕 14년(기원전 5) 정월에 한수 남쪽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이것은 도성의 위치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옮겼다는 것으로 위례성의 방위를 알 수 있게 한다. 이런 상황을 미루어 보면 이 시기 백제의 도성은 그 위치를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강 북쪽의 하북위례성(河北慰禮城)과 한강 남쪽의 하남위례성으로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온조집단이 남하하여 백제를 건국한 터전인 위례성은 삼한사회의 국읍에서 행해지던 물자의 집산과 분배의 기능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건국의 주체들은 부여에서 경험했던 선진문화의 역량을 바탕으로 점차 주변의 여러 세력집단들을 통합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위례성은 점차 백제 도성의 명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하겠다.

3. 한성(漢城)과 성남 지역

백제는 온조왕 13년에 하남위례성으로 천도한 이후 성남 지역을 비롯하여 한강 하류의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즉 성남 지역을 포함한 한강하류 지역의 비옥한 평야지대인 관계로 농업생산량의 증대, 비류가 사망한 이후 그 지역의 주민들을 통합한 요인과 나아가 한강 북쪽의 민호(民戶)를 옮기

는 등 인구의 증가 요인으로 지배기반을 재편성하여 갔던 것이다. 특히 한군현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성남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은 교통의 중심지로서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한강을 통한 해운(海運)은 소금과 같은 중요한 물자의 집산과 분배를 주도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백제에 대한 낙랑과 말갈의 잦은 침입은 한편으로는 지배력의 강화와 내부 결속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백제는 마한의 여러 나라들보다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백제는 점차 소국(小國)의 단계에서 벗어나 북쪽은 패하(浿河, 예성강), 남쪽은 웅천(熊川, 안성천 혹은 금강?), 서쪽은 대해(大海, 서해), 동쪽은 주양(走壤, 춘천)까지 영토가 확장되었다.

백제는 영토와 지배기반이 확대되자 도성인 위례성은 여러 집단간의 물자 교류와 분배를 주도하는 국읍으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정복하고 흡수된 지역들을 지배하는 새로운 기능과 권위가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일반 명사적인 성향이 있는 위례성의 명칭을 변경시킬 필요성을 갖게 된 것이다. 한성의 명칭에 대해서는 욱리하(郁利河)·아리수(阿利水)를 한수·한강의 별칭으로 보고 욱리·아리·위례 등이 같은 지명으로도 사용되었다는 견해가 있다. 또는 욱리하와 아리수가 한강의 여러 지류 중의 하나를 지칭한다고 보고, 어라가(於羅瑕)가 왕·대를 의미한다는 데 착안하여 어라와 위례가 음이 유사하다고 하여 위례성을 왕성(王城) 혹은 대성(大城)이라는 의미가 포함된 명칭을 한자화하였다고도 한다. 보통 명사적인 성향을 갖고 있던 위례란 지명이 '크다·대(大)'를 나타내는 '한'을 한자화하여, 여러 세력집단들의 중심 거주지 혹은 정복한 마한 여러 나라들의 국읍과 구별하고 왕성으로서의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는 권위를 갖기 위하여 '한성'으로 표기하였다고도 한다. 이처럼 위례성에서 변경된 도성의 명칭인 한성은 온조왕 13년부터 문주왕 원년(475)에 웅진(熊津, 현재의 공주)으로 천도하기까지 백제의 왕성 혹은 도성의 명칭으로 500여 년간 사용되었다. 이러한 도성의 명칭 변경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백제의 새로운 도약 등과 같은 여러 의미를 내포한다는 것이다.

한성의 위치는 광주 고읍(廣州 古邑)·광주의 춘궁리·남한산성의 북쪽 기슭·몽촌토성·풍납리토성·이성산성 등과 같이 여러 견해가 있다. 이 중에서 몽촌토성(夢村土城)은 성내천을 끼고 완만한 산록(山麓)으로 둘러 있어, 토루(土壘)만 쌓으면 훌륭한 방어시설이 될 수 있는 지형이다. 이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토루가 여러 차례의 증축이 확인되었고, 3~5세기 무렵의 다양한 성격의 유물이 앞서 어느 지역보다 풍부하게 발굴되었다. 그 인근 지역인 가락동·석촌동·방이동 일대에서도 이 시기에 해당하는 적석총(積石塚)과 고분군(古墳群)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앞서 온조왕이 한수의 남쪽에서 도성의 적합지를 찾았을 때 최우선적

으로 고려되었던 것이 낙랑과 말갈의 침략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에 적합한 지형과 부합되고 있다. 이런 점들은 몽촌토성 일대가 백제 한성시대의 도성으로 간주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이 시기의 성남 지역은 남한산성의 낮고 완만한 구릉과 탄천을 통하여 곧바로 한성과 연결되는 위치에 있었다.

고대사회에서는 국왕이 자신의 세력기반을 확대하고 정복지역을 위무하는 차원에서 사냥을 자주 벌였다. 그 가운데 기루왕(己婁王)·개루왕(蓋婁王) 때에는 주로 한산 일대에서 사냥하였다. 이런 점은 성남 지역을 포함한 남한산성일대가 국왕이 직접 관장하는 지역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었며, 도성인 한성과 더불어 백제사회를 이끌어 가는 중심 지역이었다고 하겠다.

4. 한산(漢山)과 성남 지역

"온조 일행이 마침내 한산에 이르러 부아악(負兒嶽)에 올라 살 만한 곳을 바라보았다."
"(온조가) 한수(漢水, 한강) 남쪽을 순찰하고 …… 한산 아래에 책(柵)을 세우고, 위례성의 민호(民戶)를 옮기고, 성궐(城闕)을 지었다"

이 자료들은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왕조에서 인용한 것이다.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한산이란 지명은 온조가 도성의 적합지를 물색하는 가운데 등장한다. 한산은 일반 명사인 '큰산·대산(大山)'이란 의미일 뿐만 아니라, 한수 남쪽의 특정한 산의 명칭을 지칭하고 있다. 이 지역을 현재의 북한산·남한산·검단산·용인의 부아산이라고 하는 등 여러 견해가 있다.

온조는 하남위례성으로 수도를 옮기는 것(遷都)을 나라를 옮기는 것(遷國)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다. 그것은 우선적으로는 낙랑과 말갈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백제는 아직까지 건국의 기반이 확립되지 못한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 온조 집단이 천도를 단행했다는 것은 대내적인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의미가 내포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당연히 여러 세력집단의 이해가 상충되었을 것이며, 그 결과 비류계가 미추홀로 분리되어 나간 것으로 이해된다.

온조왕은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서 늙은 노파(老軀)가 남자로 변하고, 다섯 마리의 호랑이가 성 안으로 들어오는 괴이한 사건, 그리고 갑작스런 국모(國母)의 사망이라는 괴이성 등을 내세워 천도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집단과의 갈등을 약화시키고 무마하였다. 또한 당시의 사정으로 볼 때 올라가기가 거의 불가능한 부아악에 천도 지역을 결정하였다. 이것 역시 천도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이었다. 고대사회에서는 신앙 중에서 산악신앙(山嶽信仰)이 널리 퍼져 있었다. 산악신앙의 개념에서 신성시되는 부아악을 한산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여러 집단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대내적인 결속력의 강화와 지배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서 부아악은 통치 이데올로기의 창출을 위한 신성한 장소로 부각되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백제의 국가 체제가 갖추어 지고 영토가 넓어져 감에 따라 고대국가의 통치 이데올로기인 자연신앙 체계는 그 한계성을 갖게 되었다. 온조왕에게는 제천사지(祭天祠地, 하늘과 땅에 제사)를 주관하여, 사상적인 통합과 더불어 더욱 세련된 통치 이데올로기를 구축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온조왕은 제천사지를 거행하기 위한 제단(祭壇)을 설치하고, 그것을 대단(大壇, 온조왕 20년에 설치)과 남단(南壇, 온조왕 38년에 설치)으로 나누어 제천사지를 거행하였다.

제천사지를 행할 때 대단을 설치한 기사는 확인할 수 있지만, 남단에서 제천사지가 이루어 질 경우에는 그 설치 기사를 찾아 볼 수 없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남단은 영구적인 시설물이라고 할 수 있다. 남단은 그 위치를 확실하게 비정할 수 있는 자료나 근거를 찾아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온조집단이 자연신앙의 관념 속에서 신성시하였던 한산이 제천사지를 행하는 영구적인 제단을 쌓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었다고 여겨진다. 즉 남단의 위치가 곧 한산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한산은 온조집단의 자연신앙과 연관되어 신성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천사지의 개념을 포함시켜 사회발전에 따른 이데올로기를 창출하고 운영하는 신성한 지역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이에 한산에는 영구적인 제천사지를 거행하는 제단이 설치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건물이나 관부가 설치·운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근초고왕(近肖古王) 26년에는 도성을 한성에서 한산으로 옮겼다. 이것은 한산의 성격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한산으로의 천도는 이 시기 고구려와의 전투에서 연승함과 더불어 여기에 수반되는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근초고왕(近肖古王)의 왕위계승의 문제로 고이왕계(古尒王系)에서 초고왕계(肖古王系)로의 전환이었다.

왕위계승의 변화는 정치주도권에 관계된 왕비를 배출한 가문인 해씨(解氏)와 진씨(眞氏)의 상관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되었다. 근초고왕은 평양전투에서 고구려의 고국원왕을 전사시키고 대승을 거두었고, 이어서 전라도 지역에서 마한의 잔여세력을 정복하여 백제의 영토를 경기도·충청도·전라도까지 확대시켰다. 그는 정복군주로서의 위용을 대내외에 과시하려 하였고, 그 일환으로 왕위계승을

형제상속에서 부자상속으로 전환시켜 왕권을 강화시켜 나갔다. 또한 이에 따른 왕권의 정치적 위상을 질적인 면에서 변화시키려 하였다.

근초고왕은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는 하였지만 고구려의 보복이 두려웠고, 대내적으로는 왕권의 정치적 위상을 더욱 높여 기존의 귀족연합체제의 틀을 벗어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귀족세력의 정치적 도전을 무마하고 왕권의 강화를 시도하려는 타개책으로 한산으로 천도하였던 것이다. 이는 곧 남한산성이 한성 다음으로 도성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한산으로 천도한 근초고왕의 정치적 의도는 역사서인 『서기(書記)』를 편찬하여 왕권의 절대성과 정당성의 확보하였다.

그러나 왕권강화에 따른 여러 정치세력들의 도전 또한 만만하지 않았을 것이다. 근구수왕(近仇首王) 재위 기간의 절반 정도가 고구려와 긴장관계가 계속되는 외환(外患), 이변(異變), 심한 기근(饑饉)의 기사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여러 정치세력의 불만 및 그들과의 대립관계가 표면화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정치세력 간의 대립과 갈등은 지금까지 제천사지를 통해 창출된 통치 이데올로기의 한계성에서 야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왕 중심의 정치체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요구되었다. 그 결과 전통적인 토속신앙을 포용하고, 왕실과 밀접하게 관계하였던 불교를 침류왕이 전격적으로 수용하였으며, 나아가 한산에 불사(佛寺)를 창건하고 10인의 승려를 두어 국왕을 정점으로한 정치체제의 정비를 강화할 수 있는 사상적인 배경으로 삼았다. 이런 결과 한산은 백제 사회에서 불교를 보급하는 중심지가 되었다.

한산은 국왕을 정점으로 여러 정치세력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왕권강화의 내용으로 한 새로운 정치질서를 재편하는 왕도로써의 성격이 추가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남단에서 제천사지를 행한 한산의 성격에 불교의 중심지란 내용이 첨가되면서 한성시대의 백제사회를 이끌어 가는 신성한 성지로, 불교사상의 중심지로써 그 의미가 웅진으로 천도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 결과 한산의 성격은 후대에까지 영향을 끼쳐, '한산주의 치소(治所)는 광주(廣州)에 있다' 혹은 '한산은 지금의 광주다' 라고 하여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산록이 연해지는 주변지역을 포함한 지역 명칭으로 불리워졌던 것이다. 백제 한성시대 남한산성을 끼고 있던 성남 지역은 백제 사회의 중심지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역사적 맥락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여 백

고려시대 성남 지역

신 안 식

오늘날의 성남 지역은 과거 백제 한성시대(漢城時代)의 중심지가 되는 등 삼국시대부터 정치·군사적으로 중요시되던 곳이었고, 통일신라 후기까지는 한주(漢州)라고 불렸다. 이어 후삼국 시대에는 효공왕 4년(900)에 왕건(王建)이 광주(廣州)와 충주(忠州) 등 중원(中原) 지역을 평정할 때 이 곳의 세력가들이 자발적으로 귀부함으로서 고려의 영역에 포함되었다. 후삼국 통일 이후 고려 태조 23년(940)에 비로소 광주로 개칭되었고, 성남 지역 또한 광주의 범위 안에 포함되었다.

〈고려시대 성남시의 변천〉

연 대	명 칭 변 경
태조 23년(940)	廣州로 개칭
성종 2년(983)	廣州牧으로 개편
성종 14년(995)	奉國軍節度使 설치, 關內道에 소속
현종 3년(1012)	安撫使 설치
현종 9년(1018)	廣州牧으로 개편
충선왕 2년(1310)	知州事로 강등
공민왕 5년(1356)	廣州牧으로 복구

1. 고려시대의 교통로와 성남 지역

과거 성남 지역이 위치하였던 광주 지역은 우리 나라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고대시대부터 지리적·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다. 고려시대에는 이러한 국토의 중심을 정점으로 해서 전국에 525개의 역(驛)을 설치하였고, 이 역들은 22역도(驛道)로 묶여 있었다. 그 가운데 8개는 수도인 개경의 북쪽에, 나머지 14개는 남쪽에 있었다.

*명지대학교 강사

개경에서 황해도 방면으로 나가는 길로는 서해안을 따라 산예도(狻猊道)가 있었고, 내륙으로는 금교도(金郊道)와 도원도(桃源道)가 있었다. 개경에서 평양으로 가는 길에는 금교도·산예도·절령도(岊嶺道)가 있었고, 평양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뻗어 나간 여러 길이 흥교도(興郊道)였다. 이 길을 따라 국경지대인 의주 방면으로 뻗은 길이 흥화도(興化道)였고, 평북 내륙지방으로 이어진 길이 운중도(雲中道)였다. 개경과 원산 지역을 이어주던 도원도와 연결되었던 길이 삭방도(朔方道)였다.

개경에서 경기 남부지역으로 내려가는 길이 청교도(靑郊道)였고, 이 길을 따라 춘주도(春州道)와 명주도(溟州道)를 통해 강원도로, 광주도(廣州道)와 평구도(平丘道)는 각기 충청도와 경상도로 통할 수 있었다. 그 아래로는 충주청주도(忠州淸州道)·전주공주도(全州公州道)·승주나주도(昇州羅州道) 등 3개의 역도가 내륙지방과 연결되어 있었다. 남해안 지역에는 전라도 쪽에 남원도(南原道), 경상도 쪽에 산남도(山南道), 동남 해안을 끼고 금주도(金州道)가 있었다. 경상도 내륙 지역에는 경산부도(京山府道)·상주도(尙州道)·경주도(慶州道)가 있었다.

성남 지역이 포함되었던 광주도의 관할 지역은 한양(漢陽) — 이천(利川) — 음죽(陰竹) — 충주로 이어지는 역로(驛路)와 한양 — 양재(良才) — 용인(龍仁) — 죽산(竹山) — 음성(陰城) — 괴산(槐山) — 연풍(延豊)으로 이어지는 역로였다. 여기에 속했던 역으로는 덕풍역(德豊驛)을 비롯하여 광주의 경안역(慶安驛)·장가역(長嘉驛)·안업역(安業驛)·남산역(南山驛), 과천(果川)의 양재역(良梓驛), 용인의 금령역(金嶺驛), 죽산의 좌찬역(佐贊驛)과 분행역(分行驛), 이천의 오행역(五行驛)과 안리역(安利驛), 음죽의 무극역(無極驛), 충주의 요안역(遙安驛)과 단월역(丹月驛), 연풍의 안부역(安富驛) 등이 있었다. 이러한 두 역로 사이에 위치한 곳이 오늘날의 성남 지역이었고 낙생역(樂生驛, 현재의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이 위치하고 있었다.

역도는 중앙과 지방을 연결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각종의 공문서를 보낼 때도 길을 통해야 하였고, 조세를 거둘 때도 길을 통해야만 하였다. 국왕이나 관리도 이러한 길을 따라 지방으로 갈 수 있었고, 군사나 상인도 이 길을 이용하였다. 이런 점에서 성남 지역이 포함된 광주 지역은 수도인 개경과 남부 지방을 이어주는 교량적인 역할로 그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다고 하겠다.

2. 비부(妃父) 왕규(王規)의 야망

성남 지역이 포함된 광주 지역이 고려시대에 주목받게 된 계기는 고려초기의 정치적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왕건은 후고구려의 왕 궁예(弓裔) 밑에서 양주(楊州) 등지를 공략하고 이어 청주(淸州)·충주·괴산·남양(南陽) 일대를 점령하는 대활약을 보였다. 나주(羅州)를 공략한 다음에는 해군대장군에 임명되기도 하였다. 그는 중앙에 올라와서는 수상격인 시중(侍中)의 직책에 임명되기도 했지만, 궁예의 폭정이 심해지자 위험을 피하려고 다시 나주로 내려가 전초 기지를 수비하였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다시 철원(鐵原)으로 돌아와 홍유(洪儒)·신숭겸(申崇謙)·복지겸(卜智謙)·배현경(裵玄慶) 등 여러 장수들과 더불어 정변을 일으켜 왕위에 올라 고려를 건국하고, 수도를 자신의 지역적 기반이었던 송악(松岳)으로 천도하였다. 이후 그는 후백제의 왕 신검(神劍)과 일리천(一利川)의 전투에서 최후로 승리함으로서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그러나 통일 왕조를 안정시키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지방의 강대한 호족(豪族) 세력들은 중앙의 간섭에서 벗어나 그들의 세력이 미치는 지역을 직접 지배하며 독자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병부(兵部)·창부(倉部) 등과 같은 관부를 설치하여 지방민을 통치하였다. 이러한 호족들은 그 자신의 지역적 지배기반을 유지하는 가운데 고려 왕조에 참여함으로서 왕권에 부담이 되었다.

태조는 이러한 호족들을 견제하고 동시에 왕권을 강화하는 방편으로 혼인정책(婚姻政策)을 폈다. 그 결과 그는 29명의 왕비를 거느리게 되었다. 신혜왕후 유씨(神惠王后 柳氏)와 장화왕후 오씨(莊和王后 吳氏)는 그가 국왕이 되기 전에 결혼한 부인들이었다. 그 나머지 왕비들은 각 지역의 유력한 세력이었던 부모의 정치적 배경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즉 신명순성태후 유씨(神明順成太后 劉氏)는 충주의 호족인 내사령 유긍달(內史令 劉兢達)의 딸이었고, 광주원부인(廣州院夫人)과 소광주원부인(小廣州院夫人) 왕씨(王氏)는 광주의 호족인 대광 왕규(大匡 王規)의 딸이었으며, 예화부인 왕씨(禮和夫人 王氏)는 춘주인(春州人) 대광 왕유(王柔)의 딸 등이었다.

태조가 국왕으로 즉위한(918) 직후 정치적인 반란이 수개월 동안 여러 차례 일어났다. 때문에 태조는 자신의 지원세력을 광범위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었고, 그의 아내 29명 중 25명과의 혼인도 이 시기를 전후해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들의 출신지는 황해도와 경기도가 12명이었고, 그 다음이 경상도 그리고 기타 충청·강원·전라도 지역에 고루 분포하였다. 즉 고구려 지역에서 18명, 백제 지역에서 2명, 신라 지역에서 6명이었으며, 한 가문에서 2~3명의 왕비가 나올 수도 있었다. 이러한 태조의 혼인정책은 왕권의 측면에서는 호족세력들을 그 자신을 중심으로 규합시키는 것이었던 반면, 호족의 입장에서는 왕권과 결탁하여 자신의

권력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광주 출신의 왕규 역시 태조·혜종대에 막강한 세력으로 군림하고 있었다.

고려사(高麗史) 왕규 열전에서 보면 그는 광주 출신이었지만, 그의 출생과 가계가 누락되어 그 행적을 자세히 알 수는 없다. 그는 후삼국 시기에 광주를 기반으로 했던 호족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는 궁예의 명령을 받고 중원 지역의 공략에 나선 왕건에게 투항한 것으로 되어 있다. 왕건이 광주에서 광주세력과 교전을 벌여 승리하였고, 이를 계기로 광주·충주·남양·피산 등지의 세력들이 그에게 항복하였던 것이다. 이후 왕규는 태조를 섬겨 대광(大匡)의 지위에까지 올랐다. 대광은 왕실에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던 고려초기 최고의 지위였다. 그가 대광이 되었다는 것은 태조 대의 권력구조에 있어서 그 자신이 강력한 세력이었음을 보여주며, 태조 역시 그의 두 딸을 제15비 광주원부인과 제16비 소광주원부인으로 맞아 들였다. 제16비는 아들도 낳았는데, 그가 바로 광주원군(廣州院君)이었다.

그러나 태조의 혼인정책은 그의 사망과 더불어 왕위를 둘러싼 치열한 암투를 불러 일으켰다. 특히 왕규는 태조에 이어 즉위한 혜종의 장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손자 광주원군을 왕위에 세우고자 두 차례에 걸쳐 혜종을 암살하려고 하였다. 한번은 왕규가 밤에 혜종이 깊이 잠든 것을 살피고 그의 부하를 왕의 침실에 잠입시켰다. 그 자객이 혜종을 암살하려던 순간 혜종이 잠에서 깨어나 그를 때려 죽였다. 또 한번은 어느 날 혜종이 몸이 편찮아 신덕전(神德殿)에 있었는데, 최지몽(崔知夢)의 조언으로 거처를 몰래 중광전(重光殿)으로 옮겼다. 왕규는 그날 밤 직접 혜종을 해치려고 했지만 최지몽의 기지로 실패하고 말았다. 이렇게 혜종에 대한 두 차례의 암살 기도가 왕규의 소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혜종은 왕규의 죄를 문책하거나 응징하지 않았다. 그것은 왕규가 그의 장인이라는 이유 때문이기보다는 왕규를 응징할 만한 세력기반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현실적으로 왕규의 세력이 혜종의 왕권을 압도하였던 것이다. 이런 점은 혜종의 즉위 과정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918년 42세의 나이에 왕위에 오른 태조는 신혜왕후 유씨와 장화왕후 오씨 2명의 부인이 있었으나, 아들로는 장화왕후 소생의 무(武, 제2대 혜종)가 유일하였다. 태조는 즉위한 뒤 곧 7살의 무를 후계자로 정하고자 하였다. 후계자의 책봉을 서두른 이유는 무엇보다도 왕권의 안정을 위해서였다. 이런 태조의 뜻을 헤아린 박술희(朴述熙)의 주청으로 태조 4년(921) 무는 10살의 나이에 후계자로 책봉되었다. 이처럼 태조가 뜻을 세운 지 3년 뒤에나 책봉이 가능했던 것은 그만큼 혜종의 외가가 미약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태조가 박술희를 혜종의 후견인으로 택했던 것은 그가 유력한 호족세력으로서 강력한 세력기반을 가지고 있었다는 판

단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태조의 사망과 박술희의 부상은 여타 호족세력들의 결집이 이완되어 대립을 가속화시켰다. 박술희가 왕권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던 왕규와 대립하였던 것은 자연스런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태조의 왕비가 많았고 그 소생 또한 많았다는 것 역시 왕권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권력쟁탈을 벌이게도 하였다. 그런 가운데 왕규가 혜종을 암살하려는 사건이 벌어졌고, 뒤이어 혜종이 사망하자 태조의 아들 요(堯, 제3대 정종)가 서경(西京)의 왕식렴(王式廉) 세력을 끌어들여 왕권을 위협했던 왕규를 제거하고 아울러 그의 부하 300여명을 몰살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광주 출신의 왕규는 태조·혜종대에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것은 그의 개인적인 역량도 크게 좌우하였겠지만, 또 한편으로 개경의 남부 지역에 있어서 광주 지역이 차지했던 지리적·전략적인 면과 그로 인한 왕실과의 혼인관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집권체제의 정비와 성남 지역

고려초기 호족세력의 득세와 그로 인한 왕권의 약화는 국가 권력의 안정을 기대할 수 없었다. 따라서 왕권의 안정과 강화가 무엇보다도 시급하였다. 고려의 왕권은 태조대에는 어느 정도 그 안정성을 유지하였지만, 그의 죽음과 동시에 왕위를 둘러싼 암투로 인하여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제4대 광종의 개혁을 통해서 비로소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광종은 장군이나 호족의 세력 증대를 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을 실시하였고, 과거제도(科擧制度)를 시행하여 새로운 인물들을 등용하였으며, 아울러 이러한 개혁에 불만을 가지거나 걸림돌이 되는 공신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하는 등 왕권 강화에 박차를 가했다. 그에 이어서 고려의 집권체제를 안정시킨 것은 제6대 성종이었고, 이로부터 정치제도와 사회구조가 정비되기 시작해서 제8대 현종대를 거쳐 제11대 문종 대에 이르러서는 최종적인 완성을 보게 되었다.

고려의 중앙관제는 중서성(中書省)·문하성(門下省)·상서성(尙書省)의 3성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었다. 3성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서성과 문하성이었으며, 이를 합쳐서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 혹은 재부(宰府)라고도 했다. 중서문하성은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2품 이상의 재신(宰臣)과 정책을 건의하고 그 잘못을 간쟁(諫諍)하는 기능을 담당한 3품 이하의 낭사(郎舍)로 구분되었다. 상서성은 정책의 시행을 담당하였는데, 그 실무를 담당한 것이 이부(吏部)·병부(兵部)·호부(戶

部)·형부(刑部)·예부(禮部)·공부(工部) 등 6부(部)였다.

3성과 더불어 중요한 지위를 지녔던 것이 중추원(中樞院)이었다. 이것은 성종 때 처음 설치된 것으로 왕명의 출납(出納)과 군국기무(軍國機務)를 장악했던 곳이다. 중서문하성과 중추원은 양부(兩府) 또는 재추(宰樞)라고 하였는데, 이들의 고관이 모여서 국가의 중대사를 회의로 결정짓는 것을 재추회의(宰樞會議) 혹은 도병마사(都兵馬使)라고 하였다.

그밖에 중요한 관부로는 정치의 잘잘못을 논하고 관리의 잘못을 규탄하는 임무를 맡은 어사대(御史臺)가 있었다. 어사대는 중서문하성의 낭사와 함께 대간(臺諫) 또는 성대(省臺)라고 하여, 국왕의 관리 임명이나 법률의 개폐 등에 서경(署經)하는 권한을 행사하여 왕권의 전제성을 규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고려의 중앙집권적인 정치제도는 왕권에 유리한 것이었다. 특히 6부가 국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제도는 국가 권력이 국왕으로 집중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고려의 정치권력은 귀족들이 독점하고 있던 양부의 재추에게 집중되었고, 대간의 간쟁과 서경도 이들 관리들의 커다란 권한이었다. 이런 점에서 고려의 정치제도는 국왕과 귀족 상호간에 권력의 조화 위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중앙관제의 정비와 더불어 지방제도도 정비되기 시작했다. 고려의 지방제도는 군현제도(郡縣制度)를 근간으로 하여 중앙에서 외관(外官)을 파견하는 중앙집권적인 체제를 이루고 있었다. 건국 초기의 지방은 중앙에서 파견하는 수령(守令) 대신에 지방 호족들의 자치에 맡겨져 있었다. 그러다가 성종 2년(983) 전국에 걸쳐 12목(牧)을 설치하여 중앙의 관리가 외관으로 파견되면서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이 때 외관이 파견된 지역은 양주·광주·충주·청주·공주(公州)·해주(海州)·진주(晉州)·상주(尙州)·전주(全州)·나주·승주(昇州)·황주(黃州) 등이었다. 이러한 조치는 지방세력을 억제하고 중앙의 향촌사회 지배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함이었다.

성남 지역이 포함된 광주 지역은 광주목으로 설치될 때부터 중앙에서 외관이 파견되었고, 이들로 하여금 현지의 호장(戶長) 등 향직(鄕職) 계통의 재지세력(在地勢力)들을 지휘 감독하게 하였다. 성종 6년(987)에는 경학박사(經學博士)·의학박사(醫學博士) 각 1명씩이 임명되어 교육을 담당하는 한편, 불교적 교양이나 의술이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천거하기도 하였다. 특히 성종 10년(991)에는 지방의 중요한 곳에 별호(別號)를 제정하였다. 조선시대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경기도 광주목조(廣州牧條)에서 보면, "성종 10년 신묘(辛卯)에 주군(州郡)의 별호를 정하여, 광주는 회안(淮安)이라 하였다."라고 하였다. 이는 성종의 유교적 중앙집권책과 한화정책(漢化政策)을 보여주는 것이었으며, 광주가

그 표본이 되었던 것이다. 성종 12년(993)에는 광주목에 상평창(常平倉)을 설치하고 공수시지(公須柴地)가 지급되었는데, 이는 관청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조달 방법이 확립되었음을 의미하였다. 여기에 파견된 관원으로는 목사(牧使)·부사(副使)·판관(判官)·사록(司錄)·참군사(叅軍事)·의사(醫師)·문사(文師)가 각 1인씩이었다. 그리고 외관 밑의 향직으로는 호장·부호장(副戶長)·사병(司兵)·사창(司倉)·촌장(村長) 등이 있었다.

성종 14년(995)에는 12주절도사(州節度使)와 병행하여 10도제(道制)를 실시하였다. 10도제는 당(唐) 나라의 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전국을 관내도(關內道)·중원도(中原道)·하남도(河南道)·강남도(江南道)·영남도(嶺南道)·산남도(山南道)·영동도(嶺東道)·해양도(海陽道)·삭방도(朔方道)·패서도(浿西道) 등 10도로 나눈 것이었다. 이 때의 도는 지방 행정구역의 명칭이기보다는 감찰 내지는 순찰 구획이었다고 생각된다. 이 행정구획의 개편에서 광주목은 관내도에 예속되었다. 그리고 12목제(牧制) 대신 12주절도사제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12목의 행정구역에 목사를 절도사로 대체한 것이었으며, 그 이외의 지역에는 단련사(團練使)·방어사(防禦使)·자사(刺史) 등이 파견되었다. 목사가 행정적 성격이 강한 반면 절도사 등은 군사적 성격이 강하였다. 이것은 성종 12년(993)에 거란(契丹)의 제1차 침입을 계기로 전국을 보다 강력한 군사 동원체제로 전환하려 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북방 지역에는 군사적 성격이 강한 방어사가, 중부 지역에는 도단련사(都團練使)와 단련사가, 그리고 남부 지역에는 행정적 성격이 강한 자사가 파견되었던 것이다. 그에 따라 광주목의 명칭도 봉국군(奉國軍)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성종 14년의 지방제도 개혁은 중앙집권화 정책의 일환이었다고 하겠다.

현종 원년(1010)에는 거란의 제2차 침입으로 개경이 함락 당하자 국왕이 광주로 잠시 피신한 적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그 다음 해에 절도사가 폐지되고 안무사(安撫使)가 설치되었는데, 이는 지방통치가 군정체제에서 일반 민정체제로 복귀되었음을 의미하였다. 현종 9년(1018)에는 다시 안무사를 파하고, 4도호부사(都護府使)·8목사(牧使)·56지주군사(知州郡事)·28진장(鎭將)·20현령(縣令)의 외관조직으로 개편되면서 지방제도의 정비가 일단락 되었다. 이 때의 8목은 지방행정 단위로서 광주·청주·충주·전주·나주·황주·상주·진주 등이었다.

고려시대에는 전국에 약 500개의 군현(郡縣)이 존재하였지만 모든 군현에 외관이 파견된 것은 아니었다. {고려사} 지리지(地理志)에서 보면 고려전기에는 외관이 파견된 주현(主縣)이 130개였는데 비하여 그렇지 못한 속현(屬縣)이 373개나 되었다. 이는 중앙 정부에 의한 향촌사회 지배가 아직도 불완전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 속현들은 외관이 파견된 주현에 예속되어 중앙의 간접지배를 받는 행정체계를 이루었다. 광주목 역시 천녕군(川寧郡)·이천군(利川郡)·죽주(竹

州)·과주(果州)의 4속군과 지평현(砥平縣)·용구현(龍駒縣)·양근현(楊根縣)의 3속현을 관할하였다.

한편 5도(道)·양계(兩界)를 주축으로 했던 고려전기의 지방제도는 무인집권기(武人執權期)와 원 간섭기(元干涉期)라는 혼란기를 겪으면서 점차 변질되었다. 5도의 안찰사(按察使)가 지방행정기구로 고정되어 임기가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었고, 관품도 5~6품에서 양부의 대신(大臣)으로 임명하여 행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였다. 북계(北界)의 병마사(兵馬使)도 원 간섭기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남부지역의 장관과 같은 성격으로 변질되었고, 공양왕 때에는 전국이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士)의 체제로 변화하였다. 이런 가운데 광주목은 충선왕 2년(1310)에 전국 주군(州郡)의 읍호(邑號)를 고칠 때 지주사(知州事)로 강등되어 8목에서 제외되었다가, 공민왕 5년(1356)에 목(牧)으로 복구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보았듯이 고려시대 전기간을 통하여 성남 지역이 포함된 광주는 행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관부였다고 할 수 있다.

4. 성남 지역과 연고를 맺은 인물

성남 지역과 연고가 깊은 인물로는 이집(李集)과 이지직(李之直)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고려후기의 신흥사대부(新興士大夫) 출신으로 이해된다. 중앙에서 권력을 독점하던 권문세족(權門世族)들이 대부분 중앙에 거주하던 부재지주(不在地主)였던데 반해, 이들은 자신의 향촌에서 소규모의 자영 농지를 가진 중소지주(中小地主)였다.

그리고 성남 지역은 충신들과의 인연도 깊은 고장이다. 이 때의 충신이란 이성계(李成桂)의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고 고려 왕실에의 충절을 지킨 인물들을 말한다. 신흥사대부 중에서 정도전(鄭道傳)과 조준(趙浚) 등 이른바 급진개혁파 세력은 무장세력인 이성계와 결탁하여 역성혁성(易姓革命)을 단행하였다. 이에 비해 김약시(金若時)와 조견(趙狷) 등은 그들과 합세하지 않고 고려왕조를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인물들이었고, 성남 지역에 그 무덤이 있거나 연고를 가지고 있다.

1) 이집(李集, 1327~1387)

본관(本貫)은 광주, 초명(初名)은 원령(元齡), 자(字)는 성노(成老)·호연(浩然), 호(號)는 묵암자(墨岩子)·둔촌(遁村), 아버지는 이당(李唐), 정몽주(鄭夢

周)·이색(李穡)·이숭인(李崇仁) 등과 교류하였다.

일찍이 그의 선조들은 광주의 역리(驛吏)로 살아왔는데, 당시 역리는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그 집안이 이 지방의 향리(鄕吏)로 진출하면서 과거에 합격하여 관직에 오를 수 있었다. 이집은 안보(安輔)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특히 경서(經書)에 밝았다. 충목왕 3년(1347) 문과에 급제하여 해박한 지식과 고상한 지절(志節)로 이름을 떨쳤다.

공민왕 17년(1368) 왕의 측근인 신돈(辛旽)에게 반항하여 신돈이 그를 죽이려고 하므로 아버지를 업고 영천(永川)으로 도망가 최윤도(崔允道)의 집에서 은거하였다. 이후 신돈이 주살되자 개경으로 돌아와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에 임명되었지만, 곧 사직하고 여주의 천녕현(川寧縣)에서 독서와 농경으로 세월을 보냈다. 이때 {시편신립(詩篇新粒)}에 대한 질문서를 정몽주에게 보내 문사들을 경탄케 하였다. 그가 죽자 정몽주와 이숭인 등은 시를 지어 애도하기도 했다. 저서로는 [遁村遺稿]가 있다. 그의 묘는 현재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산7-1에 있다.

2) 이지직(李之直, 1354~1419)

본관은 광주, 자는 백평(伯平), 호는 탄천(炭川), 아버지는 이집(李集)이다.

그는 정몽주(鄭夢周)에게서 학문을 배웠고, 우왕 6년(1380) 문과에 급제하여, 한림(翰林)과 교리(校理)의 관직을 거쳐 강원도와 충청도의 관찰사를 역임하였다. 이후 조선 태조 7년(1398)에 보문각 직제학(寶文閣直提學)으로 있으면서 소도(昭悼)의 변란이 있자, 이를 강력하게 간하다가 금고(禁錮)의 처벌을 받았다. 이후 광주의 탄천(炭川)에 은거하며 독서를 일삼았는데, 사람들이 그를 탄천선생이라 하여 그의 호가 여기에서 연유된 듯하다. 그의 묘는 현재 성남시 하대원동 산3-1에 있다.

3) 김약시(金若時, 1335~1406)

본관은 광산(光山), 호는 음촌(陰村), 광성군(光城君) 김정(金鼎)의 셋째 아들이다. 우왕 9년(1383) 대과(大科)에 급제하였고, 관직은 진현관 직제학(進賢館直提學)을 지냈다.

공양왕 4년(1392)에 고려가 망하자 광주의 금광리 산곡간(金光里 山谷間, 현재의 신구전문대학교 자리)에 은거한 이후 그곳에서 일생을 마쳤다. 현재의 중원구 금광동(金光洞)이란 지명은 광산 김씨가 사는 마을이라 하여 인근 주민들이 금광리라고 불러온 데서 생긴 것이다. 또한 당시 사람들은 이곳을 부전어동(不傳語

洞)이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그것은 김약시가 산골짜기에 나무를 얽어 엉성한 집을 짓고 살았지만 그 차림새가 남들과 달라,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 말을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술과 음식을 가져다가 대접해도 받지 않아, 아래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 것이었다. 금광동과 더불어 단대동(丹垈洞) 역시 그와 관련되어 있다. 원래는 광주군 중부면 단대리(丹垈里)였는데 성남시로 편입되면서 단대동으로 바뀌었다. 단대란 성충절개(誠忠節槪)의 충절(丹)을 지킨 분이 거주하는 곳(垈), 즉 붉은 텃골(丹垈)이라고 해서 붙여진 지명이었다. 그의 묘는 그동안 금광동 산에 있었으나, 1969년에 이 지역 일대가 성남시로 개발되면서 광주군 실촌면 삼합리의 공민산(恭愍山)으로 옮겨졌다.

4) 조견(趙狷, 1351~1425)

본관(本貫)은 평양(平壤), 초명은 윤(胤), 자는 신향(臣鄕), 호는 송산(松山), 조덕유(趙德裕)의 차남이자 조선의 개국공신 조준(趙浚)의 아우이다.

어린 나이에 중이 되어 여러 절의 주지를 역임하다가 30세가 넘어서 환속하여 문과에 급제하고, 관직은 지신사(知申事)와 안렴사(按廉使) 등을 거쳤다. 고려말 그의 형 조준이 개혁파에 가담할 것을 권하였으나 거절하였다. 고려가 망하자 이름을 견(狷)이라 고치고 자(字)는 종견(從犬)이라 하였는데, 이는 나라가 망하였는데 죽지 않고 사는 것은 개와 다를 바가 없고 개는 주인을 따른다는 뜻에서 취해진 것이었다. 처음에는 두류산(頭流山)으로 은거했다가 뒤에 청계산(淸溪山)으로 옮겨 날마다 제일 높은 봉우리에 올라 멀리 송악을 바라보고 통곡하니, 사람들이 그 봉우리를 망경봉(望京峰)이라 하였다고 한다. 그의 묘는 현재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에 있다.

남한산성의 축성과 역사·문화적 의의

조 병 로

1. 남한산성의 연혁과 수축배경

1) 남한산성의 유래

오늘날 성남시와 하남·광주를 에워싸고 있는 남한산성의 유래는 신라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한산성 일대는 일찍이 백제의 옛터였으며 신라의 晝長城(또는 日長城)에서 비롯되었다. 즉 洪敬謨의 『重訂南漢志』 (卷1,上篇,城池條)에는 "신라 문무왕 12년에 城을 漢州 동쪽 봉우리에 쌓고 주장성 또는 일장성이라고 불렀다. 石築으로 둘레는 4,360步이고 안에는 여섯 개의 우물과 계곡이 있었다"고 하였으며, 또 같은 책 (卷11,下篇,勝蹟條)에 의하면 "일장산성은 즉 신라시대의 주장성으로서 문무왕때에 축성한 것인데 안에는 여섯 개의 우물과 냇가가 있으며,둘레는 8만 6천 8백尺이고 높이가 24尺으로 石築이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新羅 文武王 12년(672)에 한주 동쪽에 석축으로 축성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주장성이 축성된 漢州는 『三國史記』(卷7, 新羅本紀, 文武王12년 8월조)에 따르면 漢山州라고 하였다. 원래 漢山州는 신라 문무왕 4년(664)에 남한산성을 漢山州 또는 南漢山州로 개칭한데서 그 기원을 알 수 있는데 景德王 16년(756)에 한산주를 한주로 고치고 1개의 州와 小京 그리고 28郡과 47縣을 관할하는 행정구역이었다.

그런데 이 주장성이 어떻게 남한산성으로 불려지게 되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重訂南漢志』(卷1, 上篇, 南漢條)에 "南漢山城은 百濟의 옛터이며 新羅의 晝長城이다. 本朝(朝鮮:筆者)에서 그대로 수리하여 廣州府治를 성안으로 옮기고 府尹을 설치하였다가 뒤에 留守로 승격하여 守禦使를 겸하여 鎭撫토록하여 保障의 땅으로 삼았다.……(중략)……상고해 보면 南漢山은 今日의 日長山이다. 史에 이르기를 百濟의 溫祚王이 도읍을 漢山아래로 옮겼다 하였으니 廣州의 옛 邑治가 바로 그곳인데 山下라고 말하였으니 城을 山上에 쌓고 도읍한 것은 아닌 것 같다. 대개 漢山은 그 도읍에서 5리쯤에 있는데, 뒤에 新羅가 그 땅을 빼앗아 비로소 城을 山上에 쌓은 것이지 이 城을 百濟가 쌓은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혹 百

*경기대학교 사학과 교수

濟가 천도한 뒤에 山上에 柵을 세운 것을 신라가 그 옛터대로 城을 고쳐 쌓은 것이 아닌가 한다. 그 땅이 漢水의 남쪽에 있기 때문에 南漢이라 한 것이요, 그 뒤 漢山郡 또는 南漢山州라고 부른 것은 모두 漢水때문에 그렇게 불려진 것이다."라고 한데서 그 연혁을 알 수 있는 바와같이 남한산성은 옛 신라의 주장성으로서 백제의 온조왕 13년(B.C 6)에 漢山아래 도읍을 옮긴 곳이며, 바로 廣州의 옛 邑治가 있었던 곳이다. 당시의 도읍지였던 河南慰禮城은 溫祖王이 樂浪과 靺鞨의 침입을 피하여 漢水이북에서 漢南으로 천도하게 되었고 이곳이 곧 한수이남에 있기 때문에 南漢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후 이곳은 고구려,신라에 영토를 빼앗기면서 한산에서 新興州, 新川停, 南川停, 漢山州, 南漢山州, 漢州 등으로 개칭되었으며, 결국 신라 문무왕 때에 주장성을 축조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후 漢州는 高麗 太祖23년(940)에 廣州로 고치게 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지방행정제도 개편에 의해 太祖 4년(1395)에 京畿左道에 속하게 되었고 世祖 때에는 前後左右輔 제도에 의거하여 左輔에 편성되어 京師 즉 수도를 방어하는 鎭堡의 역할을 맡는 廣州牧으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南漢山은 한산, 일장산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百濟 近肖古王 26년(371)에 하남위례성에서 다시 南平壤(당시 京都)으로 移都한 뒤 신라-고려에 걸쳐 거의 천년동안 山城의 연혁을 고찰 할 수 있는 사료가 없었다.그런데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주장성 또는 일장산성은 柳馨遠의 『磻溪隨錄』에 의하면 南漢山城으로 호칭하게 되었으며, 조선시대 중엽에는 한산 및 일장산은 南漢山 또는 淸凉山으로 불리워 오늘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남한산성은 고대로부터 天險의 要塞로 인식되어 關防으로서의 중요성이 일찍부터 강조되어 왔던 것이다.

2) 남한산성 수축론의 대두와 이괄의 난

① 임진왜란 이후의 수축론

남한산성의 수축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하게 된 것은 壬辰倭亂이 일어 난 직후였다. 선초에 있어서 關防 政策의 기본방향은 압록강·두만강의 沿邊에 4군 6진 등 새로운 영토를 개척함에 따라 鎭堡를 설치하여 북방방어에 큰 비중을 두게 되었으며 한편으로 고려말에 왜구창궐을 경험한 정부 당국자의 입장에서는 해안지방의 防守를 계획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반면에 내륙지방의 경우 소수 邑城이나 山城의 개축에 의존하였을 뿐 북방 및 沿海鎭堡의 방비보다는 훨씬 소홀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산성에 대한 방비의 필요성은 절실하지 않았던 것이다. 사실 都城의 경우 동대문에는 甕城이 시설될 정도의 소극적 방어시설이었으며, 각

지방에도 많은 城址가 있었으나 北方이나 沿海鎭堡만큼은 못하였다. 다시 말해 임진왜란 이전 내륙지방에서의 관방시설은 한마디로 허술한 상태였다. 당시 내륙지방의 산성으로서 軍倉을 가진 것은 富山城(慶州), 城隍山城(梁山), 英陽山城(寧海), 德峰山城(醴泉), 龜山城(榮州), 北山城(禮安), 龍飛山城(龍宮), 西山城(玄風), 俗門山城(金山), 黃石山城(安陰), 東山城(丹城), 沙斤山城(咸陽) 등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임진왜란으로 도성이 쉽게 함락되자 전통적인 淸野入保 전략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던 山城築造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그것은 우선 옛성을 수축하는데서 부터 나타났다. 임진왜란의 와중에 경기지방의 幸州山城이나 禿城山城에서 일본과의 싸움에 승리한 정부는 산성의 효능에 대해 크게 고무되면서 古城이나 옛 城址를 증·개축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宣祖 25년(1592) 수원의 禿城山城을 수축하였고, 파주의 馬山古城, 양주의 儉岩山古壘, 여주의 婆娑城, 죽산의 竹州古城 등을 새로 쌓았던 것이다. 경기 지방에서 邑城보다는 古城을 수축하여 사용함으로써 커다란 효능을 인식하게 되자 下三道지방에서의 산성을 수축하자는 논의도 활발해졌다. 특히 전라도지방에서는 남원의 蛟龍山城, 담양의 金城山城, 순천의 乾達山城, 강진의 修仁山城 정읍의 笠巖山城, 동복의 瓮城山城 등이 修築된 것이 그것이다.

남한산성이 임진왜란의 와중에 山城으로서 점차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인식은 되었지만 수축보다는 먼저 防禦問題가 논의었다. 그것은 宣祖 26년(1593)이었다. 파죽지세로 쳐들어 온 倭寇로 인하여 도성을 포기하고 의주로 피난하지 않을 수 없었던 宣祖는 明軍의 원조아래 그 이듬해(1593) 還都하여 都城守禦에 대한 대책을 의논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宣祖 26년(1593)10월에 임금께서 변방 고을에 주둔하고 있는 왜적에 대한 방어대책을 논의하는 가운데 豊原府院君 柳成龍은 도성 방어책으로써 광주·이천 등의 군사를 취합하여 廣州 南漢山城을 守禦할 것을 주장하게 되었다. 이 때에 여러 대신들은 산성수비책과 함께 왜적 방어책으로서 鳥嶺, 秋風嶺, 竹嶺 등지에 關門을 설치하고 火砲·鳥銃의 제조와 砲樓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특히 四道都體察使 柳成龍은 도성 방어책으로서 경기지방의 산성을 수축하도록 하여 수원의 禿城山城과 용인의 石城山城을 수축함으로써 南漢山城과 함께 京都防禦의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주장하였다. 그 후에도 도성 방어책은 꾸준히 강구되었으며 宣祖 29년(1596) 12월 備邊司는 한강 방어의 하나로 驪州·楊根·廣州 등으로부터 도성에 이르는 江邊의 여울(灘)을 把守하기 위하여 堡를 쌓거나 土城을 축조하여 木柵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남한산성에는 僧將 惟政이 거느린 僧軍 60여 명을 보내어 산성을 수비케 하고 앞으로의 축성에 대비토록 하였다.

宣祖 30년(1567) 정월 倭軍이 다시 침입하자 남한산성의 방어와 수축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의 방어를 더욱 강화하고 한강 연변에는 木柵을 세우는 한편 南山, 白岳 등의 산성을 조사하여 미진한 곳은 개축토록 하였다. 그리하여 京畿等四道都體察使 柳成龍은 경기지방의 산성을 순찰하는 일로 임금과 의논하는 중에 남한산성에 경기 백성들이 들어가 방비도 하고 농사도 지으면서 산성을 지키게 하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임금은 남한산성에 가서 본 것을 그림으로 그려 바치도록 하였다. 宣祖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임시피난처로써 남한산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유성룡과 의논한지 1개월 후에 다시 同知事 盧稷에게 남한산성의 형세와 성터·우물 그리고 수축의 役事가 시작되었는지 묻곤 하였다. 당시 남한산성의 형세는 노직이 비교적 자세하게 말해 주고 있다. 즉, "광주의 남한산성은 주위가 布帛尺으로 1만 7천 4백여 척인데 외부는 험난하고 안은 깊숙하며 능선이 매우 길어 갑자기 포위할 수 없습니다. 남쪽은 약간 평지이고 다른 곳은 모두 암석이어서 기어오르기가 불가능합니다. 이곳이 바로 溫祚의 옛 도읍지로서 다른 성에 비하여 더욱 크고 일찍부터 거주민도 있었습니다." 라고 한데서 우리는 남한산성이 군사전략적으로 天險의 요새지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 성터와 우물에 대해서도 "돌은 다듬어 만들었으나 퇴락한 것이 3분의 2는 되며 남쪽은 험하지 않은데 또 曲城을 쌓았습니다. 가운데는 큰 개울이 있으며, 우물은 모두 6개소 이고, 전답이 거의 십여 석지기나 되며, 좋은 밭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고 한 바와 같이 石築으로 축성되었으나 거의 3분의 2가 퇴락한 상태이고 또한 曲城을 쌓았으며 큰 개울과 6개소의 우물이 있고, 田畓이 상당히 개간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축문제는 이 당시 東門과 南門 그리고 水口門은 이미 수리를 끝마친 상태이나 城役의 공사가 너무 거창하고 방대하였기 때문에 광주의 군사를 동원하여 돌을 운반하고 城址를 수축하려 했으나 마침 농사철이라 실시하지 못하였다. 이 때는 남한산성뿐만 아니라 婆娑城(여주), 禿城山城(수원), 瑞雲山城(안성), 芙蓉城(여주), 舍弓城(양근), 竹山山城(죽산) 등의 수축과 방어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와 관심이 있었으며 그 결과 부분적으로 수축하기도 하였으나 남한산성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였다.

남한산성의 수축논의가 다시 대두하게 된 것은 宣祖 36년(1603) 2월이었다. 임금이 "남한산성의 형세는 동방의 으뜸이며 廣州의 巨鎭으로 남쪽지방을 왕래하는 요충지라 하고 여기에 산성을 수축하여 군사를 조련하고 지키게 한다면 京都의 保障이 되고 밖으로는 諸陣을 제어할 수 있다"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므로써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케 한 것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備邊司에서는 다소 신중한 편이었다. 남한산성을 축성하여 군사를 조련하면 京都의 保障이 되고 여러 鎭을 제어할 수 있는 좋은 방책이라고 인정은

하면서도 부근 고을이 피폐하고 인력이 부족한 것을 이유로 소극적 입장이었다. 그 대안으로서 僧徒를 모집하고 창고를 지어 곡식을 저장해 두고, 백성들을 모집, 安集시켜 터전을 잡은 뒤에 군사를 배정하여 城池를 수축하고 樓櫓를 설치하면 京師의 巨鎭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우선 비국당상 李箕賓으로 하여금 산성을 살펴보고 도형을 가지고 온 후에 다시 의논하자고 주장함으로써 결말을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비변사의 입장은 많은 인력을 동원해야 하는 문제와 守城의 어려움 때문에 남한산성 축성은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오히려 竹州山城의 수축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편이었다.

결국 宣祖시대에 도성방어책으로서 남한산성을 수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크게 인식되었지만 倭亂後 국가부흥과 민생안정을 도모해야 할 당시의 형편상 광활한 산성을 수축하는데 있어서 많은 인력을 동원해야 수선할 수 있고 만약 수선한다 하더라도 수만 명의 군사가 없으면 지키지 어렵다는 현실론에 떠밀려 논의만 분분한 채 남한산성의 수축은 실시되지 못하고 일단락을 맺게 되었던 것이다.

② 인조반정이후의 수축론의 대두

그 후 남한산성의 수축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은 仁祖反正으로 즉위한 仁祖 때부터였다. 光海君시대의 大北政權이 임해군과 영창대군을 살해하고 심지어는 인목대비까지 유폐시키는 사건이 일어나 성리학적 윤리관에 크게 벗어나자 이러한 폐륜행위는 사림세력으로부터 크게 지탄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광해군 3년(1611) 鄭仁弘이 退溪가 일찌기 南冥 曹植의 학문을 평가절하한 데 대한 반발로 이른바 晦退辨斥이 일어난 뒤였다.

이러한 광해군의 패륜행위를 구실로 栗谷의 문하생인 李貴를 중심으로 이서·김류·신경진·구굉·구인후·장유·심기원·김자점 등이 光海君 15년(1623) 3월 13일 광해군을 폐위하고 綾陽君倧을 추대한 것이 이른바 인조반정이다. 인조반정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등장한 것은 서인들이었다. 서인들은 '崇用士林'의 기치를 내세워 붕당정치를 구현한다는 뜻에서 李元翼 등 남인을 등용하여 정국의 안정을 꾀하는 한편 중앙군사력의 강화와 親明排金의 외교노선을 표방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訓練都監을 설치한 것을 계기로 摠戎廳·御營廳·守御廳의 설치는 서인정권의 군사력을 장악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외교정책의 변화는 後金을 자극하여 변방의 방어에 소홀할 수 없게 되었다. 張晩을 都元帥, 李适을 副元帥로 삼아 下三道로부터 赴防軍 15,000여 명을 동원하여 서북방어를 강화한 것은 그런 이유에서였다. 반면에 경기군사는 서북방어를 위한 부방군에서 제외시키고 도성 방어와 국왕의 호위병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長湍, 楊州, 利川 등의 군사들도 인조반정에 직접 가담하였기 때문에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

왕 호위병력의 증강은 불가피하였다. 따라서 남한산성의 수축문제는 인조반정 이후의 서인세력의 대두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이다. 그중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한 사람이 李貴였다. 仁祖 원년(1623) 윤 10월 知事 李貴는 京畿軍을 禁衛軍으로 삼아 국왕호위병으로 하자고 주장하는 한편 도성이외의 지킬만한 곳으로서 南漢山城을 미리 修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즉 "남한산성은 서울에서 멀지 않고 형세가 험고하니 역시 미리 수축하여 둠으로써 급박할 때 지킬 수 있는 기지로 삼아야 합니다. 광주 목사 林檜는 재주와 기국이 뛰어나서 이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주 한 고을의 힘을 임회에게 모두 밀어준다면 명년 봄부터라도 성을 수리하고 군량을 비축하는 일을 넉넉히 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이에 仁祖도 禁衛軍 창설문제를 의논토록 하고 광주목사 林檜로 하여금 산성을 수축할 뜻을 비쳤다.

이와같이 仁祖초기에 남한산성을 적극 수축하자고 주장하게 된 배경에는 안으로 국왕과 도성을 방어하고 밖으로는 유사시 왕실의 피난처로서 적합한 保障處였기 때문이었다. 특히 당시 조정에서는 서쪽 변방의 방어에 세심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다. 인조반정 이후 서인정권이 들어서자 그들의 외교정책이 光海君시대의 中立外交 노선을 포기하고 崇明排淸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것은 後金을 크게 자극하게 되었다. 마침 후금은 建州女眞의 한 갈래인 建州左衛출신의 누르하치(努爾哈赤)에 의해 光海君 8년(1616)에 興京에서 건국되었으며, 八旗制에 의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만주본토에서 점차 明의 변경인 遼東지역을 공략하므로써 급기야 光海君 13년(1621)에는 瀋陽과 遼陽을 함락시켜 요양천도를 단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로써 서북변방에는 조선과 후금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게 되었다. 仁祖 원년(1623) 윤10월에 備邊司는 서쪽변방을 우려한 나머지 대응책으로서의 都城守禦를 담당할 인물과 대책을 수립할 것을 언급하고 나아가 도성호위를 이서와 신경진에게 위임하여 사태의 완급에 따라 軍兵을 모집하여 방어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도성수어 뿐만 아니라 동시에 江都保障論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남한산성 수축문제는 현장을 조사한 뒤에 의논하여 조치토록 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광주목사 林檜를 발탁하여 남한산성의 수축문제를 논의하여 실시하려 했으나 仁祖 2년(1624년) 정월에 李适의 逆謀가 뜻밖에 일어남으로써 임회는 慶安驛에서 피살되고 산성수축 문제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원래 이괄은 인조반정시 弘濟院 집결지에서 대장의 지휘권 문제로 김류와 불화한 바 있으며 논공행상에 있어서도 2등공신밖에 되지 않고 한성판윤에 제수되었다. 이후 조정에서는 서북지방의 오랑캐의 후환을 두려워하며 이괄로 하여금 平安兵使兼副元帥로 삼게 되자 더욱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仁祖 2년(1624) 정월 22일 龜城府使 韓明璉과 공모하여 거병하였다. 이 때의 군사력은 15,000명

의 병력으로써 중앙의 禁衛軍보다 훨씬 숫적으로 우세했다. 당시 중앙군은 훈련도감군외에 장단군 1천명 미만, 수원군 2천 여명, 어영군 200여명, 군관 500여명 정도에 불과하였다. 이괄의 반란군은 관군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서북대로인 寧邊→安州→平壤→黃州→平山→開城으로 남하하지 않고 寧邊→慈山→祥原→平山→開城의 사잇길을 택하여 도성으로 입성하였다. 반란군의 남하소식을 들은 평양의 도원수 張晩은 이를 중간에서 차단하려 했으나 실패하였다. 끝내는 松都 靑石洞을 지키던 경기감사 李曙의 군사력마저 교란시키면서 臨津江까지 압박해 왔다. 임진강은 도성방어의 최후 보루였다. 이곳은 李貴의 어영군, 李興立의 수원군 그리고 坡州牧使 朴孝立의 군사력까지 배치되었으나 박효립의 내통으로 마지막 방어선도 쉽게 적의 수중에 들어가버렸다. 이에 御營使 李貴는 황급히 도성으로 들어와 南遷을 건의하게 되었다. 결국 仁祖는 2월 9일 훈련도감과 어영군의 호위를 받으며 公州로 播遷하였다. 이괄의 반란군은 10일 도성을 점령하고 興安君 제를 국왕으로 추대까지 할 정도였다. 그러나 관군의 대응 또한 만만치 않았다. 평산에서 크게 패한 도원수 張晩의 군사는 적을 뒤쫓으면서 경기감사 李曙의 군과 합세, 임진강을 넘어 서울입구인 鞍峴(길마재)에서 반란군과 접전끝에 크게 이겼다. 이 안현싸움은 반란군에게 결정적으로 타격을 주었으며 그 결과 이괄은 水口門→三田渡→廣州→利川으로 퇴패하던 중 廣州 慶安驛 부근에서 屯宿하다가 부하 奇益獻, 李守白 등에 의해 살해되었다.

이괄의 난이 비록 짧은 시일내에 진압되었지만 도성의 함락과 왕의 公州播遷까지 초래하여 도성방어 대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이괄의 난은 御營軍의 증강과 摠戎軍의 성립 이외에 방어를 위한 보장처로써 南漢山城의 수축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특히 李曙를 중심으로 한 京畿軍의 정비는 江都經營, 南漢山城修築과 함께 적극적으로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추진되었다. 이것은 남한산성을 단순히 국왕의 피난처로만 삼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면에서 江都와 함께 그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남한산성은 對後金을 방어하는 전략뿐만 아니라 남방의 對倭방어 측면에서도 중요시 되었던 것이다. 일찍이 임진왜란의 전란 중에 柳成龍이 경기의 關防으로써 水原의 禿山山城과 廣州의 南漢山城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것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였다. 결국 이괄의 난을 진압한 정부는 江都와 掎角의 勢를 이룰 수 있는 南漢山城의 修築에 대하여 군사적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의 大計로서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仁祖 2년(1624) 3월 5일 임금이 여러 대신들과 資政殿에서 당면한 국정현안 문제에 대해 의논하는 가운데 더욱 구체성을 띠기 시작하였다. 영의정 李元翼이 江都의 保障對策은 李聖求에게, 南漢山城의 修築은 李曙로 하여금 전담케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므로써 축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었

던 것이다. 이에 대해 좌의정 尹昉만이 동조하였을 뿐 우의정 申欽, 병조판서 金瑬, 우찬성 張晩, 그리고 호조판서 沈悅 등은 수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백성을 동원하므로써 민심이 이반되어서는 안된다는 현실론에 입각하여 소극적인 편이었다. 오히려 예조판서 李廷龜는 산성 수축보다는 대적방어책으로서 1만 명의 군사를 뽑아 騎兵을 양성하고 糧餉을 확보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영의정 李元翼은 대신들의 이러한 소극적이고 신중한 태도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산성 수축을 주장하면서 산성의 형세와 옛성의 毁破문제, 그리고 산성수축의 방법을 의논하는 가운데 남한산성은 奇險의 形勢로서 가히 保障地가 될 만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임금께서도 城을 1년 이내에 修繕하는데는 반드시 백성을 뽑아 성안에 머물게 하고 그들을 安集시킨 뒤에 능력을 헤아려 점차 수축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원익은 李曙로 하여금 우선 축성을 담당케 하고, 점차적으로 募民에 의해 수축하는 한편, 4,500石을 貿穀하여 축성비용에 충당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完豊君 李曙 역시 京畿軍士의 정비 문제와 短兵接戰에서의 鞭棍을 調鍊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의논하면서, 아울러 남한산성의 형세와 축성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는 "남한산성의 4면이 高山峻峰하고 城外無窺峰하여 天險의 형세"라고 好評하고, 300石의 米로써 築城軍을 雇役하고, 또 훈련도감 砲手들도 함께 築城役에 조발시키면 일반백성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城役을 끝마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당시 논의의 초점은, 이괄의 난 이후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고 백성을 安集시키면서 동시에 남한산성을 수축하는데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축성비용과 築城軍의 확보문제에 모아졌다. 영의정 李元翼은 이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같은 해 3월 14일 資廷殿에서 完豊君 李曙, 훈련대장 申景色 및 備局堂上 등과 남한산성 수축문제를 논의하였는데, 임금께서 수축하지 않을 수 없다면 백성에게 경비를 거둬들여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수축이 어려우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물음에 이원익은, 첫째 戶曹로부터 1,000石의 山城役糧을 미리 대출받은 후 體府의 上納米로 갚는 방법과, 이른바 八百罰軍(李适의 亂때 扈駕에 응하지 않은 훈련도감군)을 축성군으로 활용하자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방안은 훈련대장 申景色이나 李曙도 대체로 호응하였다. 그리하여 축성비용과 방법은 3,000石의 城役糧餉과 800명의 軍士로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정리되었다.

이러한 산성의 수축결정은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다. 적극론과 신중론이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仁祖 2년 3월 여러 대신들이 또 한 차례 資廷殿에서 남한산성 수축문제에 대해 더욱 심층적으로 논의하게 되었는데 영의정 李元翼, 부제학 鄭經世, 徐渻, 좌의정 尹昉 대사헌 鄭曄 등은 적극적인 편이었으며,

호조판서 沈悅, 예조판서 李廷龜, 서평부원군 韓浚謙, 형조판서 李時發 등은 신중한 편이었다. 한편 임금께서도 先江都保障 後南漢山城修築을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영의정 이원익은 논의만 할 것이 아니라 속히 결정할 것을 완강히 주장하게 되었고, 知事 鄭曄도 적극 호응하면서 우선 修繕하여 保障處로 삼자고 제안하고 沈器遠을 元帥兼廣州牧使로 추천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 때까지만 해도 산성수축 문제는 민심수습과 경비조달의 어려움으로 신중론이 우세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仁祖 2년 4월에 이르러 점차 수축론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다. 特進官 李貴가 沈器遠을 남한도원수로 삼아 三南을 통제하고 山城을 보수토록 주장함으로써 이 제안은 수용되어 심기원을 南漢山城次知堂上으로 임명하게 되었고, 이어 같은 해 6월 27일에는 南陽府使 柳琳을 廣州牧使로 差出하여 담당케 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결국 仁祖는 남한산성을 수축하게 하였다.

2.남한산성의 수축과정

1) 南漢元城의 수축과 축성군의 동원

南漢山城은 축성시기에 따라 元城과 外城으로 구분되었다. 肅宗 12년(1686) 外城인 蜂巖城을 始築하고 同王 19년(1693)에 漢峰城을 또한 同王 45년(1719)에는 新南城을 築造하므로써 元城과 外城의 구별이 있게 되었다. 흔히 肅宗 12년 이전까지 축성된 것을 元城(또는 內城)이라 하고 이후를 外城이라고 하였다.

남한산성의 元城에 대한 수축 논의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仁祖 즉위년부터 2년 3월까지 여러 견해로 나뉘어 분분하였다. 그러나 더 이상 甲論乙駁할 수 만은 없는게 당시의 현실이었다. 드디어 仁祖는 2년 7월 남한산성 수축을 명령하였다. 그것은 洪敬謨의 『重訂 南韓志』(卷9, 下篇 城史條)의 다음과 같은 기록에서 알 수 있다. 즉 "……가을 7월에 山城을 쌓도록 명하였다. 이로 인하여 京廳을 두고 廣州 등 鎭의 軍務를 節制하도록 하니 처음에는 摠戎使라 稱하고 李曙가 임명되어 그 일을 주관하고 南陽府使 柳琳으로 牧使를 삼았다. 李适의 亂이 있은 뒤에 論議가 있기를 畿輔 가까운 땅에 마땅히 保障이 있어야 된다고 하여 영의정 李元翼과 연평 부원군 李貴가 남한산성 수축하기를 건의하였다. 李曙에게 命하여 築城을 감독하게 하니 이서는 널리 名僧인 覺性과 應聖 등을 불러 각각 승도들을 거느려 지역을 나눠 맡도록 하고 別將 文希聖, 李一元과 裨將 李光春 등으로 監董케 하였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남한산성의 수축은 仁祖 2년(1624) 7월에 이원익, 이귀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총

융사 李曙에게 명령하여 수축되었다. 또한 仁祖 4년(1626)에 이르러서는 廣州鎭 등의 軍務를 담당할 京廳 즉 守御廳을 설치하였다. 처음에 남한산성 수축의 주관에 대해서는 沈器遠을 南漢山城次知堂上이라 칭하여 임명하였으나 중간에 李曙로 교체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있다. 그것은 산성수축의 정확한 날짜가 나타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축한 달도 기록에 따라 다르게 보이고 있는 점이다. 張維의 『南漢山城記』에 따르면 "……城의 사방 둘레의 옛터가 뚜렷하니 溫祚가 옛날에 쌓은 곳이다. 평평하고 험한 곳에 따라 높낮이를 조절하여 증축하였다. 甲子(仁祖2년) 9월에 시작하여 丙寅(仁祖4년) 7월에 완공하니 城의 둘레가 약간의 丈尺이요 女墻이 1,700堞이며 大門이 4개 暗門이 8개이다. 안에는 寺刹 7채를 세우고 관청, 창고 등 갖추지 않은 것이 없다……" 고 한 바와 같이 仁祖 2년 9월에 시작하여 仁祖 4년 7월에 완공하였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반면에 洪敬謨의 같은 책 (卷9, 下篇 城史條)에 의하면 仁祖 2년 7월에 시작하여 仁祖 4년 11월에 완공되었다고 하였다. 당시 洪敬謨가 어떤 기록에 근거하여 서술하였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아마도 實錄이나 備邊司謄錄 등의 사료에 의거하여 서술하였다고 추측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비변사등록에는 仁祖 2년부터 12년까지의 약 10년 간의 기록이 없어 상세히 알 수 없는 실정이다. 필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도 仁祖 2년 6월 27일 부터 7월 27일을 전후하여 南漢山城次知堂上 沈器遠을 대신하여 총융사 李曙가 임명된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 축성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仁祖2년(1624) 7월 역사적인 남한산성의 修築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남한산성의 수축에 있어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築城軍의 동원과 그에 따른 粮餉의 확보였다. 그것은 산성수축 논의 과정에서 신중론 내지 소극론이 나타난 요인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산성축성에서의 인력확보와 재원조달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다. 이 때 제시된 방법으로서 募民入居制에 의거하거나 또는 給價雇役하여 축성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그중에서도 남한산성 수축에 동원된 인력으로 僧軍을 들 수 있다. 승군이 산성축성에 동원된 것은 특히 임진왜란 이후 많았다. 유성룡이 임진왜란의 와중에서 남한산성의 수비와 축성에 대비토록 하기 위하여 惟政으로 하여금 승군 60명을 이끌고 산성방어를 하도록 한 것이 그 예이다. 그리고 仁祖 2년 남한산성을 수축할 때에 이서에게 명령하여 각 지역의 명승인 覺性과 應聖 등 승려들을 소집하여 지역에 따라 담당구역을 할당하여 축성케 한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승려들의 山城役은 매우 苦役이었다. 이와 같은 僧軍의 立役은 이외에도 山陵役,造紙署立役과 각 지방에서 소요되는 白綿紙 등을 납부해야 할 정도로 무거웠던 것이다. 그러나 남한산성의 승군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동원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사찰의 대소와 승려의 다과에 따라 일

정한 인원을 調發하였을 것이다. 한편 승군의 동원은 摠攝의 주관아래 각도의 鄕僧을 上番立役시키도록 하였으나 摠攝의 作弊 또한 컸다. 仁祖 3년 2월 昌德宮을 지을 때 摠攝 惟政이 승군 수 천명을 거느리고 家舍 등을 건설하였으나 이 때 총섭이 각 지방의 사찰에 橫行하여 승도들에게 끼친 폐해도 적지 않았다. 그래서 총섭으로 하여금 도첩을 지급하고 각 도의 승군을 조발하여 부역케 하려고 했으나 폐단이 많아 각 도의 수령이나 관찰사로 하여금 주관케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뜻대로 각 지방의 승군이 제때에 산성역에 종사한 것은 아니었다. 仁祖 3년 3월 特進官 李曙에 따르면 "…… 각 도의 승군이 곧 바로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충청도의 경우 단지 76명만이 올라왔으나 鴻山, 靑山 등의 고을에서는 승려가 없어 전혀 올려 보낼 수 없다고 보고하였습니다. 臣이 비록 산성에 갈지라도 監董할 것이 없을 듯 합니다. 경상감사가 장차 내려 가려하니 승군의 일은 政院으로 하여금 조치하여 착실히 거행하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한바와 같이 각 도의 사찰의 규모와 승려의 수에 따라 산성역에 동원될 승군을 배정하였지만 충청도의 경우 겨우 76명만이 上番하게 되자 다른 지방의 僧軍 차출을 독려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다. 남한산성의 體城이 어느정도 마무리되었을 때에 女墻이나 暗門 등의 役事가 지극히 커서 역군이 더욱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도의 승군들이 隱漏하여 상경하지 않은 자가 오히려 더 많을 정도였다. 그리하여 남한산성의 축성군이 거의 없어 성벽에 석회를 바르는 일이나 女墻 등의 성역이 중단되고 암문이 미처 다 완성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그것은 각 도의 승군으로서 도첩이 없는 자가 거의 없어서 입역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원 禿城山城에 도첩이 없는 승군 300여명을 동원하기도 하였다. 축성 당시의 기록이 상세하게 전하지 않기 때문에 축성에 동원된 승군의 규모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단 축성 이후 승군의 편제에 대해서는 洪敬謨의 『重訂南漢志』 營制에 의하면 僧軍摠攝 1명, 僧中軍 1명,敎鍊官 1명, 哨官 3명, 旗牌官 1명, 原居僧軍 138명, 義僧 356명으로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義僧은 남한산성 축조시 산성에 거주하는 승려가 적어 산성을 지키는데 고단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지방의 鄕僧을 교대로 上番하여 助役케 한 데서 성립된 것이다. 그러나 鄕僧의 上番守直은 原居僧軍의 침해 등의 각종 폐단이 야기되어 義僧防番錢制를 실시하게 되었다. 즉 지방의 향승은 일정항 防番錢을 납부하면 그 경비로서 義僧을 고용하여 守直케 한 대신에 향승의 上番은 면제하였던 것이다.

한편 산성의 축성에 각 지방의 軍兵을 징발하기도 하였다. 일찍이 유성룡은 임진왜란 이후 남한산성의 수축을 주장하면서 승도를 모집하여 군량미을 저장할 창고를 짓고 일반백성을 募集하여 생활터전을 마련한 뒤에 서로 힘을 발휘하여 성역에 충원하고 또한 軍士를 동원하여 城池와 樓櫓를 수선케 하였던 것이다. 일반

적으로 임난 이후 도성이나 江都 그리고 남한산성을 포함하여 각 지방의 산성을 축성할 때에 관군을 많이 동원했다. 光海君 9년 黃州山城을 축성할 때에 上番軍 차출문제와 관련하여 비변사가 황주축성의 조속한 완성을 위해서는 군사의 차출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는 데서 上番軍이 동원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군사는 남한산성 축성시에도 동원되었다. 仁祖 2년 10월 지사 김류가 승도와 함께 관군을 축성역에 동원하고 있는 사실에서 엿볼 수 있다. 특히 이괄의 난 이후 경기도의 군사를 정비하면서 남한산성 수비와 관련 守堞軍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하였을 것이며, 따라서 경기지방의 군사를 남한산성에 소속시켜야 할 필요가 컷던 것이다. 仁祖 16년 경연관 李景奭이 경기 각 읍의 軍兵을 남한산성에 예속시키도록 주장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던 것이다. 경기 5읍인 楊州, 廣州, 驪州 등의 군병을 남한산성의 入防軍으로 편성하였다. 仁祖 14년(1636) 7월 당시 남한산성의 입방군은 12,700명이었다. 이러한 입방군은 유사시에 山城守堞軍으로서 각각의 담당구역을 지켰으며, 평상시에는 操練과 산성 보수 등의 山城役을 맡았던 것이다. 승군과 군병 이외에 기타 각종 匠人,潰軍 등도 축성에 동원되었다.

남한산성의 수축과 방어에 따른 粮餉 즉 軍糧米의 조달문제는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과제였다. 따라서 이 문제는 산성수축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제기되었다.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李元翼이 米 3,000석으로써 축성군을 雇役하거나 훈련도감 도망군 800명으로 축성케 하자는 방안을 제시한 것도 그런 까닭에서였다. 그리하여 仁祖뿐만 아니라 성역을 총괄하고 있는 李曙도 粮餉의 비축과 軍器의 확보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다. 특히 李曙는 三穴銃 1,000자루, 조총 1,000자루를 만들어 畿內의 軍兵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는 남한산성에 저장케 하였으며 한편으로 남한산성을 수호하고 양식을 저장할 대책으로서 下三道의 생선과 소금을 덜어 내어 곡식을 사들여 군량을 비축케 하였다. 이 당시 山城 粮餉의 확보방안은 다각도로 검토되어 시행되었다. 甲士牧場을 屯田으로 삼아 산성군량의 근본으로 삼자는 방안이나 축성에 동원된 工匠이나 別將 등의 급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廣州에서 선혜청에 봄에 납부할 대동미 500石과 가을에 납부할 300石을 산성에 저축케 하자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또한 仁祖 3년 10월 호조가 비변사에 移文한 내용에 따르면 남한산성에 粮餉을 저축하는 일이 당시 제일의 급선무이므로 여주, 이천, 양근, 저평, 광주 등의 田稅와 可興倉에 저장한 미곡을 운송하여 산성의 粮餉으로 삼을 것을 제안하였으며 심지어는 철산 가도에 주둔하고 있는 명나라 毛文龍부대에 보낸 광주의 西粮米까지 산성으로 옮겨 바치게 하였던 것이다.

남한산성의 군량미확보 방법은 대체로 광주의 田結에서 징수한 田稅, 三手粮 그리고 毛兵粮(또는 西糧米) 및 宣惠廳에 납부할 대동미를 충당하는 방안을 선택

하게 되었다. 즉 仁祖 3년 8월 宣惠廳이 癸亥年條(仁祖1,1623) 광주의 대동미 가운데 未收米를 남한산성에 유치하지 말도록 청하였으나 仁祖는 이 未收米를 산성에 저축하도록 조치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방침은 仁祖 4년 8월에 이르러 비변사가 남한산성 군량의 조달책에 대하여 제안함으로써 廣州 田結 2,000여 結에서 거둬 들일 田稅, 三手粮, 毛兵粮 그리고 宣惠廳 大同米를 남한산성에 비축하여 粮餉을 조달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후에는 이 廣州田結稅로써 산성을 충분하게 경영할 수 없게 되자 魚鹽의 貿販과 城東屯, 栗木屯, 五浦屯, 松坡屯 등의 屯田經營을 통하여 그 재원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상 살핀 바와 같이 남한산성의 수축은 都城을 방어하기 위한 保障處로서 그 중요성이 넓게 인식되어 여러 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仁祖 2년(1624) 7월에 시작되어 僧軍과 軍兵 등의 築城軍을 동원하고 魚鹽의 貿販이나 田結稅 및 屯田經營을 통해 軍糧米를 확보하면서 드디어 仁祖 4년(1626) 11월에 완료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산성수어책의 하나로 廣州府를 산성안으로 옮기고 入居民을 확보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였다.

2) 남한 外城의 신축과 시설규모

남한산성의 외성은 병자호란이후 元城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축된 것이다. 외성이란 이른바 蜂巖城, 漢峰城, 新南城(南格臺)을 말하는데 元城밖에 신축하였기 때문에 흔히 南漢外城이라고 한다. 이들 남한외성은 元城 축조 이후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청의 화포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써 축성하게 되었다. 호란 당시에 청나라 군사는 원성 밖의 蜂岩이나 漢蜂 등을 점령하여 성안의 虛實을 빤히 들여다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형적으로 高地이기 때문에 放砲에 있어서도 매우 유리하였다. 따라서 병자호란 당시에 행궁의 안뜨락까지 청의 화포공격에 노출되어 위기감을 맛보았던 조정에서는 이에 대한 방어대책을 서둘러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외성의 신축이 이뤄지게 되었던 것이다.

① 봉암성의 신축

봉암성은 蜂巖에 신축된 외성의 하나이다. 이 봉암의 위치와 유래에 대해 살펴보면 원래 봉암은 원성의 동쪽 5리쯤에 있는데 바위가 포개어져 가파르게 솟아 있고 그 아래에는 돌구멍(石穴)이 있어 겨우 사람이 들어갈 만하다. 옛날부터 벌이 집을 짓고 살았다 해서 蜂巖이라고 하였다. 또는 망월봉이라고도 했다. 이와 같은 봉암은 그 지리적 위치 때문에 축성논자들 사이에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왜냐하면 봉암은 원성의 한복판을 굽어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 계곡이 깊고 넓어서 적이 병졸을 숨겨두더라도 성안에서는 알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肅宗 12년(1686) 3월 광주유수 尹趾善이 "남한산성 동쪽에 봉우리 하나가 있는데 蜂巖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城한복판을 굽어보고 있는데 그 아래는 구렁이 깊고 넓어서 적이 병졸을 숨겨두더라도 성안에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병자호란때에 적이 그 봉우리를 점령하고 대포를 연달아 쏘았기 때문에 城堞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 후에 성을 쌓자는 의논이 있었으나 鄭命壽(淸의 大通官:필자)의 공갈 때문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은 예전과 상황이 달라졌으니 本營의 군사를 동원하여 성을 쌓게 하소서" 라고 아룀으로써 蜂巖城의 신축논의가 대두되었다. 봉암성의 신축논의는 이보다 앞서 병자호란 직후에도 甕城의 신축론이 제기되었으나 청의 압력에 못이겨 수축하지 못하고 肅宗 12년에 다시 봉암성 신축의 필요성이 재론되었던 것이다. 최근에 발견된 蜂巖新城丙寅磨崖碑에 따르면 봉암성의 명칭은 蜂巖新城으로 드러났으며,축성은 수어사 尹趾善의 지휘아래 別將과 前府使, 前郡守 등에게 담당구역을 배정하고 匠人과 軍兵을 동원하여 肅宗 12년(1686) 윤4월 1일부터 성역을 시작하여 5월 9일에 마쳤다는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축성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本廳 즉 守御廳 소속의 군병을 징발하여 50여 일 동안의 赴役과 대략 1,000석 정도의 재원을 확보하여 신축하게 되었다. 이때의 재원은 본청의 軍餉 부족을 메꾸기 위하여 通政帖 120장, 嘉善帖 20장 등의 空名帖을 발급하여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둘레 962步, 女堞 294堶, 暗門 4곳, 軍鋪 15곳을 신축하였으며 또 東林寺라는 사찰을 건립하여 동문밖의 民戶를 募入하여 防守케 하였다. 봉암성에는 그후 肅宗 19년(1693)에 이르러 우의정 閔黯과 守禦使 吳始復이 남한산성에 墩臺축조의 필요성을 제기하므로써 봉암과 한봉사이에 墩臺를 설치하게 되었으며, 肅宗 31년(1705)에는 守禦使 閔鎭厚의 건의에 따라 증축하고 砲壘를 설치하였으며 正祖 3년(1779)에 대대적인 修築을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② 한봉성의 신축

漢峯城은 동문 밖의 한봉에 위치하고 있는데 汗峯城이라고도 하였다. 이 한봉성은 肅宗 19년(1693) 수어사 吳始復이 축성하였다. 축성배경은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병자호란 때에 적병이 이곳을 점령하여 우세한 大砲 즉 홍이포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당시 영의정 민암은 경연에서 수어사 오시복과 봉암성과 한봉사이에 墩臺 쌓는 문제를 의논하는 가운데 "南城의 墩臺 쌓을 곳을 臣과 수어사 오시복이 함께 살펴 보았더니 東城 望月峯에서 汗峯에 이르도록 그사이에 7~8백보에서는 성안이 반이나 굽어 보이고 大砲라면 탄환이 닿을 만큼 要害되는

곳인데 돈대를 쌓았을 뿐이요 지키는 군사도 빈약하여 일이 있을 때 만약 적이 빼앗아 차지한다면 도리어 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 성밖으로부터 角城을 쌓아 한봉을 그 안에 들게 한다면 좋을 것같습니다"라고 하고, 역시 오시복도 "한봉에 돈대를 쌓아 한성에서 新城 동쪽 모서리까지를 완전히 연결하여 東邊의 大路를 끊어 방어한다면 참으로 만전의 대책입니다"라고 한 데서 한봉성은 동성 즉 봉암성과 연결, 축성하므로써 동쪽으로부터 오는 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축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肅宗19년 한봉외성을 축성하게 되었는데 당시의 성곽시설은 성벽의 둘레 851步, 女堞 227타, 암문 1개였다. 그 후 肅宗 31년(1705)에 봉암성을 증축할 때 일시 헐어버렸다가 다시 英祖 15년(1739)에 수어사 趙顯命이 개축함으로써 둘레 895步,女堞 272타의 규모로 다소 시설이 증설되었다. 그리고 正祖 3년(1779)에 남한산성의 대대적인 증축과 함께 다시 수축하여 오늘날 산성의 외성으로서의 위용을 남기고 있다.

③ 신남성의 개축

신남성은 원성의 남쪽 5리(1013步)에 위치하고 있으며 南格臺 또는 對峯이라고 불리었다. 이 신남성 역시 병자호란 때에 청나라 군대가 대포 7~8門을 설치해 놓은 곳으로써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다. 따라서 이곳에 축성의 필요성은 봉암성, 한봉성과 더불어 제기되었던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리하여 肅宗 45년(1719)에 수어사 閔鎭厚가 종전에 있었던 성터를 개축하여 수축하였던 것이다. 성곽의 시설규모는 둘레 743步, 女堞 238타였다.

한편 남한산성의 산성으로서의 특징은 砲壘,墩臺와 甕城이 발달한 데 있다. 그 중 돈대는 肅宗초기에 이르러 해안 방어시설로서 크게 주목을 받아 강화도에는 상당한 돈대를 설치한 바가 있었다. 이러한 돈대시설에 대한 효용성을 산성에도 적용하자는 논의가 대두되어 신남성에도 돈대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하게 되었다. 즉 英祖 28년(1752)에 광주유수 李箕鎭이 "남격대는 남한의 主峯으로 성내를 壓臨해 있어서 그 要害됨이 漢峯보다 더 합니다. 그러므로 판서 민진후가 건의해서 성을 쌓고 15哨를 정속했던 곳인데 지금은 廢城이 되었습니다. 마땅히 두 墩臺를 쌓아서 그 중 하나는 100명 쯤 들어가게 하여 힘을 다해 지키도록 한다면 적이 점거하는 것을 면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여 남격대 즉 신남성에 돈대축조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던 것이 그것이다. 결국 英祖 29년(1753)에 2개의 돈대를 축조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봉암성, 한봉성, 신남성 등의 외성을 축조함으로써 원성의 기능을 보완하게 되었다.그것은 병자호란 당시 지형 및 전략상의 거점이었던 이곳에 신성을 축조하여 적의 재침입에 대비하고자 했던 당시 정부 당국자들의 현명한 방책

이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보면 남한산성의 산성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본성의 증,개축도 중요하지만 남한산성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청계산이나 검단산 및 광교산 등에도 산성을 신축하고 또한 남쪽의 죽주산성, 수원의 독성산성, 용인의 석성산성과 유기적 연계성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3. 남한산성의 개축과 금석문의 발견

1) 仁祖 16년의 개축과 南將臺甕城戊寅碑

① 仁祖 16년(1638)의 改築

南漢山城의 개축문제가 거론된 것은 병자호란을 겪은 뒤였다. 조선은 청의 침입으로 항전하였으나 군량의 부족과 후방 지원군의 차단, 그리고 강화도의 함락으로 出城降服하게 되었고, 그 결과 丁丑和約을 맺게 되었다. 조선은 이 화약의 체결로 말미암아 군신의 예와 청나라 年號의 사용을 강요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明과의 단교는 물론 대명정벌시에 원병을 파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특히 城池를 개축하거나 신축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군비의 증강은 일체 금지되어 무장해제된 것이나 다름없는 지경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는 오랑캐라 멸시해 온 이민족에게 임금이 몸소 出城降服하게 되자 민족의 자존과 체통이 짓밟히게 된 것에 대하여 심각한 반성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만주족으로부터 받은 치욕에 대한 민족적 각성은 반청의식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 尊王攘夷的 大義名分論에 입각한 북벌운동이 나타나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반청의식의 고양과 함께 어영청의 병력을 종래의 6,200명에서 7,000명 수준으로 증가시키고 精抄軍을 창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훈련도감군을 정예화시키기 위해 6,500명의 무과합격자로서 局出身이라 하여 훈련도감 정예군으로 편성하여 궁성수비의 임무를 맡기는 등의 군제개편도 단행하였다.

또 이러한 반청의식은 丁丑和約의 군비증강 조항을 무시한 채 호란으로 파손된 남한산성을 재수축하자는 논의를 대두하게 하는데 크게 작용하였다. 즉 仁祖 15년 7월 좌의정 崔鳴吉이 江都와 南漢은 모두 保障之地로써 한곳에 전념하여 전쟁에 대비할 계책으로 삼자고 제안하자 特進官 李時白은 江都는 호란으로 여지없이 蕩殘되었으므로 수습하고 싶지만 청나라에 번거롭게 소문이 날까 염려되기 때문에 남한에 전념하여 우선 대피할 곳으로 삼아 불의의 사건에 대비하자고 제기함

으로써 남한산성의 재수축문제는 조정의 큰 관심거리로 대두되었다.

이와같이 남한산성의 수축문제가 제기되자 조정의 중론은 청나라를 자극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때문에 반대의사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守禦使 李時白 등이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남한산성을 수축해야 한다는 구실 아래 남한산성 수축은 점차 인조의 支援을 받아 실현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사실상 남한산성을 재수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청이 명을 정벌할 때 조선은 지원병을 파견한다는 和約조건 때문에 대두되었다. 당시 반청의식이 고조되어 있던 조선의 여론은 비록 정축화약에서 원병을 파견한다는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친명반청 외교정책을 오랫동안 고수해 온 조선의 입장에서 쉽게 명을 정벌하는데 청나라를 원조할 수는 없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므로 청의 원병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청과의 무력충돌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남한산성의 개축은 불가피한 조치였던 것이다.

남한산성의 개축은 守禦使였던 李時白이 주도하였다. 李時白은 仁祖 15년 10월에 "南漢의 수축은 하루가 급하나 농사철에 役事를 일으키면 민심을 크게 잃을 것이니 臣의 생각으로는 潰軍으로서 布를 내는자 중에서 2,000명을 떼어 내어 반은 역사를 시키고 반은 軍糧을 장만하게 하면 일이 매우 편리할 듯 하며 조정의 여러 의논도 또한 같습니다." 라고 하여 농사철에 민심을 잃지 않으면서 일반 백성대신에 潰軍을 조발하여 수축케 하자고 제안하였다. 뿐만 아니라 호란 당시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군량미 부족으로 커다란 타격을 입었던 경험을 되살려 山城軍餉의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였다. 仁祖16년 1월 李時白은 호란이후 산성의 식량확보상태가 겨우 4,000餘石 밖에 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고 京倉에 보관중인 3만석 중에서 大米 9,000석, 小米 1,000석과 한강변에 있는 각읍으로 부터 거둬들인 전세 7,000석을 산성에 운송함으로써 목표물량 2만석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때에는 砲樓의 설치와 대포와 같은 火器의 비치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일찍이 선조36년 2월 行副護軍 李箕賓이 남한산성의 수구문과 남문사이에 포루를 설치하여 화기를 비치하자고 주장한 바도 있으나 남한산성을 수축할 때 포루가 없는 결점을 仁祖가 지적하자 당시 축성책임자였던 李曙는 포루는 방포시에 연기와 불꽃으로 말미암아 사방이 어두워 수성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고 단지 牛馬墻같은 시설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호란 당시 淸의 騎兵에 의한 기습공격과 우수했던 포격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포 등의 화기비치와 함께 砲樓의 설치를 적극검토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결과 仁祖16년 1월에 이르러 右議政申景鎭은 이전에 수어사 李時白과 남한산성의 望月臺와 東格臺를 조사하고 난 뒤 포루를 설치하는 功役이 매우 크지만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폐지하고 설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면서 축조할 山城圖를 제시하였다.

仁祖 16년 1월 당시에 적을 막는 데는 대포만한 것이 없다고 인식하게 되었으며 동철 등의 부족으로 여건이 충분하게 조성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포루와 함께 구비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와같은 인식아래 남한산성 개축문제가 본격화된 것은 仁祖 16년 1월 16일 右議政 申景色과 병조판서 李時白과의 논의에서 였다. 右議政 申景鎭이 그려 바친 山城圖를 펴놓고 修築할 곳을 구체적으로 물으면서 계획대로 증축한다면 城이 완전하고 견고하리라 판단하고 城堞을 지키는 군사도 2만명 정도 확보토록 하면서 1차 산성증축의 책임을 李時白에게 맡기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李時白은 수축해야할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다소 주춤하였다. 그것은 丁丑和約 가운데 성지를 수축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라도 축조한 이후에 이로 인하여 淸의 힐책하는 단서가 될까 봐 청에 알린 다음 그들의 태도에 따라 城役을 시작하는게 좋다는 입장이었다.

仁祖는 倭敵을 대비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데 대해 청나라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증축에 적극적이었다. 그리하여 왜적에 대비하기 위하여 特進官 임광을 경상도에 파견하여 舟師를 점검케 하고 전라도의 舟師는 統營에, 충청도의 舟師는 전라우도에 添防케 하고, 서북지방의 군량을 남방에 운송케 하였으며 특히 남쪽 關門의 요충지인 조령과 御留山城의 수축을 통하여 남방에서의 防倭대책을 강구하였다.

반면에 한편에서는 천험의 요새지요 나라의 保障處인 江都를 수습해야 한다는 견해도 대두되었다. 仁祖 16년 1월 特進官 曺文秀는 "廟堂의 계책을 감히 가벼이 의논할 수는 없지만 산성에서는 결코 왜구를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江都는 천험의 요새지로서 나라의 保障입니다. 지난해 지키지 못하였던 것은 지형탓이 아니라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계책으로는 강도를 수습하는 것만 못합니다." 라고 하여 江都수습론을 제안한 것이 그 하나이다.

이와같이 대왜방어책에 대하여 조정의 의논이 분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조는 역시 江都보다는 남한산성을 더 우선시 하여 이의 개축에 보다 적극적이었다. 그리하여 남한산성의 개축은 동왕 16년 1월 26일 병조판서 李時白이 수축에 필요한 성역군으로써 앞에서 언급했던 潰軍 1,000명을 우선 調發하여 從事官 洪瑍의 감독아래 望月臺에서부터 城役을 시작한다고 보고하므로써 더욱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당시 광주부윤은 70세 고령의 許徽였다. 許徽는 병자호란 이듬해 仁祖 15년 1월 광주목사를 府尹으로 승격시키자마자 최초로 임명되었다. 그런데 조정에서는 남한산성 증축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반드시 부윤을 젊고 재능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였다. 이에 인조는 洪州牧使 李景義를 적임자라고 생각하였으나 이시백의 건의를 받아들여 종사관인 洪瑍을 광주부윤에 제수하고 남한산성 개축

의 실질적인 감독관으로 임명하게 되었던 것이다.

② 南將臺甕城戊寅碑의 발견과 碑文분석

仁祖 16년에 남한산성을 재수축한 역사적 사실을 뒷받침하는데 결정적 단서를 제공할 碑가 발견되었다. 일명 南將臺甕城戊寅碑가 그것이다. 이 비문은 城南文化院附設 鄕土文化硏究所의 연구원과 '남한산성을 사랑하는 모임'의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남한산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남한산성을 답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이다. 이것은 南將臺址와 1, 2, 3 甕城을 조사하던 중 남장대지 2차 옹성의 홍예문을 축조하는데 사용된 長臺石에 새겨진 것이다. 이 碑의 형태와 내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碑의 크기는 가로 115㎝, 세로 60㎝이며 총 글자수는 105字로 楷書體로 쓰여 있다. 비는 옆으로 누워 있었는데 우측면은 都廳이하 축성을 맡은 감독관의 관직과 이름이 적혀 있으며 좌측면은 축성에 동원된 木手 이하 匠人의 이름과 숫자가 새겨져 있다. 이 碑文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泥匠金乭屎木七	冶匠李己嘆木二	石手辺手姜福木十三	木手辺首梁男木七四		戊寅 七月 日			前部將金義龍	前司果慶以孝	監役官前部將金明律	驤衛司果宋孝祥	領將禦侮將軍行龍	府事崔晩得	別將折衝將軍僉知中樞	尹兼防禦使 洪瑍	都廳通政大夫守廣州府

이를 해석하면 都廳은 通政大夫守廣州府尹兼防禦使인 洪瑍이며, 別將은 折衝將軍 僉知中樞府事 崔晩得, 領將은 禦侮將軍 行龍驤衛司果 宋孝祥, 監役官은 前部將 金明律, 前司果 慶以孝, 前部將 金義龍이다. 戊寅(仁祖16:1368) 7月 日에 완공하다. 木手邊首는 梁南 등 74명 이고, 石手邊首는 姜福 등 13명, 冶匠은 李己嘆 등 2명, 泥匠은 金乭屎 등 7명이다. 위 碑文의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비문을 새긴 시기는 戊寅 七月 日이 언제인가를 규명함으로써 알 수 있다. 남한산성 축성시기를 통하여 戊寅은 仁祖 16년(1638)과 肅宗 24년(1698) 둘 중에서 仁祖 16년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왜냐하면 그것은 남한산성 수축의 책임을 맡은 도청의 총책임자가 廣州府尹兼防禦使 洪瑍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洪瑍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광주목을 광주부로 승격시킨 후 許

徽에 이어 두번째로 府尹으로 제수되어 병조판서 이시백의 건의에 따라 仁祖 16년 1월 26일 이후 남한산성 재수축의 총책임을 맡은 사람이다. 여기서 우리는 仁祖 16년 남한산성의 재수축기간을 1월 26일 이후 시작하여 같은해 7월에 완성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는 재수축할 때 동원된 築城軍에 관한 문제다. 仁祖 16년 1월부터 재수축의 논의가 일어난 때부터 수축군은 호남지방의 潰軍 2,000명 가운데 1,000명을 調發하자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仁祖 16년 2월 10일의 기록에 의하면 호남지방의 潰軍 2,700명 가운데 성역에 부역하기 위하여 905명이 調發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僧軍을 성역에 調發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仁祖 16년 2월 5일 守禦使 李時白의 書啓에 의거하면 潰軍만으로는 농사철 이전에 성역을 마칠 수 없기 때문에 下三道(충청·경상·전라) 및 강원도의 승군 중에서 도첩이 없는 승군을 조발하여 남한산성의 증축에 부역케 하자고 주장함으로써 결국 하삼도와 강원도의 승군을 성역에 조발하게 되었다.

그러나 승군의 남한산성 調發에 대해서는 왜구에 대한 방비와 관련하여 논란이 일어났다. 남방에서 왜구에 의한 변란이 일어날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양남 즉 경상,전라도의 산성을 수축해야 한다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즉 仁祖 16년 2월 10일 좌의정 崔鳴吉은 남방의 변경에 변란이 일어날 우려가 매우 심하여 영남지방의 산성을 수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승군을 모두 남한산성에만 調發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 후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 동왕 16년 4월 8일 영의정 李弘胄는 度牒의 유무에 따라 도첩이 없는 승군은 남한산성에 調發하고 도첩이 있는 승군은 각 본도(경상, 전라도)에 調發하거나 좌도와 우도를 구분하여 調發하자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좌의정 최명길은 남한산성은 승군이 아니더라도 궤군을 조발하면 성역을 마칠 수 있다고 하여 僧軍調發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이와같은 조정의 의논에 대해 인조는 확고한 입장이었다. 설사 양남(경상, 전라)의 산성을 수축한다 하더라도 승군조발은 이미 결정한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였다. 이에 최명길은 승군을 나누어 보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전제하고 그 대안으로써 전라도의 승군은 전라도에, 경상도의 승군은 경상도의 산성 수축에 쓰고, 단지 강원도와 충청도의 승군을 남한산성에 調發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시함으로써 결국 인조도 이에 따라 충청, 강원도의 승군은 남한산성에, 下三道의 승군은 각 本道(경상, 전라)의 산성역에 조발토록 결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를 종합해 볼 때 仁祖 16년의 남한산성 증축에 동원된 築城軍은 호남지방에서 올라 온 潰軍 1,000명, 충청·강원도의 승군과 앞의 비문에 나타난 木手, 石手, 冶匠, 泥匠 등의 匠人 96명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正祖 3年의 改築과 屛岩南城新修記碑

① 正祖 3年(1779)의 개축

正祖대에 이르러 남한산성은 역시 수원의 禿城山城, 安城의 竹州山城과 더불어 掎角之勢를 이뤄 畿輔의 保障處로 인식되어 중요시하였다. 특히 수원은 경기도와 三南의 요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都城을 방어하는데 있어 畿輔의 重鎭으로서 일찍이 조선초부터 광주, 개성, 강화와 함께 관방의 구실을 해왔다. 그리고 정조대에 이르러 사도세자의 능침인 영우원을 수원의 花山에 遷奉함으로써 수원은 새삼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것은 顯隆園에의 園幸과 行宮보호를 위해 華城을 축조함으로써 정치, 군사상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華城은 남한산성과 掎角之勢를 형성함으로써 수도권 방어체계상의 제일선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역대 국왕들과 當路者들은 강도와 남한산성의 방어체계 확립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正祖 2년(1778) 7월에 司直 尹冕東이 국방전반에 대한 상소를 올린 가운데 김해의 金井山城, 黃山의 臨鏡山城, 老姑山城을 수축하도록 하고 기타 架山山城, 天生山城, 華山山城, 金鰲山城, 禿用山城 등을 수선함으로써 諸路를 控制하여 외적의 방비에 진력토록 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또한 남한산성은 副都이므로 다른 것의 保障과는 다를 뿐만 아니라 수어청에서 실지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府尹이나 守令보다는 높은 衙門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총융청을 혁파, 수어청에 합병하여 반드시 남한산성을 직접 鎭守하면서 畿輔를 統禦함으로써 경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그러한 시대적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라 생각된다. 심지어는 남한산성을 副都로 까지 인식하고 있는 것은 남한산성의 국방상의 중요성이 얼마나 컸던가를 짐작케 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江都와 남한산성 중심의 방어책에 반대하고 도성수비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도 컸다. 副司直 姜遊는 "江都는 해마다 城을 수축하면서 都城에 대해서는 태연히 마음을 쓰지 않고 있으며, 남한은 해마다 계산하여 곡식을 저축하고 있으면서 도성에는 전혀 남는 저축이 없습니다…… 江都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어서 진실로 육지의 寇賊을 방어하기에는 이롭지만 三面에 배를 정박할 수 있어서 海寇를 방어하기에는 불리하니 이는 긴급할 때 반드시 귀의할 수 있는 곳이 못됩니다. 남한은 산세가 외따로 떨어져 있어 軍糧의 운반을 계속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으며 성안이 비좁아서 많은 군병을 수용하기 어려운 걱정이 있으니 이곳은 오래 지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고 비판하고 都城의 城堞을 보수하고 軍餉을 비축함으로써 도성중심의 방어책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巡城軍의 배치, 柵木의 설치, 軍額減少 등의 대책을 제안하였다.

또한 正祖 2년 6월에는 수어청과 총융청의 통합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군제개편을 통한 남한산성 방어를 강화하자는 논의도 대두되었다. 그것은 畿輔의 군사를 나누어 2개의 군영을 설치함으로써 군제가 나누어지고 軍糧의 소모가 쓸모없이 많아진다고 하여 군제의 대변통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병제의 精鍊과 軍需의 소모를 막기 위해서는 兩營을 합치자는 合營論, 양영을 혁파하자는 革罷論, 그리고 합영하여 남한산성을 鎭守하자는 南漢山城鎭守論, 기타 양영은 그대로 두고 각각 지방에 나아가 鎭守하자는 입장, 중앙의 훈련도감과 경기도에 소속시키자는 입장 등 여러 의견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 문제는 결국 正祖 19년 8월 守禦京廳을 혁파하고 광주부를 광주유수로 승격시켜, 광주유수로 하여금 남한산성수어사를 겸임하도록 하므로써 일단락 되었다.

이러한 시대배경 속에서 남한산성의 개축은 이뤄지게 되었다. 正祖가 3년 1월 12일 判中樞府事 徐命應을 수어사로 임명함으로써 남한산성의 수축은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당시 남한산성은 "南漢城堞 公廨頹圮處 極其□然 而以物力之未及猝辦 尙不得修補"할 정도의 실정이었다. 따라서 수축에 따른 재원의 확보는 시급한 과제였다. 이에 守禦使로 임명된 徐命應은 동년 2월 수어청의 戶房所와 管餉所 그리고 남한산성의 別庫, 營庫, 保恤庫, 城機庫 등의 軍餉 실태를 직접 조사하였는 바 戶房所의 4만 5천 냥이 현재 겨우 1만 냥정도, 관향소의 10만 7천 냥도 단지 3천 냥정도 밖에 남아 있지 않는 현실을 개탄하고 또 南漢外營의 각 庫의 군향곡도 대부분 각 廳에 債貸하거나 民戶에 糶糴하여 停捧·折減·私貸 등으로 말미암아 元額대로 거둬들이지 못함으로써 "무너진 城堞과 기울어진 公廨를 대개 재력이 넉넉치 못하여 대체로 튼튼하고 치밀하게 할 수 없으므로 이제는 완벽한 성이 되는 것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실토하고 大更張을 통해 그 폐단을 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남한산성에 있어서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城機別將을 폐지하고 留營別將에 합속시키는 한편 남한산성의 수축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리하여 우선 수어청 본청에 전 수어사 홍국영이 저축해 놓은 別備錢 1만 냥을 取用하기로 하고 부족한 재원은 廣州 東三面 백성들에게 환곡으로써 대여한 군향곡 5,000석의 耗穀 500석을 劃付하여 산성의 頹圮處, 灰石改造, 그리고 暗門이나 軍舖 및 公廨 등을 修補하는데 쓰도록 조치하였다. 그리하여 正祖 3년 3월에 수어사 徐命應의 지휘아래 광주부윤 李明中이 감독하여 3월에 시작하여 6월 18일에 남한산성은 개축,완료되었다.

그리고 남한산성을 수축한 것을 계기로 正祖는 3년 8월에 "南漢·北漢은 다 같은 保障인데 北城에는 誌가 있고 刊本이 있으나 南漢에는 이것이 없다"고 하여 徐命應에게 『南漢誌』를 편찬케 하였다. 또한 서명응은 남한산성 증축에 관한 사실을 상세히 기록한 이른바 '南城新修記'를 지었다. 오늘날 이것은 憲宗 12년

(1846)에 洪敬謨가 쓴『重訂南漢誌』에 전해 오고 있다. 그런데 이 南城新修記碑가 발견되어 남한산성의 개축에 관한 사실을 분명하게 뒷받침해 주고 있다.

② 屛岩南城新修築記碑의 발견과 비문분석

徐命應이 쓴 '南城新修記'가 병암에 새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역시 성남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과 '남한산성을 사랑하는 모임'의 정기적인 답사의 결과였다. 병암은 수어장대로부터 약 200미터 정도 떨어진 西門방향 우측 길가 언덕에 있으며 일명 '병풍바위'라고 흔히 불리었다. 그런데 이 병암 벽면에 바로 서명응의 '남성신수기'가 적혀 있다는 사실을 학술적으로 확인한 것은 참으로 의미있는 일이다. 비의 형태는 한면에는 徐命應의 南城新修記가 24行 19字씩 새겨져 있으나 끝의 3行은 일정치 않다. 세로 110㎝, 가로 170㎝, 깊이 3㎝~14㎝까지 음각 되어 있다.

또 다른 한면에는 內外策應色金必瑞□□□

朴壽燁朴昌祿□□榮

金仁厚金聲□

摠攝載眼

등이 새겨져 있는데 가로 30㎝, 세로 70㎝ 크기로 깊이 2.5㎝정도 역시 음각되어 있다.

가장 왼쪽면의 글자는 거의 알아 볼 수 없을 정도이며 가로 26㎝, 세로 70㎝ 크기로 역시 깊이 2.5㎝ 음각되어 있다. 이 비문에 새겨진 남성신수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南城新修記

我 聖上三載己亥春守禦使臣徐命膺奏曰南漢國之保障也埰堞剝缺今無一完請修之 上曰有貲乎臣命膺對曰原任守禦使洪國榮峙錢一萬緡若益之以九百石米可修也 上乃許以九百石於是臣命膺令前營將廣州府尹李明中董其事留營別將黃仁煥課其功戶房軍官柳德謨兵房軍官金樂愼爲內外都廳敎鍊官韓光賢李彦植爲都監官燔甓者楊德世安漢維石致珹權興樞李碩臣也燔灰者鄭德纘韓載範朴相豊秦光佑廉爀安漢維梁宗浩也其供甓之薪燔則曺漢光安國泰任甓灰之搬運則李顯一李運大李時範是南城執事哨官而顯一松坡別將德世京畿執事也乃選諸校爲十八牌將鄭光奎金時亨李東赫黃道明任天杓鄭龍彬李仁宅李孝章李仁喆金熙人韓光聖李復亨李仁本李碩曾延德雨朴尙蕃孫錫福金翊壽分掌埰堞以繕以築各記姓名於埰面堅完則賞否則有罪衆皆賈勇鼓咎鼓不勝城中父老爲酒豪拘相與勞之稚童幼女負灰載甓爭相其役首尾五十有餘日屹屹粉堞綿亘三十里帳列惟布石堅金固將臺門樓丹雘於城西其上有天啓月日刻餘皆漫漶不辨乃走告府尹府尹曰此始築時記功者留其一以待今數也數其可違乎召工治石屬命應爲之記報國崇祿大夫行判中樞府使兼弘文館提學藝文館大提學知成均館事 奎章閣提學徐命應記通政大夫守廣州府尹□□□□兼京畿右防禦使李明中書

이 비문은『重訂南漢志』의 南城新修記와 대조해 볼때 10行 6字이하 安漢糾, 梁宗浩가 추가되고 같은 行 15字인 甓아래 글자 灰가 누락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같다. 그리고 25行부터 報國崇祿大夫 이하 徐命應記와 通政大夫守廣州府尹이하 李明中書가 새로이 추가된 것이다. 이를 해석, 종합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산성개축시기는 正祖 3년(1879) 봄부터 6월 18일까지 약 50여 일이며,

나. 산성개축이유는 나라의 保障인 남한산성의 埰堞이 剝缺하여 완전한 곳이 하나도 없으므로 개축하였다.

다. 개축의 재원은 前守禦使 홍국영이 모아 놓은 1만 냥과 900석의 쌀(추가분)이었으며,

라. 개축의 감독관과 동원된 인원은

監督官 : 前營將廣州府尹 李明中

指揮官 : 留營別將 黃仁煥

內外都廳 : 戶房軍官 柳德謨, 兵房軍官 金樂愼

都監官 : 敎鍊官 韓光賢, 李彦植
燔甓官 : 楊德世(京畿執事), 安漢維, 石治璈, 權興樞, 李碩臣
燔灰官 : 鄭德瓚, 韓載範, 朴相豊, 秦光佑, 廉嬾
薪摠官 : 曺漢光, 安國泰
搬運官 : 李顯日(松坡別將), 李運大, 李時範.
18牌將 : 鄭光奎, 金時亨, 李東赫, 黃道明, 任天杓, 鄭龍彬, 李仁宅, 李彦章, 李仁喆, 金熙人, 韓光聖, 李復亨, 李仁本, 李碩曾, 延德雨, 朴尙藩, 孫錫福, 金翊壽

마. 수축규모는 粉堞 30里로써 거의 전 성첩에 걸쳐 대대적인 개축이었으며,
바. 남성신수기는 당시 守禦使였던 徐命應이 작성하였고, 碑文의 글씨는 당시 廣州府尹 李明中이 썼음을 알 수 있다.

이상 살핀 바와 같이 남한산성은 축성이후 여러 차례의 증·개축을 통해 오늘날과 같은 민족의 역사문화유산으로 남게 되었다.

4. 남한산성의 성곽시설과 규모

1)성곽시설과 규모

남한산성의 성곽시설은 성벽, 문루, 옹성, 장대, 군포, 돈대, 포루 등이 있다. 성곽시설과 규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元城의 경우 성벽 안둘레는 6,290步로 17里半이며, 바깥둘레는 7,295步로 20里 95步로 석축으로 축성되었다. 성가퀴(女堞)는 1,940타(타)이며 벽돌로 쌓았다.

門樓는 4개인데 東門(左翼門), 西門(右翼門), 南門(至和門), 北門(全勝門)이 그것이며 문루의 이름은 正祖 3년(1779)에 원성을 개축할 때 지었다. 甕城은 모두 5개인데 그 중 南甕城은 남장대를 중심으로 제1옹성(둘레 344보, 여첩109타), 제2옹성(둘레 276보,여첩 87타), 제3옹성(둘레 98보,여첩 31타)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옹성에는 여첩이외에 大砲穴이 모두 22개 만들어졌으며 석축의 형태로 축성되었다. 連珠峰甕城은 北將臺를 중심으로 둘레 231보, 여첩 37타로 축조되었으며, 長慶寺信地甕城은 장경사부근에 둘레 127보, 여첩 40타의 석축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將臺는 4곳에 건립되었는데 그 중 東將臺는 동문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내동장대와 외동장대로 나뉘어 담당지역을 방어하였다. 내동장대는 左部別將인 여주목사가 유사시에 군사 1,991명을 편성하여 지켰으며, 봉암성 주변에 있

는 외동장대는 後營將인 죽산부사가 군사 2,608명을 편성하여 방어하였으며, 西將臺는 서문 남쪽에 위치하여 守禦將臺라고도 하는데 이는 유시시에 중앙의 守禦使가 산성군을 총괄적으로 지휘하는데 따른 것이다. 이 서장대는 右部別將인 이천부사가 군사 2,000명을 편성하여 지킨 곳이며, 南將臺는 남문에 왼쪽에 건립하여 前營將 광주판관이 군사 2,608명을 편성하여 수어하였다. 그리고 北將臺는 북문 왼쪽에 건립하여 中營將인 양주목사가 군사 2,608명을 편성하여 방어하였다. 軍鋪는 군인들의 哨所로서 125곳에 건립하였으며, 暗門은 비상시 사람과 물건들을 운반하는 비밀출입구로서 각문의 좌우에 모두 9개를 설치하였다.

한편 外城의 경우 봉암성은 둘레 962步로 길이가 7里이며, 女堞 294타, 暗門 4곳, 軍鋪 15곳 그리고 砲壘 5곳을 설치하였으며, 한봉성은 둘레 895步, 女堞 272타, 暗門 1곳이고, 신남성은 南格臺라고도 하는데 둘레 743步, 女堞 238타, 砲壘 1곳, 墩臺 2곳을 설치하여 산성의 火攻技術을 마련하였다.

2) 行宮과 官衙시설

남한산성에는 남한산성을 수축한 이후 廣州府의 邑治를 산성안으로 옮김으로써 行宮과 더불어 많은 官衙시설물이 건립되었다. 행궁은 임금이 溫泉이나 陵園을 참배하기 위하여 지방행차시에 임시로 거처하는 곳으로서 行在所라고도 한다. 남한산성의 행궁도 英陵(世宗)이나 寧陵(孝宗)에 참배하기 위하여 仁祖 2년(1624) 9월에 서장대 아래에 건립되었다. 이 행궁은 上闕(內行殿) 73칸반과 下闕 (外行殿) 154칸으로 모두 227칸 반의 규모로 건립되었다.행궁 좌우에는 좌승당, 일장각이 있으며,하궐에는 外三門을 세우고 正祖 22년(1789)에 門樓를 漢南樓라 하였다. 이 행궁은 임금의 행차시와 유사시에는 임금의 거처로서 사용되었으며, 평시에는 주로 광주유수의 時務所로서 사용되었던 것이다. 행궁 북쪽에는 肅宗 37년(1711)에 左殿 26칸을 건립하여 宗廟를 奉安하였고, 右殿 4칸을 지어 社稷을 奉安하였다. 그리고 仁祖 2년(1624)에 목사 柳琳이 人和館을 지어 客館으로 사용하였다.

官衙로는 상궐 왼편에 左勝堂이 있었는데 純祖 17년(1817)에 유수 沈象奎가 건립하여 扁額을 有此山樓라 하였다. 또 하궐 왼편에 日長閣을 純祖 29년(1829)에 유수 李止淵이 건립하였고, 守禦在營은 예전의 鍊武堂을 숙종때 수어사 金在明이 鍊兵館으로 하였다가 정조 때에 이르러서 守禦在營이라 하였다. 이는 일종의 군사훈련장이다. 制勝軒은 英祖 24년(1748)에 부윤 南泰溫이 건립한 것으로, 그 안에 正祖 10년(1786)에 內圍를 건립하였다. 이외에도 남한산성에는 裨將廳, 敎鍊官廳, 旗牌官廳, 本廳, 軍官廳, 別軍官廳, 親牙兵哨官廳, 標下廳, 伺候廳, 書

吏廳, 巡令手廳, 吹手廳, 軍牢廳, 訓導廳, 細樂手廳, 營奴廳, 僧徒廳, 鄕廳 등의 관청이 건립되었다. 樓亭은 有此山樓(좌승당 뒤), 觀魚亭(지수당 연못안), 緩帶亭(下闕 서쪽), 枕戈亭(행궁 서쪽), 又喜亭(緩帶亭 아래), 無忘樓(서장대), 以威亭(좌승당 오른쪽), 垂雲樓(남장대), 以明亭(이위정 왼쪽), 九松亭(漢興寺), 玉泉亭(行殿 뒤) 駐蹕臺(동문 밖), 地水堂(동문 안) 등이 있다.

3) 倉庫施設

산성안의 창고시설은 행궁 및 관아의 소요물품인 진상과 여러 가지 관수물자를 비축하고 특히 군량을 보관하기 위하여 많은 창고를 건립하였다. 대표적인 창고는 營庫, 新·舊南倉, 新豊倉, 別倉, 東倉, 新北·舊北倉, 경倉, 僧倉, 保障庫, 補餉庫, 補闕庫, 城機庫, 軍器庫, 兵房所, 復戶所, 雇馬所, 助粮所, 環頭所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 營庫는 京營의 留營으로써 광주유수가 산성을 수비한 뒤에 붙여진 명칭인데 備蓄과 조적,支放,需用의 역할을 담당한 창고로서 금, 은, 포백 및 소금, 간장 등을 저장한 창고로 모두 24字庫 201칸(間)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경창은 호조와 진휼청, 상평창의 곡물을 쌓아 두는 곳으로 여러 가지 제향과 진휼에 대비하기 위하여 설치한 창고이며, 僧倉은 수어사 李世白이 空名帖으로 모아 해마다 환곡으로 그 이자를 모아 저축한 것으로 軍餉의 성격을 띤 창고의 하나였다. 保障庫는 營庫와 표리관계를 이루는 창고로써 京廳의 戶房所 倉庫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으로 京廳의 각종 수입을 비축하여 支放, 排朔, 儲置, 給代 등의 비용으로 출납한 창고이다. 補餉庫는 광주부의 수입, 지출을 관장하는 창고로써 주로 및 군관 들의 생계비를 출납하였다. 보관고는 본래 지출하는 곳이 아니라 군향곡을 옮겨받아 이자를 받아 돈으로 바꿔 다른 창고로 이송하는 창고이며, 城機庫는 城堞 및 官廳의 수리, 보수에 들어가는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한 창고이며, 軍器庫는 군기물자의 비축을 위해, 兵房所는 각 지방 鄕僧들의 義僧放番錢을 보관하여 僧軍들에게 급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창고이고, 복호소란 산성안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진휼하기 위해 국가에서 田結 1,000결의 세입을 저장한 창고이며, 또한 雇馬所는 광주부에 사용할 말을 고용하기 위해 800 냥의 경비로 20필의 말을 준비한 창고이며, 助粮所는 公私의 使役과 각종 貢馬의 수입으로 助粮하기 위한 창고이다.

4) 寺刹과 壇廟施設

산성안에는 8도의 승군을 모아 산성역을 부과하고 각도의 승군들을 供饋하기 위하여 사찰을 건립하였다. 이 사찰들은 승군들의 숙소기능 뿐만 아니라 軍器와 火藥을 비축하여 승군의 산성을 수비하는 기능을 겸하였던 것이다. 사찰의 元僧軍은 138명이고, 義僧은 356명이며, 義僧立番制에 따라 義僧防番錢을 각도의 鄕僧으로부터 징수하여 산성의 승군들을 고용하는 재원으로 충당하였다.

산성안에는 모두 9개의 사찰이 있는데, 그 중 忘月寺는 가장 오래된 절로써 옛날의 望月奄에서 유래된 것이다. 고려 때의 漢陽에 있었던 將義寺를 조선의 태조가 한양천도 이후 불상과 금자화엄경 등을 이곳에 옮겨 건립한 사찰이다. 玉井寺(북문 남쪽), 開元寺(동문안), 漢興寺(개원사 동쪽), 國淸寺(서문 안), 長慶寺(동문 북쪽), 天柱寺(서장대 아래), 東林寺(봉암 아래), 南壇寺(한흥사 서쪽), 靈源寺(동문 밖)가 있다.

단묘에는 남단사 오른쪽에 세운 社稷壇(左社,右稷)이 있는데 이것은 古邑의 草德里에 있었던 사직을 英祖 때(1735)에 부윤 曹命敎가 옮겨 설치한 것이며, 城隍壇은 북문안의 동쪽에 설치, 여제 때에 제사를 올리던 곳이며, 여단은 북문안에 설치, 1년에 세 번 청명일,7월15일,10월1일 제사를 지낸 곳이며, 祈雨祭壇은 청량산 서장대에 설치하여 기우제를 지낸 곳이다. 또한 溫祖王廟를 仁祖 16년(1638)에 건립하여 溫祚王과 李曙를 배향하고 춘추로 제사를 지냈으며, 正祖 19년(1795)에 崇烈祠라 하였다. 그리고 顯節祠는 동문 안에 肅宗 14년(1688) 유수 李世白이 건립한 것인데, 병자호란 당시 청의 침입에 대하여 끝까지 저항할 것을 주장한 척화파의 掌令 洪翼漢, 校理 尹集, 校理 吳達濟의 位牌와 좌의정 金尙憲, 이조참판 鄭蘊의 위패를 配享한 곳으로 崇義排淸 정신이 깃든 유서깊은 문화유적이다.

5. 남한산성의 역사·문화적 의의

남한산성은 조선후기 임진왜란 이후 군사적으로 그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재수축되었다. 특히 인조반정 이후 이괄의 난을 겪으면서 또한 동북아의 정치적 변화에 따른 청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도성방어책의 일환으로써 江都와 더불어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었다. 그 결과 남한산성은 재수축되었으며 여러 가지 성곽시설을 축조하므로써 한국산성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던 것이다.

남한산성의 역사·문화적 의의로써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도성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전략적 보루역할을 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임진왜란 이후 5군영과 속오군체제에 의해 수어청을 설치하여 초기에는 수어청을 도성에 두었으나 나중에는 남한산성의 수축과 함께 산성안에 수어청을 이전하고 광주유수가 겸직하도

록 함으로써 수어사가 남한산성을 지휘감독하여 도성방어의 보루로 삼았다. 따라서 남한산성의 방어체계 역시 5영제에 의한 군사조직을 편성하여 전·후·좌·우·중영제를 근간으로 여주, 죽산, 이천, 광주, 양주의 군사를 유사시에 동원하여 산성을 수비하게 하였던 것이다.

둘째로 丙子胡亂 당시 抗淸정신의 모체역할을 하여 주전파인 三學士(홍익한, 윤집, 오달제)의 忠君愛國 정신을 한껏 발휘한 점이다. 사실 당시의 성리학이념에 의한 尊王攘夷的 춘추대의론과 명분론에서 본다면 오랑캐로 여겼던 청의 침입에 대항하여 저항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실리론적 입장에서 청과 화의를 주장하는 세력들도 많았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속에서 삼학사들은 성리학적 이념에 충실하여 排淸崇明 정신을 바탕으로 목숨을 던진 저항을 통해 항청의지를 드높였던 것이다. 이는 오늘날 외세에 의한 정치, 경제, 문화적 유입이 홍수처럼 밀려들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다시 이러한 정신적 틀을 재조명하여 생활속에서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셋째로 남한산성은 園行 또는 陵幸路上에 위치하고 있어 행궁에서의 임시 지방국정을 時務하던 곳이며,군사조련과 과거시험을 보는 등 군사 및 민의 수렴의 장이었다는 점에서 지방화시대에 지역주민의 문화의식을 제고하고 지방행정에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문화적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충군애국적이며 외침과 불의에 저항, 비판할 수 있는 시민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넷째는 지방화시대에 즈음하여 향토역사유적의 조사와 발굴 및 보존을 통하여 조상의 국난극복정신과 국민통합의 방법 그리고 산성 축조기술을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생활문화의 창조와 함께 관광자원화하여 지역주민의 경제활성화와 개발이익을 균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역주민의 통합과 민족문화에 대한 일체감 그리고 문화자존의식을 고양시킴으로써 지역과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시민의식, 향토애를 함양하는 데 커다란 의의가 있을 것이다.

여 백

남한산성과 병자호란

전 보 삼

남한산성은 삼국 시대 이래로 우리 민족사의 중요한 절과 목으로 기능하여 온 곳이다. 한강과 더불어 남한산성은 삼국의 패권을 결정짓는 주요 지점이었다. 백제의 사람들은 남한산을 그들의 성산과 진산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백제가 하남 위례성에 도읍을 정한 이후 백제인들에게 있어서 남한산은 성스러운 성산이요, 진산의 개념이었다. 남한산성 내에는 백제의 시조 온조대왕을 모신 사당 숭열전이 경기도 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어 있는 연유도 이와 무관하지만은 않은 이유일 것이다. 남한산성 북문에서 이어지는 토성은 하남시 춘궁동, 교산동으로 이어지면서 이성산성과 백제 시대를 설명하는 많은 문화유산의 자료를 제시하여 주고 있다. 그리고 신라에 의하여 오늘의 남한산성 윤곽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신라는 여기를 일장산성으로 부르며 국방의 요새지를 만들기 위하여 토성을 쌓았다.

조선왕조 시대의 남한산성은 선조 임금 이래로 순조 임금에 이르기까지 남한산성은 국방의 보루로서 그 역할을 유감없이 발휘한 장소였다. 그 중에서 특히 조선왕조 16대 임금인 인조는 남한산성의 축성과 몽진, 항전이라는 역사의 회오리를 여기 남한산성에서 맞고 보낸 분이다. 인조 원년(1623년)부터 본격적인 남한산성 축성 공사가 시작되어 1626년에 완공되고, 산성 내에는 행궁을 비롯한 인화관, 연병관 등이 차례로 건축이 되어 400년의 역사적 시간을 갖고 있는 문화유산들을 남기게 되었다. 이러한 문화유산은 1894년 산성 승번 제도가 폐지되고, 산성의 관리가 소홀하여지더니 1905년 조선 군대의 해산 이후는 일본군에 의하여 화약과 무기가 많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다. 그 이후 주인을 잃은 민족의 문화유산들은 돌보는 사람 없이 방치되다가 하나, 둘 역사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가는 비운의 역사 현장으로 변하여 갔다.

오늘의 남한산성을 돌아보면 몇몇의 문화재들과 많은 문화유산의 흔적만을 찾을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시점에서 지역사랑의 향토 문화 교재가 편찬되어진다니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다.

*신구전문대학 교수

1. 남한산성의 역사 · 문화적 배경

한강은 한반도의 허리 부분을 횡으로 흐르는 큰 강인 만큼 옛날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영토의 패권을 다투던 곳이다. 그러므로 한강 유역을 점령한 나라는 번성하였고 빼앗긴 나라는 쇠퇴하였다. 남한산성은 한강을 중심으로 그 남쪽에 있는 산으로 일찍이 신라인들에 의하여 큰성을 쌓기 시작한 우리 나라 산성의 가장 대표적인 성이다.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이 지역은 선사시대와 삼한시대 즉 유사 이전의 시대는 고인돌을 위시한 문화 유적이 발굴되고 있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땅이다.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이 일대에 최초로 백제의 시조 온조왕 14년(BC 5년)에 한반도의 서남쪽에 천도의 도읍지로 정한 하남 위례성(몽촌 토성 일대)의 땅이다. 여기를 중심으로 십제에서 나라 이름을 백제라 개칭한 땅이었다. 그 이후 춘궁동, 이성산과, 남한산에 도읍을 정하니, 지금의 서부면 춘궁리 일대를 중심으로 남한산성은 백제의 전성기 약 400년 간의 중심 무대였다. 지금도 남한산성 북문 밖을 고읍 즉 고고을, 고골이라 부르고 있으며, 남한산성에는 온조대왕을 기리는 온왕청과 온왕묘가 있었다. 백제 개로왕 21년(AD 475년)에 고구려의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의 남진 정책에 밀려 충남 웅진으로 천도함에 따라 남한산성 일대는 고구려(60여년간)의 땅이 되었고, 그 세력은 충주 중원에까지 떨쳤다. 그후 신라 진흥왕이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이 일대의 영토를 차지함으로써 신라의 땅이 되었고, 그 세력은 평양에까지 미쳤다. 신라 문무왕 3년(663)에 한산주, 문무왕 8년(668)에 남한산주, 경덕왕 15년(AD 756)에 한주(1주 1소경 38군 및 47현이 속한 경기도 정도의 크기)라 칭하였다. 신라는 이 땅을 확보함으로써 국제 외교사에 등장하였고 나아가 나당 연합군을 만들어 내는 외교적 솜씨를 보였으며, 삼국 통일의 대업의 기초를 이 땅에서부터 쌓았다.

지금의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광주라 함은 고려 태조 23년(AD 940)에 한주로부터 개칭하였으니 1054년 전의 일이다. 고려 성종 2년(983)에는 처음으로 12목 중에서 광주목이 되었으며, 동 14년 12절도사를 둘 때에 광주를 봉국군 절도사를 고치어 관문도에 소속시켰다. 현종 3년에는 절도사를 폐하고 안무사를 삼았고, 동 9년 12목을 줄여 8목으로 고칠 때에도 광주목은 그대로 남았다.

조선조 세조 때는 근기사진의 좌보로 중요시하였고, 세종 때 광주에 진을 두어 여기에다 여주, 이천, 양근, 지평, 음죽, 양지, 죽산, 과천 등을 모두 광주 땅에 소속시켰다. 선조 10년(1577)에 광주부로 승격되어 수어사를 겸하였다. 그리고 인조 원년(1623)에는 광주 유수제를 실시하였다. 인조 4년(1626)에는 남한산성을 대대적으로 쌓고 주치를 성내로 옮기었고, 동 8년에는 광주 부윤으로 되었다.

인조 14년(1636)에 청나라가 침입하였을 때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이어하여, 47일 동안 항전을 한 역사를 간직한 땅이었다. 그 이후 남한산성은 수어사가 관리하는 조선왕조 시대에는 수도권 방어에 중요한 중심 축으로 발전한 산성 도시였다.

남한산성의 역사적 배경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라 문무왕 12년에 당병을 막기 위하여 지금의 남한산 동봉에 성을 구축하여 야장성, 또는 일장성이라 불렀다. 조선왕조에 들어와서 본격적인 오늘의 석성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조선왕조 선조 28년(1595)에 축조를 서두르기 시작하였고, 임진왜란을 겪은 후 산성의 요새화는 조정의 큰 역사의 하나였다. 서산대사도 승병을 이끌고 남한산성에 오른 기록을 조선왕조실록은 남기고 있다. 그후 광해군 13년(1612)에 다시 증축하였고, 인조반정의 공신록을 두고 2등 공신에 책록이 된 이괄은 난(1624)을 일으키니 인조는 황급히 공주로 피신하는 곤욕을 치르면서 남한산성의 중요성을 한층 강조하기에 이른다. 그러므로 인조 4년(1626)에 수어사 이서에게 명하여 다시 개축하였고, 수어청을 두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게 하였으며, 개원사에는 승군 본영을 두었다. 여기 남한산성 개원사를 본영으로 하여 벽암 각성 선사가 조선 8도 도총섭으로 전국의 승려들을 관장하여 남한산성의 수축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므로 조선 8도의 사찰이 건립되었고, 호국 의승군의 정신적 도량이 되었다. 산성이 완공된 후에도 승려 370여 명으로 승군을 조직하여 산성의 수비를 책임졌으며, 1894년 갑오경장 이후 개화의 물결에 남한산성의 승번제가 폐지될 때까지 270년간 지속된 제도였다. 그러므로 남한산성은 호국 승군들의 의지가 살아 있는 땅이었다.

그리고 현절사를 중심으로 한 삼학사의 정신은 조선의 충절을 대표하는 선비정신의 요람지가 되었다. 행동과 실천이 뒤따르는 삼학사의 고귀한 애국심과 충절을 되새길 수 있는 땅이 바로 이 남한산성이다. 남한산성은 민족사의 우뚝 솟은 준봉이 되었다. 병자호란 이후 동, 서, 남의 3문에 문루를 세우고, 4방에 장대를 축조, 그리고 봉암외성, 한봉외성, 신남성, 포루, 돈대, 암문 등이 중축되었다. 성벽 주위는 8km의 견고한 석성이 되었다.

중앙의 방어 체계는 오군영제였다. 즉 서울 도성에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이 있고, 수도 외곽에 수어청과 총융청을 두어 내우외환을 대비하였다. 남한산성은 수어청을 두어 관리하게 되었다. 수어청은 반청운동의 상징이었고, 수어사는 판서급 중신이 맡았다. 그러므로 남한산성은 외적의 침입과, 왕권의 강화를 위한 나라의 방위를 공고히 하게 되었다. 배청의식을 심어 민족정기를 불러일으키며 민족주체의식을 심화시켜 나갔다. 그리고 민족정기를 더욱 신장시켜 패배의 절망을 딛고, 더욱 빛나는 문화 전통을 창출하는 역사의 땅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

통은 근세에까지 이어져서 조선왕조의 구 한말에는 의병 운동의 산실로서 남한산성의 지세를 활용하여 구국 운동의 산실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1919년 기미 만세 운동 시에도 어느 지역보다도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3·1 운동의 횃불을 높이든 땅이었다. 민족 자존의 땅 남한산성임을 우리는 역사에서 옳게 배워야 한다.

남한산성은 해발 496미터의 고지대로서 천연적인 울창한 수림과 수도권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송림, 기이한 바위의 모습은 이 산성을 오르는 많은 도시민들에게 자연의 경이로움을 가져다준다. 평균 높이가 400~450미터의 고원 분지로서 서울 보다 약 350미터나 높은 지리적 위치에 있고,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언덕과 골짜기로 형성되어 있어 천연적인 요새지이다. 서울 보다 항상 4~5도가 낮은 기온을 나타내고 있어 여름철에는 많은 도시민이 몰리는 피서지로서 알맞은 곳이라 할 수 있다. 남한산성은 천연적인 자연 자원과 더불어 백제의 온왕청을 위시하여 수어장대 등 많은 문화 유적이 있었다. 남한산성의 본격적 축성이래 270년간의 긴 세월 동안 많은 문화재들이 국가의 특별 관리로 잘 관리되다가, 1894년 갑오경장 이후 산성의 승번제도를 폐지하면서 많은 문화재들이 파손되어 갔다. 더욱이 일제는 1907년 8월 1일 조선인의 화약과 무기를 수거하면서 남한산성의 많은 문화 유적들을 화약의 잿속에 묻어 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와 문화마저 묻어 버리고 말았다. 더 나아가 남한산성은 치욕적인 땅이요, 패배의 땅이라는 자괴감에 젖게 하였다. 그러므로 식민지의 사관을 철저하게 심어 놓았다. 이제 역사의 긴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여기 남한산성을 옛 조상들의 생활 풍속과 나라사랑의 정신을 관찰, 탐구할 수 있는 민족정신의 자세를 가다듬는 국민교육장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어 낮이 짧은데 반하여, 남한산은 산은 높으나 골이 깊지 않으므로 낮이 길다 하여 일장산 또는 주장산이라 불렀다. 인조 2년(1624)에 당시 수어사 이서가 책임을 지고, 축성의 공사 책임은 판선교도총섭으로 봉은사에 머무르던 벽암 각성선사를 조선 8도 도총섭으로 임명하여 8도의 승군을 동원하여 진행하였다. 1626년에 현재의 남한산성의 석성의 모습을 완성하니 2년 5개월의 대역사였다. 이때의 석성의 전 둘레가 6,277보이고 성가퀴가 1,700첩이며, 사방에 성문을 만들고 16개의 비밀문이 있었다. 그리고 성안에는 관아와 행궁이 있었다. 그리고 동, 서, 남, 북에 4개의 장대가 있었고, 전부터 있던 망월사와 옥정사 외에 7개의 사찰을 새로 지어 4장대의 좌, 우에 배치 하였고 개원사에 승도청을 두어 승군을 총괄하였다. 그 외에도 옹성, 성랑, 우물, 샘 등의 시설을 갖추었다. 남한산성 안의 시설물의 확장은 인조 때부터 순조 때까지 계속되었다.

임금이 거처할 행궁은 상궐이 73칸 반, 하궐이 154칸이었다. 숙종 14년(1688)에 재덕당을, 숙종 37년(1711)에는 종묘를 봉안하기 위하여 좌전을 세우고, 남문

안에는 사직을 모실 우실을 세웠다. 정조 22년(1798)에는 행궁 바깥 삼문의 상루인 남한루를 세웠었다. 객관인 인화관은 인조 2년(1624)에 세운 것인데 순조 29년(1829)에 수리되었다.

이상은 궁실에 따른 시설들이고, 관아 건물로는 좌승당, 일장각, 수어청, 제승헌을 비롯하여 군사 기관으로는 비장청, 교련관청, 기패관청 등을 위시한 20여개의 건물과 종각, 마랑, 뇌옥, 성황당, 여단 등이 들어섰다.

이 산성의 수비는 처음에는 총융청에서 맡았다가 성이 완성되자 수어청이 따로 설치되었고, 여기에는 전·좌·중·우·후의 5영이 소속되었는데, 전영장은 남장대에, 중영장은 북장대에, 후영장과 좌영장은 동장대에, 우영장은 서장대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리고 남문을 지화문, 동문을 좌익문, 북문을 전승문, 서문을 우익문이라 하였다.

남한산성에 현재 남아 있는 문화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호인 수어장대, 제2호인 숭열전, 제3호인 청량당, 제4호인 현절사, 제5호인 침괘정, 제6호인 연무관이 있고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14호인 지수당, 제15호인 장경사가 있고, 경기도 기념물 제111호인 망월사지와 제119호인 개원사지 그리고 행궁터가 경기도기념물 제164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영월정, 영춘정, 동문, 서문, 남문, 북문과, 장경사, 국청사, 개원사, 망월사 등과 보, 누, 돈대 등이다.

현존하는 문화재 보다도 역사 속으로 사라진 문화재를 더 많이 간직한 남한산성은 옛 문화 유적을 찾아 문화 유적의 표석이라도 찾아 세워야 한다. 민족의 자존이 숨쉬고, 민족 문화의 자긍심을 심어 가기 위하여서도 이 땅의 역사를 기록하여야 한다. 우리들의 무심을, 아니 우리들의 무지를 일깨워 다시는 역사의 암흑시대를 만들지 말고 민족 자존의 역사와 문화를 남한산성에서 배우고 익혀야 하는 도장이 되어야 한다.

2. 병자호란의 경위

정묘호란 후 조선은 후금의 요구를 들어 1628년(인조6) 이후 중강과 회령에서 각각 무역을 재개, 예폐 이 외에도 약간의 필수품을 공급하여 주었다. 그러나 후금의 태종은 당초의 맹약을 위반, 조선에 대해 식량을 강청하고 병선을 요구하는 등 압박을 가해 왔다. 뿐만 아니라 후금군은 압록강을 건너와 변경 민가에 침입, 약탈을 자행하는 것이 잦아졌고, 이에 변방민과 그곳 수장들의 괴로움은 점점 더하여 갔다. 이와 같이 후금이 조선과의 맹약을 어기게 되자 조선의 여론은 군사

를 일으켜 후금을 치자는 척화배금론이 비등하여 갔는데, 도리어 후금은 정묘호란 때 맺은 '형제의 맹약'을 고쳐 '군신의 의'로 할 것을 요구해 왔다. 뿐만 아니라 황금·백금 1만냥, 전마 3,000필 등 종전보다 훨씬 무리한 세폐와 정병 3만까지 요구해 왔다. 이 무리한 요구에 조선은 크게 반발, 전국에 선전의 교서까지 내리고 후금에 대항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러던 차에 1636년 4월 후금은 국호를 청이라 개칭하고 조선에 대해서는 왕자를 볼모로 보내 사죄할 것을 요구, 불응할 경우 조선을 공략하겠다고 협박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가 조선에 의해 받아들여질 리가 없자 청 태종은 직접 12만의 대군을 이끌고 조선에 침입을 감행한 바, 이것이 병자호란이다.

그 해 12월 1일 청 태종은 청군 7만, 몽고군 3만, 한군 2만, 도합 12만의 대군을 심양에 모아 예친와 대선, 예친왕 다이곤, 예친왕 다탁과 패륵, 약탁, 호격, 두도 등을 인솔하여 다음 날 몸소 조선 침략에 나섰다. 9일 압록강을 건넌 청군은 다탁으로 하여금 전봉장 마부태에게 명해서 곧바로 서울로 진격하도록 하였다. 마부태는 의주 부윤 임경업이 백마산성을 굳게 지키고 있음을 알고 이를 피하여 밤낮으로 달려 심양을 출발한지 10여일 만에 서울에 육박하였다.

청군이 압록강을 건너 조선을 침입하였다는 급보가 중앙에 전달된 것은 12일, 의주 부윤 임경업과 도원수 김자점의 장계가 도착한 뒤였다. 보고에 접한 조정에서는 비로소 적의 형세가 급박한 것을 알고는 있었으나, 이토록 빨리 진격 해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다. 13일 오후 늦게 재차 치계가 이르러 청군이 이미 평양에 도착하였다고 하자 조정은 갑작스런 변란에 황망하여 결단을 내리지 못하였고, 도성 안은 벌써부터 분위기가 흉흉하여지면서 성을 빠져나가는 자들이 속출하였다. 14일에는 개성 유수의 치계로 청군이 개성을 지났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고, 이에 황급히 판윤 김경징을 검찰사로, 부제학 이민구를 부사로 임명하고 강화 유수 장신으로 주사 대장을 겸직시켜 강화를 수비하도록 하는 한편, 원임대신 윤방과 김상용에게 하명, 종묘사직의 신주를 받들고 세자빈 강씨, 원손, 둘째 왕자 봉림대군, 셋째 왕자 인평대군을 인도하여 강화도로 피난토록 하였다. 그리고 상중의 심기원을 유도 대장으로 삼고, 호조 참의 남선을 찬획사에 임명하였다.

실은 인조도 그날 밤에 남대문으로 해서 서울을 빠져나와 강화도로 향하려고 하였으나, 적정을 탐색하던 군졸이 달려와 청군이 이미 영서역(지금의 은평구 대조동과 불광동 사이)을 통과하였으며, 마부태는 기병 수백을 거느리고 홍제원에 도착, 일대를 보내 양천강을 차단하고 강화도로 가는 길을 막았기 때문에 이미 강화로의 피난은 불가하다고 보고하자, 인조는 다시 성안으로 들어와 사후 대책을 물었다. 이때 전 철산 부사 지여해가 정병 500명으로 사현에 나가 청군의 선

봉을 무찌르겠다고 하니 제신들은 소수의 군사로 적을 시험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반대, 결국 이조 판서 최명길이 홍제원 청군 진영에 나가 굴과 고기를 먹이면서 출병의 이유를 묻는 등 시간을 지연시키는 사이에 인조는 세자와 백관을 대동하고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다. 인조 일행이 남한산성에 온 뒤 영의정 김류 등은 본 산성은 지리적으로 불리함을 들어 야음을 틈타 강화도로 옮길 것을 역설, 익일 15일 새벽 인조는 강화도로 향하려 하였으나 마침 눈이 내린 뒤라 산비탈 길이 미끄러워 왕은 말조차 탈 수가 없었으므로 걷기로 하였다.

그러나 길도 험할 뿐더러 몸도 편치 못하여 강화도로 옮기는 것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산성으로 되돌아와 산성 수비의 진영을 정비, 서울로부터 뒤따라온 훈련 대장 신경진은 동성 망월대를 지키게 하고, 이영달은 중군, 총융사 구굉은 남성을 지키게 하였다. 그리고 수원 부사 구인후는 부장, 이확은 중군을 삼고, 어영대장 이서는 북성을, 수어사 이시백은 서성을 지키게 하였다. 또한 이직을 중군으로 삼는 동안 여주 목사 이필원, 이천 부사 조명욱, 양근 군수 한회일, 지평 현감 박환 등과 파주 목사 기종헌이 수백의 군사를 거느리고 입성하였다.

당시 성안에 있는 군사의 수는 1만 3천명 정도로서, 도원수·부원수와 각도의 관찰사·병사에서는 근왕병을 모으도록 하는 한편 명나라에 위급함을 알려 원병을 청하기도 하였는데, 이 때 성안에는 양곡 1만 4천 3백석, 장 220항아리, 소금 90여석의 비축 물량이 있었다.

청군의 선봉 부대는 12월 16일에 이미 남한산성에 다다랐고, 청 태종의 사신 담태의 군사도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은 채 서울에 입성, 그 길로 한강을 건너 남한산성을 포위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정월 1일에는 청 태종이 친히 20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산성 밑 탄천변에 포진, 산성 동쪽의 망월봉에 올라 성안을 굽어보며 조선 군의 동태를 살피기에 이르렀다. 산성이 포위 당한 상태에서 산성 주변 지역의 주민들은 청병의 약탈의 대상이 되어 그 참상은 이루 형언키 어려울 지경이었다.

조선군은 포위 당한 상태에서 12월 18일 부사 원두표가 성안의 장사를 모집, 성을 빠져나가 순찰 중인 적군 6명을 죽인 것을 비롯하여 20일에는 훈련 대장 신경진이 출전, 적병 30명을, 익일에는 어영대장 이기축이 다시 10명을 죽이는 전과를 올려 성안의 사기를 올리는 듯 하였으나, 그 외에는 이렇다 할 큰 전과 없이 40여일이 경과하게 되었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성안의 상황은 불안하게만 되어 갔다.

청군이 산성을 포위하고 있는 동안 각지로부터 관찰사·병사 등에 의해 구원병이 출전 기병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목적지에 이르기도 전에 무너지거나 패하고 말았다. 충청도 관찰사 정세규의 군사는 험천에서 패하였고, 이성 현감 김홍익,

남포 현감 이경은 초전에 전사하였으며, 경상 좌병사 허완과 경상 우병사 민영의 군사는 광주 장령에서 패하고 말았다. 전라 병사 김준룡이 용인 광교산에 이르러 적장 액부양고리를 죽이고 승첩을 거두기도 했으나 곧 역습을 당하고 수원으로 퇴각, 무너지고 말았다.

또 평안도 관찰사 홍명구는 김화에서 전사하였고, 부원수 신경원은 맹산 철옹에서 사로잡혔으며, 도원수 김자점의 군사는 토산에서, 그리고 강원 감사 조정호, 함경 감사 민성휘 등이 모두 패퇴, 중도에서 좌절하고 마니 남한산성은 이제 고립무원의 절망적인 상태가 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명에 요청했던 원군도 바랄 수 없는 처지였고, 경기·호남·경상도 등지에서 의병이 일어나기도 하였으나 별로 큰 전과를 올리지는 못하였다.

이와 같이 산성을 향하여 오는 구원병은 모두 붕괴되고 성중은 밖과 완전히 두절된 채 의지할 곳이 없게 되자 차츰 강화론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주화파는 주전파와 여러 차례 논쟁을 거듭하였고, 주전파 역시 난국을 타개할 만한 방도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예조 판서 김상헌, 이조 참판 정온 등의 반대가 있었지만, 대세는 강화를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게 되었다.

1637년 1월 3일, 인조는 최명길·이식·장유 등에게 회답의 국서를 기초하게 하였는데, 최명길의 글이 그 중 공손하다 하여 그것을 채택, 좌의정 홍서봉, 호조 판서 김신국 등을 청군 진영에 보내어 화호를 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청 태종의 답서는 조선 국왕이 친히 성안에서 나와 자기 군문에 항복하고 척화 주모자 몇 명을 결박지어 보내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조선은 이에 선뜻 응할 수 없어 정론이 구구한 채 또 다시 주저하게 되었을 즈음, 이 무렵 강화도가 청군에게 함락당하였다는 비보가 당도하였고, 얼마 안 있어, 포로가 된 대군의 수서와 재신 윤방과 한흥일 등의 장계를 보이는 한편, 강화 함락과 더불어 붙잡힌 군신의 처자 등 200여명을 남한산성 청군 진지에 송치, 참상을 목도케 하니 성중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고, 인조는 드디어 출성을 결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홍서봉·최명길·김신국 등이 적진을 내왕하며 항복의 조건을 제시하고, 또 청군 진영에서도 용골대·마부태 등의 사신이 우리 성안에 들어와서 조건을 제시한 끝에 다음과 같은 조약에 합의하게 되었다.

1. 조선은 청에 대하여 신의 예를 행할 것.
2. 조선은 명으로부터 받은 고명책인을 청에게 바치고 명과의 교호를 끊으며, 명의 연호를 사용하지 말 것.
3. 조선 왕은 왕의 장자와 차자, 그리고 대신의 아들을 볼모로 청에 보낼 것.
4. 청이 명나라를 정벌할 시 조선은 기일을 어기지 말고 원군을 파견할 것.

5. 청이 가도를 공취할 때 조선은 배 50척을 보낼 것.
6. 성절·상삭·동지·중궁천추·태자천추·경·조 때의 사신의 파견은 명의 구례에 따를 것.
7. 압록강을 건너간 뒤에 피로인 중에서 도망한 자는 진송할 것.
8. 내외 제신과 혼인을 맺어 화호를 굳게 할 것.
9. 조선은 신구의 성원을 보수하거나 쌓지 말 것.
10. 조선 안에 있는 올량합인은 마땅히 쇄환할 것.
11. 조선은 기묘년(1639)부터 세폐를 보낼 것.

이상의 11개 조문은 조선으로서는 힘겨운 부담이며, 고통이었다. 그러나 1월 30일, 인조는 세자와 함께 호곡 소리가 산 성안을 가득 메운 가운데 서문으로 출성하여 한강 연안의 삼전 나루에서 '성하의 맹'의 예를 행한 뒤 한강을 건너 서울에 돌아왔다.

비록 한달 하고도 달포동안의 짧은 전쟁 기간이었으나 임진왜란으로 인한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당한 그 피해는 왜란 때의 피해에 버금가는 것이요, 조선으로서는 일찍이 당해 보지 못한 일대 환란이었다. 어쨌든 이로써 조선은 명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청나라에 복속하게 된 바, 이와 같은 관계는 1894년의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일본에게 패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청에 항복 후 조선은 청의 명에 따라 삼전도 남쪽 항단 자리에 소위 '대청황제공덕비'를 세우게 되었다. 비의 건립 공사를 위해 청장 마복탑이 파견되어 감독하였고, 대제학 이경석이 비문을 찬하였는데 비문은 몽고어·만주어·한문의 세 가지로 새겨졌다. 흔히 '청태종비', 또는'삼전도비'라고 불려지며, 현재 서울 송파구 석촌동 입구 어린이놀이터에 세워져 있다.

병자호란으로 일대 곤욕을 당한 조선은 청에 인질로 갔던 봉림대군이 즉위해서 효종 임금이 되자 국가적 굴욕과 고초를 벗기 위해 북벌 계획을 세웠다. 즉 어영청을 통해 군비를 확장시키고 이완으로 하여금 군사 훈련을 강화시키는 한편, 송시열 등의 노력으로 정청북벌운동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 북벌 정책은 국왕이 친위군과 수도 경비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그치고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3. 병자호란 이후 남한산성의 교훈

남한산성의 역사적 위상은 우리 민족 수난의 시기에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나라의 방위를 공고히 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였다는 점과 나라안의 내치 과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권력의 이동 과정에서 왕권을 공고히 하는데도 항상 그 중심 축이 되어 왔다는 점을 들게 된다. 남한산성에 근거를 둔 수어청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권력의 향배가 결정되었던 것이다.

또 백성들의 배청 의식을 심화시키고 민족의 정기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남한산성의 보수 개축에 힘을 기울여 민족 주체 의식을 제고하는데 있어서도 남한산성은 매우 유효하게 활용되었었다.

이런 점에서 남한산성은 재평가해야 될 것이다. 흔히 병자호란을 패배의 역사로 인식하고 있는데 당시의 군세와 힘의 역학관계로 보아서 47일간의 남한산성 수성은 단순한 패배 이상의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서 평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산성이 포위되어 양곡이 거의 바닥 날 즈음에까지 항거했던 것이다. 즉 병자호란은 일시적으로 보면 힘에 의한 패배의 역사이지만 그러한 역사관은 식민지 사관의 잔재일 수 있음을 유의하게 된다. 명나라를 정복한 청나라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만주족은 역사 속에서 소멸되고 말았다. 그러나 병자호란의 패배 속에서 우리의 민족정기는 더욱 신장되었다. 그런 패배에도 불구하고 그 패배의 절망을 딛고 더욱 빛나는 문화 전통을 창출해 온 그 민족정신은 마땅히 찬양되어야 할 것이다. 곧 힘의 패배를 정신적 승리의 역사로 치환시켜 인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의 표상을 우리는 남한산성 수어장대의 내부 편액을 무망루라고 표현하면서 역사의 교훈으로 삼고자 한 선조들의 높은 뜻을 되세기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또 남한산성에는 조선 선비 정신의 결정체인 삼학사(홍익한, 윤집, 오달제)의 영혼을 기리고 위로하기 위한 현절사가 있다. 청나라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숙종 임금은 삼학사의 큰뜻을 영원한 민족의 지표로 삼기 위하여 남한산성 양지바른 언덕에 현절사를 세웠다. 또한 무명의 의승군이 집결해 있던 개원사, 장경사, 망월사, 국청사 등의 진충보국하는 호국의 사찰이 있다. 이러한 유적들을 통하여 우리는 당대의 선비 정신이 무엇이고 또한 호국 불교의 위대한 이상이 어디에 있었던가를 살펴서 오늘의 국민정신으로 승화시켜 나아가야 한다.

조선과 청의 외교관계

허 창 무

1. 조선왕조의 전통적 대중관계

조선이 건국된 이래 전통적인 외교관계는 이른바 '慕華思想(모화사상)'에 바탕한 명에 대한 사대의 기조 위에서 이루어져 왔다. 원래 명과의 관계는 이미 高麗 恭愍王 때인 元·明의 교체기에 시작되었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관계는 李成桂의 威化島 회군 이후 太祖가 새왕조(朝鮮)의 권위를 명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태조는 새왕조를 개창한 이후 그 사실을 명에 알리는 동시에 국호를 선택하여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친명책으로 일관하며 명과의 친선을 유지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명은 이에 대해서 동북방면의 女眞問題나 朝貢問題 등을 빌미로 별반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양국간에는 외교적 분규가 빈번히 있었다. 그러던 것이 太宗(이방원)이 즉위하면서 명이 비로소 誥命(明淸시대에 天子가 5품관 이상의 관리를 임명할 때 주는 사령장으로, 明이 朝鮮의 왕조창업을 인정하여 방원을 조선의 제후로 임명한다는 승인서와 같은 것임)을 보내옴으로써 외교관계가 정상화되었다.

이 때부터 조선은 줄곧 '事大'의 원칙에 입각하여 明과의 관계를 유지하였다. 원래 '事大'란 孟子에 나오는 말로, 춘추전국시대의 전란 속에서 생겨난 약소국의 외교전략이었다. 주지하다시피 춘추전국시대란 天子인 주왕실의 권위와 통제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원래 주왕실로부터 분봉을 받아 중국의 각 지역을 관리하던 諸侯國이 독자적인 세력을 확대하여 중국의 지배권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싸우며 합종연횡하는 전란의 시기였다. 이 때문에 힘이 강한 제후국들은 무력을 앞세워 힘이 약한 제후국들을 위협하며 횡포를 일삼았고, 반면 힘이 약한 나라들은 힘이 강한 나라에 자신의 땅과 백성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불안에 떨고 있었다.

이러한 혼란의 政局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맹자는 통치자들이 인격적 수양을 선행하여 백성들의 삶을 보호하고 안정되게 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아야 함을 역설하였다. 따라서 각국의 제후들에 대해 무력을 통한 공포의 정치보다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도덕적 모범을 통한 감화의 정치를 펼칠 것을 역설하며, 속히 儒敎的 道德意識을 회복하도록 종용하였다.

이 때 맹자가 힘의 강약이 서로 다른 제후국들이 서로 싸우며 국력을 소모하지 않고 평화공존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 외교전술이 바로 '以大事小'와 '以小事大'였다. '以大事小'란 강대국이 약소국을 섬긴다는 뜻으로 이는 강자가 약자를 무력으로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돌봐주고 도덕적으로 감화를 시키면 약자가 자연이 마음으로 굴복하여 존경하고 따르게 됨으로 굳이 승자와 패자를 모두 고통스럽게 만드는 전쟁을 치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以小事大'란 약소국이 강대국을 섬긴다는 뜻으로, 약소국이 평소 강대국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유지함으로써 국가를 보존하여야 한다는 논지이다. 맹자는 이러한 '事大'정책은 오직 지혜로운 자만이 능히 수행해 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당시 약소국들은 강대국들에 대해 조공을 하는, 이른바 獻物에 의한 '事大之禮'로써 자국의 운명을 보존하는 태도를 취하였고, 때로는 강대국이 약소국의 태도를 탐지하기 위해 무력적 위협으로 사대관계를 강요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조선개국 이후 명조나 청조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었다.

조선이 중국에 대해 사대적 태도로 일관한 데는 비단 힘의 약세를 자각한 자국의 정치적 보호책으로써 뿐만 아니라, 중국의 학문과 문화적 권위에 대한 존숭의식에서 비롯된 자발적·의식적 요인도 강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조선의 건국이념과 학문, 사상의 정립을 담당했던 조선조의 학자들이 전통적인 華夷觀에 입각하여 명에 대해 중국의 문명적 정통을 이어받은 '中華'라는 믿음을 견지함으로써 철저한 모화사상을 스스로 강화시켰다. 이에 대해 명은 조선을 '東方之名藩'으로 생각하여 사신의 왕래나 교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하는 가운데, 조선이 동북방에서 발흥한 여진족과 결탁하지 못하도록 관리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명에 대한 의존과 양국의 우호관계는 16세기에 일어난 중국의 정세변화에 의해 일대전환을 맞게 되었다. 여러 가지 내외의 우환으로 명의 세력이 급속히 약화되자 이 때를 틈타 만주를 중심으로 한 중국 동북지방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던 여진족이 급속히 세력을 확장하여 명을 위협하고 조선에 대해서는 명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淸과의 우호관계 수립을 요구해 옴으로써 조선은 새로운 선택을 강요받기에 이르렀다.

2. 명 · 청 교체기 조선의 대청인식과 외교전략

1)女眞族의 勃興과 後金의 建立

여진족은 원래 만주의 원주민으로, 연해주지방의 野人女眞을 비롯하여 두만강, 압록강 북쪽의 建州女眞, 松花江 유역의 海西女眞을 아울러 일컫는 말이다. 이들은 수렵과 목축을 주업으로 하던 민족으로 한 때 金國을 세워 만주 일대를 지배하기도 하였으나, 중국 본토에서 원과 명이 발흥하면서 그들의 지배 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16세기 중엽 이후부터 몽고족에 대한 저항을 통하여 민족의식을 자각하기 시작하여 세력을 확장시키기 시작하였으며, 명과 조선이 임진왜란으로 인해 극도로 피폐되어 주변을 돌아볼 겨를이 없던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걸친 30여년간 瀋陽 동쪽의 興京 일대를 근거지로 한 建州女眞의 酋長 누루하치가 女眞族의 여러 부족을 통합하여 커다란 독자세력을 구축하여 後금을 건립하고 급기야 명을 무너뜨림으로써 조선으로 하여금 새로운 외교환경을 맞이하도록 하였다.

後金(뒤에 국호를 淸으로 고침)을 건립한 누루하치(1559-1626)는 姓이 愛新覺羅이고, 몰락한 한 노예주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명 萬曆 11년(1583) 5월 자신의 祖와 父가 明軍에 의해 피살된 이후 父祖를 위한 복수를 한다는 이유로 군사를 일으켜 建州의 여러 부족을 통합하고, 각지의 여진부락에 대해 때로는 회유하고, 때로는 협박하여 자신의 휘하에 거느림으로써 세력을 확대하여 나갔다. 우선 그는 내부적으로 여러 부락으로 나누어져 있는 여진족을 하나의 통일세력으로 무장시키고 부족단위로 흩어져 있는 여진족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였다. 원래 여진족들은 여러부락으로 나뉘어져 있어 각 부락의 추장이 부락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누루하치는 이들 흩어진 세력을 통합하기 위해 각 추장과 그 族黨을 자신의 거주지로 이주시켰다. 또한 여러 부락의 여진족이 강한 통일세력으로 응집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진족의 오랜 생활방식인 유목생활, 즉 가축을 이끌고 草地를 찾아 떠돌아 다니는 생활방식에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의 생활근거지를 정착시키기 위해 田獵을 금지시키고 屯田을 설치하여 농경생활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를 일으킨지 5년만에 建州女眞의 본부를 통일하였고, 10년 째인 만력 21년에 이르기까지 長白山과 압록강 일대의 3부락을 병합함으로써 만주를 중심으로 한 군웅들의 세력을 모두 꺾어 건주여진에 귀속시켰다. 이 과정에 있어서 누루하치는 만력 15년(1587)에 呼蘭哈達(홀란하다) 아래에 성을 쌓고 법제를 제정하여 기강을 세움으로써 국가적 기틀을 다져나갔으며, 그로부터 2년 뒤인

1589년부터는 스스로 왕을 자처하기도 하였다.

이어 누루하치는 만력 26년(1598)부터 海西女眞, 즉 葉赫, 哈達, 輝發, 烏喇 등의 4部와 두만강 유역을 10여년간에 걸쳐 집중 공격함으로써 哈達(1599)과 輝發(1607)을 차례로 멸망시키고 烏喇의 布占泰(부잔타이)를 대패시키는 전과를 올려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 때부터 두만강 유역 및 吉林 일대에 걸쳐 건주여진의 누루하치와 오라의 포점태가 패권을 겨루는 형세가 조성되었으며, 이것은 장차 조선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한편 누루하치는 대외적인 명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명을 제압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힘을 기를 때까지 명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和戰 양면의 신중한 태도를 취하였다. 명과의 본격적인 대결을 보이기 이전에 누루하치는 조공사절단을 8차례나 명에 파견하였는데, 많은 때에는 500여 명에 달할 정도였다. 이로 인해 그는 명나라 조정으로부터 신임을 얻었으며, 명은 그를 회유하기 위해 해마다 銀 800냥, 비단 15匹을 주었고, 시장을 개방하여 교역도 허용하였다. 그리하여 1589년에 누루하치는 明朝로부터 都督의 관직을 받았으며, 1595년에는 龍虎將軍으로 승진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그가 명을 종주국으로 섬긴 것은 명의 경계심을 늦추기 위한 전술적인 태도에 불과하였으며, 1608년 이후 그는 더 이상 명에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

새국가 건설에 필요한 제반 요건과 국가 체제를 갖추게 되자, 1616년 1월에 누루하치는 도읍지인 赫圖阿拉(현재의 遼寧省 新賓西老城)에서 大汗(漢字어인 汗을 女眞語로 읽으면 '칸'으로 발음되는데, 의미는 王이란 뜻이다)의 보위에 올랐으며, 국호를 후금이라 칭하고 연호를 天命이라 하여 후금의 太祖가 되었다. 후금 太祖의 즉위는 쇠퇴해가는 명과 새롭게 부상하는 淸의 왕조교체라는 역사적 대변혁의 신호로서, 이 때부터 누루하치는 정치, 군사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체제를 갖춘 채 명에 대한 위협을 가하게 되었다.

2)누루하치의 등장 이전 조선과 여진족과의 관계

통일된 하나의 세력으로 성장하기 이전의 여진족은 명이나 조선과의 무역을 통하여 식량이나 의류 등의 생활필수품을 수입하여 사용하여 왔는데 그것이 여의치 못할 때에는 수시로 변경을 침범하여 인명을 해치고 재산을 약탈하여 갔다. 이들이 활동하던 동북방 지역에서 활동해 오던 조선의 태조는 즉위하면서부터 여진족들에 대하여 交隣의 입장에서 강·온 양면정책을 쓰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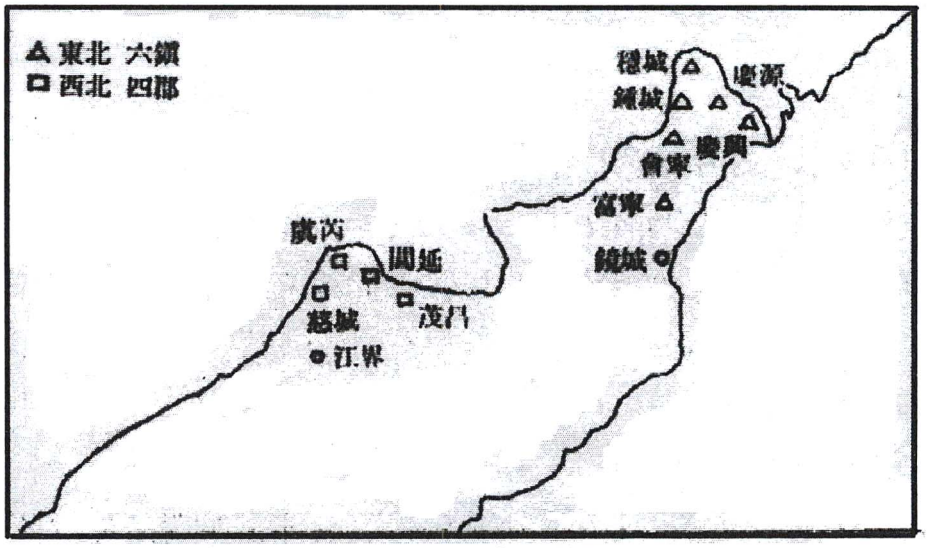
이 때 조선 조정의 판단은 여진인들이 경제적인 빈곤 때문에 변경을 침입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征伐策보다는 회유책에 주력하였다. 그리하여 여진족의 酋長을 귀

화시키고 와서 조공하는 추장에게는 조선의 명예관직을 주고 조선 국왕을 進拜케 함으로써 형식상 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조공을 위한 사신의 왕래를 이용하여 朝貢物에 대한 답례의 형식으로 여진족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하사하여 주었으며, 사신들을 통한 사무역도 행해졌다.

그러나 여진족들은 이정도로는 그들의 경제적 욕구를 해소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틈틈히 변경을 침입하곤 하였다. 그렇지만 태조는 交隣政策에 입각하여 될 수 있는 한 회유책을 펼쳤다. 그리하여 太宗代에는 함경도 鏡城까지 후퇴하고 鏡城과 慶原에 무역소를 설치하여 여진족들과 물품교역을 허락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진인들의 침략행위가 계속되자 조선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정책을 추구하게 되었는데, 특히 世宗임금은 "조상들이 물려준 옛 땅은 才土라도 줄일 수 없다"고 하여 강경책을 폈다.

세종은 金宗瑞를 咸吉道 都節制使로 임명하여 동북지역을 경략토록 함으로써 세종 16년(1434) 이후 동왕 31年에 이르기까지 鍾城을 비롯하여 穩城, 會寧, 副寧, 慶原, 慶興 등 6鎭을 개척하여 두만강 이남의 지역을 영토로 확보하고 이 지역으로 남쪽 지역의 백성들을 이주시켜 살게하는 徙民政策을 실시함으로써 여진족들의 소유가 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한편 압록강 유역의 서북방면에 대한 개척은 조선 건국 초기부터 활발하게 전개되어 太宗 3년(1403)과 16년에는 江界府와 閭延郡을 설치하여 甲山 서쪽을 영토로 편입시켰다. 그리고 世宗 15년(1433)에서 25년 사이에는 관리를 파견하여 압록강 방면에 출몰하는 여진족을 정벌하도록 하고 그 지역에 慈城, 茂昌, 虞芮 등을 추가하여 閭延과 함께 4군을 설치하였다.



〈6鎭 4郡의 지역도〉

그러나 그 후에도 여진인들의 침입이 근절되지 않자 세조 6년(1460)에는 申叔舟 등으로 하여금 두만강 유역의 여진을 소탕하도록 하였으며, 세조 13년(1467)에는 만주일대의 여진족을 토벌하려는 명의 요청에 따라 군대를 파견하여 建州衛의 여진족을 토벌하였고, 또 성종 10년(1479)에도 명의 요청에 따라 尹弼商 등으로 하여금 建州衛의 여진족을 토벌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수차례의 정벌에도 불구하고 여진족들의 침입은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특히 宣祖 16년(1583) 尼蕩介의 난이 크게 일어났으나 申砬장군과 李鎰장군 등에 의해서 진압되었다. 그러나 조선의 女眞에 대한 통제력은 17세기에 이르러 建州衛 출신의 누루하치가 등장하여 전부족을 규합하여 세력을 강화시키고 후금을 건국하면서부터 상실되었고, 이후부터는 정세가 반전되어 오히려 청의 통제를 받는 형국이 되었다.

3)누루하치의 등장 초기에 있어서 조선과 후금의 관계

누루하치의 세력이 급신장하여 만주일대가 그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되고 조선의 국경지역인 두만강유역과 吉林 일대에서 조선개국 초기부터 조선과 교류해온 烏喇의 포점태가 대립하게 되자 조선은 여진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전까지 조선과 여진족 간의 교섭은 아직 누루하치가 길림 방면으로 진출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주로 길림 방면의 烏喇(홀라온)족이 맡고 있었다. 그들은 조선으로부터 직첩을 받고 필요한 물자를 교역하였는데, 이무렵 지금껏 그들과 내왕하던 葉赫이 누루하치의 세력권으로 흡수되면서 葉赫과의 교역로가 끊어짐에 따라 부득이 조선의 함경도 지방으로 몰려와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정부도 이들을 위무하고 羈縻하기 위하여 百官의 관복과 직첩을 내리고 또 해마다 면포 1百 同을 주었다.

당시 조선의 임금은 선조였으며, 명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해 온 조선으로서는 만주와 두만강 유역 및 吉林 일대까지 누루하치의 세력이 진출하자 관리를 建州에 보내 국정을 염탐케 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웠다. 선조 28년(1595) 임무를 맡았던 滿浦鎭의 鄕通事 河世國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누루하치와 그의 동생 小乙可赤이 거느린 군사가 1만 5천명이고, 나무로 울타리를 친 성을 쌓고 각종 기술자가 부지런히 작업을 계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 밖에서는 1천여 명의 군사가 무장하여 군사훈련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놀란 조선정부는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武人 출신인 南部主簿 申忠一을 回禮史로 삼고 하세국과 함께 누루하치에게 파견하였는데, 앞서 보고된 내용들이 사실로 확인되자 宣祖는 누루하치에 대한 방어책으로 산성을 수축하며, 변방을 지킬 장수

를 잘 뽑아 군량미를 비축하고 병사들을 잘 훈련시키도록 하였다.

한편 누루하치는 선조 34년(1601) 10월에 그의 副將 忙剌哈(忘自哈)을 만포진에 보내어 북방호인(烏剌)과 함께 자신도 조선의 서울에 가서 職帖을 받고 싶다는 뜻을 임금에게 전하게 하였다. 이것은 물론 누루하치가 조선과 명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조선정부가 자신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갖도록 유도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 조선을 위협하기 위한 명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안한 고도의 외교전술이었다. 이에 만포진 僉使 金宗得은 "老酋(누루하치)가 이미 天朝(명)로부터 용호장군의 직을 받았는데 우리 나라에서 어떻게 관직을 줄 수 있는가"라고 거절하였다. 그러다가 누루하치가 1607~9년(조선 선조 40 - 광해군 원년)에 걸쳐 오라 및 동해지방에 대한 대대적인 정벌을 벌여 승리를 거두면서부터 조선정부의 관심은 함경도 지방의 오라 대신 서북지방의 건주여진에게로 돌려졌던 것이다.

조선의 서북방 국경지대로 진출한 누루하치로부터 조선에 처음으로 國書가 전달된 것은 선조 38년(1605) 11월이었는데, 이 때 그는 문서에 '建州等處地方國王佟'이라 표기하여 독자적 통치권을 갖는 국왕임을 자처하며 건주여진과 조선이 새롭게 우호관계를 수립할 것을 희망하였으며, 또 여진부락에서 죄를 짓고 조선으로 도망온 자들에 대해 처단할 것과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석방하여 돌려보내줄 것 등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한 조선의 답서는 두만강 僉節制使의 명의로 같은 해 12월에 발송되었다. 이 답서에서 조선정부는 양국의 우호관계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표명과 함께 일부의 여진부락이 조선의 변경에 침범하는 행위를 못하도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누루하치의 국서는 양국간 최초의 것이었고, 이것은 조선의 국방에 대한 인식과 외교방향이 변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누루하치는 장백산 일대의 동북지방에 대한 원정을 끝낸 다음해인 1608년부터 명에 대해 바쳐오던 조공을 끊고 독자적인 통치체제를 확립하였으며, 만력 41년(1613년, 光海君 즉위 4년)이 되자 마침내 烏喇를 멸망시킴으로써 여진족 내에서의 대항세력에 대한 염려가 없어지자 이제 마음놓고 遼東지방을 넘보게 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있어서도 누루하치는 늘어난 인구를 부양하는 문제가 심각해지자 조선의 滿浦鎭을 통해 생활필수품을 청원하였다. 그는 1608년 조선에 담비 가죽 80벌을 바치고 그 대가로 木棉을 받아 갔다. 또 光海君 원년(1609) 봄에는 조선 지방관에게 사람을 보내어 지금까지 조선이 오라에 보내던 면포를 자신에게 주기를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광해군 4년(1612) 경에 이르러서는 만포진 건너편에 누루하치에게 항복한 무리가 날로 늘어났고, 누루하치는 만포진에 매번 사람을 보내 물품을 구하고자 하였다. 이에 조선 정부에서는 지방관을 시켜 접대를 잘하도록 함으로써 후환에 대비하였다. 이러한 조선의 태도는 국제정세판단과 외교전략에

뛰어났던 光海君이 선택한 실리외교전략에서 비롯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을 구제하는 것이 보통일은 아니었다. 광해군 5년 2월에 평안감사 鄭賜湖가 올린 장계에 따르면, "만포진에 귀순하는 胡人에 대해서는 1년에 800명 정도에게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적정선인데, 근년 이래로 1천여 명이 와서 먹게 되었다. 특히 근래 胡地에 흉년이 들어 하루에도 3,40여 명이 와서 식사를 하는 통에 수일 내에 100여 명에 달하니 앞으로 계속 먹을 것을 제공해 줄 수 없어서 걱정이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저간의 사정으로 인하여 누루하치는 조선을 그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필수품의 공급원으로 간주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최선을 다해 우호친선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오라 정벌을 위해 여러 차례 조선의 변경을 왕래할 때는 "함께 天朝(明)를 섬기기 때문에 조선을 침범하지 않겠다"고 하여 일반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고, 심지어 잡혀갔던 통사 河世國을 풀어주고 조선이 여진을 정벌하며 설치하였던 四郡 영내에 살고있는 여진족들을 모두 철거하여 만주지방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누루하치가 이와같이 조선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장차 국가를 건립하여 명을 정벌하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기 때문에 명과 오랜 우호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자신의 후방과 경계를 잇고있는 조선을 적대세력으로 만들지 않으려는 계산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女眞의 제부락을 통합하고 새국가 건설에 필요한 힘과 조건이 성숙되자 누루하치는 성시를 수축하고 관제와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군사·행정의 단위이고 국가통치조직인 八旗制度를 완성한 다음, 明 萬曆 44년(朝鮮 光海君 8년, 1616)에 후금을 세우고 연호를 天命이라 하였다.

후금을 건립한 초기 누루하치는 군사적으로 강한 힘을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기반은 매우 취약한 형편이었다. 때문에 건국 직후에는 조선의 만포진에 자주 사람을 보내 양국간의 우호적인 국교를 맺고 변경에서 시장을 열기를 원하였으나 조선 측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이듬해 후금이 貂皮를 바치는 대가로 봉록을 받기를 간청하자 조선으로서도 부득이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함께 식량의 자급자족을 가능케 하도록 안정된 농지확보를 위해 요동지방의 비옥한 토지를 필요로 하였으나 명은 경계선을 긋고 여진족의 진입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누루하치는 무력으로 빼앗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후금을 건립한지 3년(1618) 째가 되자 드디어 때가 되었다는 판단에 따라 幕僚들에게 명을 정벌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는 祭天壇에 나가 명에 대한 '7大 恨'을 내세워 적극적 공세의지를 천명하였다. 그가 내세운 '7대 한'이란 바로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명군의 오인으로 인해 살해된 일, 명과 여진족 간에 체결된 국경엄

수의 약속을 위반한 일, 동족을 사주하여 내부를 분열시키고 서로 싸우게 한 일, 明軍이 자신과 적대적 관계에 있던 葉赫을 도와 자신의 부인를 내쫓아 몽고로 보낸 일 등 명에 대해 품고 있던 7가지의 원한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이 때부터 조선은 명과 후금의 세력다툼 속에서 복잡한 관계에 빠져들게 되었다.

이 때 조선으로서는 이미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한 누루하치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쉽게 명에 가담하여 후금과 적대적 관계를 자초할 수도 없었다. 더구나 이 때까지 누루하치는 명이 조선에 대해 출병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질 때마다 조선 측에 대해 조선과 후금은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으니 함부로 나서지 말 것을 요구하며 협박과 회유를 해오던 터였다. 명의 출병요청에 대해 조선의 조정 내부에서 명에 援軍을 파견할 움직임을 보일라 치면 누루하치는 "조선에 대해 나무 한 그루도 일찍이 유린한 적이 없는데, 비록 조선이 天朝(明)와 부자지간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우의를 저버린 채 스스로 난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는가"라는 말로 만일 조선이 후금과의 우호적 관계를 저버리고 명을 돕기로 나선다면 가만있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곤 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壬辰倭亂 당시 명의 援兵을 받은 사실이 있는 조선으로서는 이제 명이 後金과의 전투에 있어서 조선측에 대해 지원병을 요청해 오는 것을 마냥 거절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더욱이 매번 명의 援兵 요청이 있을 때마다 조선의 대신들은 "명에게 입은 은혜가 크므로 힘의 강약을 떠나 지체없이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光海君은 후금의 힘을 무시할 수 없음을 간파하고는 조선의 사정이 명을 구원할 형편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명의 조정에 알리는 한편, 출정하는 명의 장수들에게 자문을 보내 보잘 것 없는 조선의 군사로 하여금 명을 원조하게 하기 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국토를 지키고 있으면 후금이 후방에 불안을 느껴 함부로 명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논리를 펴며 중립적 태도를 견지하였다.

그러나 1618년 누루하치가 명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에 나서 撫順 등지를 공격하여 대승을 거둔 직후 명이 또 조선에 대해 출병을 요구해 오자 더 이상 거절만 할 수도 없는 조선으로서는 姜弘立을 都元帥로 하여 1만 3천여 명의 군대를 파견하였는데, 이 때 광해군은 明軍이 승리할 가능성이 없음을 알고 강홍립에게 밀지를 내려 적당한 때를 골라 누루하치에게 항복하여 후환을 자초하지 않도록 하였다.

1623년 조선에서 仁祖反正이 일어나 광해군이 폐위되고 仁祖의 신정권은 西人 일파에 의해 독점되었는데, 이들이 내세운 반정 명분은 전왕(광해군)이 명에 대해 배은망덕을 저지르고 奴夷(후금)와 통호한 사실이었다. 이 때부터 崇明事大와 斥和論이 대두되어 양대 호란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3. 조·청관계의 악화와 병자호란

후금의 太祖는 누루하치는 즉위 10년(1625) 수도를 遼陽에서 瀋陽으로 옮겼다. 이곳이 몽고와 조선, 그리고 명나라 정벌을 위한 전략적인 요충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천도 이후 그는 계속해서 요서지방으로 진격하여 山海關을 공격목표로 한 전투를 수행하다가 중상을 입고 이듬해 죽었다.

그 뒤를 이어 大汗을 계승한 太宗 皇太極은 遼西지역에 대한 쟁탈을 계속하는 것이 무모한 일임을 절감하고는 명에 대한 주 공격선을 山東 방면으로 바꾸려 한다는 소문을 퍼뜨려 명군의 주의력을 산동방면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한편, 그들 배후에서 명과의 연대를 계속해 오고 있어 장차 자신들의 대륙진출에 하나의 위협세력이 된다고 여겨 온 조선에 대해서는 명과 연합하여 자신들에게 공세적 태도를 취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평화적인 교린관계를 유지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 때 조선은 仁祖反正으로 정권을 잡은 서인들 사이에 向明排金의 기세가 높았던 시기였으므로 후금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조선 경내에는 여진족과의 싸움에서 패하여 반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명의 장수 毛文龍을 머물게 해 그를 은근히 원조하고 있었다. 이것은 청으로 하여금 명과의 본격적인 전투를 시작하기 이전에 반드시 후방의 조선을 먼저 제압하여 후환을 없애도록 하여야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도록 자극하는 요인이 되었다. 여기에다 明淸에 대한 중립외교로 조선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하였던 광해군을 축출한 仁祖反正에 가담하였던 일파인 李适의 난이 일어나 겨우 진압이 되었으나, 그 잔당인 韓潤이 후금으로 도망쳐 "지금 조선이 후금과 교류를 끊고 있는 것은 先王(光海君)을 몰아낸 新王(仁祖)이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모문룡을 믿고 그러한 것"임을 주장하며 조선정벌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太宗은 太祖 누루하치가 생전에 추구하던 조선과의 평화적 외교노선을 바꾸어 명의 본토진공에 앞서 조선을 먼저 정벌함으로써 후환을 없애고, 나아가 조선과의 통교를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였다.

1627년(인조 5년) 太宗은 조선침공의 詔勅을 내려 大貝勒 阿敏, 貝勒 濟爾哈朗 등으로 하여금 3만 大軍을 거느리게하여 압록강을 넘어 조선을 공격케 하였다. 이 때 후금의 太宗이 제시한 공격의 명분은 "조선은 누대에 걸쳐 우리 나라에 죄를 지었으므로 이치상 당연히 정벌하여야 하나, 이번 출정은 조선정벌 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명의 모문룡이 조선에 연접한 椵島에 주둔하며 우리의 叛民을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이들을 제거하여 두 가지 일을 함께 달성하려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제1차 胡亂으로, 丁卯胡亂이다. 이 때 조선에서는 和戰兩論이 대립하였으나 崔鳴吉 등의 主和論이 우세하게 되어 3월 3일 임시수도인 江華에서 丁卯

和約을 성립시켰다. 이것이 이른바 '江都和約' 또는 '江都會盟'이다. 이 조약에서 체결된 내용은 첫째, 조약이 체결된 후 金軍은 곧 철수할 것, 둘째, 양국은 兄弟之國으로 부를 것, 셋째, 조선은 후금과 평화조약을 맺고 명의 연호인 天啓를 사용하지 않을 것 등이다.

조선은 후금의 힘에 굴복하여 부득이 화의의 약속을 체결하였으나 여전히 군신들의 의식 내면에는 명을 숭상하고 후금을 얕잡아보는 태도가 자리잡고 있었다. 또한 후금으로서도 애초의 출병동기 중의 하나였던 모문룡을 제거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그들이 조선으로부터 받기로 했던 공물의 내용도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이에 불만을 품은 후금은 江都會盟을 끝낸지 얼마가지 않아서 조선이 후금의 사신을 대하는 태도는 그저 형제의 예에 불과하니 앞으로는 명의 사신을 대할 때와 같이 하라고 요구함으로써 '兄弟之盟'을 '君臣之盟'으로 바꿀 것을 강요하는가 하면, 공물로 바치는 歲幣額을 대폭 인상할 것을 요구하며 조선 측이 보다 성의를 가지고 자신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았다. 그러나 조선은 이에 대해 별반 성의를 보이지 않은채 화약 당시 약속했던 공물의 양도 여러 가지 사정을 이유로 적당히 줄여서 제공하는 등 여전히 형식적인 겉치레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더욱 反淸意識을 고조시켜 나갔다.

1631년 후금은 남쪽으로 연해의 섬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조선에 대해 전함과 수군을 파견하여 도와주기를 요청하였는데, 仁祖는 서한을 가져온 사신 滿達爾漢과 董納密을 만나주지도 않고 이들의 숙소 주위에 군사를 파견하여 동태를 살피도록 하였다. 이에 격분한 두 사신이 본국으로 돌아가려 할 때에야 인조는 그들을 접견하였으나 전함과 수군의 지원요구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았다. 1633년 후금의 太宗은 다시 명을 공격하면서 전함 300척을 제공해 해도(海島)의 공격을 돕도록 요구하였으나, 조선은 "만일 귀국이 우리에게 명을 등지라고 한다면 차라리 국가가 망할지언정 결코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와중에서 조선과 명은 이전처럼 교류를 계속하여 명군에 군량미와 병기 등을 지원하였다. 명의 장수 孔有德과 耿仲明이 명을 배반하고 청에 투항하자 조선은 군사를 파견하여 명군과 함께 이들을 공격하기도 하였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反淸의 분위기가 고조되어 인조는 경기, 황해 및 평안 3도에 12개의 성곽을 추가로 쌓고 못을 파도록 하는 한편 군대를 정비하며 후금의 공격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한편 太宗은 丁卯胡亂이 있은 후에 바로 內蒙古를 복속시켜 遼西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그 기세를 몰아 1636년(天聰 10년)에 帝位에 올라 國號를 淸이라 고치고 崇德으로 개원하였다. 황제등극을 앞두고 태종은 조선에 이를 알리는 사신을 보냈으나 조선의 조정에서는 국서조차 접수하지 않은채 청의 사신으로

온 英俄爾岱와 馬福塔을 군사들로 하여금 감시토록 하였다. 분개한 두사람이 청으로 돌아가 황태극에게 이사실을 알리자 조선에 대한 토벌의 여론이 비등하였다. 황태극은 다시 한 번 사신을 보내 이해의 득실로 조선을 설득하여 왕자와 대신들을 인질로 삼게 하도록 하였으나 인조는 이에 응하지 않고 일전의 태세를 갖추었다.

그러다가 청의 조선에 대한 정벌의지를 자극한 보다 직접적인 계기가 일어났다. 청 황태극의 황제등극 전례(典禮)에 사신으로 파견된 羅德憲과 李廓은 예를 행할 때 꼿곳이 서서 절을 하지 않음으로써 조선이 청의 신하국이 아님을 보여주었는데, 이에 분개한 청태종은 인조에게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자제를 인질로 보낼 것을 요구하며 거절할 경우 대군을 이끌고 정벌에 나설 뜻을 통첩하였다. 조선은 이를 거절하였으며, 황태극은 1636년 12월 친히 10만(학자에 따라서는 15만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대군을 이끌고 두 번 째로 조선을 침공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丙子胡亂이었다.

절대적인 군사력의 열세에 있었던 조선은 胡亂을 맞이하여 심리적인 反淸意識과 抗戰의 의지는 강하였으나 현실적인 물리력에서의 조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므로써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하였으며, 급기야 南漢山城에 피난해 있던 인조가 신하의 예를 갖추어 항복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朝·淸관계를 성립시키게 되었다.

4. 병자호란 이후 朝·淸관계의 변화

병자호란의 패배는 조선의 지배계급과 백성 모두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그것은 조선의 지배계급이 추구하는 학문과 문화의 발상지로 높이 받들어 오던 명과의 단절을 해야 한다는 상실감과 더불어 여진족의 야만성에 대해 현실적인 힘의 배양을 통한 대응보다는-여진족에 대한 힘의 대응은 명이 해 줄 것으로 믿었다-무시와 경멸로 일관하며 가슴깊이 간직해 오던 문화적 우월감이 커다란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이었다.

이에 대해 후일의 평자들은 힘의 강약을 고려하지 않고 청과의 일전을 주장해 온 斥和論者들의 처사에 대해 명분만 앞세워 실리를 챙기지 못하는, 즉 국가경영의 현실적 감각이 없는 태도라 비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평가는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평생의 儒學的 價値와 태도를 익히고 실천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여겨온 조선의 지배계층에 있어서 명과의 오랜 외교관계에서 형성되어 온 義理를 저버리고 實利만을 쫓는다는 것은 그들의 학문적 양심상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믿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전혀 그들의 현실적 무감각을 비난만 할 수는 없다는 시각도 함께 제시되고 있다.

사실 조선이 날로 강대해져가는 후금의 현실적 힘을 느끼면서도 그들이 끈질기게 요구해온 명과의 단절과 후금과의 우호적 관계유지에 쉽게 동의하지 못한 데는 조선과 명사이에 형성되어온 血盟的 역사가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즉 조선이 壬辰倭亂으로 붕괴직전까지 내몰릴 때 명은 기울어져가는 자기왕조의 사정을 고려치 않고 朝鮮을 지원함으로써 쇠퇴의 가속도가 더욱 빨라진 만큼, '再造之恩'을 입은 조선으로서는 이제 명의 위기를 마냥 못본채 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명의 興亡史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가히 짐작할 수 있다. 明王朝가 건립된 이후 王朝의 기틀을 조속히 확립하기 위해 세 번째 황제 成祖(1403-1424)는 대외정벌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채택하였다. 이유는 대내적인 정치문제, 즉 왕위의 찬탈문제를 대외경략을 통하여 해소하려고 한 것이었다. 성조는 북방으로 몽고정벌에 진력하는 한편 동북으로는 요동지방을 장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쪽으로는 安南을 평정하고 또한 7차례에 걸쳐 宦官 鄭和(이 사람은 중국역사상 처음으로 대항해를 한 사람이며, 세계항해사상의 선구자로 칭양되고 있다.)로 하여금 대규모의 함대를 이끌고 동남아시아, 인도, 페르시아 연안, 동아프리카 연안까지 30여 개의 국가를 편력하여 명과의 우호관계를 촉진토록함으로써, 훗날 아시아 화교사회 발전의 터전을 닦았다.

그러나 이러한 확장위주의 정책은 宣宗(1526-1535) 때부터 안정을 우선하는 소극적 방어정책으로 전환되면서 國勢가 기울기 시작하였다. 16세기 초에 이르러 명의 조정은 동부 蒙古에서 흥기한 세력들이 북부변경지대를 계속침략하는 北虜의 患을 당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안지방에서는 약탈무역에 종사하던 倭寇가 번성하여 揚子江 연안까지 침입하는 南倭의 患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외환과 더불어 내부적으로는 국정의 문란 현상이 심화되어 宮廷의 사치, 宦官의 전횡, 농촌사회의 파탄 등으로 국가재정이 궁핍해지고, 流民, 流賊이 대량으로 발생하였으며, 이들은 白蓮敎 등의 비밀종교 세력과 결탁하여 반란을 일으켜 조정을 뒤흔드는 막강한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대내외적인 문제들이 누적되어 가는 가운데 명의 몰락을 더욱 가속시킨 몇 차례의 전란이 일어났다. 이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이 "萬曆三大征"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寧夏省에서 일어난 疝拜의 叛亂,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조선침략, 播州의 추장 楊應龍의 亂이었다. 이들 난은 쇠약해져가는 명의 국력을 한층 더 고갈시켰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을 지원하기 위해 明軍을 파견한 것은 명의 국운을 기울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많은 중국학자들은 단정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練藜室記述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왜군이 조선

을 침략한 壬辰倭亂과 丁酉再亂시기에 조선을 구하기 위해 명이 1592년 출병한 이래 1600년 철병할 때까지 전후 8년 동안 명이 쓴 軍士 및 費用이

> "절강, 섬서, 호북, 사천, 귀주, 운남, 면전 등지에서 징발한 남북병사의 수가 통털어 221,500여 명이었고, 왕래한 여러 장군과 일처리를 맡았던 사람이 370여 명이었으며, 군량미에 들어간 은이 약 5,832,000여 냥이고, 쌀과 콩을 교역한 은이 300여만 냥이었는데, 실제 사용한 실물의 쌀과 양식이 수십만 斛(1斛은 열 말임)이며, 여러 장수들에게 상으로 준 은이 삼천 냥이었으며, 산동에서 조달한 양곡이 20만 斛이었다."

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명이 내부의 난을 극복하기 위해 들인 군대와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양이었다.

이러한 전쟁비용으로 인해 명의 재정이 큰 어려움에 부닥치자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조정은 1596년부터 전국에 관리를 파견하여 광산의 개발과 상업세의 징수를 증대시킬 것을 시도하였다. 이로인해 피해를 입은 민중은 더욱 궁핍해지고 결국 곳곳에서 反稅투쟁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명의 정국은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이러한 혼란을 틈타 일어난 建州女眞의 누루하치가 급속히 세력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잘알고 있는 조선의 斥和論者들은 줄곧 명과의 단절을 요구해 오는 淸太宗에 대해 <국가의 존망을 떠나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로 일축했던 것이다. 이러한 反淸意識은 丙子胡亂의 패배이후 조선의 관료와 선비들의 의식 속에서 더욱 강하게 자리잡게 되었다. 그렇지만 조선과 청의 현실적인 관계는 완전히 從主의 관계로 전환되었다.

병자호란의 화약조건으로 제시된 내용은 보면,

(1)청과 조선은 군신의 의를 맺을 것.
(2)명에서 받은 誥命冊印을 바치고 명과의 우호관계를 끊으며, 조선이 사용하는 명의 연호를 버릴 것.
(3)조선 왕의 장자(소현)와 차자(봉림), 그리고 여러 대신의 아들(아들이 없는 자는 동생)을 인질로 청에 보낼 것.
(4)청의 正朔을 받고, 萬壽·千秋·冬至·元旦과 그 밖의 慶弔時에 貢獻의 예를 행하며 사신을 보내어 奉表하되 이들 儀節은 명과의 舊禮와 같이 할 것.
(5)청이 명을 정벌할 때 조선은 기일을 어기지 말고 원군을 파견할 것.
(6)청이 회군시에 椵島를 정벌할 때 조선은 원병과 병선을 보낼 것.
(7)압록강을 건너간 후에 被擄人 도망자는 전송할 것.
(8)내외제신과 혼인을 맺어 和好를 굳게 할 것.

(9)조선은 新舊城壁을 보수하거나 쌓지 말 것.
(10)조선의 대일교역은 종래대로 계속할 것.
(11)조선 안에 있는 瓦爾喀人은 마땅히 쇄환할 것.
(12)조선은 기묘년 (인조 17년, 1639)부터 歲幣를 보낼 것.

등이며, 歲幣로 보내야 할 물건의 품목과 수량은 다음과 같다.

> 황금 100냥, 백은 1,000냥, 水牛角弓面 200副, 好大紙 1,000권, 好小紙 1,500권, 표범가죽 100장, 수달피 400장, 사슴가죽 100장, 청솔피 300장, 茶 1,000포, 胡椒 10근, 蘇木 200근, 好腰刀 26把, 順刀 20把, 五爪龍文簾席 4장, 雜彩花席 40장, 白苧布 200필, 各色綿紬 2,000필, 各色細木棉 10,000필, 各色細麻布 400필, 麻布 1,400필, 米 10,000포.

이러한 조건에 따라 인조는 항복과 함께 세자와 빈궁, 봉림대군을 비롯하여 청과의 싸움을 주장하였던 吳達濟, 尹集, 洪翼漢 등을 인질로 淸에 보내게 되었다.

또한 조선의 항복 이후 淸朝皇帝의 '大赦詔'가 오게되자 조선은 외교문서나 왕의 언동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호칭에 있어서 대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그 이전까지 중국에 보내는 公文에 국왕의 명령은 '詔旨', 王世子는 '儲君'으로 하였고, 漢城은 '京師'와 같은 의미로 쓰여졌으나, 이러한 명칭은 모두 황제의 전유물이므로 漢城은 '王城', 왕명은 단지 '敎'로 하였다. 청에 보내는 일체의 공문에는 淸皇帝의 年號(崇德)를 써야 했고, 도장을 찍을 때도 淸에서 보내온 도장(印信)을 써야만 했다. 또한 歲時도 모두 大淸曆書로서 소위 '奉正朔'을 사용했다.

이리하여 확고해진 宗藩關係는 이후 조선측의 일방적인 태도로 일관되고 말았다. 물론 瀋陽에서 풀려난 봉림대군이 훗날 王位(孝宗)에 올라 치욕을 갚으려는 북벌정책을 부분적으로 펼치기는 하였으나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으며, 실제로 조선은 淸太宗 崇德 2년(1673)부터 중국에 종속되어 있었다. 이후 조선은 중국을 존숭하여 '上國'으로 불렀으며, 자신은 臣이라 칭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19세기 서구열강의 동방진출로 중국의 영향력이 약화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19세기 서구열강의 동방진출과 일제의 조선 진출이 시작된 이후부터 朝·淸간의 관계는 조선이 그간 추구해왔던 對淸 일변도에서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대중국인식을 갖게 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여 백

성남지역에서의 근대화운동과 민족운동

천 화 숙

1860년대는 대내적으로 반봉건 농민항쟁이 촉발되었고 대외적으로는 서구 열강이 침탈하는 시기였다. 동아시아에서 서구 열강의 진출은 기존 국제질서에 새로운 변화를 야기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특히 한반도는 전근대적인 중국정부와 조공제도를 통한 교섭관계가 서구적인 조약관계로 변질되면서 서구열강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각축장이 되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중국을 축으로 이루어진 국가간의 교섭에 서방국가의 동방진출에 따른 새로운 변수가 추가된 것을 의미하며 경제적으로는 자본시장 주변부로의 편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런 관계로 전환기의 정부는 개항 이전부터 내재적으로 생성된 자본주의적 맹아를 유지시키면서 한편으로 자주적인 근대국가의 수립이 관건이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미국·영국과 러시아의 대립, 청·일본·러시아의 대립이 중첩되면서 열악한 국제환경에 노출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일본의 침탈과정을 단순히 동아시아적 견지에서 파악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한반도를 위요한 국제정세는 서구열강의 역학관계에서 파생된 것으로 중국과 일본을 축으로한 기본 구도에서 영국·러시아·미국·독일 등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가운데 서구열강들은 직간접으로 영향력을 구사하려 했다. 따라서 개항은 서양의 충격에 의해 조성된 동아시아의 새로운 국제질서가 전통적인 청국정부와의 전근대적인 교섭관계를 대체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근대화 과정에서 민족운동은 대내적으로 반봉건적인 모순을 제거하는 동시에 제국주의 외압으로부터 자주국가를 건설하려는 운동으로 진행되었다. 즉 근대 민족운동은 두 개의 축을 기저로 해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나의 축은 개화사상에 영향을 받은 선각적인 지식인층·신진관료층·상공업 자본가층이 민족운동의 주체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시작되었다. 사회의 제모순을 해결하려는 일단의 지식인층은 갑신정변(1884), 갑오개혁(1894), 독립협회·만민공동회 운동(1896~98)을 주도하면서 근대국가 건설을 지향하였다. 다른 축은 반봉건·반침략의 기치하에 민중층이 혁명이념을 행동으로 나타내면서 진행되었다. 이러한 근대 민족운동은 동학농민전쟁(1894), 활빈당·영학당 등의 농민운동(1896~1904)으로 전

*경원대학교 교양과 교수

개되었고, 나아가 위정척사 사상을 구현한 의병운동도 이러한 운동과 연결된다.

성남지역인 남한산성이 근대화 과정에서 부각된 것은 개화파의 개혁정책에서 비롯된다. 당시 개화파의 목표는 부국강병을 이룩하여 세계 열강에 대응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봉건적인 모순을 청산하고 서구 문물을 과감히 도입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당시 개화세력은 일본의 명치유신을 모델로 하여 위로부터 개혁을 시도하려고 하였다. 개혁 추진의 주안점이 재정문제와 건군에 두어졌는데 건군을 담당한 인물이 박영효(朴泳孝)였다. 1883년 4월 당시 광주유수겸수어사(廣州留守兼守禦使)인 박영효는 일본에서 교육을 받고 돌아온 사관 신복모(申福模) 등을 중심으로 천여 명 정도의 신식군대 양성을 도모했다. 신식군대의 양성을 위한 장소로 남한산성이 물색되어 양병계획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신식군대 양성계획은 집권층의 견제를 받아 1년만에 박영효가 면직을 당함으로써 좌절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성남지역이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근대화 운동의 중심축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남지역의 소농·빈농층들은 금납화된 조세를 납부하거나 면포 등 생활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화폐를 마련해야만 했기 때문에 추수가 끝나면 곧바로 식량마저 줄여 쌀을 시장에 내놓지 않으면 안되었다. 19세기 중엽에 개시된 남한산성내 성내장(城內場)과 낙생장(樂生場), 인근 장시는 생필품을 구입하는 유통로였는데 일본상품의 침탈로 불이익을 받았다. 이로 인해 성남지역의 농민과 상인층은 일본인의 토지약탈, 고리대적 소작료 착취로 인한 지주제 강화, 일본 상품의 유입으로 급격하게 몰락하였다.

이러한 제국주의 침탈에 대응하여 성남인들은 일본과 결탁한 봉건적 지주, 예속 자본가에 대항하여 민족의 정통성을 유지하려는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였다. 직접 착취의 대상인 농민들은 의병대열로 결집하여 민족의 역량을 표출하였고 반면에 민족적 지식인·중소상인·중소자본가 등은 자강운동인 애국계몽운동으로 나아갔다. 정신적인 측면에서 보면 광주지역은 근기실학의 진원지로 근기학파(近畿學派)의 개조인 이익(李瀷)을 위시하여 안정복(安鼎福)·정약용(丁若鏞) 등과 연관된 곳이다. 즉 남인계열 학자들이 학문연구와 포교활동을 통하여 근대화를 추구한 지역이다. 특히 성남지역은 정약용의 근거지인 마재(馬峴)나 안정복이 향약을 실시한 경안(慶安)과 매우 인접하여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관계로 성남지역의 국권회복운동은 실사구시의 정신과 정통성을 유지하려는 특이성이 근대화운동의 과정에서 강하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1. 성남지역의 자강운동

자강운동인 애국계몽운동은 정치·사회단체의 활동이 주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단체들은 회보발행·연설회·토론회를 통한 국민계몽과 황무지 개척안 반대운동, 국채보상운동 등 애국운동을 실천하려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즉 의병전쟁은 일제의 강탈에 대항하여 직접 무기를 가지고 전투에 임한 반면에 애국계몽운동은 언론과 교육·문화·집회 등의 운동에 의해 주권을 존속시키려는 문화운동으로 전개되었다. 결국 애국계몽운동은 내재적인 필요성에서 제기된 개화사상이 기본 토대가 되어 민주주의와 입헌정치, 주체적인 경제사상의 보급, 자주적인 전통의식 확대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자강운동론자들은 국권회복, 교육진흥·식산흥업 등 실력양성으로 국권회복을 주장하고 이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애국심 고취에 심혈을 기울였다.

성남지역에서의 근대화 운동은 반외세·반봉건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서 출발하였다. 을사조약을 전후하여 지식인·관료·개명유학자 등은 학교설립과 신문잡지의 발간, 산업 진흥 등을 통해 경제적 문화적 실력을 양성함으로써 점진적으로 국권을 회복하려는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경기도 지역에서 자강운동은 단위 지역단체인 기호흥학회와 대한자강회 및 대한협회 지회가 설립되면서 전국적인 애국계몽운동과 맥락을 같이 한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광주지역에서의 애국계몽운동은 기호흥학회 활동이 부각된 점이 특색이다. 기호흥학회의 경우 광주·수원·양근·장단·교하·강화의 6개 지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나타냈는데 이를 통해서 보면 광주지역의 근대화 운동에 대한 일단을 유추할 수 있다.

기호흥학회는 1908년 1월 19일에 창립된 지역 단체이다. 이 단체는 경기도 및 충청남·북도의 흥학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은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살펴보면 '학업을 권장하며 회보를 간행하며 일반인사의 지식을 주입하여 경기도 및 충청남·북도 각 군에 교육을 발전케 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였다. 또한 기호흥학회는 창립 초창기부터 지회 설립에 적극적이어서 각 지방의 유지에게 교육흥업과 국권회복을 위한 지회 설립운동에 대한 동참을 호소하였다.

1909년 7월을 기준으로 기호흥학회 지회는 18개이며 회원수는 1,789명에 달하였다. 각 지회의 조직은 중앙 조직과 유사한 형태였으며 대략적인 조직 체계는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원, 교육부장, 재정부장, 간사원, 평의원, 부원, 서기원, 찬무원, 회원으로 구성되었다. 경기도 내에서 지회 설립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지역이 광주군이었다. 광주 지회의 임원진의 일단을 살펴보면 참여층의 윤곽을 짐작

할 수 있다. 기호흥학회 광주 지회의 임원진은 지회장에 이윤종(李胤鍾), 부회장 안엽(安燁), 총무 석찬환(石瓚煥), 회계원 조성준(趙成俊)·이동현(李東鉉), 서기원 김교열(金敎悅)·김현승(金顯承), 평의원 선영순(宣永淳) 외 14인, 교육부장 강원달(康元達), 재정부장 석찬환, 간사원 석동환(石東煥) 외 10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서 보면 광주지역의 유지층들이 대거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성남지역은 서울의 주변부인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중심부의 운동을 포괄하는 한편 운동의 역량을 분산시켜 강화하는 기능도 수행하였다. 자강운동은 애국사상과 민권사상의 고취를 통해 국권을 회복하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자강운동은 전국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으며 이런 면에서 보면 기호흥학회 광주지회의 활동은 전국적인 자강운동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국권회복운동의 초석이 되었다. 그러나 통감부의 감시와 박해가 강회됨에 따라 합법운동으로서의 한계성이 드러나 적극적인 투쟁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이 약점이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 갑오개혁 이후 정부가 근대교육을 보급하기 위해 관립학교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민족교육의 한계성이 노정되었다. 이를 인식한 민간 유지층들이 민족교육 확대를 위해 사립학교 설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였다. 1895년에서 1909년 사이 경기도 지역에 설립된 사립학교 설립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직관리 및 유지인사 119개교, 현직관리 24개교, 기독교 8개교, 학회 등 단체 12개교, 유림 5개교, 불교 3개교' 로 나타난다. 교육을 통한 국권회복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계층은 전현직 관리와 유지인사층임을 알 수 있다.

성남지역의 지식인층도 이런 추세에 호응하여 교육구국운동에 적극 동참하였다. 특히 중대면에 있는 송파광성학교(松坡廣成學校)는 설립된 후 5년간 영세성을 면치 못했으나 1909년 교사 김창진이 극빈학생들에게 서책 및 교육비를 자비로 충당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야학생이 100여 명에 달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문화운동은 사립학교·서당·야학 등을 통해 전개되었는데 조선역사와 지리 등 근대 과목을 교육하여 민족의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민족의 자주성을 강조하는 한편 독립의식을 고양시켰다.

성남지역의 근대화 운동은 자강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국채보상운동에도 적극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식민지 구축을 위해 통감부는 차관도입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이로 인해 1907년 2월에 대일부채가 1,300여 만 원에 달하였다. 대구에서는 국권회복의 장애가 되는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김광제·서상돈 등이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하였고 대중들의 반일감정이 고양되었다. 이 운동은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여 열기가 고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각급 공사립학교와 상인단체, 종교계, 해외교포 및 유학생층, 부인층, 노동자 및 천인 등 도시빈민층까지 참여하여 민족의 저력을 과시하였다.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금연과 금주로 생활비를

절약하기도 하고 결혼패물을 성금으로 헌납하였다. 광주군 초월면 대쌍령리의 경우 신사·인민·학동 등 대다수 주민들이 국채의연금을 수합하여 기성회에 보냈다. 이 지역에서 국채보상운동은 전국적인 흐름과 유사하게 진행되었고 국권회복을 바라는 의지력의 일단을 표출하였던 것이다. 특히 국채의연금의 수합에 광주 유지층이 적극적이었다는 사실은 애국계몽운동의 기반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강운동을 직접 시현한 대표적인 인물은 광주 대왕면 출신인 이석종(李奭鍾 : 90년 애족장 서훈)으로 제국주의 침탈의 위험성을 직시하여 국권침탈조약 반대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애국계몽운동을 실천하였다. 또한 광주 도척면 출신인 구정서(具貞書 : 91년 애족장)는 기독교 동대문교회 전도사로 동지들과 보안회 및 자강회원으로 활약하였다. 고향에 돌아온 그는 구국회 청년부의 책임자로 활동 중 을사조약에 반대하여 철시를 단행한 후 원주·여주 등지의 의병장과 상의하여 의병을 모집하였다. 1907년 7월 16일 이천읍에서 일진회원 밀고로 체포되어 총살 순국하였다. 이러한 투쟁에서 주목되는 것은 자강운동에 참여한 지식인층이 간접투쟁의 방식을 탈피하여 직접 투쟁인 의병전쟁의 대오에 합류했다는 점이다.

2. 성남지역의 항일의병 투쟁

1) 남한산성 연합의진의 조직과 활동

서울의 배후지역이며 군사적 중요성을 감안하면 남한산성은 광주·이천 의병의 거점지로 부각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특히 남한산성을 기반으로 항쟁한 대표적인 남한산성 연합의진은 경기도 연합의병진의 성격을 나타내는 이천수창의병진(利川首倡義兵陣)이라 할 수 있다. 의병진의 조직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인물은 김하락(金河洛), 구연영(具然英), 조성학(趙性學), 김태원(金泰元), 신용희(申龍熙) 등이다. 이천수창의소는 이천지역 관포군들의 지원하에 의병을 결집했다는 것이 특성이다. 구연영은 양근·지평에서 300여 명을, 조성학은 광주산성의 별패진 포군 300여 명을, 신용희는 음죽·죽산(竹山)에서 화포군 300여 명을 모집해 왔고, 김태원은 안성에 들어가 이미 거병한 민승천(閔承天)과 합세하였다. 이천에서의 거의(擧義) 소식을 접한 용인·안성·시흥·수원·안산 등지의 민중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조직력이 강화되었다. 이천수창의병진의 상층 지휘부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창의대장 : 민승천

도지휘	: 김하락	도총	: 조성학	좌군장	: 김귀성
우군장	: 신용희	선봉장	: 김태원	중군장	: 구연영
후군장	: 박주영	소모	: 전귀석	유격장	: 김경성
돌격장	: 심종만	도지휘종사	: 안옥희	대장종사	: 최순룡 · 김명신
도총종사	: 조순희	종군종사	: 최진엽		

이와 같은 지휘 조직 체계에서 보면 이천의병진은 경기도 연합의병의 성격을 나타낸다. 전기의병진의 전투 조직과 유사한 형태를 갖춘 것이지만 조직 체계가 세분화되어 있고 유격장과 돌격장의 직책을 배정하여 전투형으로 구성한 것이 특이한 일면이다.

광주지역과 연관을 맺고 있는 인물은 중군장 구연영, 후군장 박주영(朴周英), 도지휘종사 안옥희(安玉熙 : 광주 도척면 출신. 92년 애족장 포상), 3기 2대 십장 이준성, 1초 초관 김순삼, 2초 초관 고응성 등이다. 구연영은 1864년 6월 20일생으로 자는 춘경(春景)이다. 구연영의 집안은 선조 때 이후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삼리에서 대대로 세거하였다. 구철조의 3남인 구연영은 서울에서 출생하였으며 한 동안 관직에 종사했으나 조정의 문란과 부패에 낙담하여 사직하였다. 이천수창의병진에서 중요 역할을 수행한 그는 의병을 해산한 후에도 이천에서 계몽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천의병진이 남한산성에 거점을 두었던 것은 광주지역에 기반을 둔 구연영의 제안이 주효했다고 할 수 있다. 구연영은 해방 후 1963년 독립장이 서훈되었다.

후군장 박주영은 광주 출신으로 여주 의병장 심상희(沈相熙)의 추천에 의해 참여하였다. 김태원의 집유당유고에 따르면 '박주영은 언어가 민상하고 고금을 통하는 재주가 있어 사람들이 모두 위인이라고 칭하였다.' 고 한다. 이런 면에서 보면 박주영은 학식과 인품이 출중하여 여러 사람의 추앙을 받았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고응선은 광주에서 50여 명의 포군을 거느리고 의병 활동을 하였다. 이천의병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광주지역 의병지사들의 활약은 근대국가 수립을 위한 의지력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천의병진이 남한산성 연합의병진으로 성격을 변화시킨 것은 전투과정에서 기인한 것이다. 1896년 1월 18일 이천의병진의 조성학 · 김태원 · 김귀성 · 신용희 등은 백현(魄峴) 전투에서 기습 공격을 감행하여 일본군 수비대를 격퇴하였다. 일본군 수비대 180명을 격파한 이 전투는 전기의병의 대규모적인 승리여서 의병의 사기가 진전되었다. 백현 전투에서 참패한 일본군 수비대는 1896년 2월 12일에 재차 이천으로 공격해왔다. 총격전이 하루 종일 이어졌고 서북풍으로

인한 눈보라로 인해 의병진은 빈총을 들고 사방으로 흩어져 후일을 기약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이천수창의소 조직이 크게 와해되었고 의병의 재정비 과정에서 남한산성 연합의병진이 형성되었다.

김하락은 여주 심상희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구연영·신용희·전귀석(全貴錫)·김태원·민숭천을 불러들여 약 2,000명의 병사를 재모집하였다. 집의당유고(集義堂遺稿) 을병사략(乙炳事略)에 의하면 2월 23일 광주의병 심진원(沈鎭元) 등이 일본군 수비대를 격파하고 남한산성에 입성하였다. 그러나 참령 장기렴(張基濂)이 800명의 병사를 이끌고 반격하자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거듭되었다. 25일에는 의병장 김태원·구연영 등이 광주군수 박기인(朴基仁)을 처단하고 여주의 심상희의병진과 연합하는 한편 26일에는 소모군의 격문을 발송하면서 의병진을 강화하였다. 드디어 28일에 이천의병진과 연합하여 남한산성을 완전 점거하는 데 성공하였다.

또한 일본측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남한산성 연합의병진의 일단을 파악할 수 있다.

남한산성내 적 수는 약 1,600명이다. 그 중 1,000명은 광주·이천·양근의 포군 즉 구 지방병이고 나머지 600여 명은 광주의 농민이다. 적의 수괴는 광주 의병장 심영택, 이천 의병장 박주영, 양근 의병장 이석용 등 3명이다.

즉 남한산성 의병진은 광주의병을 중심으로 이천의병과 양근의병진이 연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연합의병진의 의병층은 주로 지방군인 포군이 주축이었기 때문에 일제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대등하게 전략을 구사할 수 있었다.

남한산성 의병진은 천혜의 요새지를 점령하고 풍부한 군수물자를 확보하자 서울진공작전을 추진하였다. 서울진공작전은 춘천·분원·공주·청주·수원의병진과 연합하여 남한산성에 주둔한 관군과 일본군을 협공 격파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위협적인 형세는 일본과 집권층을 직접 자극하는 계기가 되어 남한산성을 두고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3월 5일 첫 전투에서 남한산성 연합의병진은 친위대의 침공을 격퇴하여 송파지역으로 내몰았고 대포 일문을 탈취하였다. 이어 정부측은 강화도 지방병을 지원하는 한편 남한산성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항복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3월 20일 이를 거부한 남한산성 연합의병진은 관군 및 일본군의 공격으로 인해 패퇴하고 말았다.

남한산성 전투는 전기의병사의 대표적인 격전으로 의병 500여 명과 관군 300여 명이 사망하는 치열한 전투 양상을 보여 주었다. 남한산성 함락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지만 실제로 연합의병진은 보급로를 차단당해 타격을 일차적으로 받았을 것이

다. 나아가 의병장 박주영의 의견 대립으로 인한 의문사와 중군장 김귀성의 관군과 결탁 등 의병지도부의 분열로 인해 의병들의 사기가 저하된 면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척사위정 사상을 관철시켜 국가의 자주권을 확보하려던 의지력은 이후 김하락·구연영의 잔여 의병대가 영남지역으로 이동하여 지속적으로 항전하는 과정에서도 계승되었다.

2) 성남지역의 후기의병 활동

후기의병은 상품화폐경제의 폐단이 파급되자 자발적인 의병이 급증하고 군대해산을 계기로 전술전략이 강화되면서 치열하게 전개된 것이 특징이다. 즉 의병의 상층부가 지방관료·농민·군인층 등이 주도층으로 등장하면서 반제국주의 노선이 강화되어갔다. 1905년 을사조약은 일본의 식민지 전락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국가의 자주권회복이 민족의 과제로 부상하였고 다양한 계층의 참여로 대중성을 확보하였다. 특히 의병 상층부의 주도층이 변화되어 무명 유생층과 농민층이 등장하면서 격렬성과 강인성이 배가되었다.

성남지역의 의병활동은 을사조약 이전 단계인 1904년 5월 말에서 6월 초에 나타난다. 즉 의병 180여 명이 광주부 동쪽 40리 도척면(都尺面)에서 부민 배참봉에게 군량전 2천 냥을 징발하고 궁평동(宮坪洞)에서 조총 4정, 상림동(祥林洞)에서 양총 1정과 조총 3정을 탈취한 후 죽산으로 향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광주의 병장 구만서(具萬書)는 포군 50여 명을 인솔하고 6월 7일 새벽 지평군 일진회 사무소를 포위한 후 일진회 지회장 이강수와 부회장 이재연 등 7명을 포살하였다. 이어 곡수(曲水)에서 일진회원 2명을 체포하여 의병에 가입시켰다. 을사조약 강제 체결을 계기로 항일투쟁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이런 추세에 호응한 광주 출신 의병장은 이관영(李觀永)이다. 그는 손병희선생의 사위로 이완용 자택을 방화하고 양평군에 은신 중 의병에 가담하였다. 11월에 의병을 규합하여 의병부대를 지휘하던 중 향년 25세로 전사하였다.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이 시기의 의병활동은 의병 조직을 강화하는 한편 일제에 협력하는 일진회원에 응징을 가하는 형태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907년 군대해산 이후 군인층이 의병전쟁에 참가하면서 전술전략에 변화를 초래하였다. 화력의 증가는 물론 전투 훈련도 강화되어 부대 규모가 축소되었다. 또한 전투방법도 거점확보전에서 유격전술을 구사하면서 전투력이 향상되었다. 이 시기에는 의병 지도부도 변화되어 기존 양반층 위주의 지도층이 평민의병장으로 전환되었다. 평민의병장의 등장은 기층농민과 밀착되어 있어 대중성이 확보되었고 의병 내부적으로도 동질감을 형성하여 전투력 기반이 확충되었다. 즉

후기 의병장의 신분구성은 3%가 양반, 97%는 군장교·말단관료·농민으로 구성되었고 의병층도 농민·상인·포수·해산군인·화적으로 다양하게 포진하여 궁긍적으로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런 내적 변화로 인해 1907년에서 1909년까지는 의병전쟁의 본격화 단계로 격렬한 항쟁이 지속될 수 있었다. 이 단계에 성남과 광주지역에서 투쟁한 의병 부대의 활동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상목(南相穆)부대◎

남상목은 1878년 4월 12일에 경기도 광주군 낙생면에서 출생하였다. 유학을 익힌 그는 1907년 7월 8일 용인 용천곡에서 의병을 모집하고 구식총 등으로 무장하였다. 이후 8월부터 시위대 좌익군장이던 김재선(金在善) 등 부하 50명과 함께 광주·수원 등지에서 활동하다 김군필부대와 합진하였다. 이강년 의병대에 합류한 남상목은 참모관을 역임하면서 음성전투에서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 일본헌병대에 체포되어 옥중에서 순사하였다. 이런 민족운동으로 1983년 건국포장에 서훈되었고 이어서 90년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윤치장(尹致章)부대◎

윤지창은 1876년 광주군 대왕면에서 출생하였다. 본명은 재옥(在沃)이고 자가 치장이다. 그는 퇴역병 출신으로 광주에서 농업에 종사하다 의병에 참여했다. 1907년 11월 중군장 오사과(吳司果) 등 부하 70명과 함께 광주·과천에서 활동하였다. 11월 20일 경 광주군 청계산 부근에서 일본군 수비대와 교전하였고, 1908년 1월에는 광주군 목동에서 일본 기병대와 교전 중 부하 8명을 잃기도 하였다. 이어 3월에는 광주군 언주면에서 군수전 100원을 징발하였다. 10월에 의병자금 활동 중 일본 헌병대에 체포된 후 재판에 회부되었다. 1909년 1월 2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교수형에 언도된 후 15년형으로 감형되었다가 1923년에 석방되었다. 이런 공로가 인정되어 90년 애국장에 포상되었다

◎이익삼(李益三)부대◎

의병장 이익삼은 1907년부터 용인을 근거지로 삼아 부하 30~40명과 함께 광주·용인·죽산 등지에서 활약하였다. 1909년 6월에 일본군에 체포되었다.

◎임경제(林景濟)부대◎

1907년 10월부터 광주군에 거주하는 농민 오장경(吳長卿) 등 대원 70여 명과 함께 광주·양지에서 활동하였다.

◎정철하(鄭喆夏)부대◎

정철하는 1907년 8월 방인관부대에서 서기로 있다가 전병규부대에 투신하였다. 퇴역병 정원집(鄭元集), 농민 홍금만(洪今萬) 등 30여 명과 함께 광주·용인·음죽 등지에서 활약하였다.

◎임옥여부대◎

1907년 8월 김봉기 의병부대 좌익장인 임옥여는 광주군 실촌면에서 원주 의병대장의

군략을 사용하여 실촌면 33동 동장에게 탄약과 화약을 제공하라는 격문을 발송하였다. 임옥여 의병대원 60여 명은 광주 도척면 상림동을 거쳐 9월 12일 죽산읍을 습격하여 순검 가옥을 불태웠다. 광주·양근·용인·죽산 등지에서 활약하던 임옥여는 1907년 11월 10일 광주군 실촌면 연기동에 잠복해 있던 일본인 순사와 일진회원에게 체포되어 총살당하였다.

1907년 10월 17일 의병 40여 명이 광주 부근에 있는 일본인 농장을 습격하여 저장 곡식을 탈취하고 가옥을 방화하였다. 이들은 재차 양근군 구천면 신평리를 습격하여 일본인 농림원 건물을 불태웠다. 이어서 12월 6일에는 의병 50명이 광주군 욕지동을 습격하여 일진회원 가옥을 불태워 버리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런 의병들의 활동에 당황한 광주 군수 오태영은 서울로 도주하다 의병에게 잡혀 곤욕을 당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성남지역의 의병운동은 반외세(反外勢)·반봉건(反封建)을 요구하는 직접 투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인 농장주와 일진회원을 직접 응징하거나 친일관료를 처단하는 것은 반제국주의 투쟁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구현한 것이어서 의미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일의병전쟁의 특성이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을 해결하려는 민족운동이었으나 계몽운동과 연계되지 못하고 분산적인 형태로 전개된 것에서 한계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의병운동이 보수 유생층의 근왕적 운동의 한계성을 극복한 점과 항일민족전선의 주력군으로 등장하였던 특성은 근대화 운동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것이다. 참고로 앞에서 거론한 이외의 광주출신 의병운동자와 독립유공 서훈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복선(姜卜先)·고재석(高在奭)·김경성(金敬誠)·김광준(金光浚)·김광선(金光善 : 800명 규모의 의병부대 운용)·김귀성(金貴星)·김길동(金吉同 : 95년 애족장)·김범이(金範伊 : 95년 독립장)·김상준(金尙浚 : 김광선과 함께 의병을 주도)·김창환(金昌煥 : 63년 독립장)·남공필(南公弼 : 95년 애국장)·박성삼(朴聖三 : 95년 애족장)·박준영(朴準英)·방덕영(方德榮)·방춘식(方春植)·서정호(徐正鎬)·신규희(申奎熙)·심덕재(沈德在)·오학서(吳學西)·유면영(柳冕永 : 90년 애족장)·이만(李萬)·이명하(李命夏 : 63년 독립장) 임문순(林文淳)·임백윤(任白允 : 95년 애국장)·정영보(鄭永甫)·정원경(鄭元景)·주창룡(朱昌龍) 등이 의병전쟁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성남지역에서의 근대화운동은 서울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관계로 다른 지역보다 정국적인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다시말해 성남지역은 서울의 주변부인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중심부의 운동을 포괄하는 한편 운동의 역량을 분산시켜 강화하는 기능도 수행하였다. 이런 특성으로 성남지역의 근대화운동은 자강운동과 항일의병전쟁으로 진행된 전국적 추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었다. 다른 지역과 상이한 일면은 성남지역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성남지역은 실학의 발원지인 광주 인접지역이어서 실사구시의 정신과 정통성을 유지하려는 특이성이 근대화운동의 과정에서도 강렬하게 나타났던 것이다.

여 백

일제하 성남지역의 민족운동

서 승 갑

일제하 민족운동의 선상에서 보면 성남지역은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근대화 과정에서 수도와 연접한 관계로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받았을 뿐 아니라 나아가 운동의 거점 분산지로도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런 관계로 성남지역은 일제하 식민지 정책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자구책을 모색하기 위한 민족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지역이었다. 특히 근기 실학가들과 해공 신익희(申翼熙), 독립운동가 이명하(李命夏) 등이 배출된 일면과 의병장의 활동, 3.1운동, 신간회 광주지회 운동, 사회주의 운동은 이러한 면면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제하 식민지 통제책은 경기도 일원에 특히 강화되었으며 이로 인한 탄압책이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정책은 식량과 공업원료의 약탈 및 상품시장 조성을 위해 식민지적 경제체제로 재편성하는 것이었고 나아가 한민족 말살정책으로 진행되었다. 일본제국주의는 부루주아 개혁을 추진한 주체가 봉건세력이었기 때문에 천황의 권력이 강화되고 군부가 막강한 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이와 같은 일본제국주의의 속성으로 인하여 식민지농업의 재편은 지주 본위로 일관되었고 군사적 속성과 약탈적 성격이 강하였다. 그러므로 식민지하 농업수탈은 봉건적 토지소유에 의한 착취와 화폐유통 및 금융기구에 의한 식민지 자본주의적 착취가 중층적으로 결합된 것이 특징이다.

강점 후 일제의 농업정책은 자국내 만성적인 식량부족을 타파하는 데 초점이 두어졌기 때문에 식민지의 수탈은 필연적이었고 악날한 수법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응한 일제하 독립투쟁은 식민지 무단농정, 중과세, 부역을 통한 노동력 착취, 토지수탈, 소작료 인상, 고리대 수탈 등에 반대하는 투쟁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남지역의 민족운동은 반봉건·반제국주의 투쟁으로 귀결되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편의상 1920년을 기준으로 해방운동의 태동기와 고양기로 나누어 성남지역 민족운동을 살펴보기로 하자.

1. 해방운동 태동기의 성남지역 민족운동

*건국대학교 강사

제국주의 침탈에 반대한 근대화 운동은 직접 투쟁인 의병전쟁과 간접 투쟁인 애국계몽운동으로 진행되었다. 의병투쟁이 재야 유생층과 농민층이 반외세와 반봉건 세력에 대항하여 무기를 들고 일어선 투쟁이었다면 애국계몽운동은 지식인 계층에 의한 간접 투쟁의 방식으로 국민 계몽을 통한 실력양성에 주안점을 두는 운동이었다. 이런 일련의 국권회복운동은 일제의 강점으로 인한 무력적 수탈구조 하에서 일정 부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지만 기본축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1910년대 민족운동은 일부 지역의 의병 투쟁을 제외하면 비밀결사운동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비밀결사운동은 독립전쟁론에 입각하여 독립군을 조직하거나 지원을 목표로 하였다. 대개 대한제국의 회복을 주장하는 복벽주의자는 대한독립의군부와 민단조합을 조직하여 활동하였고 반면에 공화주의자는 대한광복회와 조선국민회 등을 결성하여 활동을 벌였다. 나아가 일제 강점에 충격을 받은 의병전쟁과 애국계몽운동의 주도층 일부는 국내 민족운동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연해주 등지에 국립운동 기지 건설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계몽운동가들은 사회진화론에 입각했던 독립운동의 방략을 반성하고 의병운동의 무장투쟁론으로 방법론을 전환하기도 하였다.

한편 1910년대 후반 독립군 기지운동이 약화되자 국내 신지식층과 일본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전개한 민족운동은 실력양성운동의 일환인 민족교육운동이다. 민족교육운동은 사립학교·서당·야학 등의 활동 공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특히 서당은 조선의 역사와 지리를 가르치는 민족적 교육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했으며 야학도 노동자와 농민의 자제를 교육하는 기관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민족교육운동이 민족해방운동에서 기본적인 토양을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해방운동 태동기 성남지역에서 진행된 독립운동은 무력투쟁인 의병운동이 방략을 전환함에 따라 실력양성운동과 비밀결사운동의 형태로 나타난다. 1910년대 실력양성론의 주체가 되는 신지식층은 국내외 특히 일본에서 신교육을 받은 유학생층이었다. 일본 유학생의 수는 수백명에 달하였으며 유학생의 분위기도 이전과는 달리 실력주의가 지배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1910년대 후반 귀국하여 국내에 새로운 지식층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에서 근대 자본주의문명의 위력에 압도당하고 서구의 부르주아적 문화에 세례를 받은 이들은 이런 토대 위에서 국권회복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력을 보여 주었다. 신지층들은 구사상·구관습 개혁론에 치중하였다. 즉 이런 개혁론은 산업과 교육의 진흥을 보완할 수 있는 사상적·사회적 여건의 조성에 초점을 둔 것이었다. 성남지역에서 실력양성운동의 일단을 살펴 볼 수 있는 단초가 해공 신익희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1910년대 후반기 일본 유학생들은 실력주의 분위기가 확산되자 대학 본과에 진

학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는 학생들이 늘어났다. 1917년 와세다대학 정치경제과를 졸업한 신익희 등이 이에 해당하는 부류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새로운 문명생활에 도취하여 방탕 생활에 빠진 일부 유학생들을 비판하였다. 1915년에는 신익희·이광수(李光洙)·장덕수(張德秀) 등이 조선학회를 설립하는 한편 신익희는 유학생학우회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유학생학우회는 웅변회, 졸업생 축하회, 신도래학생(新渡來學生) 환영회, 운동회 등의 행사를 통해 결집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관지 학지광(學之光)을 발간하는 활동을 하였다. 당시 유학생층들이 실력주의에 바탕을 둔 것은 바람직하지만 한편으로는 서구사조에 영향을 받아 활발한 모험 정신은 약화된 것이었다. 이런 풍조는 역으로 말하면 독립에 대한 열의는 약화되고 선실력양성 후독립론과 구사상·구관습개혁론으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집회결사의 자유가 거의 금지된 1910년대 무단통치기에 신지식층의 행동은 합법적인 형태내에서 이루어진 제한적인 것이었다. 타협적인 한계성의 요소에도 불구하고 신익희는 3.1운동을 주도한 후 상해로 망명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약하였다. 해방 후 광주군 초월면 출신인 신익희는 대한민국장에, 이외에도 신정완(申貞婉)·신하균(申河均) 등이 임시정부 활동으로 서훈되었다. 성남지역에서 민족운동가인 신익희 등을 배양한 것은 앞에서 지적한 지역 역량과 연관된 것이어서 의미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910년대 일제의 식민지 경제정책은 무단 통치를 배경으로 하여 한국의 경제구조를 식민지 수탈에 적합하도록 재편하는 것이었다. 일제가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은 불법적인 토지 수탈을 자행하기 수단이었으며 이를 통해 부수적으로 지주권리를 강화하고 농민의 경작권을 부정하는 효과도 달성하였다. 나아가 고율소작료, 마름의 수탈, 반봉건적인 질곡을 온존시켜 소작농민들은 반봉건적인 예속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것은 폭력 경찰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고 한편으로 통치구조를 전면 개편하면서 탄압을 강화한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제에 대응한 성남지역의 민중의 생존권 투쟁은 항일의식을 배양하고 국내외의 독립운동을 후원하는 등 민족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진행된 것이 특징이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일제의 식민지 재편과정에서 보여준 토지에 대한 약탈은 한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었다. 성남지역의 농민과 소상인층은 토지조사사업, 임야조사사업, 각종 잡세와 증세에 집단적으로 저항하였다. 이러한 투쟁은 기존의 주체적인 행동양식을 폭력적으로 재편하려는 일제의 식민지 무단통치에 반대하는 것이었으며 민족의 공감대를 확산시켜 갔다.

1919년 3.1운동은 성남지역에서 무단통치에 반대한 정치투쟁이 결집되어 나타난 대표적인 민중 스스로의 생존권 투쟁이라 할 수 있다. 즉 식민지 무단농정 철폐와 토지 분배, 가혹한 세금의 철폐 등을 요구하는 민중의 의지가 일시에 분

출된 것이었다. 당시 3.1운동은 처음에 천도교나 기독교 조직을 통해 일어났으나 점차 고종 국장을 참례한 일단의 농촌 지식인군이 귀향하면서 운동이 본격화된 것이 특징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근 지방의 운동소식과 선언서나 선전문 등의 영향을 받아 일어나기도 하였다. 성남지역의 1910년대 후반기 민족운동은 일제 무단통치에 정면으로 반대한 투쟁이어서 의미를 갖는 것이다. 먼저 현재의 성남지역인 중부(中部)·돌마(突馬)·낙생(樂生)·대왕면(大旺面)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중부면의 만세시위운동은 남한산성을 중심축으로 전개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중부면은 동면의 면소재지로 산성리를 비롯하여 13개 동리로 구성되어 있었다. 중부면에서 전개된 만세시위운동은 성남출장소 관내 단대리·탄리·수진리 등의 동리 주민들이 주도하였다. 실제로 3월 27일 새벽을 기하여 남한산에서 횃불을 밝히고 이를 신호로 하여 단대리·탄리·수진리의 주민 300여 명이 만세 시위를 주도하였다. 이들은 남한산성 남문에 집결하여 만세를 고창한 후 산성 안으로 진입하여 시위 운동을 전개하였다. 단순 시위운동에서 방향을 전환한 것은 시위대가 면사무소에 집결하면서 나타났다. 즉 일제에 협력한 당시 중부면장에 대한 감정이 폭발하자 일부 시위대가 면장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과격양상으로 이어졌다. 결국 일제 헌병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일제의 무력 사용으로 인해 독립을 위한 시위운동은 좌절되었다. 이런 양상을 통한 중부면의 독립시위운동을 살펴보면 횃불을 신호로 일사불난하게 대처한 양상은 이전 단계에 이미 묵계된 조직성을 간파할 수 있고 일제 탄압책에 반대하려는 의지력을 적절하게 표출한 면이 특색이라 할 수 있다.

돌마면의 시위운동은 농촌의 지식인층 일단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운동을 주도하였다는 점이 특색이다. 이런 관계로 참가자가 증폭하였고 낙생면과 연합시위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돌마면 율리의 한순회(韓順會), 한백봉(韓百鳳)은 1919년 고종 장례식에 참여한 후 3.1운동을 직접 경험하였다. 이들은 면내의 유지들과 접촉하면서 시위운동을 모의하는 한편 낙생면 초대면장 남태희(南台熙)와도 연계하여 거사를 도모하였다. 특히 한순회가 천도교 광주교구장이었던 점과 면장을 지낸 남태희 등이 운동을 주도한 것은 농촌의 지식인층이 시위운동에 적극적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특히 한순회가 천도교에 관여한 사실은 주목할만 하다. 당시 천도교인들은 국권회복과 독립이 당면한 사명이라는 인식하에 독립을 쟁취하려는 의지력이 강하였다. 천도교인들은 독립선언서를 각지에 배포하는 한편 운동을 주도하는 데에도 적극적이었다. 이들은 태극기를 극비리에 제작하고

운동자금 모집 등도 관여하였다. 이런 점에서 보면 돌마면 시위운동은 주도면밀에게 준비되었음을 간파할 수 있다. 또한 최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이 운집하는 분당리 장날인 27일을 거사일로 선택한 점 등도 이런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27일 새벽에 한백봉 등은 율리 동민 50여 명을 인솔하고 뒷산에 올라가 봉화로 시위를 예고하는 등의 주도 면밀함을 보였다. 거사 당일 10시경 분당리 장터에서 군중이 운집하자 한백봉 등은 만세 시위를 주창하여 본격적인 시위운동이 전개되었다. 면내를 순회하는 동안 시위 군중이 늘어났고 오후에 낙생면소재지 판교리에서 남태희가 주도한 시위 군중과 합세하였을 때 시위 군중은 1,000여 명에 달하였다. 이와 같은 돌마·낙생면민의 연합시위는 규모나 영향력이 지대한 것이었다. 시위운동의 주도자들은 28일에도 봉화를 올리고 시위운동을 전개하였으며 29일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일제 헌병이 시위 군중을 강제 해산시키고 주도층 일부를 체포하자 시위는 약화되었다.

시위운동의 과정에서 일제의 대응책이 미온적이고 방관적이었다는 일단의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즉각적인 대응은 사태를 악화시킬 소지가 있었으므로 미온적일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일제는 최고조에 달한 시위운동을 피하려는 술책을 구사하였기 때문이다. 일제의 술책은 시위 주도층인 한백봉 등 수 십명을 29일에 체포하여 판교헌병주재소에 연행한 후 남한산성 용인헌병분견대 광주분견소에 이송하여 4일간 혹독한 고문을 가한 사실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런 대응 조치로 인해 당시 시위운동이 폭력적으로 전환되지 못하였고 독립운동을 고양하는 단계에 머무른 것으로 이해된다. 그 후 대부분의 인사들은 방면되었으나 한백봉은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을 거쳐 서대문감옥에 이감되었다. 이어 보안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을 언도받고 1920년 4월 28일에 만기출옥하였다. 1990년 정부에서는 이런 민족운동의 공로를 인정하여 애족장을 서훈하였다.

낙생면의 만세시위 운동은 돌마면과 연합하여 전개되었다는 점이 특색이다. 특히 초대면장을 역임한 남태희가 전면에서 시위운동을 주도하였다. 3월 27일 특히 돌마면 율리에서 시작한 만세시위가 분당리 장날에 군중이 가담하면서 규모가 증대하였다. 시위대가 낙생면 소재 판교리에 도착했을 때 백현리, 운중리, 궁내리의 군중들이 참여하면서 1,000여 명에 달하였다.

대왕면의 독립운동은 중대면 송파리에서 일어난 시위운동이 이 지역에 파급되면서 시발되었다. 광주군 돌마면 여수리가 본적인 이시종(李時鍾)은 농사에 종사하던 중 송파시위에 참가한 후 대왕면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하였다. 조선독립신

문의 독립에 관한 기사를 가지고 수서리에 돌아와 동리의 이재순(李載淳)·이규문(李揆文) 등 100여 명을 규합하여 만세 시위운동을 시작하였다. 시위대는 만세를 고창하면서 면사무소에 집결하였고 일부는 면사무소에 진입한 후 조선독립신문을 꺼내 독립의 당위성을 낭독하였다. 이시종은 군중에게 "오늘까지는 이 면사무소에서도 일본을 위하는 일을 보고 있었지만, 이제 조선이 독립하게 되어 부역·세금 등은 필요없게 될 것이다." 라고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였다.

이시종과 이재순은 이튿날 헌병주재소원에 피체되었다. 일제는 이들에게 정치에 관한 불온한 언동을 하여 군중을 선동함으로써 치안질서를 방해했다는 보안법을 적용했다. 5월 15일 재판 결과 이시종은 징역 1년, 이재순은 징역 8개월에 처해졌다. 대왕면 시위운동은 일제의 가혹한 부역과 세금에 반대한 운동였음을 나타내는 명백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대왕면의 만세운동은 일제의 부역 징발과 토지 수탈에 반대하여 민족의 의지를 반영한 독립투쟁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성남지역의 3.1운동은 3월 하순에 집중적으로 일어났으며 횃불 시위운동은 4월까지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시 경기도의 경우 일제 경찰력과 무력충돌이 70회 정도였으며 살해자는 104명, 부상자 190여 명, 피체포자가 약 1,350명을 상회한다는 수치를 감안하면 이 지역의 독립운동이 치열했음을 알 수 있다. 성남지역의 시위 형태는 대개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는 평화적 시위에서부터 밤에 산에서 횃불과 봉화를 올리며 만세를 부르는 횃불시위, 몽둥이를 들고 관공서 등을 공격하는 무력시위 등으로 전개되었다. 성남지역의 독립만세 시위운동은 일제의 무단통치에 반대하여 민족의 자주적 의지력을 보여 준 운동이었다. 일정 부분은 폭력적인 형태로 진전되지 못했지만 이것은 일제의 교활한 전술에 의한 것이다. 실제로 성남지역의 독립운동은 중부에서 남부지역과 연결시키는 연결 고리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어서 의미를 갖는 것이다. 나아가 성남지역에서 민족운동은 전민족 항일투쟁과 보조를 같이하는 것이며 일제의 무단통치에 반대하여 직접 투쟁을 몸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2. 해방운동 고양기의 성남지역 민족운동

일제는 3.1운동의 거족적 항쟁에 놀라 강압적인 무단통치 방식을 전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배경하에 일제가 표방한 정책의 일단이 문화정치였다. 그러나 형식면에서 약간의 변화가 수반되었지만 본질적인 구조는 변화가 없었다. 즉

한민족에 대한 지배와 수탈을 좀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위장술에 불과한 것이었다. 따라서 일제하 1920년대 민족 투쟁은 민족 역량을 결집하려는 해외에서의 직접 무장투쟁, 비밀결사운동, 농민·노동자운동, 청년·학생운동, 조선공산당운동, 신간회운동 등으로 나타났다.

성남지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는 의병운동과 독립군에서 활약한 이명하(李命夏)라 할 수 있다. 이명하는 1878년 광주 대왕면에서 출생하였다. 1902년 지방관리직에 나아가 제천군 주사에 종사하다가 의병에 참여하였다. 1907년에는 유인석의병장 수하의 소모장으로 활동하던 중 단양 영춘군수를 참살하였다. 의병전쟁에 참여한 후 1919년에 상경하여 독립운동을 하다가 10월 만주로 건너갔다. 독립군 제3지대원으로 활동하면서 1920년 2월 중국 삼도구(三道溝)에서 하야순사부장(河野巡査部長) 등을 사살하였다. 음력 12월 25일 삼도구 중국인 집에 은거하던 이명하·백학원(白學元)·안중석(安重錫)·김근배(金根培)·박초식(朴楚植) 등 7명은 평북 제3부 일본경찰대에 포위 습격당해 교전하던 중 전사하였다. 이명하의 역경을 살펴보면 지방관료로 국가가 위난에 당면하자 결연하게 일어나 직접투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의병전쟁에 참여했던 직접 무장투쟁론자들이 독립군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투쟁한 일면을 보여 준다. 이런 공로가 인정되어 1963년에 독립장에 서훈되었다.

이 외에도 대한독립단에 참여한 김교상(金敎爽 : 90년 애족장), 이재인(李載仁 : 광주 언주면 출신, 애족장)이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이다. 강학희(姜學熙)는 95년에 의열투쟁으로 건국포장이 포상되었고, 안효동(安孝童)·이임성(李壬成)도 의열투쟁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언주면 출신인 이정수(李廷秀)는 1944년 안휘성 임천소재 광복군 제3지대에서 활약하였으며 광주 중대면 출신인 염재항(廉宰恒)은 광복군 활동의 공적으로 건국공로대통령표창을 받았고 90년 애국장에 서훈되었다. 이와 같이 일본제국주의 침탈에 정면으로 대응하여 한민족 기상을 발현한 성남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은 정신사적인 민족 정통성의 맥락을 계승하려는 지역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국내 독립양상을 살펴보면 1920년대 민족개량주의자들은 즉각독립론 유보하고 실력양성운동이나 자치운동론으로 독립운동의 방략을 전환하였다. 만면에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은 일제와의 타협을 일체 거부하고 즉각적인 독립론을 주장하여 대립된 양상이 표출되었다. 따라서 민족 역량을 결집하여 민족협동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민족운동의 당면 과제로 부상하였다. 정우회 선언으로 인한 경제투쟁에서 정치투쟁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동조하게 되었고 일시적인 공동전선이 구축되었다. 이런 추세가 조직화된 것이 1927년 2월 민족협동전선으로써 신간회 창립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신간

회 광주지회의 조직과 활동상은 민족협동전선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주목할만한 사항이다. 이를 통해 성남지역의 민족운동에 관한 일단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간회는 본부보다는 지회를 중심으로 활동이 전개된 것이 특징이다. 신간회는 전국 각처에 약 140개 소의 지회를 두고 39,000명의 회원을 확보하였다. 신간회는 주로 농민과 노동자, 학생운동을 지도하였다. 신간회 지회의 활동은 일제 식민지 지배정책에 대한 반대운동으로 나타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신간회 광주지회는 반제국주의의 중요한 성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927년 8월 8일에 성남지회와 24일에 광주지회가 설립되었다. 경성지회가 6월 10일에 설치된 점을 감안하면 빠른 시일에 설치된 것이어서 신간회에 대한 지지의 열기가 고조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1931년 광주 지역에서 광흥지회가 설립되었다.

당시 광주지역에서는 사회운동단체들이 지역운동을 주도하고 있었다. 광주중앙청년회, 송파광주청년회, 광명청년회, 진흥청년회, 노동공제회, 조선일보·중외일보·조선농민사 지국 등의 단체가 활동하였다. 광주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의 속성을 살펴보면 민족주의 계열이 주도하는 사회단체와 연관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3.1운동에서 보여준 저력이 계몽운동의 형태로 잔존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사회단체들의 활동이 주효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청년운동의 활동 내역은 야학회·강연회·토론회·체육회·연극활동 등 개량주의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지만 독립운동의 기본 토양으로 작용한 점은 주목할 수 있다.

민족협동전선의 흐름에 따라 돌마면의 독립지사 한순회 등이 이러한 단체를 토대로 하여 신간회 지회 설립을 주도하였다. 이런 관계로 광주지회장에 한순회가 선임되었고 간사로 한백봉(韓百鳳), 한백호(韓百鎬), 이대헌(李大憲), 유인목(兪仁穆), 박기환(朴基煥), 한용회(韓龍會) 등이 피임되었다. 광주지회의 구성원은 한순회 등 돌마지역 인사들이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신간회가 활성화되면서 독립운동의 일단을 담당할 수 있었던 내적 배경은 지역 지도자의 역할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3.1운동을 주도한 한순회는 천도교에 귀의한 후 천도교 광주교구장을 거쳐 중앙총부 중앙위원과 봉도까지 역임하였다. 천도교에 관여하면서 한순회는 포교를 위한 활동을 하는 한편 광주교구장으로서 이천·여주·원주·음성 등지에 연락책임을 맡아 활약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전국 순회 강연에 참여하여 독립정신을 앙양하였고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여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조달하는 일도 담당하였다. 이런 점에서 보면 신간회 광주지회의 활동은 당시 신간회가 추진하려던 목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신간회 지회의 활동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에 대한 반대운동의 성격을 내재한 것이었다. 1938년에 한순회는

황해도 사리원에서 천도교 중앙간부 최준모(崔俊模)·김재주(金在柱)·김경성(金庚成) 등과 함께 일제 관헌에 피체되어 서울로 압송된 후 혹독한 고문을 당하였기도 하였다. 광주지회의 활발한 활동은 이러한 한순회와 같은 지역 인사의 역량과 노력이 베어 있는 것이어서 높이 평가된다.

신간회 운동은 3.1운동 이후 민족해방운동이 부르주아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노선으로 분화된 이래 처음으로 전개된 민족협동전선운동이었다. 특히 신간회 광주지회는 주체적인 민족의식의 각성을 촉발시켰으며, 한민족 운동세력을 총결집하여 타협적인 민족 우파세력에 반대하고 절대독립을 주창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다음으로 일제하 노동자·농민운동의 측면에서 성남지역의 전개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노동자·농민운동은 제반의 민족운동과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반제투쟁의 핵심세력으로 부상하면서 민족해방운동 선상에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성남지역에서 노동자·농민운동에 관한 연구 성과가 진척된 것이 아니어서 일제하 운동 구도를 구체화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따른다. 그러나 주변의 상황을 유추하면서 성남지역에서의 운동 역량을 종합해 보기로 하자.

일제하 농민운동은 일제의 토지강탈과 식민지 농업정책의 반대투쟁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농민운동에 대한 접근은 기본적으로 반봉건과 반제국주의 투쟁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농민투쟁은 식민지 농업정책의 수탈구조로 전계층이 몰락하고 소작농층의 노동강화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즉 일제 강점의 초기단계 농민투쟁은 경제적 요구에 의한 경제투쟁에서 비롯되었으나 제국주의의 식민지 권력이 개입하면서 정치투쟁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나아가 1930년대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은 빈농우위의 원칙인 혁명주의를 관철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혁명주의는 국내외 반제세력을 통합하여 민족해방을 쟁취하려는 민족통일전선의 방략과 궤를 같이하면서 위상이 격상되었다.

한편 일제하 농업금융자본은 농촌구조상 대지주나 중농층에 편중되었고 상대적으로 금융신용이 빈약한 빈농층은 금융제도권에서 소외된 상태였다. 농촌내 이중적 농촌금융구조로 인하여 금리차를 이용한 고리대금업이 성행하였고 빈농층은 고금리 수탈의 대상으로 부각되면서 절대빈곤의 상태가 지속되었다. 그 결과 농촌에서 고리채의 횡행, 재산차압·생산물차압 등의 집행으로 부채농민은 풍흉에 관계없이 파산하여 유리화되었다. 즉 농촌금융의 제도적 모순이 빈농층에게 전가되는 상황이 일반화되면서 빈농층이 격증하였다. 결과적으로 금융제도권에서 탈락한 빈농층의 증가는 농촌고리대의 수탈대상으로 편입되면서 역으로 고리대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층으로 전환된 것이었다. 일제하 농촌사회인 성남지역도 이런 현상이 자행되어 악화 일로에 있었다.

「경기도농촌사정」에 따르면 1924년 경기도민들은 생산 수확물로 식량을 확보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보편적으로 추수한 식량은 정월까지 자급하는 것이 고작이었고 대부분 잡곡으로 대신하였다. 식량 결핍에 대한 보충 방안은 농번기에 출역한다는 약속으로 유력 농가로부터 식량과 금전을 차입하였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제방수축, 농장출역, 기타 품앗이에 종사하는 것이었다. 이런 것은 제한적이었으므로 대다수 경기도 농민들은 식사 회수를 줄이고 초근목피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었다. 일제하 성남지역의 농민투쟁은 자료가 불명확하여 구체적으로 접근하기 어렵지만 소작료 인하투쟁, 지세불납동맹, 관공서 습격 등으로 전개되었을 것이다. 나아가 농민들은 일제타도, 치안유지법 철폐, 민족차별 철폐, 언론·집회·결사의 자유 획득 등 정치적 요구를 모색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1930년대 민족통일전선이 모색되는 과정에서 노동자·농민운동이 무장투쟁의 단계로 나아간 점을 고려하면 노동자 투쟁은 민족해방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1930년대에는 노동자 투쟁은 전례없이 앙양되어 폭력화하였고 비합법적인 적색노동조합과 사회주의 운동에 경사된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노동운동은 파업에 국한되지 않고 항일무장투쟁과 연계하여 민족해방운동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경기도 지역에서 전개된 사회주의계열의 항일비밀결사 운동이 1930년대 강세를 나타내면서 민족주의계열의 운동보다 우위를 점하게 된다. 실례로 1935년 경기도의 경우 사회주의계열의 운동단체 수는 6개이며 소속 인원이 2,139명으로 나타난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수치임을 감안하면 실제로 비밀리에 활약한 단체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930년대 성남지역의 대표적인 노동자 투쟁은 남한노동공조회 (南漢勞動共助會)의 혁명적 노동조합 사건이라 할 수 있다.

1930년 광주군 중부면에서 석계환(石啓煥)·정영배(鄭永培, 자전거 수선업)·김흥종(金興鍾, 점원)·구본흥(具本興, 농업 및 중개업)·구자홍(具滋弘, 목공)·구창서(具昶書, 안경 및 전기상)·이경재(李庚載, 점원) 등이 항일비밀결사 조직인 남한노동공조회를 조직하였다. 특히 산성리에 근거를 두고 이 지역의 노동자와 농민을 대상으로 사회주의를 선전하였다. 이들은 일제에 적발되어 추적을 받자 지하활동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조직을 전환하여 광주공동조합(廣州共同組合)으로 개편하였다. 1934년 12월, 석계환 등이 주도하여 광주공산당협의회로 조직을 재편하는 동시에 노동야학 등을 통해 행동강령을 실행하였고 나아가 영등포와 인천 등지의 노동자들과 연계하여 노동자 파업투쟁도 관여하였다. 1936년 1월 9일 석계환·정영신 등 13명이 일제 경찰에 피검되었고 최고 3년형의 언도를 받았다.

석계환 등 성남지역 노동운동가들은 일제의 감시를 피해 비합법적인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사회주의운동과 연계시켰다. 1930년대는 일제가 노동조합 결성을 위

한 집회를 전면 금지하여 합법적인 노동조직은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남지역의 노동운동은 사회주의운동과 밀착되면서 좌경적 방침을 교조적으로 고수하려는 경향도 나타냈다. 반면에 일부 노동운동자들은 아래로부터 통일전선에 입각하여 혁명적 노동조합을 건설함과 동시에 소부르주아 인텔리 및 학생층에서 탈피하여 생산현장의 노동자에 의한 조직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노력도 보여 준 것이어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일제하 성남지역에서 민족 해방을 쟁취하려는 의지력은 전체적인 독립운동의 양상과 조응하여 진행되었다. 성남지역에서 민족해방운동의 태동기와 고양기에 전개된 운동은 생존권 확보라는 절박한 식민지 상황에서 분산과 결집과정을 반복하면서 강인성과 격렬성을 지속시켰던 것이 특색이다. 특히 성남지역의 민족운동은 민족주의 우파에 의한 선실력양성 후독립론에서부터 적색노동조합의 사회주의 운동에까지 다양한 역량을 보여준다. 식민지 구조적 모순에 대항하여 민족 정통성을 고수하는 한편 생존권을 확보하려는 이 지역의 해방투쟁은 일제의 가혹한 착취와 탄압에서도 면면을 이어 온 것이어서 정신사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성남지역의 민족운동은 반침략과 반봉건운동으로 구국반일투쟁의 선상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여 백

광복 이후 성남의 역사

한 춘 섭

1. 현대사의 개관

조국의 광복 이후 한국 사회는 숨가쁜 사건들로 이어져 왔다. 해방과 분단, 1950년의 한국 전쟁, 4월 학생의거 그리고, 군인들에 의한 5월 쿠데타로 인한 정권 탈취 등 실로 다양한 대사건을 경험 하였다. 각 시대 마다 혼란과 함께 점진적 성장과 발전이 거듭되면서 자본주의 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새 기운이 밀려 온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혼란의 발자취 속에서 균형을 잃은 문제의식의 부정적 사건들도 적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밝고 어두웠던 역사 과정을 세세히 이야기하기란 그리 쉬운 일도 아니며 특히, 우리 성남의 역사를 정리하려는 작업에 그 전부를 포함한다는 일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한다.

36년 동안의 일제 식민 통치 어둠 속에서 햇빛을 얻은 한반도의 운명은 감격의 기쁨도 잠시일 뿐, 국토의 남북 분단이란 비극을 자의반 타의반의 무능력 때문에 안아 드려야 했다. 지난 날의 쓰라린 경험을 되새겨 보기도 전에 동족끼리의 총부리를 겨눠 온 우리의 지난 아픔은 실로 뼈저린 것이다. 크고 작은 사건 연속의 시대적 반성역사를 기록하며, 우리의 성남시에 있어서도 경기도 광주군 내 4개 면민(面民)의 전형적인 농촌 생활상이 도시 형성 이전의 기록으로 전해지는 곳이다. 분명, 서울 변두리의 한 농촌 마을들이 군데군데 모여서 이 나라의 역사 물줄기에 함께 따르며 지내던 곳이었다.

성남시가 탄생되고 계속하여 외형적인 변화가 거듭되어 온 우리 고장도 이른바 어설픈 지방자치라는 새 바람을 맞보고 산다. 정치·경제·문화 등의 여러 가지 현상 속에 성남만의 특유한 지역성도 없지 않다. 20세기를 마무리하는 현시점에서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깊이 생각하고 지역사회를 아끼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역사 바로 꾸며 나가는 일이야말로 내 고장 바로 알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과거의 삶이 어떠했으며, 현재의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를 되돌아 보는 가운데 지방자치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한 사업의 일환이어서 조심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 아닌 점도 인정한다.

이미 『성남시사』도 세 차례 편찬되었으며 기타 축소판 또는, 지역 안내의 소책

*풍생고 교사(시조시인, 성남향토문화연구소 소장)

자도 여기저기에서 몇 차례 정리된 적이 있다. 그러나 그 같은 일련의 작업은 시민들에게나 자라나는 전체 청소년 세대에게 깊이 파고 들지 못하여 왔다. 너무 방대한 대사전식 편술이거나 빈약한 몇 가지 유물, 유적의 소개 정도에 그쳐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았던 것이다. 미래를 밝게 여는 현실을 꾸며 가지 위하여 성남시의 지원사업으로 제작 되는 이 향토 역사 저술은 새로운 시민 문화생활의 참고서로서 활용되게 하기 위한 초점을 둔 채 각기 시대별 분야를 따로 맡아 꾸미려고 노력하였다.

한국 전반의 역사를 기본 토대로 하되, 성남만의 향토 역사 정리라는 주안점을 생각하면서 특히, 도시화 과정에서의 숨가쁜 변천을 낱낱이 파고 들긴 어렵다 하나, 이미 향토문화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무리없이 포함시킨다는 새로운 측면으로 시민 및 대학교향향토 교과서 수준으로 기술하려고 한 것이다.

2. 조국 광복 후의 나라 세우기

세계 제 2차 대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려들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현대 출발은 정말, 불안정의 역사다. 일제 만행을 저주하면서도 긴박한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순종하였던 대부분의 국민들 생활은 항상, 조국의 새 날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애국애족의 불사신으로 나라안과 나라밖에서 독립쟁취 발걸음으로 헤매던 수많은 민족지도자 조차 너무나 긴 세월이 캄캄한 밤과도 같아 몇몇 애국지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기(義氣)가 꺾일 즈음, 솔직히 말하여 애국투사들의 활동이 곧바로 조국 독립을 실현할 힘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국내 사정으로 인하여 한반도의 독립은 미·소 등 연합국의 힘으로 성취된 셈이었다. 그러나 막상, 억압된 조국의 해방이 찾아 왔건만, 얼마 동안은 선각자라 할까 민족의 지도자조차 나라 세우기에 갈팡질팡거린 감이 없지 않은 것이다. 1945년 7월에 개최된 포츠담 회의에서 제안하려던 한반도 38도 선상의 남북군사 분계선이 얼떨결에 그대로 확정되어졌다. 시간이 촉박하게 취해진 임시적 군사방편이 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반영속화 민족분단으로 지속되리라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할 역사의 혼미속 순간 처사였었다.

간절한 소망이 현실화되었던 민족의 8월 해방, 그도 잠시일 뿐, 한국 현대사는 극심한 혼란이 거듭되어지기 시작하였다. 정치권의 공백 즉, 무정부적인 혼란 속에 제 멋대로의 우익과 좌익 단체의 세력난투로 인하여 정치는 물론이요, 경제와 사회 전반적 혼란은 하루 앞을 예측하지 못할 만큼 불안정 시대로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조선총독부로부터 치안권을 인수 받은 정치지도자들은 건국준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그러나 출발부터 내부 분열이 생겨 민족지도자들의 뜻대로 국가 질서는 잡혀

나가지 못하였고, 미군의 점령 정책은 그것이 비록 임시적인 군정이라 하나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주의를 국민들 의도대로 정돈하지 못하였다. 하지(John R. Hodge)중장과 그의 제24군단 장병들은 한국 내정의 준비 부족으로 상당 기간 표류 항해선처럼 혼선만 드러내게 되었다.

시행 착오적인 2년 11개월 간의 미군정하에서 지방행정은 일회성 연습 정도의 과도기에 불과하였다. 아니, 과도기 중에도 일제시대의 지방 제도가 그대로 이어졌음이 사실이었다. 통제 능력도 달라진 게 없었고, 그 이름만 달리할 뿐, 관방 지방청을 기획과로 사무 이관을 할 정도에 그쳤었다. 여러차례의 제도 변경을 거쳤던 미군정 시대는 1948년 한국 정부의 수립 때 까지 혼선만 거듭하며, 성남시 이곳에도 예외가 아닌 채, 경기도 광주군 산하의 중부면·낙생면·대왕면·돌마면 4개 농촌지역은 타군과 다름없이 지방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해방된 후 그 해 10월 경에 이승만 박사와 김구 선생의 서울 집결은 한반도의 역사 위에 또 다른 긴장 연속으로 새 혼란상을 드러내었다. 남한 지역에서 분파된 우익.좌익.중도 3파 세력은 각기 자기 파에 유리한 정강책을 내세워 초당파적인 강령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갈등·혼란에 휩싸인 무정부 정국 속에 미군정하의 준비 부족에 이끌리지 않을 수 없었다. 신탁통치 반대의 여론도 하나로 뭉쳐지지 않은 채 과도정부 체제의 불안정 역사는 여수·순천 반란 사건과 암살·파업·탈취·학살 등의 사회적 혼란 사건만이 끊임 없이 나타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남한 단독으로 수립되는 1948년 8월 15을 맞는다.

미군정은 막을 내린 가운데 남북한 협상 테이블조차 어렵게 되어졌다. 결국, 분단의 상황 속에서 이승만 제1대 대통령은 헌법 공포와 내각 조직으로 힘겨운 정부 출범식을 갖게 되었다. 정부 수립 3개월 만에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어 한국의 지방제도는 달라질 것 같았다. 그 당시의 경기도 광주군 내 4개 면 지방 역사는 면의회 의원선거라는 자치법이 공포만 되었고 시행되지 못한 채 연기되어 면행정에 반영조차 드러내지 못하고 말았다.

지방행정에서 면사무소를 설치하여 면장(面長)을 말단 행정조직의 실권자로 면 제도를 설치한 기원은 일제시대의 총독부령 제8호(1910.11.10)로 거슬러 올라 간다. 이에 따라 성남 지역에서는 최초로 낙생면(樂生面)사무소가 판교리 191번지에 개소된 것이 1911년이다. 그 후 1914년에 전국의 모든 지방구역이 개편·축소되어졌다. 이에 따라 돌마면(突馬面)에 갈현·도촌·여수·야탑·이매·서현·분당·율·수내·정자·하대원 11개리 낙생면에 판교·백현·석운·대왕·금곡·삼평·운중·궁내·동원·구미·하산운 11개리, 대왕면(大旺面)에 신촌·오야·심곡·시흥·둔전·수서·사송·금토·상적·고등·세곡·율현·일원·자곡 14개리, 중부면(中部面)에 단대·수진·창곡·탄·복정·상대원 6개리 도합 40개 리가 오늘날 성남시 지역의

옛 지명이었다. 다만, 이중에 세곡·율현·수서·자곡·일원리는 서울로 편입되었으며, 인접 지역 용인군 일부 부락이 성남시로 이관되기에 이른 것이다.

성남의 과거는 분명히 농촌 지역이었다. 교통사정이 대단히 불편했던 고장으로 서울시와 지역 경계를 두었으면서도 개발 이전의 형편은 아주 좋지 않았다. 정부 수립 후 1960년대 초까지도 이러한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광주군(廣州郡) 관할의 4개면민은 오늘날의 성남시 원주민으로서 농업인구 위주의 한적한 동네였다. 이곳 저곳 눈에 들어 오는 들판과 앞뒤산에는 여느 시골 마을과 다를 바 없이 부지런한 농민들의 순박한 인정이 오갔던 고장일 뿐이었다. 물론, 역사를 거슬러 오르면 몇 가지 크고 작은 사건 현장으로서도 이야기될만한 문화유적지인 것도 사실이다. 중부면에 속해 있는 남한산성이야말로 숱한 일화를 간직한 민족 대서사시 근원지역을 위시하여 낙생면과 대왕면에 연접되어 있는 청계산 기슭에 서린 향토설화 및 옛 선비.충신들의 이름 높은 이야기 그리고, 돌마면 일원의 검단산·하대원 주위 산자락과 중부면 내의 영장산과 매지봉 둘레의 큰 뜻을 펴다간 고인(古人)들의 문중 묘소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정신사에 잠시만이라도 그 위대한 올곧은 정신 앞에 많은 깨우침을 안겨준다고 믿어 의심치 않음이다.

일제시대는 물론이요, 조선 또는, 고려·삼국시대 그 이전의 역사에서도 분명, 이 고장은 애국충정의 큰 인물이 살다간 의로운 이가 묻힌 곳이었다. 여러 문중선조(門中先祖)들에 의해 사패지라는 영예로움을 근원으로 남긴 자취가 묻혀있는 성남이야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가르침의 큰 어른들이 살다간 곳이며, 문명 산업화의 이 시대 앞에서도 전체 민족 앞에 자랑된 보람을 가꾸기에 흡족한 전원도시로서 각광을 받음에 의심할 여지가 없는 복지(福地)인 땅이다.

에워싸고 잇는 둘레의 산과 하늘이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침묵 속에서 사람을 기쁘게 할 천혜의 온갖 조건이 고루게 갖춰진 고장이라고 단언할 수가 있다. 과거에도 그랬고 또, 현재나 미래에도 서울과 남쪽 지방을 잇는 길목으로서 그 역사는 꾸며진 이야기가 아닌 곳이다. 남한산성 내에 사계절 풍속화를 말로만의 자랑이 아니듯이, 청계산 둘레의 여러 유형 정신문화 총본산지 그 구실을 한몫 톡톡히 해내고 있는 성남 여기, 그 웅장한 지하철 두 노선의 굉음은 분명, 미래의 우렁찬 힘으로 솟구쳐 나갈만한 고장이라 할 만하다.

3. 남북한의 6월 전쟁과 참상

예측할 수 없었던 반도땅의 조선독립은 조국의 분단이란 비극을 안겨 준 셈이다. 남한이 온통 혼미한 정국에 휩싸여 나갈 때에 북한은 어찌 됐을까. 그들은 김일성

이 주도하는 조선인민 사회주의적 체제로 급격하게 굳혀 나가기 시작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선포한 북한은 소련군의 힘을 배경으로 하여 강압적인 공산주의로 고착되어 나갔다. 반도 땅을 무력으로 공산화 통일을 획책하면서 그 최후 수단으로 한국에 대한 침략을 위해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한 것이다. 반면, 남쪽의 우리 한국 측은 애국적 지도자들의 분열 양상이 갈수록 노골화되었으며 특히, 국방력에 있어 9만 7천여 명의 국군만이 빈약한 장비를 가졌으므로 주한미군의 완전철수 후의 국가 방위력은 형편없는 지경이었다.

1950년 6월 25일의 북측 10개 사단 병력은 기동연습이란 명목 아래 새벽 4시를 기해 기습적인 남침을 감행하였다. 이른바 6.25전쟁의 포성이 3일만에 수도 서울시를 탈취하였고, 군 화력에 있어 월등히 우세한 북한군 앞에서 한강 방어선은 맥없이 무너졌다. 파죽지세가 된 국군의 후퇴에 따라 금강·낙동강 방어선 마저 점령당하였으며, 끝내 제주도를 제외한 전 한국의 국토가 북한군에 의해 파괴·살상으로 공산화 3개월의 고초를 겪게 된 것이다. 다행히 국제연합군(U.N)의 대규모 군사력 참여로 인하여 위기를 모면하였다. 뒤이어 맥아더 사령부의 미 지상군 출동으로 인천상륙을 전환기로 북한까지 역전세를 드러냈었다. 그러나 1951년 1월의 중공군 60만 명 대규모 병력이 북한군과 재반격전을 가해오므로써 그들은 서울의 평정을 또다시 전쟁의 불바다로 만든 것이다.

국제연합회의에서는 한반도 전 지역을 비상사태로 선포함과 동시에 북측과 중공군을 침략자로 규정하면서 소련과 같이 휴전협상에 나서게 된다. 개성에서 시작된 휴전회담은 꽤 여러 달을 두고 옥신각신 끝에 북측에선 「회담하면서 공격하고, 공격하면서 회담을 한다」는 전략을 지님으로 하여 협정 직전까지 양측 경계선 고지 탈환을 위해 쌍방간에 더욱 치열한 전투가 연일 계속되었던 것이다. 포성을 멈춘 전쟁은 일단 끝나게 되었다. 38도선 대신 개성·평강·금성을 북측에 두고, 장단·철원·화천·간성을 남측으로 하자는 폭 4킬로미터의 비무장지대가 설치됨으로써 반도 중간은 분단의 철조망이 쳐진 셈이다.

한국의 피해는 실로 엄청났었다. 가까스로 일어서려던 생산 시설은 대부분 파괴되었고, 국민들의 생활 터전은 전국 어느 곳이나 잿더미로 불타게 되었다. 남한의 전력시설 80%이상 파괴에 1952년 그 때의 흉년은 또 대단하였다. 성남시 이전의 이곳에 최초로 설립된 판교초등학교(1922)와 성남, 대왕, 돌마초등학교 등의 시설도 전쟁으로 인하여 파괴되었다. 낙생우편국과 판교, 대왕, 낙생지서 등의 공공시설에도 적지 않은 전쟁 피해를 당했었다.

50년의 6월 한국전쟁에 따른 휴전협정 결과로 어수선한 세상은 좀처럼 안정되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도 이승만 대통령은 지방자치법을 발표하여 1952년 4월에 읍면의회선거를 직접선거제로 하여 실시하였다. 그들에 의해 각 지역의 면장은 간접선

거로 뽑혀졌다. 우리 고장에서는 4개면에 10여 명씩 면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이들에 의해 돌마면장 이용규, 대왕면장 김순영, 낙생면장 임제빈, 중부면장에 박천복 등이 간접 선출되어졌다. 이 같은 지방의회와 면장 직간접 선출이 실시되던 때도 휴전협정은 되지 않음으로 하여 남북한 접전지대의 전투는 치열한 시기였다.

휴전이 되기까지의 전쟁 중에 피해는 대단히 컸다. 전국 통계에 의하면 인명피해 200만 명과 1천만 명의 이산가족이 발생되었다. 동족간 전쟁으로 인한 엄청난 살상과 파괴를 치룬 그 댓가는 실로 기막힌 것이 아닐 수 없었다. 역사적인 사건 후의 한국내 우·좌익 대립은 더욱 첨예화되었고, 아울러 이데올로기의 경직된 적대감은 그 후 무수한 양국간 적대행위로 간접침투와 살상 및 테러사건이 이어진 역사라고 하겠다.

성남 지역이었던 4개면에서도 학살.시설 파괴가 다른 고장과 다를 리 없었으며, 학교의 파괴로 인하여 교실 없는 맨바닥 나무 밑에서의 야외수업 내지, 책.걸상 없는 흙바닥 수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고장 사람들의 생활고 또한 대부분 극한상황에까지 이르러 기근과 배고픔을 견디기 위하여 초근목피로 어려운 시대를 겨우 이겨냈다.

폐허화된 각 부문에 대한 복구사업을 어렵게 진행하는 가운데 정부와 기업체 사이의 정책은 예사롭지 못하였으며, 해방 후의 정부 귀속재산 처리 문제로 인하여 특정인 내지 특정 기업과의 부정적인 불하과정이 정당치 못한 관계로 빈부격차는 날로 커져만 갔다. 아울러, 농촌에 대한 소외된 정책 부재에 기인하여 경제 부흥상의 모순점은 적지 않은 사회문제로 나타났다. 다름아닌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밀려드는 이농현상이 1950년 후반기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 같은 시대에 지방자치 또한, 뒤숭숭한 제도로 변화됐다. 집권층이 유리하도록 지방자치법을 부분적으로 개정하여 1956년 8월에 각 지방 면의회 및 면장 선거를 종전과 달리 시행한 것이다. 성남 지역 4개면장으로 돌마면장 이호규, 낙생면 이하림, 대왕면장 이학종, 중부면 강웅식이 각각 직접선거로 당선되었다. 그 후 1960년 12월에 실시했던 선거에서 돌마면장 홍순석, 중부면장 김종구가 새로 뽑혔고 낙생·대왕면장은 재선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재임 기간은 1960년 5.16군사 쿠데타에 의해 반년 만에 단명한 임기로 끝나고, 군사 독재정권 체제에 따라 면장까지 군 출신으로 임명되기에 이른다. 돌마면장 이종설, 대왕면장 이종익, 낙생면장 이용희, 중부면장 석익균이 각각 발령되었다.

성남지역의 중등교육기관 설립은 1954년에 양영중고교와 53년의 효성중고교(사립)가 최초였다. 그 후 얼마 동안 가난한 농촌으로서는 교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원거리 통학에 의존하는 4개면 전체의 숙원사업이라 하더라도 교통과 산업이 낙후된 궁벽한 농촌이어서 각 면마다 초등학교 한두 개교는 적은 인원의 학생 수를

수용하여 나갔지만, 규모가 큰 초등학교나 중등학교의 운영은 꿈같은 현실이 되어 있었다.

4. 제1.2공화국 정권의 시련과 한계

모든 분야가 시련과 혼란으로 이어지던 이승만 대통령의 집권기 중에 국회의원 선거 또한, 여야 갈등이 노골화되었다. 결국, 정부와 국회마저 갈등이 심화되었다. 장기집권의 비난을 면치 못하는 개헌안 국회통과야말로 항상 시국을 혼란으로 빠지게 하였다.

자유민주주의의 뿌리가 깊지 못한 상황 중에 자유당 권력강화의 음모와 술수책은 끝내 1960년의 3.15부정선거로 그 시대를 막 내리기에 이른다. 50년 동족상잔을 핑계로 반공을 앞세웠던 집권 세력들의 통치 술책은 그 명분이 오래 가지 못하였다.

남북한 실향민들의 허무주의와 무직자 그리고 부랑자·고아로 채워졌던 사회 전체의 부정적 국민의식은 통치자의 부정선거와 함께 모순과 갈등만이 누적되었다. 이에 격분한 4.19의 발발과 5.16의 군사 쿠데타야말로 국민 총화력을 잠시나마 모을 수 있는 여건으로 한국 현대의 정치사에서 민주주의 이정표를 세웠다고 할 수 있다. 허 정 과도정부와 윤보선의 허약성을 묵과할 수 없이 무장된 군사세력의 출현은 적지 않은 갈등 속에서도 좋은 구실은 던져준 셈이었다.

해방 후에 개소된 성남출장소 관할의 공공기관은 몇 군데 안되었다. 낙생면과 돌마면, 대왕면에는 6년제 국민학교, 우편국, 경찰지서가 있었으나 성남출장소 관내의 중부면에는 수진간이학교(현 성남초등학교 전신)만 존재했다. 중등교육기관 조차 양영고등공민학교(현 양영중학교 전신)가 돌마면에 개교되었을 뿐이었으며 53년 이후에 비로서 효성중고교가 대왕면에 세워질 정도였다. 그러므로 50년대의 성남시 전역의 광주군내 각 면 직원들은 힘겹게 땀흘리며 살아가는 시골 농민들 속에서 더불어 살아 왔다고 보여 진다.

나라의 정치가 불안하고 시끄러운 속에서도 채소 재배와 과일 생산으로 인접한 서울 송파와 천호동 또는 서울 동대문시장을 오가며 다른 농촌지역 보다 잘살아 보고자 하는 대부분의 농민들이었다. 그런 속에 한학에 조예가 깊은 각 부락의 연로층 몇몇 어른들 사이에는 교육열의가 높아 지역 내에 초등학교는 물론이요, 중고등학교를 한두 군데에 더 세워보려는 노력도 있었다. 그리고 그 식자층 노인들끼리 결속력있는 친목단체를 만들어 시국을 토론하고 한문시를 지었던 곳이 낙생면과 돌마면, 대왕면과 인근 서울과 용인까지 연계되었던 판교기로회 동인의 움직임이기도 하였다.

5. 제3군사정권의 등장과 장기집권 욕구

1961년 5월 16일에 군사쿠데타 세력에 의해 제2공화국의 헌법은 정지되었다. 쿠데타 발발 3일 뒤에는 국가재건최고회의를 발족시켰으며, 6월 6일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발동시킨 박정희 장군은 구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정지시켰다. 이듬 해엔 국민투표에 의해 대통령책임제의 헌법개정이 마련되었고, 이를 토대로 그의 군사세력은 각계 각 부문의 파동과 항거에 직면할 때마다 합리적인 해결보다 강압적인 권위주의로 치닫는 정권을 지속했었다.

1960년 초의 한국경제는 빈곤이 해결되지 못하다가 역사상 처음으로 경제개발이란 중장기 계획이 마련되었던 때다. 박정희 대통령은 대부분의 국가경제 소요재원을 미국 의존의 무상원조로 이끌던 틀을 벗어나려 했다. 그러므로 1962~72년의 10년 사이에 1인당 국민총생산액이 87달러에서 306달러로 크게 성장된 것을 가지고도 엄청난 국가경제의 성장을 알 만하다. 그러므로 군사지도자였던 박대통령의 의지는 여러 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의 군사혁명공약은 강력한 힘으로 자유를 상당 부분 억압하려는 의지가 담긴 육성이라 하겠다. 혁명위원회가 국가재건최고위원회로 개칭되어졌을 뿐, 박정희 군사정부의 등장이 상당 기간 한국의 정통성을 잠식한 가운데 명실공히 3권을 장악한 군 세력으로 중심구조를 이뤄 나갔었다.

최고회의에서 제창한 구질서의 타파, 사회정의 구현, 경제성장 추구 등의 국가시책을 발표할 당시만 하더라도 머지않아 군사정부를 민간정부에 이양할 것이라는 설도 발표되긴 하였다. 허나, 그의 발표는 순조로운 정권 이양으로 이어지지 않은 채, 1963년 10월의 총선거에서 박정희는 제3공화국의 정식대통령으로 취임을 한다. 결국, 군사혁명의 주체세력들이 대부분 군복을 벗고 민간인 자격으로 권좌에 앉게 됨으로 하여 불행의 씨앗을 뿌린 그들은 후대인에게 지탄을 받기에 이르고 있다.

광주군 관할로 성남시 지역이었던 4개면 내에는 일제시대에 설립된 판교, 대왕, 돌마공립보통학교가 고작이었다. 해방 후에 이 세 학교는 공립국민학교로 명칭이 달라졌으며, 정부수립 후에 다시 국민학교로 변경되었다. 그 후에 성남국민학교(전 수진리 간이학교)설립에 이어 효성, 양영중학교 개교와 분당, 왕남, 신기국민학교가 문을 열었다. 그러므로 교육 여건은 좋지않아 지역주민들의 자녀교육문제는 가장 힘겨운 가운데 원거리 도보통학이거나 자전거 이용이 고작이던 시대였다.

50년 대의 교통사정도 엉망이었다. 낙생, 대왕면으로 왕래하는 버스나 수진리 경유의 분당·오포행 버스도 하루에 고작 두서너 차례일 뿐이었다. 서울 천호동이나 송파 지역과는 그리 멀지않은 인접된 지역이면서도 생활의 불리한 조건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었다. 이 같은 지역을 개발하고자 나선 이가 바로 모란 개척단 설립의 김창숙 예비역 대령이다. 그는 북한에서 월남한 사람으로 군생활을 청산하고 1961

년경 지금의 중원구 성남동 일원의 모란 땅에 첫 삽을 들었다.

지역 청년 40여 명과 합세하여 자갈 모래의 허허벌판인 땅을 개간하기 위하여 땀 흘린 사람이다. 아직은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농촌에 외지의 낯선 사람이 개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의 땀나는 이야기는 최소한 모란 지역에서만이라도 기억될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의 수정구와 중원구 산골 농촌에서 인구 고작 2만 5천여 명 뿐인 지역에 중학교와 고등학교라곤 전무하였다. 그러므로 김창숙 개척단장은 중학교 과정의 『모란학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원대한 계획 속에 최우선적으로 학교 건축을 서둘렀다.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중도 포기한 상태에서 몇 년의 정지 상태였다가 뒤이어 다른 사업가에게 넘겨져 1966년에 풍생중학교라는 교명으로 개교를 본 것이 개척 시절의 흔적이다.

광주군 내 4개면 중에 낙생면과 대왕면이 개화가 앞선 곳이면서도 낙생면사무소 단독 건물조차 개인 소유의 주택을 공공장소로 사용할 정도였으니 여타 지역 사정은 두말할 여지가 없는 실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돌마면도 면청사가 한국전쟁 당시 불탄 곳을 사용하다가 59년에 이르러서야 신건물을 마무리한 상태였다. 중부면 내의 성남출장소 또한 마찬가지여서 초라한 주택을 약간 개조한 건물이었다. 주민들의 불편한 생활에는 아랑곳 없이 군사정권은 강압책으로 시종일관하였다. 1960년 경의 이곳 사정은 여느 농촌이나 같았다. 상하수도·농경지 정리·전기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면장이란 지역단체장 임명마저 군 출신의 대거 기용이 되곤 하였다. 돌마면장 이종설을 위시하여 대왕면 이종익, 낙생면 이용희, 중부면 석익균 면장이 각각 발령되었다. 그러므로 제3공화국의 60년 초기 중에 광주군 내의 4개면에는 행정상 변동이 없었다.

일명, 군사독재 정권 시대로 불려지기도 하는 박정희 시대는 불의와 강권이 일상화되었던 시대면서도 경제 건설 제일의 국가목표를 지속성있게 추진함으로써 남다른 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1962~1966)중의 연평균 8.3%라는 괄목할만한 성장률을 기록한 그 시대의 성과는 인정해야 할 것 같다. 다만, 그의 3선 개헌의 강행과 한일간 정상회담 등으로 인한 대학생 데모는 늘 세상을 어수선하게 만들었다.

이 같은 위기 속에서 성남출장소를 비롯한 낙생.대왕.돌마면의 지역 사정은 조금씩 형세가 바뀌지기 시작하였다. 주민의 증가와 더불어 모란개척단의 노력에 기인한 중부면 탄리(현 성남동)일원의 벌판에는 모란시장 개설, 시외버스 정류장, 음식점·이발소·여인숙·사설 모란우체국·철물점·교회 등의 동네가 새로 만들어졌다. 순전히 김창숙 모란개척단장을 위시한 지역 청년 단원들의 계획적인 활동에 의해 정돈된 그들의 주택단지도 꾸며졌고, 하기 힘든 하천 뚝 공사도 마무리되어 명실상부한 소도시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게 된 때였다.

1964년 광주군 직할 성남출장소로 승격되리만큼 지역세는 팽창되었다. 인구뿐만 아니라, 교통·통신시설이 들어오고 모란지서가 설치되는 등 사회적인 격변 추세로 인하여 송파장과 분당장 대신 모란 지역으로 상권이 바뀌지기에 이르렀다. 이에 발맞추어 남한산성 남문 쪽의 산간지대였던 상대원·하대원·단대리 등의 농민들조차 새 동네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 갔다. 비록, 미약하긴 하지만 땅투기 조짐도 일기 시작하면서 경제개발 5개년 2차 계획이 관주도형으로 추진되는 기회를 맞게 된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조국 근대화의 외침으로 남북한 대치국면을 내건 채, 통치이념을 경제적 안정과 질서·의식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다른 농촌지역은 정체되었던 때에 모란 개척의 변화로 인하여 빈농의 굴레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였다. 정치가 어수선하나 경제 사정은 고도 성장률을 보이는 속에 군사 정권답게 서기 연호 사용, 국민교육헌장 선포, 미터법 실시로 인한 한국민의 의식엔 새 바람이 일어나던 시대에 걸맞게 광주군내의 중부면, 낙생면, 대왕면, 돌마면 일대는 옛날의 긴 잠속에서 깨어나기 시작하였다고 보겠다.

제3공화국은 정정법(政淨法)을 비롯해서 5.16의 혁명공약을 행동강령으로 출범한 듯 보인다. 월남정부에 군사파병이라든가 한·일 국교정상화의 한 전기를 마련하면서 어수선한 1960년대의 줄기찬 근대화(近代化)는 새마을 운동, 경제개발 5개년계획 등을 계속 추진하였다. 60년대에 국민 1인당 소득이 81달러에서 69년도엔 무려 203달러로 늘어났다. 그야말로 고속성장 사회속에 시민들은 잘 살아 보려고 땀흘린 시대였다.

이같은 고도성장의 경제발전은 우리나라 근대사(近代史)에서 처음 있었던 일이다. 한국민 전체에게 있어 빈곤은 해결되야 할 과제로 손꼽히던 시기에 조용하기만 하던 서울 인근지역의 이곳 광주군 중부면 일대는 정책 당국자의 신도시 개발 후보지로 거명되어졌다. 60년대 산업화에 의한 농촌인구의 도시집중화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무허가 판자촌 이농민(離農民)의 집단이주 정책은 수도 서울시가 안고있는 큰 문제였다. 당시, 서울특별시에 부임한 김현옥(金玄玉)시장은 무허가 판자촌 처리방안을 강구하던 중에 350만평 대규모 신도시 건설계획이 가시화되어졌고, 50만명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곳을 은밀히 찾던 끝에 바로, 광주군 중부면 주택단지 조성계획 인가를 얻어 내기에 이른다(68년 5월 7일).

1968년 개발이전의 광주군 중부면 일대 6개리(里)에서는 이미 김창숙 예비역 대령 주도에 의한 <모란>이란 새마을이 조성된 선례가 있던 터에 바로 인근 지역 일대에 개발사업 추진은 더 할 나위없는 유리한 조건이었다. 그 당시 이 지역의 농촌은 전형적인 산골 마을이었다. 아무리 서울특별시가 주택단지 사업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지역 원주민들에겐 실감 느끼기 힘든 일이었다.

서울과 26킬로미터의 교통 거리 지역이던 시골에 용수(用水)문제와 토지매입비가 값싼 이점을 안고 있던 남한산성 아래쪽 산과 들판에 신도시 건설의 사업계획은 꿈만 같은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드디어 남한산성 아래의 탄천(炭川)벌과 청계산 사이의 산골 마을엔 어느 날, 먼 옛날 역사가 그 모습을 잃어 가게 되었다. 불도져 수십대가 원주민의 논밭과 야산비탈을 깎아 내리며, 도시건설 제2단계의 중부면 성남지구 일단의 정지작업 이 시작되었다(1969년 3월 4일). 산. 계곡의 원형을 크게 벗겨내지 않은 채 택지분양에 뒤미쳐 서울시 무허가 입주민은 입주가 시작되고(69년 5월 2일), 지금의 제일시장에 이삿짐은 내려지면 임시 천막으로 첫 입주자가 옮겨진 것이다. 48세대 154명을 필두로 그 해 1년 동안 2,313세대 11,133명이 광주대단지 주민이 된 셈이다.

중부면 성남출장소 관할이던 광주대단지의 인구는 급증하였다. 1968년도의 관할 인구는 6,008명이었으나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무허가 판자촌 시민이 이주해 온 69년 말엔 이미 3만 5천을 넘어섰다. 뒤이어 철거민 외의 일반 전입자까지 가세하여 그 당시의 인구는 급증한 사태로 광주군 중부면 일대의 땅값이 무작정 치솟으며 광주대단지에는 활기찬 삶의 시민들이 북적대기 시작하였다. 부동산업자들의 부추김으로 철거민의 전매증이 밀매되어 종합시장, 제일시장, 국제시장 일대의 대규모 공사는 더욱 활기를 띄었다.

이러한 활기 속에 소위 <8.10사태>로 까지 비약한 전매행위가 극에 달하였다. 서울특별시의 선입주(先入住) 후건설(後建設)의 광주대단지 개발사업은 처음부터 시한폭탄을 안고 출발하였다. 허허벌판과 산, 계곡 비탈에 가수용 천막촌을 두고 대규모 판자촌 서울시민을 입주시켰던 그 자체가 무모한 계획이 아닐 수 없는 일이었다.

1971년 봄부터 그동안 보류상태의 토지매각은 시작하였다. 비싼 땅값은 아니라 하더라도 철거민들에겐 일시불 분양가 납부가 가당치 않았다. 뒤이어 내보내진 가옥취득세 납부고지서 또한, 기름에 불을 당긴 결과를 낳고 말았다. 철거민들은 주축으로 투쟁위원회가 결성되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한 주민궐기대회가 벌어졌다. 인하병원 뒤 산등성이에 모여든 3만여 명의 영세 전입자들은 5시간 동안 성난 군중으로 무법천지를 만들었고 그 결과, 중앙부처 및 서울시와 경기도 관계 당국자간의 사후대책 수습이 수립되어졌다.

광주대단지의 8.10 사태와 거의 같은 시기에 또 하나 개발사업과 연관된 일명 김창숙(金昌淑) 모란단지 사기 사건을 들 수 있다. 1970년 가을부터 시작하여 사건의 막을 내린 것이 1971년 8월 2일로서 엄청난 부동산 사기사건은 광주대단지의 규모보다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다. 4200만 평(12배)을 개발하여 250만 명을 수용하겠다는 허무맹랑한 이 사건은 주모자 김창숙에 의한 모란개척단 5개년 계획에 의한

사업으로 모란 현지에서 거창한 기공식에 뒤이어 개척단 고문진에 현직 국회의원, 교수, 예비역 장성, 사업가 등으로 어마어마한 구상을 펼쳐 보려했던 사건이었다.

대대적인 홍보와 조직망으로 인하여 토지개발과 동시에 20평짜리 택지분양증 38,000 ~ 110,000원은 날개 돋힌 듯이 팔려 나갔다. 이 허무맹랑한 개발계획이 8개월 동안 지속되면서 6,600여 세대의 입주민들은 꼼짝없이 사기사건의 피해자로 남아 사건수습에 겨우, 산성동 전입 혜택을 받으며 막을 내리고 만다.

1970년대 부터 정부주도에 의해 시작된 새마을운동의 근원은 61년도 농촌재건국민운동으로 부터이다. 경제개발 계획과 병행하였던 근대화의 국민운동이라 할 수 있는 새마을 운동은 농촌 근대화를 위한 농민 정신혁명, 수자원 개발, 농업기계화 사업, 국토보존 계획,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요약되는 이 운동은 그 후에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으나 자조·자립·협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농촌과 도시·직장·학교에 까지 고르게 파급되어 국민들을 일체감으로 뭉치는 데 좋은 본보기가 되어 왔다. 새마을 운동은 한 마디로 잘 살기 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성남시와는 깊은 관련을 지니게 되었다. 성남시 민간단체 새마을협의회를 1975년에 발족한 후 줄곧 운영이 강화되어 나갔다.

6. 제4공화국에 의한 유신헌법과 성남시 탄생

국내 경제사정이 순조로왔던 60년대에 비해 1970년대는 각 부문에서 전환기를 거쳤다. 계속되는 물가상승과 국제간 외채기업들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전체 국민경제는 진통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전태일 분신자살 사건, 사법부 파동, 의료계 파동이 잇달아 일어나면서 정부의 간섭은 날이 갈 수록 강도있게 심해졌다. 더구나 1972년 10월 유신(維新)조치로 인한 각종 억압은 국민 스스로에 의한 발걸음이 아닌 성 싶었다. 침체된 농촌을 잘살게 하려는 관주도 형태의 새마을 운동에도 한계가 생겼다.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비상조치 발동 이후에 우방국 미국과 중국·소련 사이의 공동성명 발표와 일·중 국교수립 외교변화에 영향을 간접적으로나마 받은 그의 장기집권 기도와 시월유신 체제에 의한 인권탄압이 노골화되어 노동계와 언론·지식인 사회에서 외면시 되다가 집권 내부세력에 의한 박정희 대통령 자신이 피살되는 10.26 사태를 맞게 되었다.

너무 엄청난 비운을 자초한 군부세력들의 갈등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은 국가경제와 과학기술을 꾸준히 발전시켜 이 시대에 맞는 민주주의 꽃피우기에 필사적이었다. 시련을 극복하면서 밝고 희망찬 내일의 건설을 위해 언제나 한국민의 고난 극복 과정은 바로, 경기도의 광주군 중부면 일대에서도 역력

히 드러났다고 할 만하다.

성남시제(城南市制)가 발효된 1973년 7월 1일, 마침내 법률제 2597호(73.3.12)에 의거하여 광주군 중부면 성남출장소 관할지역은 일약 성남시(城南市)로 탈바꿈하였다. 검단산과 영장산 기슭에 불도져 힘으로 산과 냇가가 주택지로 바뀐지 불과 4년 5개월만에 이곳은 광주군 소속에서 단독 성남시로 도시화한 셈이다. 전국 36개시 가운데 11위의 인구를 포용한 도시로 탄생하였다. 국가정권이나 지역여건이나 갈등과 대립의 혼란의 시련은 멈추지 않았으나 계속하여 전입되어 온 시민들로 인하여 성남시는 해가 바뀜에 따라 양적팽창의 도시로 커나갔다. 광주대단지에서 중부면 주택지 조성의 도시 건설사업이 급기야 한 도시를 탄생케 한 것이다.

박정희 정부의 유신체제는 출발부터가 모순이었다. 정국이 극도로 악화일로를 거듭하기 가지 강경한 긴급조치 6년여 세월의 강압적인 시대상황은 성남시조차 예외일 수 없었다. 김대중 납치사건, YH사건, 김영삼 신민당총재 직무집행정지 사건, 부마사건 등의 발생은 암담한 시대를 자초한 셈이었다. 이같은 난국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 초유의 기형적인 인공도시 모습을 지녀온 성남시는 이재덕(李載德) 초대 시장을 맞아 독립된 시로서의 체재아래 중산층의 타시도 이주민과 함께 도시체제가 더 한층 새롭게 발전되기 시작해 왔다.

통칭 서광주(西廣州)라 불려지던 128.5㎢ 지역안에 41개동(행정동 18동)에는 당시 인구 총 35,176 가구에 165,557 명으로 집계되어 있었다. 인구 중에 82%가 전국 각 지역에서 전입된 시민들로 구성되어졌다. 이로부터 성남출장소 관내의 중부면과 새로 편입시킨 돌마면, 낙생면, 대왕면 4개면이 성남시 지역으로 관할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후의 성남시 변화는 실로, 다른 지역에서 찾기 어려운 사건 연속의 불명예스러운 도시로 한동안 오명을 씻기 어려웠다. 도시기반 자체가 엉성했던 가운데 터다진 인위적 도시의 힘겨움은 그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웠으며, 달동네 골목과 하천변 도로의 낙후한 도시빈민들의 사회구조에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삶 자체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오는 피하지 못할 문제점이 어느 날도 거르지 않고 사건사고의 다발지역으로 소문이 나게 마련이었던 도시발전 초창기가 깔려 있다.

첫 시장(市長)의 1년 4개월 재임 중의 시정방침(市政方針)은 『푸른 성남 창조하자』로 되어있다. 성남시 초기의 저소득층을 위한 취로사업전개와 주택건립, 산업시설 유치 및 새마을운동 추진 그리고, 충혼탑 건립, 시민헌장 제정 등을 꼽을 만하다. 아울러 시체육회 발족, 교육청 지원, 보건소, 한전 지점, 상수도관리사업소, 농촌지도소 공공기관도 문을 열어 명실공히 도시로서의 체제가 꾸며졌다.

성남시제 이전의 발전 양상으로 성남1-2공단 조성, 남한산성 도립 공원화, 국제. 제일 종합 시장 개설, 전화국 개국, 상공회의소 설립, 신구전문대학 개교, 성남 시민의 노래 제정 등의 연혁을 살필 수 잇다.

1970년대 중에 역대 성남 시장으로 2대 이남두(李南斗)시장, 3대에 홍석표(洪晳杓)시장, 4대는 박봉휘(朴峰輝)시장이었다. 짧게는 1년에서 길게 2년 8개월의 재임기간 중에 『성남을 빛내자 - 2대』, 『문화 복지,도시 건설- 3대』, 『30만의 총화 약진하는 성남 - 4대』 등의 시정방침을 밝혔다. 끊임없이 계속된 서민생활 안정, 도시 기반 정비, 도로, 하천의 확장 보수 등으로 시민 생활 안정과 새마을운동의 전개, 하대원지구 토지 정비 사업에 역점을 둔 도시화에 힘썼던 시대임을 피부로 느껴 보게 된다. 특히, 제2세 교육 부문에 있어 초·중등학교 50개교가 개교하였고, 환경보존 및 지역 문화·예술·체육에 있어 단체가 결성되었으며, 성남 공설운동장 착공(75년). 대곡교 착공(76년). 대봉로 복개. 시립도서관 건립이 시작되었고, 고향 심기 운동(본적지 옮기기)의 이색적인 캠페인이 전체 시민들에게 홍보 되어 적지 않은 성과를 나타내었다. 시 공무원도 588명에서 80년에는 988명으로 증원되기에 이르렀다.

7. 제5공화국 이후, 스포츠 축제와 성남시 발전 모습

제 8대 국회의원 오세응(吳世應), 차지철(車智澈) 당선은 성남시제 그 해에 성남 정치인으로 손꼽힌다. 뒤이어 정동성(鄭東星), 이대엽(李大燁) 국회의원으로 교체되면서 지역 대변의 일꾼으로 힘찬 걸음을 내딛은 인물들이다.해가 바뀔 수록 지역을 대표하는 통일주체국민회의 정치인도 제 모습을 드러내었던 가운데 성남시의 발전은 각계 각 분야에서 나타났다. 대유공업전문대학, 경원전문대학 둥이 개교 되었으며, 제5공화국의 12대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하며 성남시를 비롯한 전국이 온통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였다.

어느날 하루가 조용한 날이 없을 정도로 부정과 비리를 규탄하는 민중 항거는 전국 어디서나 연일 지속되었던 때다. 노동자가 그랬으며 대학생들이 그러했다. 재야인사들의 발걸음도 만만치 않아 심각한 사회 혼란은 거세게 몰아칠 뿐이었다. 기업운영의 합리화, 노동조건의 개선, 저임금의 개선 등을 내건 저항운동은 강경한 군부 세력의 최루탄 가스와 칼 끝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아 보였다.

온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대변하는 민주 수호 투쟁의 교수, 지식인, 학생들의 저항적인 함성은 6.29 민주화 선언까지 발표케 했다. 제6공화국의 노태우 대통령 정권이 수립된 후에도 간헐적이긴 하나 지식인, 대학생들의 외침은 강도가 높았다. 이러한 혼란 속에 86아시안 게임이라든가 88서울 올림픽의 스포츠 대축제는 온 국민들의 사랑으로 성공적이었다. 아울러 동구권 국가들인 헝가리.폴란드와 소련, 중국 공산국가와도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등 이른바, 북방외교가 의외로 성사되던 80

년대에 있어 성남시의 발전 역사 또한, 만만치 않았다.

국민들의 의식이 민주화 태풍에 몰아치는 비구름을 몰고 변하는 시대 또한 그 열기에 고조된 듯 싶다. 물론,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가치관이 산업화 시대의 도래에 힘입어 심한 가치관 퇴락이거나 혼돈 현상이 없지 않다. 개인 중심의 이기주의가 나타나고, 일부 시민이긴 하나 인간으로서의 기본 질서가 청소년 계층에서까지 흔들리는 풍조가 심각할 지경이었다. 허영과 사치, 자유 방종의 배금주의 사상이 그 위세를 날려 정의 사회 구현이란 구호를 내걸어도 이를 믿고 따르려는 이가 많지 않고, 복지사회 건설의 국가 통치 이념은 한낱, 구호로 메아리칠 뿐이 되기에 이르렀다. 권위주의가 사라지고 인권 존중의 믿음성을 불신하리 만큼 사회 지도층의 부정적 인식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뭔가, 가진 사람들의 잘못된 관행이 온 국민 앞에 드러나면서 참다운 인간의 떳떳한 모습은 아예, 허상으로만 비춰지기 일쑤였다.

교육에 있어 입시위주의 교육력을 말로만 그르다 할 뿐, 어느 누가 이 일에 나서 참신한 혁신을 앞서 하려는 권력층은 늘 미약할 따름으로 잡다한 대학입시 제도의 변경이 정부에 대한 불신감만 안겨준 셈이 되었다. 부분적이긴 하나 교육 개혁.정치개혁이 단행되었으나 조석변개로 혼란만 자초하였으며,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한 국정 방침의 변화 물결에도 세파는 여전히 거칠 따름이었다.

이 시대에 있어 우리만이 안주할 수 없는 때였다. 탈냉전과 개방화 내지 정보화의 국제적 상황하에서 한국만이 후진국들의 군부 독재 정권 연장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와 더불어 우리의 성남시 도시 발전 계획도 장단기 추진 내용을 챙기는 시대여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끝없이 계속되어져 왔다. 80년대의 10여년 사이에 성남시장직을 거친 이는 제5대~제11대까지 무려 7명이나 된다. 길게는 2년여에서 짧게는 8개월의 재임 중에 각기 힘쓰지않은 이가 어디 있겠는가 마는 그야말로 『성남을 자랑하자-5대 이봉학』, 『새 시대 꽃피는 새 성남 건설-6대 전영호』, 『푸른 도시 복지 성남-7대 박제혁』, 『화합·안정·약진-8대 임경호』, 『밝은 새 성남 건설-9대 김각현』, 『내 고향 새 성남-10대 이해재』, 『시민의 만족.행복-11대 김병량』의 여러 가지 시정의 외침들이 이 시대를 더 앞당기려 한 표본들이 되었다. 성남문화원 개원과 각 부문의 예술인 모임이 활기차게 움직였다.

시민 화합과 도시 기반 조성, 정의 사회와 복지시설 기공식 등에 무수한 사업을 이끌어 온 성남시 전체 공직자의 피땀이 다른 지역 공무원에 비할 바 아니었다. 국민주택 건립, 근로자 임대 아파트 건립 등의 위민 봉사 행정력은 쉴 사이 없이 지속되었고, 12대 전두환 대통령 연두 순시로 인하여 아시안 게임 준비에 앞선 공설운동장과 서울비행장.상무체육관 주변 환경 조성 작업이 두드러졌다.

뒤이은 88서울 올림픽 개최로 인하여 2개소의 주경기장 건설 마무리와 시민 위안, 지역경제 체제 구축, 문화, 체육의 진흥, 공부방 설치, 복지 회관 건립 그리고

<성남시지>발간, 경원 대학교 개교, 성남 시청 준공, 새마을 중앙 연수원이 성남시로 이전, 성남.인하 병원 개원, 임춘애 육상선수 메달 획득, 예총성남지부 인준, 성남향토유적 1호 지정(강정일당 묘역), YMCA.YWCA조직, 수정, 중원 구청으로 승격, 성남 공설운동장 하키 금메달 획득으로 성남시 역사적 연대표 사항을 간추려 보게 된다.

제13대 대통령에 노태우 정권이 출범한 이후 민주화의 열기는 사회 각 분야로 확산되어 나갔다. 통일과 번영의 국정 지표를 내세운 가운데 지방자치의 출범을 위한 기초적인 일들이 준비되어지면서 특히, 국민의 열망이던 UN가입이 남북한 동시에 이루어 졌다. 80년대 말에 있어 성남시 현대사(現代史)에서 분당 신도시 건설계획 발표는 돋보이는 복지도시화의 외침이라고 할 일이다.

1989년 4월 27일, 정부는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와 인구 분산을 위해 분당동 일대 약 550만평에 달하는 지역을 신도시 주택건설 지역으로 발표하였다. 그 해 9월부터 두 차례에 걸친 지표 조사를 마친 후 곧바로 분묘 재장, 수목 이식, 보상 개시와 택지 개발로 들어가 수차에 걸친 지정 변경 과정을 거쳐 아파트 분양이 시작된 후('89.11.26 - 4,031세대) 공공시설과 교육 시설, 근린공원, 백화점 등의 방대한 생활 터전이 수년 안에 이루어진 셈이다. 전원도시로서 116기 지석묘, 8기 적석총이 발견되어 청동기시대에 사람이 살았음을 알 수 있다.

8. 상전벽해(桑田碧海)인 이 땅, 城南市 푸른 도시

90년 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성남시 역사는 논급하기 곤란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성남사에서 괄목할만한 대사업을 가장 많이 기록케 한 시절이면서, 그 누구라도 불안정의 도시 기반을 안전한 틀로 변화시켰던 때라고 소리 높여 말해도 좋은 엄청난 일을 추진 시켜 성남시를 달라지게 한 그 장본인들이 현재 함께 살고 있다는 데서 오는 주저함이며, 최근의 상황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가 있다. 안정의 도시 모습만으로도 대단한 치적일진대, 더구나 분당 신도시의 개척 사업 완성, 2개 노선의 지하철 시대에 접근시켜진 이 큰 성장의 본보기가 될 문화의 건설 표본 지역이 될 만한 내 고장 성남시 첫째가는 자랑을 함부로 한다는 어리석음 때문에서다.

지금까지 광주군 4개면의 광복 이후 역사적 지역의 이야기를 자료 부족한 가운데 서술해 보았다. 그리고 60년대의 모란개척담을 한두 줄에 언급하였으며, 그 후의 광주대단지 개발과 성남시 시제 발전상들을 대략 짚어 놓았다. 그런데 90년 이후 현재의 지역 현대사를 정리해 본다는 일이 하마, 조심성 있게 주저치 않을 수 없음을 실토하며 어차피, 담당한 몫을 접어두기란 그 또한 개운치 않아 발자취를 따라

그 큰 일의 제목만 나열해 두려고 한다.

향토문화사의 성찰은 단순한 과거에 대한 기록 만에 그 이유가 있지 않을 것이다. 지난 시절의 잘잘못에서 배우고 깨달아 현재를 바로 이해하고, 미래 지역 발전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어 그 어느 고장 못지 않게 질적인 삶의 현장을 이끌며 후대인에게 바로 이어주는 데 까지 생각을 붙잡아 두고자 함이다. 지난 날의 과오는 깨우치고, 오늘의 현실 상황들은 곧은 마음가짐으로 구김살없는 판단력에 따라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하려는 바른 새 인물을 만나고자 힘쓰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본다.

지금까지 보잘 것 없는 이 글을 한 자리에 모으면서 도시로서의 굳건한 공동체 삶을 위해 살아 온 이들의 역사를 살핀 셈이다. 성남시 이 땅의 생활문화를 가꾸기 위해 자기 한 위치를 인식하고 힘겹던 고난의 길을 걸어온 슬펐던 사람들의 회한 섞인 외침과 강인했던 선배의 땀방울이 현재의 성남시 토양이었음을 새삼 알게 된 것이다. 기쁨은 잠시일 뿐, 슬펐던 그네들의 이야기를 어찌, 대하소설 아닌 여기서 다 할 수 있을까. 너나없이 밝은 날 보다 암흑의 날이 더 하였을 것이고, 오늘 이 시대 앞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반에 걸쳐 전환기 발판 위에 있는 우리로서는 성남시 출발선상의 역사 의식에 투철하고 냉철해져야 할 밖에 없다.

수많은 도시 건설의 사업에 휘말려 반평생을 뛰고 달려 온 적지 않은 시민들과 공직자, 각 단체의 중추적 지역인사 그들은 진정, 우리 성남시의 주춧돌이었다. 내가 왜 남들에게 손해를 보랴 하는 세상과 의연하게 멀리한 채 오로지, 성남의 도시 발전에 매진한 이들에게 역사 증언대는 떳떳하리라고 생각한다.

1993년도에 제14대 김영삼정부는 출범되었다. 깨끗하고 튼튼하고 건강한 사회 발전을 제시한 그 당시의 새로울 것 같은 정부를 향해 우리는 함께 손뼉을 치며, 함께 공모자가 된 채로 금융실명제다 공직자 재산 등록이다 하는 일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었다. 또 지방자치제를 전면 실시한다 하여 모두가 환영하며 지역 사정에 적임자들을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월은 저편으로 사라지려는 장막이 내려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순간, 너와 나 우리는 함께 반성해야 할 일이 있다. 누가 누구에게 돌팔매질을 할 것인가를…….

90년도부터 힘차게 달려온 내 고장 성남시는 다른 고장에서의 몇 십년 아니, 몇 백년의 일을 힘겹게나마 해치운 감이 든다. 통계에 나타난 성남 시민의 인구가 1979년 35만 여 명이던 것이 십년이 지난 89년에 이르러 53만 명으로 다시, 97년 말 93만 명으로 비대해졌다. 어디 인구 뿐이랴. 이에 걸 맞는 시정 전반에 걸쳐 큰 도시로서의 면모가 확실한 게 현주소이지 않은가.

90년대를 여는 1년 전부터 수정구와 중원구 2개 구청이 각각 승격되면서 이와 함께 성남시 속의 분당지구 개발사업소 설치까지 잇따른 것이다. 제12대 시장에 취임한 오성수(吳誠洙) 현재의 성남시장은 관선제도에 의한 3년 동안과 민선(民選) 첫

시장(市長)으로서의 3년 도합 6년 이상을 성남시에서 시정을 의욕있게 추진한 이다. 그 자리를 거쳐간 14명의 시장 중에서 재임 기간으로나 시정(市政) 전반에 걸쳐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게 못되고 있다. 성남시사 25년 중에 1/4 기간을 독보적인 위치에서 창안 제시하고 확인하며 또, 추진 검증하는 시민의 총수로서 그 소임을 신명나게 완수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성 싶다.

그의 시정성과는 성남시에 진정,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공과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환경개선, 건전사회, 지역경제, 도시 건설, 주적 시정 정착, 복지시책, 문화예술과 체육, 지방자치 능력 등 일련의 중점시책 구현에 앞장 서서 고집을 부린 시장이다. 특히, 분당 신도시 건설의 주도적인 완수는 성남 도시 건설의 가장 큰 성과로서 복지도시의 틀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시킨 업적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성남의 도시발달

소 진 광

1. 성남의 탄생

성남은 우리나라 발전 과정에서 각각의 단계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근대화의 공간화석(化石)이다. 도시의 발생과 성장 그리고 재구조화에 이르는 일련의 도시발달 전과정이 비교적 짧은 30년 안에 모두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도시정책 연구대상으로서 성남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고 있다.

국토 개발이 본격적으로 착수되던 1960년대, 새로운 국토공간구조의 재편과 함께 때마침 남부지방의 극심한 가뭄으로 수도 서울과 주변 도시로의 대규모 인구이동이 일어났고, 서울의 곳곳에는 무허가 판자촌이 늘어나게 되었다. 도시기능에 따른 인구유인 효과보다는 제조업중심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소외되게 된 농업과 농촌의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압출요인이 더욱 크게 작용하여 이렇다할 생계대책도 없이 무작정 상경하게 된 사람들은 비공식 분야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이들은 비교적 도심가까이에 판자촌을 이루며 살게 되었다. 도심미관이 해치게 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도심 주변지역 주거환경의 열악성, 이로 인한 도시 사회적 문제 또한 수도 서울의 이미지 관리에 적지 않는 손상을 끼치게 되었다. 이미 서울의 토지이용은 그 평면배분에 있어서도 포화상태에 이르러 그러한 판자촌 문제를 행정구역안에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966년 서울시가 무허가 건물을 없애기 위해 신도시건설을 구상하였을 때에는 한강이남의 지역에 인구 100만명, 면적 약 3,000만평 규모의 신도시를 고려하였다. 당시 서울시의 무허가 건물 136,650동 모두를 5개년에 걸쳐 철거한다는 발상이었는데, 정부는 반대에 부딪쳐 주택 10만동, 인구 55만의 철거민을 경기도 미개발지에 이주시키기로 결정하고 우선 광주군 중부면 성남출장소 관내 300만평을 지정하여 1차로 20여 만명을 이주시키기 위해 광주 대단지 사업을 착수한 것이다.

이러한 계획내용은 1968년 5월 4일 서울시장이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한 것으로 이틀 뒤인 5월 6일 경기도지사의 동의를 얻고, 다음날인 5월 7일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게 되었다. 이듬해 3월 4일부터 택지공사가 시작되기는 하였으나 토지매수 및 토목공사비 책정과정에서 재정난에 부딪쳐 주택용지조성은 시늉만 내는

*경원대학교 도시개발학과 교수

꼴이 되고 말았다.

그러는 과정에서도 서울시는 20만 5천평에 달하는 면적을 우선 구획하여 1969년 5월 1일부터 서울의 무허가 판자촌 철거민을 집단 이주시키기 시작하였다.

1969년 말까지 2,313세대 11,133명의 철거민이 생활시설 없이 천막을 설치하여 입주하다 보니 당시 생활상은 말이 아니었고, 일부 철거민들은 분양증을 팔고 되돌아가기도 하였다. 여기에 악덕 부동산업자까지 가세하여 가짜 입주증이 나돌고 행정력은 마비되는 등 혼란을 거듭하여 오다가 1971년 8월 10일 3만의 입주민들은 정부의 무작정 입주시책으로 인한 생활권 위협에 항의하여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이 사건은 성남자체의 생활공간을 계획대상으로 잡아야 한다는 여론을 불러 일으켜 결국 성남시 도시계획의 필요성을 인식시킨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성남은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속에서 서울로의 무작정 인구집적이 빚어낸 파행적 도시형태를 이루게 되었고 수도권 정책과 초기 대도시 서울의 도시관리 정책으로부터 영향을 입어 도시구조가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부는 1971년부터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대도시주변에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기에 이르렀고, 이 과정에서 성남은 1972년 8월 25일 54.8㎢에 해당하는 면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1975년 사실상 개발제한구역이나 다름없는 1,800만평을 소위 남단녹지로 지정하여 성남의 성장잠재력을 제도적으로 제한한 바 있다.

이렇듯 성남은 자생적 성장기반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근대화과정에서 외생적 요인에 의해 탄생하고 또 변화를 겪고 있다.

2. 성남의 도시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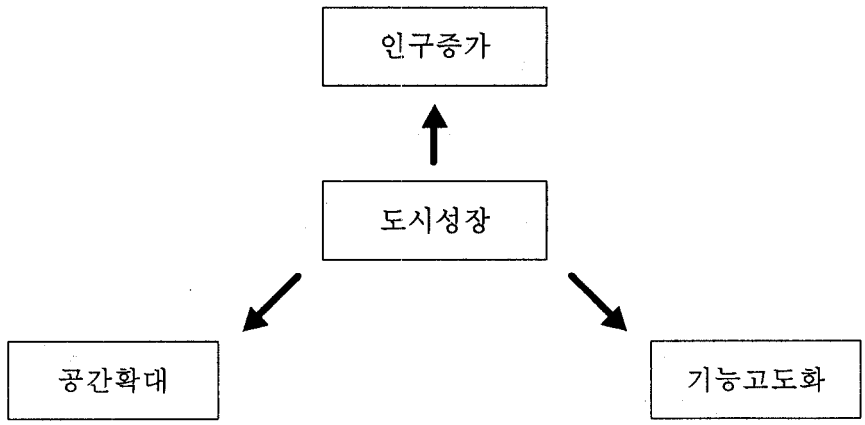
도시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그럼에도 도시를 보는 다양한 견해들은 몇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형태적인 특징으로서 농업이외의 활동에 적합한 경관이나 물리적 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도시는 농촌과 대비되는 공간형태를 지니고 있다. 둘째는 인구집적이 크다는 점이다. 도시 내에서의 인간활동은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것 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활동을 대상으로 한 것이 많다. 따라서 토지의 자연속성을 이용하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농촌과 달리 도시는 한정된 토지위에서 다양한 인간활동을 전개할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토지의 자연적 속성보다는 인간활동의 상호작용을 대상으로 한 활동의 주 무대가 되기 때문에 도시에는 인간활동이 고도로 집적되게 되어 있다. 셋째는 도시에서는 한정된 토지자원에 대한 경합이 커서 토지생산성에 따른 토지이용분화 현상이

나타나고 결국 성장과정에서 그 규모에 상응한 새로운 활동이 도입되며, 기존의 특정 활동들은 점차 쇠퇴하게 된다. 따라서 도시성장도 도시를 보는 견해에 따라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위에 열거한 세가지 도시의 공통점에 의하면 도시성장은 도시공간확대, 인구증가, 그리고 도시기능의 고도화로 요약될 수 있다.(<그림 1>참조)

현재의 성남시역은 1964년 3월 3일 경기도 광주군의 중부면에 설치된 성남출장소 관할구역과 당시 광주군의 대왕명, 낙생면, 돌마면을 포함하고 있다. 1960년대 정부는 기존 대도시를 중심으로 산업화를 촉진하면서 농업을 기반으로 한 농촌개발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도시들은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출 겨를도 없이 많은 인구를 수용하게 되어 도시는 무질서하게 양적팽창을 거듭하고 '삶의질'은 열악하기만 했다. 즉 도시의 편리하고 생산적인 기반시설이 인구를 끌어들인 게 아니라 산업화 촉진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촌지역에서의 압출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여 이촌향도(離村向度) 현상을 가속화시켰던 것이다.

이에 정부는 수도 서울의 외관을 정비해야할 필요성을 들어 1968년 5월 7일 광주군 성남출장소 관할구역 일대에 일단의 주택지 경영사업계획을 결정하고 1969년 5월 1일부터 청계천 일대의 무허가 판자촌을 철거하고, 이 지역 주민들을 사업구역으로 강제이주 시키기 시작하였다. 생산기반은 물론 거주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마저 구비되지 않은 채 20평 규모의 토지사용권만 주어진 상태에서 이들 철거민들은 1960년대 생활상을 담은 화석(化石)으로 성남이라는 지층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림 1> 도시성장의 세가지 성분

이후에도 한국의 산업화는 여러 개 지층을 형성하여 성남을 단계별로 화석화하게 되었는데, 초기 노동집약적 공업을 통한 도시성장이 그렇고, 수도 서울에서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유공간'정도로 취급되어 왔던 것도 그렇다. 특히 1980년대 중 후반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주택시장의 실패조짐이 나타나자 정부는 급기야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확대의 일환으로 1989년 4월 수도권 일원에 분당을 포함한 5개 신도시를 건설하는 정책을 급조하여 발표하였다. 따라서 분당신시가지도 1980년대 수도권 일대 주택시장의 한 지층을 이루는 화석이다.

1967년 시가화된 성남출장소 관내 인구는 5,882명, 1968년에는 6,008명이던 것이 청계천일대로부터의 철거민이 이주하기 시작한 1969년에는 15,778명, 1970년에는 75,105명, 1971년에는 133,939명, 1972년에는 137,898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1973년 7월 1일에는 경기도 성남 출장소가 성남시로 승격되면서 면적 128.513Km2 에 인구 190,781명을 보유하게 되었다. <표1>에서와 같이 이후 성남은 계속하여 인구가 늘어나서 1996년 말 현재 93만명에 달하게 되었다.

<표1> 성남시 연도별 인구변화

연도	인 구 수	가구당 인구수	인구밀도(Km²당)	인구증가율(%)
'73	190,781	4.1	1,483	15.1
'74	227,178	4.8	1,768	19.2
'75	272,329	4.8	2,119	19.9
'76	284,946	4.8	2,113	4.6
'77	307,668	4.8	2,209	8.0
'78	324,064	4.7	2,285	5.3
'79	345,314	4.6	2,435	6.6
'80	376,447	4.4	2,655	9.0
'81	388,202	4.5	2,738	3.1
'82	405,875	4.5	2,862	4.6
'83	416,876	4.3	2,941	2.7
'84	434,078	4.3	3,062	4.1
'85	447,839	4.1	3,158	3.2
'86	456,529	4.0	3,220	1.9
'87	491,577	3.9	3,467	7.7
'88	514,824	3.8	3,633	4.7
'89	530,730	3.8	3,745	3.1
'90	540,764	3.7	3,818	1.9

'91	558,262	3.5	3,941	3.2
'92	645,793	3.3	4,559	15.7
'93	730,715	3.3	5,155	13.2
'94	801,646	3.2	5,655	9.7
'95	888,844	3.2	6,261	10.9
'96	917448	3.1	6,461	14.4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70년대 고도성장을 경험한 성남은 80년대 점차 인구증가율이 둔화되는 듯하더니 분당신시가지 입주가 시작되는 '90년대 들어 다시 급격한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행정구역도 '73년 시승격당시 128.513 Km2에서 '96년 현재 141.97Km2로 다소 늘어났다.

3. 성남의 지역경제 변화

도시공간의 확대는 시가화 구역이 넓어지고 물리적 시설의 집적도가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분야연구는 교외화, 연담도시화 등의 영역에서 진행되어 오고 있다. 도시인구증가는 국가를 하나의 단위로 할 경우 도시화율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도시화율은 일반적으로 경제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초기단계(initial stage), 가속단계(acceleration stage) 및 최종단계(terminal stage)를 거치는 것으로 인식되어 오고 있다. 하나의 도시를 놓고 볼 때 도시인구의 증가는 도시 효율성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 분야 연구는 도시인구 규모의 적정성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마지막으로 도시기능에 관한 연구는 도시를 서비스공급거점으로 파악하고, 도시서비스가 수요층의 규모에 비례하여, 고차위부터 저차위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보다 고차위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 도시는 곧 성장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고차위 도시중심지기능은 보다 넓은 배후권을 확보하게 된다. 결국 도시의 거주인구나 이용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토지이용의 경합이 심해지고 그 과정에서 도시공간이 확대되게 되며, 수요층이 증가하여 보다 고차위 도시기능이 가능하게 된다.

도시가 성장하게 되면 그 안에서 수행되었던 경제활동의 효율성이 달라지게 되

어 도시기능이 인구규모에 따라 각기 다른 최적 상태를 보이게 된다. 초기 도시 발생을 선도했던 기능들이 인구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그 효율성이 저하되어 쇠퇴하거나 외부로 이전되고, 그러한 인구규모에 맞는 다른 도시기능들이 활성화되어 인구증가를 유발하거나 또 다른 활동을 유입하게 된다. 만약 도시를 구성하는 인구규모, 공간규모, 도시기능이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즉 인구 규모에 맞는 시가화구역이 확보되지 못하거나, 인구규모에 상응한 도시기능이 되지 못한다면, 각종 도시문제가 가중되게 된다.

따라서 도시의 인구규모와 시가화 공간규모(시설규모 포함) 및 도시기능과의 상호관계를 분석하면 도시의 건전도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성남시의 도시성장은 강제이주도 있었지만 정부가 이 지역에서 늘어나는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1971년 7월 19일 광주 대단지 공단개발을 승인하고 1976년 11월 12일 개발완료함에 따라 노동집약적 제조업활동이 전개되기 시작한 것에 기인한다.

<표2> 성남시 공장등록 및 종업원수 변화

연도	총 수		섬 유		화 학		기 계		식 품		기 타	
	공장	종업원	공장	종업원	공장	종업원	공장	종업원	공장	종업원	공장	종업원
1975	184	21,564	46	2.856	39	2,097	21	1,816	-	-	78	14,795
1980	414	39,982	134	12.371	39	4,697	100	13,105	40	3,632	101	6,177
1985	339	39,848	69	8.487	25	1,347	47	7,646	28	3,086	170	19,282
1990	359	38,597	152	10.745	40	2,066	55	3,409	33	3,546	79	18,831
1995	851	26,807	197	5.254	42	1,157	96	3,027	50	3,457	282	5,655

※자료: 성남시내부자료, 내무부(한국도시연감 '96)

한편 성남시의 농업인구 비중은 1967년 88.0%, 1970년 20.8%, 1975년 6.4%, 1980년 3.5% 1985년 2.5%, 1990년 1.2%로 감소하여 도시기능이 현저히 변천되어 오고 있음을 알수 있다. 특히 제조업 활동도 1987년 종업원수 45,043명을 절정으로 최근 감소세가 뚜렷하여 탈공업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신 분당신시가지에 각종 유통시설이 들어서고 중앙로정비로 주변에 많은 상가가 들어서는 등 점차 외형적인 도시기능 현대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주요도시 산업별 입지상계수를 보면 성남은 비슷한 인구규모의 다른 도시나 인구규모가 작은 도시에 비해서도 인구규모에 상응한 도시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즉 인구규모에 상응한 도시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도시로 전락하고 있다

여기서 입지상계수(LQ: location quotient)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즉, i도시 j산업의 특정시점의 입지상계수(LQij)는

$$LQij = \frac{\text{i도시의 j산업종업원수(생산액, 부가가치 총액등)}}{\text{j산업의 전국종업원수(생산액, 부가가치 총액등)}} \Big/ \frac{\text{i도시 인구수}}{\text{전국 인구수}}$$

이며, 이 경우 i도시 j산업의 입지상계수가 1이상이면 i도시에서 j산업이 전국평균보다 활성화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1이하이면 그러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성남시의 도시기능 활성화정도를 비슷한 인구규모이거나 위상을 하고 있는 다른 도시와 비교하기위해 비교기준을 전국으로 하지 않고 우리나라 시급도시 전체로 하였다.

물론 도시기능이 입지상계수만을 통해 확인되거나, 입지상계수가 단순히 종업원수만을 분석지표로 하여 인지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본래 특화산업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기 시작한 입지상계수는 객관적 통계숫자를 활용하기에 용이하고 계산이 간단하다는 장점때문에 종종 도시기능을 확인하는데 원용된다.

또한 입지상계수를 도출할 때에도 특정산업의 생산액(량), 부가가치총액 등 다른 지표를 분석하는 것이 더욱 적실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의 성장이 인구규모 증대와 함께 공간활동의 집적정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업원수를 분석지표로 하여 입지상계수를 도출하는 것이 편리하다. 이 경우 비교기준이 되는 전국, 혹은 시급도시 전체에 걸쳐, 그리고 모든 분야에 걸쳐 노동생산성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입지상계수를 통한 도시기능확인이 의미있게 된다.

<표 3>에서와 같이 1986년말을 기준으로 할 때 성남시는 제조업의 입지상계수가 1.30으로 이 분야 도시기능이 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당시 성남은 공업도시로서의 특성이 강했다. 반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금융, 보험, 용역업의 입지상계수가 각각 0.26, 0.25로 현저히 낮아 이 분야 서비스를 다른 지역에서 공급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니면 이 분야 서비스 수요가 다른 도시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성남은 수도 서울에 인접해 있어 각종 고차위 도시기능을 서울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고차위 도시기능에 속하는 산업활동이 비슷한 인구규모의 다른 도시에 비해 열악할 수밖에 없다.

1990년말을 기준으로 할 때(<표 4>참조), 성남의 제조업 지상계수는 0.88로, 이 분야에서도 전국 도시평균에 미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입지상계수가 1986년말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대되어 도시성장과 더불어 도시기능이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에서와 같이 제조업의 입지상계수가 계속 떨어져서 성남에서의 탈공업화를 나타내주고 있고 대신 다른 산업의 입지상계수가 조금씩 상향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결국 성남의 인구규모 및 공간특성상 성남시의 도시기능은 재구조화되어야 할 국면을 맞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남과 비슷한 여건에 있는 수원시, 부천시, 안양시가 아직도 제조업활동에서 입지상계수가 큰 것을 감안하면 성남시도 무공해 첨단제조업으로의 구조개선을 통해 그간 도시성장을 뒷받침하였던 제조업활동 기반을 강화시킬 필요성을 안고 있다.

특히 대도시에서의 혼잡비용증가로 고차위 서비스 소비행태가 변화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쾌적한 소비공간을 마련할 수만 있다면 이제까지 서울에 의존했던 각종 산업활동을 성남으로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다.

<표3> 주요도시 산업별 입자상계수 (종업원수 기준, '86년 말 기준)

도시명	제 조 업	건 설 업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운수,창고, 통신업	금융,보험, 용역업	기 타 서비스업
성 남	1.30	0.87	0.26	0.58	0.25	0.93
수 원	1.03	0.46	0.51	0.98	0.65	1.21
부 천	2.04	0.27	0.16	0.33	0.25	0.64
안 양	1.25	0.69	0.31	0.88	0.57	1.04
청 주	1.29	0.41	0.50	1.32	0.56	1.24
전 주	0.47	0.86	0.83	1.21	0.85	1.45
울 산	2.00	0.56	0.56	0.98	0.80	0.70

* 시급 도시기준

** 자료 : 내무부, 한국도시연감, 1987.

<표 4> 주요도시 산업별 입지상계수 (종업원수 기준, '90년말 기준)

도시명	제 조 업	건 설 업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운수,창고, 통신업	금융,보험, 용역업	기 타 서비스업
성 남	0.88	0.15	0.53	0.55	0.31	0.79
수 원	0.93	1.00	0.60	0.71	0.84	1.06
부 천	1.44	0.20	0.13	0.36	0.25	0.61
안 양	1.22	0.20	0.29	0.70	0.51	0.79
청 주	1.61	0.82	0.55	1.37	0.86	1.34
전 주	0.60	1.83	0.92	1.17	0.76	1.52
울 산	2.17	0.61	0.59	0.88	0.71	0.50

* 시급 도시기준

** 자료 : 내무부, 한국도시연감, 1991.

<표5> 주요도시 산업별 입지상계수 (종업원수 기준, '95년 말 기준)

도시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숙 박, 음식점업	운수,창고,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임대 사업서비스	보건사회 복지사업
성 남	0.493	0.537	0.435	0.569	0.424	0.215	0.378	0.568
수 원	1.138	0.801	0.963	1.163	0.860	0.898	1.088	1.270
부 천	1.386	0.262	0.721	0.861	0.538	0.722	0.541	0.829
안 양	1.022	0.435	0.809	0.960	0.743	0.809	0.899	0.890
청 주	0.922	0.954	0.164	0.032	0.761	0.592	0.451	0.610
전 주	0.468	1.065	0.951	1.015	1.019	1.170	0.603	1.394
울 산	1.928	0.981	0.812	1.025	0.793	0.771	0.597	0.836

* 시급도시기준

** 자료 : 내무부, 한국도시연감, 1996.

이렇듯 성남은 자생적 성장기반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근대화과정에서 외생적 요인에 의해 탄생하고 또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표 6>은 성남지역의 제조업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약점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즉 <표 6>에서와 같이 비슷한 여건, 인구규모를 가지고 있는 수도권의 수원, 부천, 안양과 인구규모면에서 견줄만한 청주, 전주, 울산등 지방도시와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 발달된 산업기술을 잘 수용하고 있다고 기대되는 전기, 전자산업의 비중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재래산업으로 단순 노동력을 많이 활용하는 섬유(19.60%), 식품(12.90%) 등의 제조업 비중이 다른 도시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어 성남의 제조업은 질적인 구조면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 수원의 경우 전기, 전자부문의 제조업비중이 70.67%로 매우 높고 섬유(7.09), 식품(1.83%)등 재래산업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경제기반이 건전하고 충실한 것으로 인식된다. 부천도 수원과 비슷한 정도의 제조업구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수도권에 위치한장소적이점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다만 청주, 전주 등 지방의 도시들은 전반적인 제조업 구성이 재래산업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의 경우 기계 금속공업(54.13%), 청주의 경우 전기, 전자공업(43.41%), 전주의 경우 섬유공업(27.15%) 그리고 울산의 경우 기계 금속공업(66.87%)이 시급도시 평균에 비해 크게 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표>에 나타난 지수들이 그대로 도시기능 활성화 정도라고 볼 수 없는 점도 있다. 섬유산업, 식품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가가치가 낮고, 경제활동의

과실이 지역화되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작으나마 이들 제조업들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어 지역 토착자본의 참여도가 높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들 산업은 산업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산업구조를 조정해야 되는 시점에서 보면 탄력성이 적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성장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가용 토지자원이 극히 제한적인 성남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경제 활동의 양적인 측면보다 질적 측면을 더욱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잇다. 즉 100만 인구에 걸맞는 토지생산성, 노동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표3 >, <표 4>, <표 5>, <표 6>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양적인 측면에서 열세인 성남의 경제기반이 질적인 측면에서도 취약한 산업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만 서울과 인접해 있는 성남지역도 급격한 인구성장과 함께 산업구조의 시차적 전환과정에서 서비스 산업이 급부상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산업에 대한 지원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제조업이 갖고 있는 구조적 취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실제 성남은 1986년, 1990년 및 1995년을 기준으로 할때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다른 도시에 비해 낮아 이들 상당부분을 서울이라는 거대도시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계속 증대될 것이다. 이로 인해 성남의 기반산업은 제조업을 탈피하여 서비스산업으로 전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표6> 주요도시 제조업종별 종업원수 구성비(%) ('95년말 기준)

구분	제조업전체 종업원수	섬 유	화 학	기계·금속	전기·전자	식 품	기타공업
성 남	26,807 (100.00)	5,254 (19.60)	1,157 (4.32)	3,027 (11.29)	8,257 (30.80)	3,457 (12.90)	5,655 (21.10)
수 원	61,467 (100.00)	4,357 (7.09)	4,997 (8.13)	2,964 (4.82)	43.437 (70.67)	1,122 (1.83)	4,590 (7.47)
부 천	90,492 (100.00)	3,949 (4.36)	3,762 (4.16)	48,985 (54.13)	31,735 (35.07)	1,035 (1.14)	1,026 (1.13)
안 양	42,503 (100.00)	6,593 (15.51)	4,224 (9.94)	11,682 (27.49)	12,592 (29.63)	3,134 (7.37)	4,278 (10.07)
청 주	37,258 (100.00)	7,700 (20.67)	4,384 (11.77)	802 (2.15)	16,173 (43.41)	4,797 (12.88)	3,402 (9.13)
전 주	17,975 (100.00)	4,880 (27.15)	2,241 (12.47)	664 (3.69)	1,136 (6.32)	1,424 (7.92)	7.630 (42.45)
울산	138,728 (100.00)	7,999 (5.77)	23,306 (16.80)	92.763 (66.87)	659 (0.48)	1,233 (0.89)	12,768 (9.20)
전국도시 전 체	2,425,941 (100.00)	389,259 (16.05)	220,197 (9.08)	773,552 (31.89)	486.975 (20.07)	136,996 (5.65)	418,962 (17.27)

* 자료 : 내무부, 한국도시연감, 1996.

**( )는 해당 도시인구대비 비중임(%)

4. 성남의 공간구조 변화

도시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인구규모, 공간규모, 공간기능 면에서 공통적으로 접근되어 질 수 있다. 이러한 세가지 공통요소가 서로 맞물려 있다는 측면에서 도시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정의 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도시는 공간적 측면과 비공간적 측면으로 분리하여 설명되어 질 수 있는데, 도시의 공간적 하위체계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등 공간단위로 구성되고, 비공간적 하위체계는 산업구조, 행정계층 조직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의 공간적, 비공간적 하위체계는 서로 맞물려 있어서 용어만큼 쉽게 분리하여 파악하기 어려우며, 인간활동은 공간이란 공통의 무대에 의해 영향받거나 또 새로운 공간을 형성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도시기능, 인구규모 그리고 도시 시가화구역 및 시설등은 공간이라는 공통의 매개체를 통해 상호작용하게 된다.

도시의 공간구조 관점에서는 자연을 바탕으로하여 인위적인 도시구조를 중시하여야 한다. 그것을 대표하는 요소로는 도로, 철도 등의 교통망체계가 있으며 또한 상하수도, 전력공급, 통신 등의 체계도 이에 속한다. 한편 토지이용 측면에서 인간 활동별 특성을 공간과 연계하여 도시 내부의 활동 영역을 구분하는 연구도 큰 맥을 이루어 오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도시를 유기체로 보고, 도시성장을 생태학적 변화과정으로 접근하고 있다. 즉 인구증가로 인한 새로운 도시기능 도입 등 기능 변천은 토지이용측면에서 침입(invasion), 천이(succession), 집중(concentration), 분산(decentralization) 등으로 설명되어 질 수 있다.

도시성장은 또한 토지이용과 같이 변화하는 물리적 측면외에 인간활동의 조직화 과정에서도 설명되어질 수 있다. 개발 도상국에서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이를 운용, 통제할 수 있는 유능한 인력을 대도시로 끌어들이는 결과를 수반한다든지, 대도시 교육시설투자로 인해 유능한 인재가 대도시로 유입되는 등은 도시성장의 신진대사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정보매체의 발달로 대기업의 본사등 의사결정기구가 입지해 있는 대도시는 기업활동의 상당부분을 주변지역에 분산입지시키면서 외부통제(external control)를 통해 공간거리 극복에 따른 추가비용부담을 후방연계되어 있는 주변지역 중소기업에 전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가상공간(cyber space) 활용 가능성도 도시공간 구조변화에 새로운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즉 도시내부에서 공간변화를 수반하지 않은 채 새로운 조직관리체계의 도입만으로 새로운 활동, 새로운 도시기능이 가능하게 되어 도시영향면이 확대되게 되었는데, 이 역시 도시성장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현대도시의 공간구조 변화패턴은 교외화 같은 시가화 구역의 확대, 시가화구역 안에서의 토지용도변경, 도시

내 활동간 연결매체(도로, 통신망, 상하수도, 연계망 등)의 분포, 시종점, 규모의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외부통제에 의한 가상공간의 확대 등의 측면에서 고찰되어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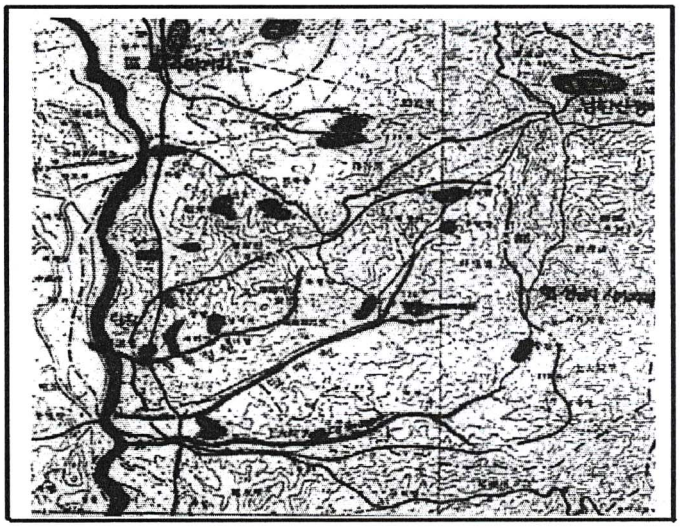
본서에서는 이중에서 시가화구역 확대, 도시내 토지용도변경, 도시내 활동간 연결매체의 분포, 시종점, 규모의 변화측면에서 성남시 공간구조 변화패턴을 성남시 승격 이전시기, 시승격 이후부터 분당개발이전시기까지 그리고 분당개발 이후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1) 성남시 승격 이전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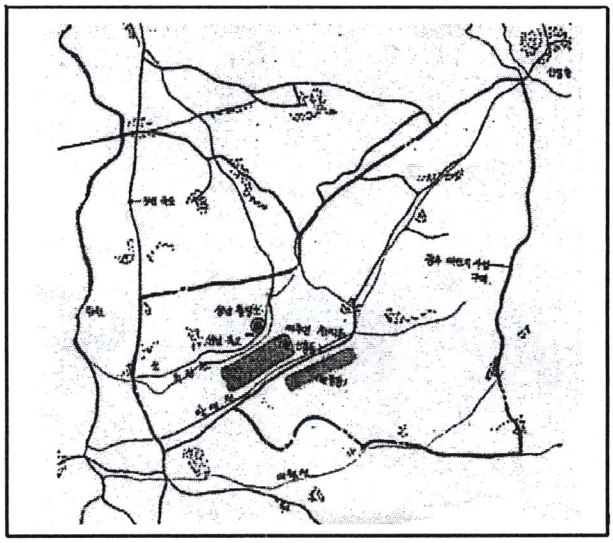
시승격 이전의 성남 시가화는 광주대단지 철거민 가수용 시기(1968. 5-1969. 6)에 이주민 천막촌이 단대천을 사이에 두고 현재의 신흥동 일대와 중동일대에 걸쳐 형성되면서 시작되었다. 광주대단지 철거민 이주계획 이전에는 주로 농업을 기반으로 한 농촌형 자연부락이 군데 군데 형성되어 있었다.(<지도 1>참조, <지도 2>참조)

1971년 7월 19일 건설부가 성남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통해 녹지 42.55㎢, 광주대단지 12.00㎢에 대해 용도지역을 지정하였고, 1972년 1월 경기도가 성남지역 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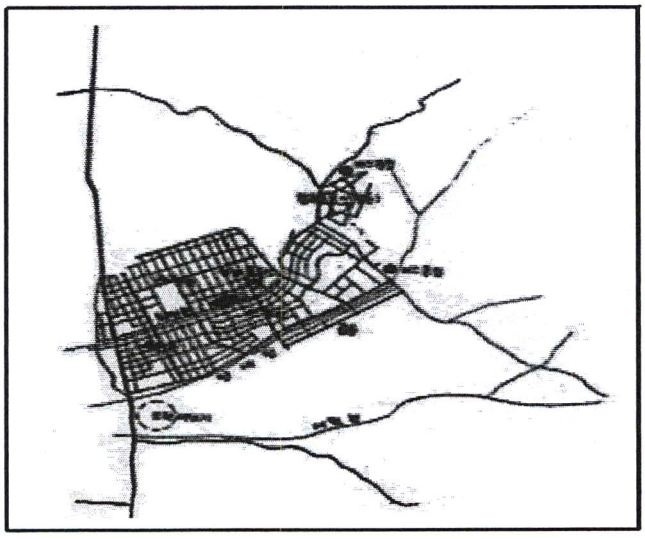
그리고 이러한 광주대단지 초기 도시계획은 독정천을 중심으로 격자형 가로망을 설치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성남의 시가화구역은 당시 성남출장소를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었다.(<지도 3>참조)



◁<지도1> 광주대단지사업 이전의 성남(자연부락 분포)



<지도2> 광주대단지 가수용 시설 배치도 (1968. 5) ▷



<지도3> 광주대단지 초기 도시계획

무엇보다도 성남의 공간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은 1971년 7월 19일 광주대단지 공업단지(현 성남산업단지)의 개발승인이었다. 1976년 11월 12일 공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1, 2, 3단지 총 1,826,137㎡(약 55만 2,400여 평)가 개발되었고 이중에서 공장이 들어선 면적은 전체의 71.5%에 달하는 1,305,480㎡로 마땅한 일자리가 없던 이 지역 주민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공단개발의 승인에 따라 1972년 기존시가지와 공업단지를

연결하는 도로가 개설되었고, 이 도로를 따라 단대천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에 많은 불량주택들이 무질서하게 들어서고 있었다. 저소득층 주민들이 은행동, 단대동 부근으로 재이주하게 된 것도 이 무렵이다.

1972년 말 성남출장소 관내 주택은 모두 25,829호 이었으며 이중 18%가 넘는 4,759호가 불량주택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같은 시점 국도(고속도로)를 제외한 지방도와 군도의 총연장은 67.4㎞로 이중 포장도로는 9.4㎞에 불과하였다. 1972년 1년간 건축허가 동수는 모두 927동으로, 이중 41%인 340동은 탄지소 관내였으며 단대지소 관내에 196동, 상대원 지소 관내에 147동, 수진지소 관내에 128동으로 시가화방향을 짐작케 해준다.

전체 827동중 452동이 주택용이었고, 상업전용은 42동에 불과하여 당시 건축사업이 산업활동과는 거의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업전용의 건축도 상대원동에 38동이 치우쳐 있어, 당시 상대원을 중심으로 한 상가형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1971년 9월 30일에 완성된 성남 도시기본계획안은 같은 해 10월 30일 건설부의 신도시계획고시 (제385호)를 거쳐 1972년부터 시행키로 되어 있었다. 본 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조사에 나타난 1971년 5월 현재 성남출장소 관내 토지이용현황은 〈표 7〉과 같다.

〈표 7〉 성남출장소관내 토지이용현황 ('71.5 현재) 단위: ㎡

구 분	주 거 지	상업용지	공공용지	공 업 지	군 용 지	합 계
면 적	7,847,000	500,000	184,250	125,000	93,750	27,433,000
비율(%)	28.60	1.82	0.67	0.46	0.34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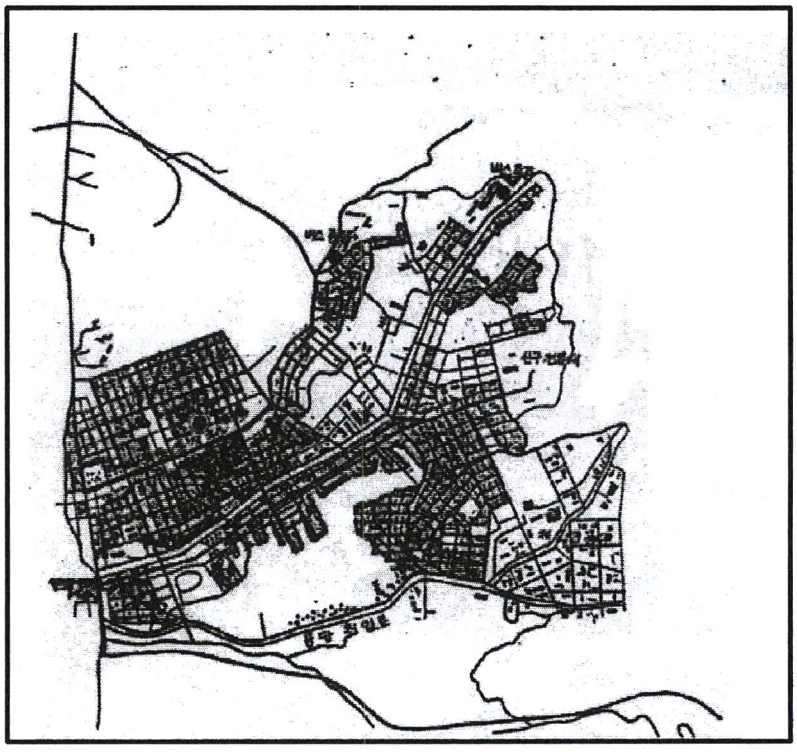
당시 버스노선은 모두 서울과 연결된 것으로 7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었고, 이중 1개 노선은 경유노선이며 나머지 6개 노선중 4개노선이 탄리에, 1개노선이 고등리 그리고 나머지 1개 노선이 분당 오포에 종점을 두고 있다.

2) 시승격 이후의 성남시 공간구조

시승격 이후 성남은 체계적인 공간구조재편을 시도하게 되는데,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건축통제를 강화하고 도시녹화와 아울러 시가지의 외형적 확산을 방지하며, 적극적인 인구억제 시책을 펴나간다는 것이었다.

성남시가 자체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마련한 것은 1976년 3월 27일으로 용도지역을 일부변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의 성남시 모습을

담은 도시기본계획은 그로부터 8년이 지난 1984년 9월 건설부 최종승인으로 이루어졌다.



지도 4〉 시승격 이후 초기의 가로망현황

시승격 이후 대봉로 복개가 이루어 지면서 시청입구와 대봉로축이 도시 중심축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또한 공업단지 진입로가 건설되어 성남에서의 제조업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도시성장기반이 구축되게 되었다.

1985년 말 시내버스 노선도 21개로 늘어나 서울과의 통근이 수월해지고 상가, 시장도 많이 개설되어 시민생활이 한층 편리해졌다.

1985년 말 토지종별현황을 보면 총 141.79㎢ 중 임야가 78.851㎢로 가장 많고 다음이 논으로 17.335㎢, 그리고 밭은 13.957㎢이고 대지는 9.536㎢이었다. 대지 중 주거용은 2.348㎢이고 공장용지는 1.383㎢이었다.

1985년 말 총주택은 52,003동 이었는데 이 중 775동만이 불량주택으로 분류되어 정상주택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주택수가 58,530동에 이르러 주택보급률이 47%에 그치고 있었다.

공원수는 모두 23개로 16,759,169㎡에 달하며 이 중 자연공원은 5개소에 10,753,696㎡, 근린공원은 16개소에 5,038,694㎡ 그리고 묘지공원은 2개소에 966,779㎡를

차지하고 있었다.

시승격 이후 성남시의 공간구조는 공업단지 주변지역과 진입로를 중심으로 한 시가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

3) 분당개발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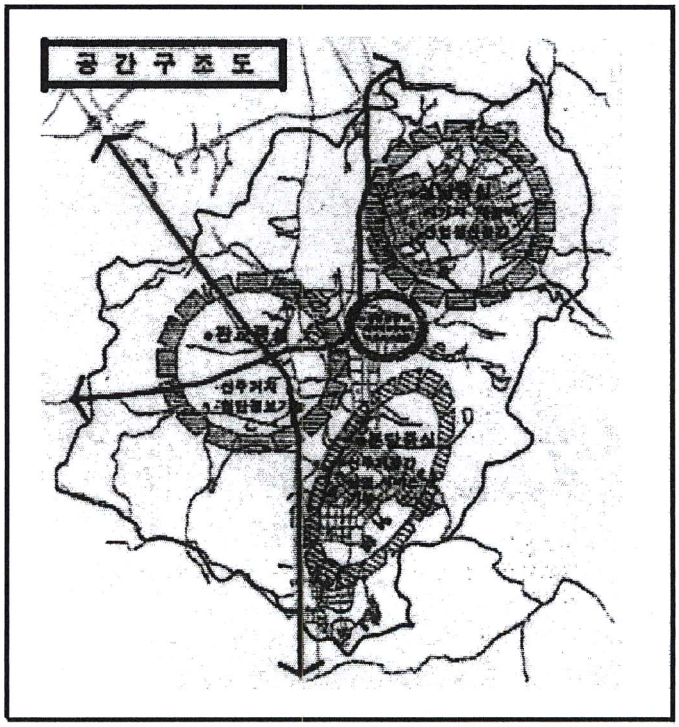
공간구조상 성남의 미래지분이었던 남단녹지 일부가 신시가지로 개발되기 시작한 1989년부터 성남은 이제까지의 단핵도시로부터 벗어나 성남 구시가지와 분당 신시가지라는 두 개의 핵을 가진 도시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분당을 포함한 수도권 5개 신도시 개발이 주택시장에서의 공급부족으로 인한 실패현상을 교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된 것이긴 했으나 분당신시가지 개발은 나름대로 한국적 신도시 개발모형을 제시한다는 하부적 목표도 포함하고 있었다.

시전체의 13.9%에 해당하는 19.79㎢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97,334세대 주택건설을 통해 39만명을 입주시킬 계획이었으나, 당초 사업기간 보다는 약간 늦어진 상태에서 분당신시가지 개발은 마무리 되었다. 계획당시 구상하였던 생활편익시설, 도로체계, 상하수도 체계, 공공시설 등은 입주가 마무리되는 단계에 이르러 새로운 수요에 직면하게 되었고, 당초 고려하지 못했던 구시가지와의 상호관계도 새로운 부담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분당신시가지 개발은 광주대단지사업으로 인한 성남의 탄생이 그러했듯이, 이 지역 주민들의 자생적 공간수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서울을 중심으로한 수도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기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초고속 사업진행은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의 조화를 창출하는데 실패하여 결국 분당신시가지 자체의 기반활동을 정착시키지도 못하였지만 구시가지 기능과의 보완적 관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막대한 성장잠재력을 사장시킨 꼴이 되었다.

구시가지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분당신시가지 개발을 성남시 거주 주민들의 공간수요에 충당하였다면 신·구시가지의 도시기능을 상호보완적으로 조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구시가지의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어쨌든 분당의 개발은 수도권에서의 주택부족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일차적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분당 자체로서의 생산기반과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였고 또 사업성 위주로 개발하다 보니 상업용지나 업무용지가 과다 책정되어 결국 도시경제의 파행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개발가능지인 판교일대를 신·구시가지를 연결하고 성남시 자체의 도시기능을 보완하여 결국 전체 성남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되면 성남은 3핵시가지가 각각의 보완적 도시기능을 조화롭게 창출하여

살기 좋은 '우리의 고향'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한반도 역사의 주무대였던 남한산성을 배경으로 역경을 딛고 열심히 일하며 국력을 키워왔던 시절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성남의 구시가지와 새로운 주거문화를 창출한 분당 신시가지 그리고 머지않아 친환경적 고도 기술사회를 선도해 나갈 판교일대의 미래공간이 우리의 고향, 우리의 성남을 특징 지우는 도시발달의 시간축을 이루게 될 것이다.



<지도 5> 성남시의 3핵공간구조

여 백

문 화 사



여 백

성남시의 유적과 유물

조 유 전

1. 선사 유적 · 유물

성남시 지역에서 발견된 선사유적으로는 탄천 상류 유역을 중심으로 지석묘의 존재가 알려져 있을 뿐 이렇다 할 선사유적은 아직 발견 예가 없었으나 지난 1990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지구 약 550만평에 달하는 신시가지 건설계획에 따른 사전 문화유적 지상조사가 이루어져 야탑동에 분포하고 있는 39기의 지석묘를 비롯 총 116기의 지석묘가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됨으로써 이들에 대한 발굴조사가 한양대학교 박물관 주관으로 경희대 고고미술사연구소, 성균관대 · 동국대 · 명지대 · 건국대 · 서울대박물관이 참여하여 1990년 5월부터 10월까지 이루어졌다. 당시 조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촌동(島村洞) 지석묘군

도촌동 480-3, 484, 485, 도촌동 산 83번지에 모두 32기가 분포하고 있었는데 숭실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하였으나 모두 파괴 교란되어 유구 확인이 불가능했고 주변에서 숫돌(砥石) 2점과 작은 돌창 1점이 수습되었을 뿐이다.

◎야탑(野塔洞) 지석묘군

야탑동 169-3畓, 176畓, 191-1垈, 185林, 175畓, 198-3畓, 210田 등에 분포하고 있었던 총 54기의 지석묘를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박물관에서 나누어 조사했으나 하부구조를 전혀 밝힐 수 없도록 교란되었고 출토유물 역시 1점도 없었다.

◎사송동(沙松洞) 지석묘군

사송동 226-1일대 분포하고 있었던 30여기의 지석묘를 명지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 조사하였으나 경작지 개관으로 교란됨으로써 하부구조와 유물은 없었다.

* 국립민속박물관장

◎분당동(盆唐洞) 지석묘군

분당동 337-2번지일대 분포하고 있었던 22기의 지석묘를 한양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한 결과 파괴교란으로 지하 유구와 유물은 없었다.

◎수내동(藪內洞) 지석묘군

수내동 속칭 숲안마을 야산에 13기가 분포하고 있었던 것을 서울대박물관에서 조사한 결과 모두 원래의 위치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유물도 전혀 출토되지 않았다.

◎정자동(亭子洞) 지석묘군

정자동 82번지 일대와 274번지 일대에 총 11기의 지석묘가 분포하고 있었는데 건국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 조사한 결과 하부구조는 교란되어 밝힐 수 없었고 유물 출토 역시 없었다.

이와 같이 분당신시가지 조성공사시 사전 조사된 지석묘 발굴에서 명확한 유구의 흔적과 유물의 출토는 없었으나 탄천의 하류인 서울 가락동·역삼동에서 청동기시대의 집터가 확인된 적이 있고, 분당구 금토동에서 민무늬토기가, 삼평동에서 빗살무늬토기가, 수진동에서도 민무늬토기가 발견된 적이 있어 탄천을 중심으로한 위치에 선사유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현재 분당구 중심위치에 마련된 중앙공원내의 약수터 앞 100여평에 당시 발굴 조사된 지석묘 가운데 10기를 옮겨 사회교육과 보존을 겸하고 있다.

2. 역사 유적 · 유물

역사유적의 경우 고고학적인 시대 구분에 의해 선사시대 이후, 초기철기시대,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 조선시대까지의 역사를 망라할 수 있다. 역사시대의 유적·유물을 고분유적, 역사인물유적, 불교유적, 전통건축유적, 관방유적 및 기타유적·유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분유적〉

◎야탑동(野塔洞) 돌무지무덤(積石塚)

야탑동 198-1번지 일대 8기의 돌무지무덤이 분포하고 있었는데 1990년 분당신시가지 조성시 모두 발굴조사된 후 없어졌다.

돌무지무덤의 구조는 지면에 구덩이(土壙)을 파서 돌곽(石槨)을 마련한 후 그 위와 주변에 막돌을 사용하여 불규칙하게 쌓아 만들었는데 돌무지의 규모는 3m에서 6m에 이르는 불규칙한 규모였다. 출토된 유물로는 삼국시대인 4-5세기대의 토기편 등이 다수 있어 이 유적의 조성연대가 삼국시대임을 암시하고 있어 한강유역에 자리한 백제시대의 유구로 여겨지고 있다.

◎창곡동(倉谷洞) 유적

복정구 창곡동 일대에 있었던 조선시대의 무덤 유적가운데 1971년 조사되고 없어졌다. 나무널박으로 회를 씌워 봉분을 만든 회곽무덤(灰槨墓)으로 동쪽 벽면의 중앙부분을 파고 마련된 감실형의 구조에서 작은 백자항아리 등 자기로 만든 15종 34점의 명기(明器)가 출토되었다. 특히 사람 모양 남자인형, 여자인형 등이 있어 조선시대 초·중기의 회곽무덤 연구에 좋은 자료를 얻게 되었으나, 다른 무덤은 발굴되지 않았고 무덤의 주인공도 밝혀지지 않았다. 이 무덤의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도시개발 전 성남시 일대 조선시대 민묘가 많이 분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불교 유적

불교 유적으로는 사찰이 있었던 절터(寺址), 현존하는 사찰 및 부속건물과 유물 그리고 바위에 새긴 마애불(磨崖佛) 등을 들 수 있다.

◎야탑동(野塔洞) 절터(Ⅰ)

분당 신시가 조성시 발굴 조사된 절터이다. 지명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탑동, 중탑동, 하탑동의 명칭으로 탑이 존재했던 것임을 알게 한다.

야탑동 681-683번지 일대가 절터로 지목되었으나 발굴결과 조사전 형질변경으로 절터의 규모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다만 출토된 기와류와 전(塼) 등으로 볼 때 고려시대부터 존재했던 절터로 여겨지고 조선시대에 와서 없어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야탑동(野塔洞) 절터(Ⅱ)

야탑동 위탑골 중턱에 위치하고 있으나 성격은 불분명하다. 앞으로 학술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면 그 성격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것이다.

◎봉국사(奉國寺)와 대광명전(大光明殿)

봉국사는 수정구 태평2동 216-2의 영장산(靈長山) 서남쪽 자락에 위치하는 사찰로서 고려 현종(顯宗) 19년(1028)에 창건되었으나 폐허된 것을 조선 태조(太祖) 4년(1395)에 담화(曇華)가 중건했는데 조선 현종(顯宗) 15년(1674)에 현종의 두 딸인 명혜(明惠), 명선(明善) 공주의 명복을 빌기 위해 왕비의 주선으로 당시 금강산의 일축존자(日竺尊者)에게 두 공주의 무덤이 있는 부근인 현재의 위치에 다시 중창하게 하고 이름을 봉국사라고 했다고 전하고 있다. 그 후 6.25동란으로 퇴락된 것을 1958년 법운(法雲)이 중수하고 1974년 봉국사 대광명전이 해체 복원되었다. 봉국사 대광명전은 경기도 유형문화재 101호로 지정 보호받고 있는데 조선후기인 조선 현종 때 건립된 연대가 뚜렷한 건물로서 정면에서 볼 때 3칸에 각 칸마다 사분합문(四分閤門)이 마련되고 있고 옆에서 볼 때 2칸으로 된 목조기와 건물로써 맛배지붕에 기둥은 주심포양식의 규모가 아담한 건물이다. 대광명전 내부에는 아미타불을 모시고 있는데 조선후기 불상양식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불단 위에는 화려한 닷집이 마련되어 있다.

◎망경암 마애여래좌상(望京庵 磨崖如來坐像)

망경암 마애여래좌상은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55-8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기도 기념물 100호로 지정되었다. 불상은 자연 화강암(花崗巖)벽에 높이 1.2m, 앉은 폭 75cm크기의 앉아 있는 불상을 도드라지게 새기고 주변을 따내어 감실(監室)안에 부처님을 봉안한 형태로 조각했다.

조각된 부처님의 머리는 소발(素髮)이고 결가부좌(結跏趺坐)한 모습에 왼손을 가슴에 오른손은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으로 무릎 위에 놓았고 걸친 옷은 양어깨를 덮은 소위 통견(通肩)이지만 전체적인 불상의 조각 양식은 특징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불상이 새겨진 바위 곳곳에 바위면을 고르게 다듬고 글자를 새긴 곳이 14곳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조선 고종(高宗)때인 광무(光武) 1년(1897)에 관음상(觀音像)을 새기고 불사를 일으켰다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 이 마애불이 그 당시에 조성된 것임을 알게되어 조선 말기의 불상양식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하고 있다.

4. 역사인물 유적

성남시에 위치하는 역사 인물유적으로서는 경기도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인물에 국한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수(李晬)선생 묘

분당구 궁내동 산 17-1에 있는 조선 중기 공신 이수의 무덤인데 이수는 조선 선조 2년(1569)에 출생하여 인조 23년(1645)에 전사했다. 자(字)는 명원(明遠)으로 조선 중종의 후손이며 인조때 이괄(李适)의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웠고 정묘호란(丁卯胡亂)때에는 인조가 강화도로 가는데 호종했다. 구천군(龜川君)에 봉해지고 오위도총부 도총관을 겸하기도 했으며 사후 현록대부(顯祿大夫)로 중직되고 시호는 충숙(忠肅)이다. 묘(墓)는 부인 동래정씨묘와 나란히 쌍분을 이루고 있는데 두 무덤 모두 봉분 가장자리를 따라 잘 다듬은 장대석으로 8각이 되게 호석을 설치했고 두 무덤 앞의 중앙위치에 묘비(墓碑), 상석(床石), 혼유석(魂遊石)이 마련되어 있고 상석 좌우로 마주선 동자석(童子石)이 무덤을 지키고 있다. 무덤 전방의 좌우에 각각 망주석(望柱石)과 문인석(文人石)을 마련했고 대리석에 새긴 신도비(神道碑)가 있다. 묘비의 앞면에 「昭德大夫兼五衛都總管贈顯祿大夫龜川君之墓東萊顯夫人贈郡夫人鄭氏附口(소덕대부겸오위도총관증현록대부구천군지묘 동래현부인증군부인정씨부구)」라고 새겨져 있다. 경기도 기념물 54호로 지정되었다.

◎이경석(李景奭)선생 묘

분당구 석운동 산 16-18에 있는 조선 인조때 영의정을 지낸 이경석의 묘이다. 선조 28년(1595)에 출생하여 현종 12년(1671)에 죽었다. 자는 상보(尙輔)이며 호(號)는 쌍계(雙磎)인데 후에 백헌(白軒)이라 했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인조때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을 지냈으며 효종 10년(1659)에는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가 되었고 70살이 넘어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가 대우받고 살았다. 현재 올림픽공원내에 있는 삼전도비(三田度碑)인 청태종공덕비문(淸太宗功德碑文)을 쓰기도 했다.

묘는 부인과 함께 묻힌 단분(單墳)으로 무덤 앞에는 장대석(長台石)기단이 마련되었고 상석, 장명등(長明燈) 묘비가 그리고 망주석과 문인석은 무덤 앞의 좌우에 마주 세웠다. 이중 장명등은 최근에 세웠다. 그리고 신도비(神道碑)는 묘역 입구에 2기가 세워져 있는데 원래의 신도비문이 마멸이 심해 1975년 새롭게 1기를 세웠기 때문이다.

묘비를 보면 앞면에 「有明朝鮮國領議政文忠公白軒李先生景奭墓貞敬夫人全州李氏祔左(유명조선국영의정문충공백헌이선생경석묘정경부인전주이씨부좌)」라 새겼다. 경기도 기념물 84호로 지정되었다.

◎한산이씨묘역(韓山李氏墓域)

분당 신시가지의 중심지역인 분당 중앙공원내에 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분당구 수내동 산 1-2번지 일대의 구릉들에 위치한다. 묘로서는 고려말 성리학(性理學)의 대가인 목은(牧隱) 이색(李穡)선생의 4대손인 이장윤(李長潤)을 비롯하여 조선 중·후기 세손 무덤들이 잘 모셔져 있으며 무덤에 부속된 석물들도 잘 남아 있다. 묘역에 분포하고 있는 묘의 주인공은 다음과 같다.

이 름	묘 비 명	비 고
李長潤(이장윤)	通訓大夫行奉化縣監李公長潤之墓淑夫人高靈朴氏之墓同崗異室艮坐坤向	
李 秩(이 질)	朝鮮嘉善大夫韓城君李公秩之墓貞夫人茂松尹氏祔後	
李 增(이 증)	朝鮮正憲大夫禮曹判書鵝川君韓山李公增之墓配貞夫人慶川李氏祔左	
李 濮(이 집)	有明朝鮮通政大夫守黃海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海州牧使韓山李公濮之墓貞夫人杞溪兪氏祔左	
李 程(이 정)	朝鮮贈戶曹參判行禦侮將軍忠佐衛副護軍韓山李公諱程之墓配贈貞夫人長水黃氏祔左配貞夫人昌原黃氏階下	
李之芄(이지환)	朝鮮贈左承旨行禦侮將軍忠義衛副司直韓山李公諱之芄墓贈貞夫人慶山金氏祔左	
李之菽(이지숙)	朝鮮宗廟署令贈吏曹判書韓平君李公之菽之墓贈貞夫人善山金氏祔左	
李 穫(이 확)	贈通訓大夫掌樂院正行通訓大夫玄風縣監大邱鎭營兵馬同僉節制都尉韓山李公穫之墓淑夫人全州李氏淑夫人東萊鄭氏祔左	
李廷龍(이정룡)	有明朝鮮贈吏曹參判行金堤郡守李公諱廷龍之墓貞夫人濟州梁氏祔左	
李 澳(이 오)	朝鮮通訓大夫富平府使李公諱澳之墓淑夫人南陽洪氏祔左淑夫人竹山安氏祔右	
李 坦(이 탄)	通政大夫宗親府典簿韓山李公諱坦之墓淑夫人淸風金氏之墓合定	

이 름	묘 비 명	비 고
李 漢(이 한)	處士韓山李公漢之墓	
李秉健(이병건)	有明朝鮮國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御都摠府副摠管行通訓大夫行戶曹正郎韓山李公諱秉健之墓配貞夫人南陽洪氏祔左	
李山重(이산중)	軍資監正韓山李公山重之墓配貞夫人楊州趙氏祔左艮坐後配贈貞夫人潘南朴氏墓自票遷祔右	
李慶流(이경류)	朝鮮忠信兵曹佐郎贈都承旨李公慶流之墓	
李經洪(이경홍)	生員李慶洪墓	
李 彝(이 이)	有明朝鮮國通政大夫弘文館副提學韓山李公德重子彝之墓贈貞夫人豊山洪氏祔左	
李 浹(이 협)	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經筵義禁府使五衛都摠府都摠管成均進士韓山李公浹之墓贈貞夫人淸州韓氏祔左	
李秉恒(이병항)	中訓大夫行獻陵直長韓山李公秉恒之墓淑人南陽洪氏祔左	
李獻重(이헌중)	贈嘉善大夫吏曹參判行陽城縣監韓山李公獻重之墓贈貞夫人安東金氏祔左	
李秉泰(이병태)	通政大夫弘文館副提學兼經筵參贊官知製敎淸白吏贈資憲大夫吏曹判書諡文淸韓山李公秉泰之墓贈貞夫人潘南朴氏貞夫人晋州柳氏	
洪晬元(홍수원)	處士洪公晬元之墓儒人韓山李氏祔左	
李慶涵 婦人 (이경함 부인)	李慶涵貞夫人全州崔氏貞夫人全義李氏墓	
李慶流 婦人 (이경류 부인)	朝鮮忠臣李公慶流配贈淑夫人橫城趙氏之墓	

이상의 한산이씨 묘외에 韓山李氏三世以下遺事碑(한산이씨삼세이하유사비), 李增神道碑(이증신도비), 李慶流旌閭碑(이경류정려비), 李廷龍神道碑(이정룡신도

비), 韓山李氏墓山入首碑(한산이씨묘산입수비)가 있는데 묘산입수비는 분당 중앙공원 조성시 현 위치로 옮겼다.

◎전주이씨 태안군파 묘역(全州李氏泰安君派墓域)

분당구 정자동 산 33-1에 있다. 전주 이씨 태안군 이팽수(李彭壽)묘는 정자동 산 11-1에 있었던 것을 분당신도시 개발관계로 1991년 현 위치로 이전 복원하였다. 이팽수는 임진왜란시 임금을 호위한 공신이며 정의대부(正義大夫) 태안군으로 봉해졌고 오위도총부도총관(五衛都摠府都摠管)에 추증되었다. 묘 앞에는 상석, 묘비, 혼유석이 있고 문인석 2개가 좌우로 마주보고 서 있다.

그리고 태안군의 종손인 이경인(李敬仁)묘도 함께 있다. 이경인(1575-1642)은 인조때 이괄(李适)의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웠고 함흥판관(咸興判官), 안산현감(安山縣監), 이천도호부사(利川都護府使)를 지냈다.

묘앞에는 상석, 혼유석, 묘비가 있고 망주석 2개와 문인석 2개가 좌우로 마주보고 있다. 묘비에는 通政大夫行利川府使李公敬仁之墓淑夫人南陽洪氏祔左(통정대부이천부사이공경인지묘숙부인남양홍씨부좌)라 새겼다. 이 묘역은 경기도 기념물 118호로 지정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내동의 한산 이씨 묘역과 정자동의 전주 이씨 태안군파 묘역은 조선시대 중·후기의 문중의 묘가 원형그대로 잘 보존되어 내려옴으로써 묘역에 세워둔 비석이나 신도비의 금석문 등을 통해서 16세기 이래의 조선 사대부집안의 묘제 변천사와 조각사 연구에 좋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집선생묘(李集先生墓)

중원구 하대원동 산 7-1에 위치하며 고려시대 학자이며 문신인 이집(1327-1387)선생의 묘다. 선생의 호는 둔촌(遁村), 묵암자(墨岩子)로 고려말의 정몽주(鄭蒙周), 이색(李穡), 이숭인(李崇仁) 등과 교류했다.

묘 앞에는 상석, 혼유석을 비롯, 묘비, 문인석, 장명등이 갖추어져 있고 신도비도 서 있다. 묘비는 1663년 다시 세웠다. 성남시 향토유적 2호로 지정되었다.

◎정일당묘(靜一堂墓)

분당구 금토동 청계산 기슭에 있는데 남편 윤광연(尹光演)과 합장되었다. 정일당(1772~1832)은 조선후기의 여류문인으로 특히 해서(楷書)를 잘 썼다고 하며 호가 정일당이다. 성남시 향토유적 1호로 지정되었다.

5. 전통건축

◎덕양군사당(德陽君祠堂)

성남시 궁내동 산 17-1에 조선 중종의 다섯째 아들인 덕양군 이기(李奇)의 묘 앞에 그의 위패를 모시기 위해 마련된 사당 건물이다. 전통적인 목조기와집으로 지붕은 팔각이다. 사당의 명칭은 정희사(靖僖祠)이다.

◎한산이씨 종가댁 사당(韓山李氏宗家宅祠堂)

분당구 수내동 중앙공원내에 있는 한산 이씨 종가 댁에 속한 건물로 앞면 3칸, 옆면 1칸의 단층 목조기와집이고 맞배지붕이다.

◎수내동 가옥(藪內洞家屋)

분당구 수내동 84에 위치하고 있다. 수내동의 분당 중앙공원내에 있는 한산 이씨 종가댁 사당 옆에 원형대로 남아 있다. 이 가옥이 있었던 곳은 원래 한산 이씨 집성촌으로 70여호의 마을로 조성되어 있었으나 6.25동란으로 피해를 입었고 더구나 분당의 중앙공원이 조성되면서 유일하게 지금의 건물만 남아 경기도 문화재자료 78호로 지정되었다.

조선후기 이 지방 전형적인 농촌초가집의 형태를 잘 보존하고 있는데 대지 200여평에 안채 8칸, 행랑채 6칸의 규모인데 안채는 1칸 안방, 2칸 대청, 건너방 1칸, 부엌 1칸으로 구성된 ㄱ자형으로 배치된 규모가 큰 초가집이며 행랑채는 안채보다 조금 낮은 곳에 마련했는데 대문간을 중심으로 우측의 3칸 중 2칸은 마루바닥의 광이고 대문간에 붙은 1칸은 온돌방으로 되어있다. 한산 이씨 집안에서 대대로 살아오던 집이다.

6. 관방유적(關防遺蹟)

◎천림산봉화터(天臨山烽火址)

분당구 수정구 금토동 32번지 일명 달이내고개에 위치하고 있는 조선시대의 봉화터로서 서울의 남산과 남쪽의 용인 석성봉수를 연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던 것이다. 즉 천림산 봉수는 남쪽의 위급한 사항을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횃불로 알려 최종적으로 남산에 설치된 봉수에 알리는 위치에 마련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봉수였는데 1997년 그 위치가 확인됨으로써 학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현재 평면 장방형의 좁은 대지에 봉화 불을 올리는 시설의 일부가 파괴된 채로

남아 있다. 원래 다섯 개의 봉화를 올리는 연대(烟臺)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지금은 겨우 3개의 연대 터만 확인된다.

7. 기타유적

◎망경암칠성단(望京庵七星壇)

수정구 복정동 58-8의 망경암마애여래좌상이 있는 곳의 산 정상에는 칠성단터가 있다. 망경암의 비각에 있는 광무 2년(1898)에 세운 칠성대중수비에 보면 영장산(靈長山)에 있는 망경암(望京庵)과 칠성대(七星臺)는 고려시대 역대 임금이 친히 이곳에 와서 나라의 안녕을 빌었다고 하며 조선시대 평원(平原)과 제안(齊安) 두 대군이 칠성대에 단(壇)을 설치하고 분향하여 충효를 다한 곳이라고 새겨져 있으므로 보아 알 수 있고 또 대를 칠성이라 한 것은 칠성에 빌면 하늘이 감동하여 임금님의 수명을 더해주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로 보아 이 칠성단은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칠성대를 조선 전기에 들어와 단을 설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망경대(望京臺)

성남시와 과천시의 경계인 청계산정에 고려 유신(遺臣) 조윤(趙胤)이 조선조 성립 후 이곳에서 고려 수도 개성을 바라보면서 통곡으로 나날을 보내고 결코 조선조에서는 벼슬하지 않았다는데 사람들은 그의 충절을 기려 이곳을 망경대라 불렀다고 한다.

8. 남한산성(南漢山城)과 유적 · 유물

남한산성은 행정구역상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 광주군이 함께 아우르고 있는 문화유산이다. 산성의 대부분이 현재 경기도 광주군에 속하고 있지만 성남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어 성남시의 문화유적 · 유물에 포함 설명하기로 한다.

남한산성은 최초 백제의 수도였던 위례성의 후방 방어산성으로써의 기능을 위해 축성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오고 있으며 신라 진흥왕 때인 서기 553년에 신라가 백제의 동북부를 공략하여 신라 영역이 됨으로써 신라 문무왕 12년(672)에 주위 4360보의 성곽을 축조하여 주장성(晝長城) 일명 일장성(日長城)이라 하여 외적의 침입을 막을 요쇄지로 하였다.

조선 선조왕때인 임진왜란을 겪고 도성이 쉽게 함락되자 병란과 외침을 막기

위한 산성축조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어 조선 선조 때 부분적으로 수축되기 시작했다. 오늘날의 남한산성 성곽 모습으로 된 것은 조선 인조 때부터 본격적으로 수축함으로서 이다. 그것은 나라의 유사시 국왕과 도성을 방어하고 왕실의 피난처로서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조 때 수축된 규모는 안 둘레 6,279보(步), 17리반이고 바깥둘레 7,295보로서 20리 95보였다. 여첩(女堞)은 1,940타(垜), 옹성(甕城) 4곳, 암문(暗門) 9곳, 군포(軍鋪) 135곳, 장대(壯台) 4곳의 시설이 마련되었던 것이다. 그 후 숙종 12년(1686) 봉암신성(峰岩新城)을 증축하였는데 둘레 962보 7리 여첩 294타, 암문 4곳, 군포 15곳을 신축했고 그 후 숙종 19년(1693)에는 봉암과 한 봉 사이에 돈대(墩台) 설치, 또 숙종 31년(1705)에 포루(砲壘)를 설치하였다. 그 후 정조 3년(1779)에 대대적인 수축을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현재의 남한산성의 성곽 모습은 성의 둘레 약 8km에 동에는 좌익문(左翼門), 서에는 우익문(右翼門), 남에는 지지문(至知門), 북에는 전승문(全勝門) 4문(四門)이 있는데 문을 모두 아치형으로 만들었다. 문 위에는 문루와 성가퀴가 마련되어 있고 누각은 목조의 단층기와건물이며 면적 528.462㎡(약 160,000평)에 달한다. 성벽은 부분적으로 보수가 진행되고 있다.

〈성내의 사찰과 절터〉

남한산성 내에는 신라시대의 절로 전해오는 망월사(望月寺)와 옥정사(玉井寺)를 비롯하여 조선시대 남한산성의 축성과 수성을 위하여 개원사(開元寺)를 비롯 7개의 사찰이 마련되어 모두 아홉 사찰이 존재했으나 법통이 끊겨 터만 남아 있는 곳도 있다.

◎망월사(望月寺)

신라시대 망월암이 있었던 곳으로 전하고 있는 산성내 가장 역사가 오래된 절이다. 조선 태조 때 한양에 도성을 세울 때 한양에 있었던 장의사(壯義寺)를 허물었는데 그 때 법당에 모셨던 불상과 금자화엄경(金字華嚴經) 한 벌과 금솥(金鼎) 하나를 망월사에 옮겼다는 기록이 있다. 지금의 모습은 1980년대 들어와 성법(性法)이 새롭게 중창하였다. 지금의 적멸보궁에는 성법스님이 인도의 간디수상으로부터 직접 받아온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하였고 현재의 13층 적멸보궁탑은 병자호란시의 전몰장병 등 전란에 희생된 영혼을 달래기 위해 세운 석탑이다. 전체 절터는 경기도 기념물 제111호로 지정되어 있다.

◎옥정사(玉井寺)터

산성의 북문 안 남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경내에 옥구슬 같이 맑은 우물이 있어 가뭄에도 마르지 않기 때문에 이름을 지었다고 전하고 있다. 망월사와 더불어 신라의 고찰이었으나 지금은 조선시대의 맷돌 아랫부분이 남아 흔적만 남기고 있을 뿐이다.

◎개원사(開元寺)

개원사는 조선 인조 2년(1624)에 임진왜란으로 파손된 남한산성을 수축하고 지키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승병들을 총지휘하기 위한 본부로 사용하기 위해 창건된 사찰로서 그밖에 망월사와 옥정사 외 6개의 사찰을 더 창건하여 개원사를 본영사찰로 하고 나머지 여덟 사찰에는 각도의 승병이 주둔해 있게 되어 개원사는 조선 승병의 총지휘만 하였던 것이다. 조선 고종 31년(1894) 갑오경장 이후 산성의 승번제도가 폐지되면서 퇴락의 길을 걷다 1907년 8월 1일 산성의 무기 수거령과 화약 현지폭파로 폐사되어 법당터, 군기고터, 종각터 등 터만 남아 있다 1970년대 들어와 중창 공사를 이루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조선시대 호국승군의 본영사찰이었다.

◎국청사(國淸寺)

조선 인조 2년(1624)에 남한산성 수축을 위해 8도에서 모인 승군의 군막사찰로 건립되었다. 법당의 천정안에서 화약을 제조하고 법당에서는 예불을 했다는 말이 전해오고 있다. 1907년 8월 1일 사찰 내의 무기고와 화약폭파로 없어져 터만 남아 오다가 최근 재건되었다. 이 사찰에는 조선 세조 때 사육신의 한사람인 성삼문(成三問)의 친필 병풍과 우암 송시열의 친필 책 3권이 보관되고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없어져 행방을 모르고 있다. 국청사 우물은 피부질환자에게 좋은 물로 전해 많은 사람이 찾기도 한다.

◎장경사(長慶寺)

조선 인조 2년(1624) 남한산성 수축시 전국에서 축성을 위해 징집된 승군의 숙식과 훈련을 위해 마련된 소위 군막사찰로서 병자호란 때에는 270명의 승군이 청군과 대치하여 성을 지키는데 일조 했다. 그 후 고종 때까지 승군이 유지되어 오다 갑오경장으로 해산되었으나 법통은 계속 이어져 오다 1975년 화재로 소실되었다. 그 후 다시 중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대웅전의 건물은 木造기와집으로 팔각지붕에 처마가 이중으로 겹쳐진 다포집 계통이다. 앞에서 보아도 3간, 옆에서 보아도 3간 건물로 앞면의 한 칸마다 사분합문(四分閤門)을 마련한 전형적인

조선 후기의 건물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5호로 지정 보호받고 있다.

◎천주사(天柱寺)터

장경사와 같이 조선 인조 2년(1624)에 남한산성 축성을 위해 전국에서 징집된 승군의 소위 군막사찰로 건립되었으나 지금은 그 터에 주춧돌과 돌절구만 남아 있다.

◎동림사(東林寺) 터

벌봉아래에 있었던 절로 남한산성 성벽에 인접하여 축대가 남아 있고 지금도 사용 중인 우물과 당시에 사용했던 맷돌 한 짝이 남아 있다. 남한산성에 9개 사찰 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절이었다.

◎한흥사(漢興寺) 터

조선 인조 2년(1624)에 벽암 각성선사가 이 절 이름을 조선이 영원히 흥한다는 의미로 부여하여 작명했다는 말이 전하고 있다. 지금은 주춧돌만 남아 흔적만을 보이고 있다.

◎남단사(南壇寺) 터

조선 인조 2년(1624) 남한산성 축성을 위해 모인 팔도 승군의 군막사찰로서 건립되었으나 1907년 8월 1일 사찰에 있던 무기고와 화약고가 현지 폭파됨으로써 법통이 끊겼다. 현재는 주춧돌, 맷돌 등 당시의 흔적만 남기고 있다.

〈산성내 부속건물과 터〉

◎수어장대(守禦將臺)

남한산성의 4대장대 중 하나로 병자호란 때 인조가 잠시 이곳에서 수어군(守禦軍)을 지휘하여 청 태종의 13만 대군과 대치하여 항전하던 곳이며 2층 누각 건물이다. 수어장대란 산성을 지키기 위해 수어사가 지휘·명령하는 곳을 말하는데 인조 때(1624-1626) 처음 건립할 당시에는 단층 건물로 서장대(西將臺)라 하였으나 영조 27년(1751)에 광주유수(廣州留守) 이기전이 현재의 모습으로 2층 누각으로 증축하여 안쪽 편액을 무망루(無忘樓), 바깥쪽 편액을 수어장대라 이름하였다. 아래층은 정면에서 보면 5칸, 측면에서 보면 3칸이고, 팔각지붕 양식의 기와집이며 남한산성 내 현존하는 건물 중 가장 웅장한 건물이나 반면 누각의 높이

비례가 1층의 지붕보다 2층의 지붕이 훨씬 높게 건립되어 2층이 1층을 누르는 형태로 날렵한 모습은 아니다. 무망루란 말은 병자호란 때 인질로 잡혀 청나라에서 오랜 억류생활을 하다 귀국하여 왕위에 오른 효종이 그 치욕을 갚기 위해 북벌을 계획하다 돌아감에 후대에 와서 영조가 무망루라 이름하여 선왕의 청나라에 대한 복수를 잊지 말자는 물망(勿忘)의 교훈으로 2층 누각 건물로 증축하게 하고 無忘樓(무망루)라는 간판을 달게 했던 것이다. 영조왕과 정조왕은 효종이 묻힌 여주에 있는 영릉을 참배한 후 반드시 이곳 무망루에 와서 효종의 북벌의 한을 되새겼던 곳이다. 경기도 유형문화재 1호로 지정되어 보존하고 있다.

◎숭렬전(崇烈殿)

백제의 시조 온조왕(溫祚王)의 위패를 모시기 위해 마련된 건물이다. 원래 직산에 있던 온조사당을 인조 17년(1639)에 옮겨온 것이다. 이유는 병자호란시 남한산성에 피해있던 인조왕이 온조왕의 도움으로 청나라의 군사를 물리치는 꿈을 꿈으로써 이곳이 바로 백제의 옛 도읍지였다는 새로운 해석을 내려 직산에 있던 온조사당을 옮기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정조 19년(1795)에 숭렬전이라 편액을 내렸다. 현재 경기도 유형문화재 2호로 지정되어 있고 사당은 앞면 3칸, 옆면 2칸의 맞배지붕으로 단층 목조기와집이다. 그리고 동쪽의 재실과 서쪽의 재실 및 외삼문(外三門)이 남아 있으나 외삼문 안쪽으로 누각 형태의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터와 주춧돌이 잘 남아 있다. 남한산성 축성시 공이 있는 이서(李曙)의 위패도 모시고 있다.

◎청량당(淸凉堂)

조선시대 남한산성 축조에 공이 있는 이회(李晦)장군의 원혼을 위로하기 위해 세운 사당(祠堂)건물이다. 본 건물은 앞면 3칸, 옆면 2칸, 단층, 팔작지붕으로 목조기와건물이며 청량당은 경기도 유형문화재 3호로 지정 보호받고 있다. 인조 2년(1624) 남한산성 축성 당시 총책임자는 이서(李曙)였고, 동남편의 축성은 이회(李晦) 장군이 맡고 서북편의 축성은 벽암대사(碧岩大師)의 승병(僧兵)이 나누어 맡아 했는데 정해진 기간 내에 이회는 책임량을 완수하지 못하자 시기했던 무리들이 공사가 미진한 이유는 공사비를 탕진한 것이라 무고하여 이회가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당시 이회는 죽는 순간까지 무고에 대한 변명 없이 다만 내가 죽는 순간 매 한 마리가 날아 올 것이다. 만약 매가 오지 않으며 죄가 있어 죽어 마땅하나 매가 날아오면 나에게 죄가 없다고 하고 죽었다는데 과연 매가 날아와서 바위에 앉았는데 지금도 수어장대 앞에 매바위가 있으며 바위에는 守御西台(수어서대)라는 네 글자가 새겨져 있다. 한편으로 이회는 처와 첩을 삼남지방

에 보내 축성자금을 모금하여 돌아오는 길에 남편의 비보를 듣고 투신자살했다는 사연도 간직하게 되었다. 그 후 이회가 무고로 사형 당한 것이 밝혀지게 되어 그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사당을 세우고 이름을 청량당이라 했는데 사당에는 이회와 벽암대사 그리고 이회 장군의 부인과 첩이었던 소당의 초상화가 걸려있다.

◎현절사(顯節祠)

조선 인조 14년(1636) 병자호란시 청나라와 화친을 반대한 유명한 척화신(斥和臣)인 삼학사(三學士)의 충혼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사당 건물로서 경기도 유형문화재 4호로 지정되어 있다.

병자호란시 청나라 태종이 13만의 군사를 동원하여 조선을 침공했을 때 인조왕은 도성을 떠나 이곳 남한산성으로 옮겨와 친히 수성군을 지휘하며 45일간을 항전했는데 당시 신하 가운데는 이조판서 최명길(崔鳴吉) 등 주화파(主和派)와 예조판서 김상헌(金尙憲) 등 주전파(主戰派)로 나누어져 대립된 논쟁이 계속되다 결국 주화파의 주장으로 강화조약을 맺게 되었다. 조약가운데 주전파 인사를 청나라에 인질로 보낸다는 조항에 따라 주전파 가운데 당시 사헌부 장령인 홍익한(洪翼漢), 통문과 교리 오달제(吳達濟), 통문관 부교리 윤집(尹集) 세사람이 청나라로 끌려가서 끝내 처형되었던 것이다. 이들을 삼학사로 부르게 되었고 숙종 14년(1688)에 백성에게 이들의 충절을 알려 귀감이 되도록 당시 광주유수 이세백(李世白)에게 지시하여 사당을 세우게 하고 5년 후에 현절사(顯節祠)라 하게 하고 숙종이 사액(賜額)했다. 그 후 숙종 37년(1711)에 병자호란시 주전파의 우두머리였던 김상헌과 정온(鄭蘊)을 추가해서 배향하도록 했다. 건물은 앞에서 보면 3칸, 옆에서 보면 2칸의 단층목조기와건물로서 맞배지붕이다. 부속건물로서 동쪽의 재실과 서쪽의 재실이 있고 일주문(一柱門)이 안팎에 하나씩 세워져 있다.

◎침괘정(枕戈亭)

조선 인조 2년(1624) 남한산성 수축 당시 공사를 총괄했던 이서(李曙)가 숲속에 방치되어 있던 옛 건물을 발견했다는데 그 후 영조 27년(1751)에 광주유수 이기전(李箕銓)이 이 건물을 중수하고 침괘정이라고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 인조 2년보다 앞선 시기에 건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건물은 단층의 팔각지붕, 목조기와집으로 앞에서 보면 7칸, 옆에서 보면 2칸이며 처마는 겹처마이고 온돌이 마련되어 있으며 동서북쪽 퇴칸을 마련 마루를 놓았다. 경기도 유형문화재 5호로 지정되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건물 우측에 세웠던 군기고(軍器庫)건물을 명나라 사신 정용(程龍)이 총융무고(摠戎武庫)라고 했다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이 침괘정은 무기고 또는 무기제작과 관련이 있었던 건물로 생각된다. 한편으로 침괘

정이 있는 위치에 백제 온조왕의 궁궐터라고 전해오기도 한다.

◎연무관(演武館)

잘 다듬은 장대석을 사용하여 만든 기단 위에 잘 다듬은 높은 초석에 기둥을 세워 앞에서 볼 때 5칸, 옆에서 볼 때 3칸의 목조기와집으로 팔각지붕이다. 건물후면의 1칸은 마루가 없이 복도로 이용되게 했고 그 외는 마루바닥이다. 건물의 최초 건립연대는 정확하지 않고 조선 숙종때에 와서 그전까지 演武館(연무관)으로 부르던 것을 鍊武館(연무관)이라 개칭하고 수어사 김재호(金在浩)로 하여금 개수토록 했다. 그 후 정조때 와서는 수어영이라 다시 고쳐 부르게 되었으나 통칭 연무관(演武館)으로 불려져 오고 있다. 조선시대 무술을 연마하던 곳임을 알게 하며 경기도 유형문화재 6호이다.

◎지수당(池水堂)

연못을 파고 건립한 누각건물이다. 앞에서 보면 3칸, 옆에서 보아도 3칸의 단층 목조기와건물로서 지붕은 팔작이다. 마루바닥을 깔고 가장자리를 따라 낮은 난간 형태의 차단 막을 설치했고 사방이 트이도록 했을 뿐 부속시설은 없다.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14호이며 건립당시에는 ㄷ자 형태의 연못을 파서 연못이 정자를 둘러쌓도록 만들었으나 지금은 ㄴ자 형태의 연못으로 남아 있다. 이 지수당은 조선 현종 13년(1672) 부윤(府尹) 이세화(李世華)가 당시 벼슬하던 사람들이 연못에 낚시하면서 풍류를 즐기기 위해 건립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건물 곁에는 이세화의 선정비가 있다. 비문은 「府尹李卿世華淸德民善政碑)라고 새겨져 있다.

〈산성내 기타유물〉

◎남장대옹성무인비(南將台甕城武寅碑)

남한산성 남장대 밖으로 마련되어 있는 옹성의 홍예문 축조시 사용했던 돌에 새긴 것으로 길이 115㎝, 폭 60㎝ 크기의 돌에 105자가 새겨져 있다. 인조 16년(1638)에 남한산성 재수축시 감독관의 관직이름과 동원된 목수, 장인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병암남성신수축기비(屛岩南城新修築記碑)

수어장대에서 약 200m거리에 있는 병풍바위에 새겨져 있는데 정조 3년(1779)에 남한산성을 재수축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봉암신성병인마애비(蜂岩新城丙寅磨崖碑)

남한산성의 외성인 봉암성의 봉암바위에 새겨져 있는데 숙종 12년(1686)에 봉암산성을 수축한 내용을 새겨두었다.

〈산성내 없어진 건물〉

◎행궁 : 유사시 임금이 거처한 건물

- 상궐(上闕) 73칸 인조2년(1624)건립
- 하궐(下闕) 154칸 인조2년(1624)건립
- 좌전(左殿) 26칸 : 종묘(宗廟)를 모신 건물, 숙종 37년(1711)건립
- 우전(右殿) 34칸 : 사직(社稷)을 옮길 건물, 숙종 37년(1711)건립
- 재덕당(在德堂) : 정조 22년(1798)건립
- 한남루(漢南樓) : 정조 22년(1798)건립
- 인화관(人和館) : 손님이 거처할 객관, 인조 2년(1624)건립

◎관청건물

- 좌승당(左勝堂) : 순조 17년(1817)건립
- 일장각(日長閣) : 순조 29년(1829)건립
- 수어청(守禦廳) : ?
- 제승헌(制勝軒) : 영조 24년(1748)건립

◎누·정

- 관어정(觀魚亭) : 지수당 연못안
- 유차산루(有此山樓) : 좌승당 뒤
- 완대정(緩帶亭) : 하궐 서쪽
- 우희정(又喜亭) : 완대정 아래
- 이위정(以威亭) : 좌승당 오른쪽
- 수운루(垂雲樓) : 남장대 위 : 정조 12년(1788) 건립
- 이명정(以明亭) : 이위정 왼쪽
- 구송정(九松亭) : 한흥사 뒤 : 인조 14년(1936) 건립
- 옥천정(玉泉亭) : 행전 뒤

◎군사시설

- 비장청(裨將廳)

- 교련청(敎鍊廳)
- 기패청(旗牌廳)

◎장대(將台)

- 동장대(東將台)
- 남장대(南將台)
- 북장대(北將台)

◎기타

- 영고(營庫)
- 보장고(保障庫)
- 성기고(城機庫)
- 보향고(補餉庫)
- 보관고(補關庫)
- 군기고(軍器庫)
- 병방소(兵房所)
- 복호소(復戶所)
- 고마소(雇馬所)
- 조량소(助粮所)
- 환두소(環頭所)
- 승창(僧倉)
- 종각(鐘閣)
- 마구(馬廐)
- 뇌옥(牢獄)
- 성황당(城隍堂)
- 려단(勵壇)

〈현존하는 건물터〉

◎행궁터(行宮址)

상·하궐터의 기단과 초석이 남아 있고 아울러 행궁에 딸린 부속 건물 터도 남아있으며 경기도 기념물 164호로 지정되었다.

◎장대터(長台址)

남장대터, 북장대터, 동장대터는 원래의 위치에 남아 있다.

광주 및 성남지역의 민속

장 철 수

1. 문헌에 나타난 풍속

광주지역의 풍속에 대한 기록으로 가장 오래 된 것은 16세기 중반에 편찬된 {신증 동국여지승람}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의 글에서 볼 수 있듯이 아주 간단한 내용이다. 그것도 모두 중국의 역사책에서 인용한 것뿐이다. 이에 대해서 19세기 후반에 홍경모(洪敬謨 1774-1851)선생이 편찬한 {중정 남한지(重訂 南漢志)}에서 비교적 자세히 논술하고 있다. 그 내용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 역사책인 수서(隋書)에 이르기를, 백제의 풍속은 말타기와 활쏘기를 숭상하며 경서(經書)와 역사(歷史)를 즐겨 읽고, 행정일에 능할 뿐 아니라 의약을 사용할 줄 알며, 거북점을 치는 술법이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하였다. 또 이르기를 혼인하여 장가드는 예법은 대개 중국의 것과 같으며, 양손을 땅에 짚고 엎드리는 것으로 존경하는 예를 삼는다고 하였다. 남사(南史)에 이르기를, 백제인은 의복이 깨끗하다고 하였다. 北史에 이르기를, 백제인은 부모와 남편이 죽었을 때는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그 나머지 친족은 장사만 지내면 벗는다고 하였다.

이것은 '여지승람'에 실린 광주 풍속의 내용이다. 이 고을은 백제의 옛 도읍지이기 때문에 중국사의 백제전(百濟傳) 가운데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광주 땅의 풍속이라고 하여 실었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문헌으로 징험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무릇 우리 나라는 기자(箕子)의 교화를 겪은 나라로서, 순미한 데 젖음이 아주 먼 옛날부터 그 꼬투리가 있었다. 따라서 그 사람됨과 천성의 유순함이 다른 외방과 다르기 때문에 드디어 이와 같은 예속을 이룬 것이다. 백제는 신라·고구려와 때를 같이 하여 삼국을 이루었으니, 언어와 복장은 고구려와 같았고, 세시 명절과 복날, 그리고 섣달의 풍속은 중국을 본떴다. 고려가 삼국을 통일하자 백성들의 풍속이 일찍부터 같아졌고 때와 더불어 변천하여 왔다. 본조에 이르러서는 어진 현인의 말씀으로서 교화하고 예양의 아름다움으로써 가르쳐 비록 변방에 있다고는 하나 위연히 중국 제나라와 노나라의 기운을 지녀왔다.

그러나 산야가 모습을 달리하고 수륙이 습속을 달리하니 이는 애초부터 당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민속학 교수

한 이치와 성세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나 팔도의 안에 대해 말할 지라도 경기도와 관동지역은 땅이 예맥에 가까워 그 사람됨이 성실하고 욕심이 적으며, 호서지역과 해서지역은 본시 마한땅이라 그들은 밭농사와 누에치기를 알고 면포를 만들줄 알았으며, 교남지역은 본시 진한이라 땅은 넓고 물자가 많아 실속이 많고 허식이 적으며, 호남지역은 본시 변진땅이라 그 사람됨이 속임수가 많고 재주를 자랑하며, 관서지역과 관북지역은 활쏘고 말타기를 숭상하며 병졸이 정강하다.

광주는 경기지방 안에 있으며 옛날 백제의 땅이다. 땅은 메마르고 풍속은 억세지 못해 누에치기와 농사는 하건만 자급 자족하지 못하여, 산성에 사는 사람에 이르러서는 밭갈지 않고 앉아서 먹어 관에서 대어주기를 기다리니, 사람들이 절검하고 소박하기는 하다.

옛날 비류는 인천에 살고 온조는 위례를 다스렸을 때 인천땅은 물이 짜고 살기 힘들어 비류의 무리들이 위례로 돌아 왔으니 땅의 비옥하고 척박하기가 판이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위례 또한 산천이 넉넉치 않았으나 온조는 능히 근검하게 곡식 심고 농사 짓는 데 힘써 비로소 생활의 안정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대저 한강은 남북으로 땅이 박하고 쌓인 것은 적어 사람들은 가난을 근심했으나 온조가 천도하고부터 다루왕이 대를 이어 벼논을 만들고 농잠을 권해 궁핍함을 건져 내려고 한 나라의 임금이지만 몸소 밭가는 수고로써 그 업을 이뤄낸 것이라. 옛날 중국의 요임금과 순임금, 그리고 하나라 우왕의 도성이 모두 하동에 있었다. 여기는 땅이 메말랐건만 세 성인이 모두 근검으로 습속을 이뤘던 때문에 시인 이찰(李札)도 당나라와 위나라의 시를 보고 그 도당(陶唐)[1]씨의 풍이 있음을 알았다 하거니와, 나도 광주에서 백제의 유풍이 있음을 알았다 하리로다.

2. 문헌에 나타난 민속놀이

1936년에 조선총독부에서 조사하여 1941년에 간행된 {조선의 향토오락}에 나타난 광주·성남지역의 민속놀이는 다음과 같다. 지금은 대부분의 놀이가 사라졌지만, 노인분들게 여쭈어 보면 간혹 복원할 수 있는 놀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 가운데 개인놀이는 생략하고, 집단놀이를 뽑아 참고삼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요임금을 가리킴

1) 달맞이

정월 보름에 뜨는 달을 맞이하면서 신수안과태평이라고 외치기도 한다. 월출을 먼저 본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하여 널리 행해진다. 복이란 농부라면 수확이 많고, 관리라면 승진하고, 총각이라면 장가를 들고, 아이없는 이는 자식을 얻게 되고, 학생이라면 과거에 급제함을 말한다. 곳에 따라서는 부락근처에서 뜨는 달이 잘 보이는 곳에 싸리로 크게 단을 만들고, 그 주위에 축문을 쓴 종이 깃발을 세운다. 어린이들은 따로 작은 횃불을 만들어 나이 수대로 끈을 묶어 달이 뜰 때 그 횃불을 들고 달에 절을 한다.

2) 다리밟기

정월 보름에 각자 옷을 차려 입고 근처의 다리를 건너 다닌다. 부인들은 음식물을 물에 던져 넣으며 복을 빌기도 한다. 이전에는 마을의 남자들이 어린이를 어깨에 태워서 무동춤을 추면서 농악대를 선두로 행진하다가 다리 위나 그 부근에서 주연을 베풀었다. 그러면 나온 사람들은 농악에 맞추어서 춤을 추며 밤새는 줄도 모른다. 또 술을 낸 마을 유지의 집을 찾아가서 마당에서 춤을 추며 놀기도 한다. 이 놀이는 특히 현재 서울특별시 송파지역에서 성했다.

3) 줄다리기

정월이나 7월에 하는데, 같은 마을 사람들끼리 줄다리기를 할 때에는 마을의 가운데를 가로 지르는 길이나 개울을 경계로 하여 윗마을·아랫마을로 나누어 승패를 겨룬다. 진 편이 술과 음식을 내 함께 즐겁게 논다. 마을 대항으로 할 때는 시장터에서 한다. 마을 단위로 할 경우, 마을에 따라서는 남녀로 편을 갈라서 하는데, 이 때 미성년자들은 여자편이 된다. 줄은 줄 머리를 고리모양으로 만든 암줄과 줄머리를 막대기 모양으로 만든 숫줄을 마주 대어 잇는데, 이 때 농악으로 흥을 돋운다. 이 줄다리기로 마을을 떠들썩하게 하므로써 연중에 마을에 드는 재액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이 줄다리기는 특히 현재의 성남지역인 낙생면과 돌마면에서 성했다. 줄다리기를 현재 분당구 판교동에서는 '쌍룡거줄다리기'라고 부르고 있으며, 황룡줄은 처녀·총각·부녀자가 편을 이루고, 청룡줄은 기혼 남자가 편을 이룬다. 이 쌍줄은 용두라고 하는 줄머리에 원형 고리를 크고 작게 만들어 각각 메고 동네를 돌거나, 잇기 전에 암줄은 피해 다니고 숫줄은 끼우려고 하는 해학적인 용돌림놀이를 한다. 보름달이 중천에 뜨면 이러한 전위놀이를 끝내고, 끼워서 비녀를 꽂고 3번 겨루는데, 황룡줄이 이겨야 풍년이 들고 마을 전체가 재난이 없고 평온하게 살아 간다고 하는데, 전설에 따라 화룡줄이 이기고 있다.

4) 풍계묻이

정월에 부녀자들이 두편이나 세편으로 갈라 앉아서 가위 바위 보로 선후를 정하고 이긴 편부터 시작한다. 작은 콩같은 것을 풍계묻기(보물감추기)라고 하면서 자기편의 어디엔가 숨긴다. 상대편은 숨긴 물건을 찾아 내야 하는데 못 찾으면 진다. 여자들의 실내 오락으로 일반 부녀자들은 정월에, 여자 아이들은 수시로 한다.

5) 접시찾기

정월에 여자들 여러 명이 둘러 앉아서 작은 접시를 차례대로 돌리다가 누군가가 접시를 감추고는 가운데 앉은 사람술래에게 맞히도록 한다. 감춘 사람을 맞히면 접시를 감추었던 사람이 술래가 된다.

6) 거북놀이

정월에 농촌 소년들이 짚으로 만든 거북 모양을 뒤집어 쓴 사람과 거불을 끄는 사람이 있어서, 이들이 각 집 문전을 방문한다. 방문한 집에 들어 가서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놀이를 한다. 그러다가 거북이 주저 앉으면, 집주인이 그 까닭을 묻는다. 배가 고픈데 떡을 먹고 싶다고 하면, 주인은 내어 대접한다.

7) 기와밟기

정월에 어린이들이 한 줄로 늘어 서서 허리를 구부린 채 앞사람의 허리띠를 뒤에서 잡아 긴 행렬이 되도록 이어 나간다. 행렬의 맨 끝 사람부터 한 사람씩 노래를 부르면서 순서대로 그 늘어선 사람들의 등위를 걸어 앞으로 나아가면 허리를 구부리고 있는 사람도 그 노래에 화답하는 노래를 부른다.

8) 쥐놀이

정월에 어린이들이 어미쥐가 새끼쥐를 데리고 가는 모양을 흉내내는 놀이다. 노는 어린이들이 전부 일렬 종대로 앉으면, 앞사람이 뒷사람의 허리띠를 꽉 붙잡는다. 이렇게 해서 맨 앞사람이 황새걸음으로 걷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은 모두 몸을 앞으로 구부린 모양이 되어 발끝으로 걸으며 앞으로 나아간다.

9) 사자놀이

정월에 어린이들이 한 사람을 짚 따위로 사자처럼 꾸미고, 여러 사람들이 농악을 울리면서 그 사자를 춤추게 하면서 논다.

10) 호랑이 놀이

여름에 어린이들이 호랑이와 나무꾼으로 편을 나누어 다소 멀리 떨어져서 마주 선다. 나무꾼 편이 "나무를 할까"라고 말하면서 모두가 호랑이편 쪽으로 가서 나무를 하는 흉내를 내면 호랑이는 재빨리 나무꾼을 잡아서 호랑이집으로 데리고 가서 가둔다. 갇힌 나무꾼은 몇몇 호랑이가 감시한다. 그러나 잡히지 않은 나무꾼이 갇혀 있는 나무꾼을 손으로 쳐 주면 갇혀 있던 나무꾼은 다시 살아서 그 집에서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무꾼을 모두다 붙잡아 가두면 호랑이편이 이기게 된다.

11) 닭잡기

여름에 어린이들이 모여 닭 한 사람, 너구리 한사람, 집안식구 여러 사람 등으로 나눈다. 먼저 집안 식구 여러 사람이 둥그렇게 둘러 앉는다. 그 원 가운데 닭이, 원 바깥에 너구리가 서서 문답을 하다가 문답이 끝나면 닭을 잡으려고 한다. 이때 앉아 있던 사람들이 일어서서 손을 잡고 닭장을 만들어 너구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다. 너구리는 이 원을 빙빙 돌다가 빈틈을 찾아 들어가서 닭을 잡으면 이기게 된다.

12) 말타기

가을 달밤에 어린이들이 노는 놀이로, 말 28명이 앞사람의 허리띠를 쥐고 한 줄로 선다. 줄의 양쪽 끝에 말장수와 말찾는 사람이 한 사람씩 선다. 말 찾는 사람이 "여보시오 여기 말을 매어 놓고 주막에 들러 한잔하고 왔더니 없어졌구려, 어디 갔을까"라고 하며 찾아 다닌다. 그러다가 늘어서 있는 말을 보고 " 아, 내 말이 저기 있구나"라고 하면 말장수가 "있으면 데리고 가시오"라고 한다. 말찾는 사람이 다가가서 그 중 하나를 가리키며 "이건 어디 말이오"라고 묻자, 말장수가 "이건 서울 말이오"라고 한다. 다른 말을 기리키니, 그 말은 시골말이라고 한다. 말찾는 사람은 어리둥절해서 "시골로 갈까 서울로 갈까"라고 한다. 이때 늘어선 말 모두가 그대로 빙글빙글 돌기 시작한다. 말찾는 사람은 "시골로 갈까 서울로 갈까"를 반복하면서 줄선 말들을 하나씩 잡아 끌어 낸다. 전부 다 끌어 낼 때까지 말과 함께 돌며 달린다.

13) 고사리따기

가을 밤에 어자 어린이들이 서로 손을 잡고 둥그렇게 둘러 앉는다. 맨 마지막 사람부터 고사리캐기 문답을 한 뒤, 잡았던 손 사이로 빠져나와 원 바깥을 돈다. 전체를 다 돌고 나면 모두가 "영차 영차"라고 외치면서 춤춘다. 문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할머니
을: 누군가
갑: 고사리 캐러 갑시다.
을: 나는 어제 고사리를 먹고 배탈이 나서 갈 수 없어
갑: 그럼 좋나 나 혼자 가지요

14) 진치기

수시로 어린이들이 두 조가 서로 대진하여 가위 바위 보로 선후를 정하고 진 편부터 전진한다. 이때 이긴 편은 뒤로 물러 났다가 나오면서 서로 뒤얽혀 싸운다. 진 편이 상대편을 손으로 치는데 손에 맞은 사람은 싸울 자격을 잃고 자기의 진지로 돌아 간다. 먼저 적의 진지를 차지하는 편이 이긴다.

15) 벌장수

수시로 남자 어린이들이 두 편으로 갈라서 한 편은 벌을 사는 사람들이 되고 다른 편은 벌장수가 된다. 벌을 사는 사람들은 손을 잡아 원을 만들고 벌장수들은 앞사람의 허리띠를 잡고 일렬로 늘어 선다. 벌장수가 "벌을 사시오"하면 살 사람들이 "무슨 벌이나"고 묻는다. "꿀벌이다"라고 대답하면 줄 끝의 벌장수 한 사람을 원 안으로 들여 보내 준다. 문답을 계속하면서 한 사람씩 원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

3. 마을제사와 장승

마을제사는 한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마을 사람들과 가축의 안녕과 함께 농사가 잘 되게 해 달라고 올리는 공동제사를 말한다. 1968년에 문화재 관리국에서 전국의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한 마을제사에 대한 질문지 조사의 내용을 정리하여 국립민속박물관에서 1995년에 발간한 {한국의 마을제당-서울·경기도편}에 의하면, 광주·성남지역의 마을제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당	도 당	산신당	산제당	상 당	서낭당	우 물	(무응답)	계
2	1	1	6	1	1	2	1	15

이것으로 보아 광주지역의 마을제사는 산신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을제사가 행해지는 날을 보면 다음과 같이 1월 초와 10월로 나타

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마을제사는 정월에 거행했던 부여(扶餘)의 迎鼓(영고)나 10월에 거행했던 고구려의 동맹(東盟)이나 예의 무천(舞天), 그리고 삼한시대에 농사를 끝낸 뒤 귀신에게 제사를 올렸던 전통을 계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춘추	택일	기타	무응답	계
1월	초	보름																
	4		1					2	1	1	7			1	2			19

광주지역에서는 마을제사와 함께 장승과 솟대를 세우고 고사를 올리는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1988년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간행한 {경기지방 장승·솟대신앙}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마을에 장승과 솟대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초월면: 무갑리, 서하리
퇴촌면: 우산 2리, 관음 2리,
광부읍: 목현리
중부면: 검복리, 엄미 2리, 하번천리

{한국의 마을제당}과 1991년 한양대학교·경기도에서 공동으로 간행한 『분당지구 문화유적 종합학술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과거의 광주지역이었던 성남지역에서 마을제사를 지내는 곳으로는 다음과 같은 곳으로 나타나고 있다.

낙생면: 대압리, 판교리, 하산운리
돌마면: 도촌리, 야탑리,

이 가운데에서 야탑리의 마을제사를 『분당지구 문화유적 종합학술조사 보고서』에 의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곳의 제당은 상당과 하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당은 굴참나무와 옆에 있는 터주가리로 되어 있다 산신제당이며, 하당은 장신나무라고 하여 장승을 대신하는 참나무옆에서 지내는 장신제당이다. 일반적으로 산신은 남신으로, 장신은 여신으로 인식하고 있다.

매년 음력 10월 초에 지내는데, 9월 30일에 마을에 유지들이 일진을 보아 좋은 날로 잡는데, 일반적으로 5일을 넘기지 않는 다고 한다. 만일 제삿날이 정해진 이후에 출산이나 초상과 같은 부전한 일이 발생하면 제사를 연기한다. 일반적으

로 출산과 같은 산부정은 일주일, 초상과 같은 부정은 3일이 지나야 새로운 날을 받는다고 한다.

제관으로는 당주·유사·축관 3종류가 있으며, 9월 30일 제삿날 택일을 할 때 마을 사람중 깨끗한 사람으로 선정한다. 제관의 경우 그 해의 나이와 일진을 보아 생기복덕이 닿는 사람으로 선정한다. 제관으로 선정된 사람은 부부가 함께 몸을 정갈하게 유지한다. 당주는 안당주 1명과 겉당주 2명으로 구분되어 있다. 안당주는 장신제뿐만 아니라 산신제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지내며, 제물도 마련한다. 겉당주는 유사라고도 하는데, 안당주를 보좌하여 당일 아침에 샘을 푸는 일, 산신당과 장신당 주변을 정비하고 청소하는 일, 제물 운반, 나무하는 일 등 잡일을 도맡아 한다. 제관이 선정되면 마을에서는 가축을 도살하거나 이웃과 다투거나 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집안에서 큰 소리로 자식들을 혼내지도 않는다. 그리고 제관들은 부부가 함께 잠자리를 하지 않으며, 가능한한 바깥 출입을 삼가며, 언행도 조심하고, 비린 음식을 먹지도 않으며, 매일 목욕을 하여 몸을 깨끗하게 한다.

제관을 선장되면, 겉당주는 산에 가서 황토를 떠다가 안당주의 대문 양쪽에 펴고 왼새끼로 꼬은 인줄에 솔가지를 꽂아 대문에 건다. 안당주의 집에는 이장이나 겉당주 이외에는 출입을 삼간다. 그리고 장신당과 산신당에도 황토를 뿌린다. 나무 있는 곳과 안당주나 겉당주에게는 그 수고에 보답하는 뜻에서 가을에 벼베는 품삯을 기준으로 하여 수고료를 차등있게 준다. 축관은 글깨나 읽고 학식이 있으며, 덕망이 있는 사람이 선정되고 있다.

마을 제사에 드는 비용은 예전에는 풍물을 쳐서 가가호호 쌀 한되씩을 추렴하였으나, 6.25이후에는 기독교 신자의 증가로 매호마다 현금을 갹출하여 충당하고 있다. 제물은 안당주가 목욕재계하고, 아침 일찍 모란장에 가서 반드시 처음 들어 간 집에서 사는데, 가장 좋은 물건으로 비싸더라도 깍지 않고 산다고 한다. 겉당주 2명도 역시 목욕재계하고 볏짚 6단으로 이엉 2개를 각각 만들어 산신당에 가서 터주가리를 보수한다. 그리고 터주가리안에 보관되어 있는 제기를 지게에 져서 미리 깨끗하게 청소해 놓은 샘물에 가서 씻어서 안당주의 집으로 가서 제물을 장만한다.

마을제사는 장신제를 먼저 올리는데, 밤 10시쯤 떡 1시루·막걸리·통북어 1마리와 함께 왼새끼줄과 창호지를 준비하여, 떡시루 위에 막걸리를 부어 놓고, 장신나무에 창호지와 북어를 새끼줄로 매어 단다. 안당주가 절을 2번 올린 다음에 떡을 조금씩 떼어서 "고시레" 하면서 사방에 버리는 것으로 끝낸다. 다시 안당주의 집으로 돌아 와 산신제를 지낼 준비를 한다. 산신제의 제물은 대추·밤·감·백설기·조라술(감주)·소머리로서, 그밖에 소지종이를 준비한다. 예전에는 소머

리 대신에 소의 앞다리와 뒷다리 하나씩을 사용했으나, 1970년대 이후에 바꿔서 사용하고 있다. 전설이 끝나면 옆에 불을 피워 놓는다. 안당주가 조라술을 따르면 겉당주가 받아 백설기시루 위에 놓고, 일동이 부복하면 축관이 고축을 올린다. 소지는 안당주·겉당주·축관·이장·반장 이하 주민들 모두 올려 주며, 끝나면 간단하게 음복을 한다. 이어서 안당주의 집에 내려 오면 마을의 남자들이 모여 결산을 하고, 대동회의를 한다.

축문은 서리와 도적을 물리치고 육축을 번성하게 하며 오곡이 풍성하고 날씨가 순조롭게 되기를 토지신과 산천의 신령에게 비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민요: 이무술 마을의 집터다지는 소리

이무술 마을은 현재의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있었던 자연마을이며, 집터다지는 소리는 지경닫는 소리라고도 부른다. 이 소리는 이곳에서 집터 새집을 지을 때 지경돌로 집터를 단단하게 다질 때 함께 부르던 소리로서, 최근에 경험자 윤명용씨가 중요무형문화재 19호로 지정된 선소리 산타령의 보유자인 황용주씨의 고증을 통해 복원되었다. 소리는 선소리와 후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선소리를 메기는 동안 지경꾼들이 모두 지경돌을 높이 들었다가, 후렴으로 받으면서 지경돌을 힘있게 내리치는 형식으로 불러지는데, 전국문화원 연합회 경기도 지부에서 1996년에 간행한 『경기도의 민속예술』에 수록된 소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소리	후렴
선소리: 에이여라 지경이요,	후렴: 에이여라 지경이요(3번 반복함)
지경꾼들 말들어라	〃 〃
일시에 들었다 일시에 놓고	〃 〃
힘있게 들었다 힘차게 놓자	〃 〃
한눈 팔다간 큰일난다	〃 〃
앞무릎 발등을 조심들 하세	〃 〃
만세 복록 누릴 집터	〃 〃
여러 벗님네 힘을 빌어	〃 〃
이 집터를 다져나 보세	〃 〃
산지조종은 곤륜산이요	〃 〃
수지조종은 황해수라	〃 〃
곤륜산 줄기가 뻗어 내려	〃 〃
백두산이 생겨 있고	〃 〃

백두산 줄기가 흘러 내려 〃 〃
금강산이 생겼구나 〃 〃
금강산이 좋다지만 〃 〃
오대산이 명산일세 〃 〃
수락산·삼각산 명산인데 〃 〃
인수봉에 정기가 흘러 〃 〃
인왕산이 솟아 있네 〃 〃
북악산의 산세도 좋아 〃 〃
등구재 만리재 둘러 있고 〃 〃
관악산은 화산이라 〃 〃
좌우를 살펴 보니 〃 〃
산도 만리 물도 만리 〃 〃
청룡백호를 눌러 놓고 〃 〃
한강수로 국세를 잡아 〃 〃
남한산성 나린 줄기 에에여라 쩌흥
영장산의 힘을 얻어 에이여라 지경이요
학의 등에 터를 닦고 〃 〃
온천하에 부귀영화 〃 〃
이 집터에 다 들었네 〃 〃
이 집짓고 삼년안에 〃 〃
고사 한번 잘 지내드니 〃 〃
아들 낳으면 효자 낳고 〃 〃
딸을 낳으면 열녀로다 〃 〃
효자 충신 열녀 두니 〃 〃
나라에는 충신되고 〃 〃
부모님께 효도하며 〃 〃
일가친척 화목하고 〃 〃
이웃 벗들과 우애하며 〃 〃
천세 만세 누리겠네 〃 〃
여러 벗님 지경꾼아 〃 〃
목이 마르면 술이 있고 〃 〃
배가 고프면 밥도 있네 〃 〃
이웃집 아낙네 인심이 좋아 〃 〃
술과 안주도 장만됐네 〃 〃

힘차게 다지고 마시고 노세	〃	〃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	〃
늙고 병들면 못 노나니	〃	〃
젊어 청춘에 일하며 노세	〃	〃
젊은 사람들 힘들 좋아	〃	〃
지경다지기가 잘되어 간다	〃	〃
이번부터 힘을 내어	〃	〃
더 높이 들었다 힘있게 놓아라	〃	〃
에여라 쩌흥	에여라	쩌흥

여 백

전통음악의 계승 방안

최 종 민

1. 문제의 제기

전통음악은 언제나 현재의 음악으로 존재해 왔다. 어느 시점에서 고착된 작품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 여건에 따라 변하면서 살아 있는 음악으로 존재해 왔다는 것이다. 민속음악이 궁중으로 들어오면 궁중음악다운 점잖은 음악으로 변하고 궁중음악이 민속으로 나가면 또, 민속다운 흥겨움을 가지게 된다. 송만갑이 "청중봐서 소리한다"고 한 얘기도 항상 현장에 맞는 판소리를 짜서 불렀다는 얘기이고, 심상건이 연주할 때마다 다른 가야금 산조를 연주했다는 것도 역시 현장성이 강한 음악을 연주했다는 얘기이다. 시조(時調)라는 음악은 그 명칭 자체가 시용(時用)의 음악 즉 Contemporary Music(현대음악)이라는 뜻이다. 그때까지 성행하던 가곡에 대하여 새로 생겨난 신음악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그 신음악이 그 후에도 계속 시대와 지방에 따른 변신을 거듭하며 시용의 음악답게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데 현대에도 계속 시절가, 신음악, 시용의 음악 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분화 발전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발달하고 있다. 매우 정적으로 보이고 간단해 보이는 시조가 이럴진대 짙은 감정을 분출하며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는 다른 민속음악에서는 어떠하겠는가? 바로 이 전통음악의 현재성 그것은 전통음악의 중요한 특징인 동시에 전통음악의 한 본질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형편은 많이 달라졌다. 서양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수용한 서양음악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통 음악을 압도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국악을 국악의 입장에서 보지 않고 서양음악의 입장에서 보게 되었고, 국악을 설명할 때에도 서양음악의 지식체계로 설명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국악은 국악의 생존방식대로 변신을 거듭하면서 현재의 음악으로 전승되고 있는데 국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서양화되었다고나 할까? 아무튼 국악계에도 서양음악의 논리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대라는 상황은 국악이 현재의 음악이라는 생각을 마비시켰고, 연주자가 창조적으로 연주하는 기량을 퇴화시켰으며 국악을 과거의 음악으로 인식하게끔 오도하였다. 학교나 교회에서는 서양 민요류의 노래를 부르고, 술집에서는 일본민요류의 유행가를 부르

*국악학회 이사

며, 음반가게에서는 팝송류의 노래가 불티나듯 팔리고 있다. 온통 외래음악의 홍수속에서 살고 있는 셈이다. 국악은 찾아보기 조차 어렵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그것이 선진화의 길인줄 알기도 하고 세계화의 방법인줄 알기도 한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 대한 원인은 열가지 백가지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 한가지는 음악 자체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도해온 사람들에게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식민지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한 사람이든 해방후 한국의 음악교육을 주도한 사람이든 아니면 그러한 사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국악계 사람이든 하 여간 사람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외면하고 국악이라는 음악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문제를 제대로 본다고 할 수 없다.

때문에 현재 국악의 문제를 생각할 때에는 어떻게 하면 국악의 왜곡된 흐름과 정체(停滯)된 전통을 바로잡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국의 문화 풍토에서 발달한 국악이 서양화로 치닫고 있는 한국인의 삶속에서 현재의 음악으로 수용될 수 있을까? 국악이 우리 모두에게 현재의 음악이 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국악이 국민의 음악이 되고, 민족의 음악이 되고, 미래 지향적인 우리 모두의 음악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한 노력이 필요 할 것인가? 등등을 논의 하고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여 발전시켰으면 한다.

2. 국악의 현대화 무엇이 문제인가?

"국악의 현대화"하면 많은 사람들이 국악은 옛날 음악이고 국악은 현대에 맞지 않는 음악이니까 그 국악을 뜯어 고치면 현대화가 된다고 생각하는 안이한 생각이 문제이다. 국악 자체가 현대에 수용되기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국악과 현대인의 삶이 괴리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다. 그러나 현대인들이 국악과 멀어진 것은 국악에 문제가 있어서라기 보다는 현대인들의 감수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국악의 가치를 모르고 국악의 역사성을 무시한 어떠한 현대화도 그것은 참 현대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해야할 일이 현대인으로 하여금 국악의 가치를 알게 하는 운동이다. 특히 국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국악의 참 가치를 알고 국악의 역사를 통하여 국악의 미래를 내다 볼 수 있어야 한다.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 양악만 알고 국악을 서투르게 아는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하여 부화뇌동한다든지 함부로 국악을 난도질하는 일은 삼가야 하겠기 때문이다. 국악의 현대화라는 명제는 영원히 계속될 과제인지도 모른다. 지금까지도 많이 논의돼 왔고

앞으로도 계속 논의되어야 할 명제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논의와 실천은 너무 인위적이고 서양음악의 논리에 적응하려 했기 때문에 바람직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본다. 혹자는 북한의 현대화를 긍정적으로 볼지 모른다. 그러나 북한의 현대화는 음악내용으로는 서양음악의 토착화 작업이었고 음악방법으로는 국악의 양악화 작업이었다. 그래서 그들 사회에 필요한 현대의 음악을 만들었다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그것은 전통음악을 외면한 현대화여서 정악이나 판소리같은 전통음악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민요의 생명력도 죽여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우리의 현대화는 북한의 전철(前轍)을 밟아서는 안된다. 전통음악의 미적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서양음악식의 기능만 살리려고 했던 북한의 현대화를 우리가 본받으려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음정을 평균율로 고치는 문제라든지, 악기를 공명위주의 양악기 비슷하게 만드는 문제라든지, 발성을 서양발성 비슷하게 고치는 문제 등 여러 가지를 심사숙고해야지 내 안목 수준으로 함부로 뜯어 고쳐서는 잘못을 범하기 쉽다는 것이다. 전통음악을 할 수 없는 악기개량, 전통발성을 부정하는 발성법, 전통음악의 음정과 다른 음정의 보편화같은 것은 국악으로서의 전통성과 거리가 먼 것들이다. 우리의 전통 음악은 과거로부터 왔고 미래에로 그 전통성이 이어질 음악이다. 따라서 전통음악의 전통성이 단절되는 그런 국악의 현대화란 있을 수도 없겠지만 있어서도 안된다.

우리의 현실에서 국악의 현대화는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야 되리라고 생각한다. 한 가지는 현대가 국악을 외면하고 있다고 보고 국악이 현대 생활에서 보다 폭 넓게 수용되도록 하자는 "현대의 국악화"이고 다른 한 가지는 국악이 구태의연한 옛것이라고 생각하고 국악이 현대적으로 변하자는 "국악의 현대화"가 되겠다. 하나는 국악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국악이 되게 하는 국악수용의 측면이 되겠고 다른 하나는 국악의 변신을 통하여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자고 하는 국악창작의 측면이 되겠다.

현대의 국악화는 마치 영국사람들이 지금도 햄릿이나 맥베스 같은 쉐익스피어의 작품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국악을 하나의 고전으로 잘 보전하고 가꾸자는 국악활성화의 방법이다. 국악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고 국악을 우리의 음악으로 받아들이자는 것이다. 한편 국악의 현대화는 고려청자나 이조백자의 현대화나 마찬가지이다. 고려청자나 이조백자의 멋과 예술성을 오늘에 되살려 현대에 필요한 새로운 자기를 만들자는 것이다. 국악으로 친다면 수제천과 같은 음악을 현대에 만들고, 판소리나 산조 같은 음악을 현대에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아무튼 국악의 현대화는 국악과 현대가 밀접하게 되도록하자는 발상이다. 우선

외적으로 보면 국악이 현대사회에서 뒷전에 밀려나 있다. 이것은 국악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인 문제와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일본의 식민지 문화말살 정책과 해방후 잘못된 음악교육 정책이 오늘날과 같은 음악현실을 만들어 놓았다. 때문에 국악의 현대화에서 다루어야 할 한 과제는 국악의 제 몫 찾기이고 현대에 국악을 보다 많이 접목시키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현실로 돌아와 보면 국악이 자라온 전통사회와 현대의 사회는 모든 것이 너무나 달라졌다. 기존의 국악이 원래의 모습대로는 살아 남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많은 부분이 달라져야만 한다. 음악의 기능이나 역할이 달라지고 연주의 장소도 달라졌다. 연주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작곡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교육하는 여건도 달라졌다. 모든 것이 변했다. 그렇게 변한 것이 오늘날의 국악이다. 그러니까 국악 현대화의 또하나의 과제는 국악 자체가 어떻게 새로워 짐으로써 현대에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되겠다.

3. 국악 현대화의 방향

1) 국악에 대한 감수성을 길러 주는 문제

음악에도 수요 공급의 논리가 작용한다. 국악의 수요를 증대시키지 않고는 국악이 우리의 삶속으로 파고 들어오게 할 수 없다. 국악의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국악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 주어야 한다. 그래서 국악을 듣고 싶어하고 국악을 하고 싶어하면 되는 것이다. 국악의 수요자는 국악을 듣는 사람이고 국악연주회에 가는 사람이고 국악상품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은 바로 국악에 대한 감수성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 온 국민에게 국악에 대한 감수성을 길러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 새 음악 창작의 문제

옛날의 국악은 옛날 생활의 갈피갈피에 쓰여지면서 발달하였다. 현대 우리의 생활에도 음악이 쓰이는 곳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옛날과 비교가 않을 만큼 음악의 쓰임새는 넓어졌고 많아졌다. 그러한 곳곳에 창작하는 국악을 사용한다면 국악도 저절로 현대화되고 새로운 작품을 많이 얻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생활속에서 자연스레 접하는 각종 신호음악을 국악으로 작곡하여 쓴다든지 영화나 드라마의 음악을 국악으로 작곡하여 쓴다든지 하면 국악에 대한 감수성도 기를 수 있고 국악창작도 활성화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국악에서도 과거에는 연주자가 상황에 맞게 작곡하며 연주하는 창작방법을 썼지만 이제는 작곡가가 따로 있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작품을 작곡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많은 작품을 다양하게 작곡할 수 있을 것이다.

4. 국악 현대화의 방법

1) 국악에 대한 감수성을 기르기 위한 방법

① 음악교육 : 음악교육에서의 국악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19세기 서양에서 의무교육이 시작될 무렵에도 음악교육의 목표는 음악적 모국어를 가르치는 것이었고 그 방법으로 각 나라가 자기 나라 민요를 교재로 썼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민요를 교재로 하며 우리의 음악적 모국어를 가르치도록 해야 한다.
어문교육은 우리 말과 한글을 가르치고 나중에 외국어를 가르치는데 음악교육은 외래음악부터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 제도를 바꾸어서 우리민요를 먼저 가르치고 나중에 외 국민요를 가르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방　　송 : 현대 사회에서의 방송의 파워는 막강하다. 방송국이 국악방송를 확대하고 각종 신호음악을 국악으로 만들어 쓰면 국민들의 국악 감수성을 기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들면 일기예보. 시각고지, 뉴우스의 신호 음악 등이다. 또 사극이나 향토성 짙은 드라마의 효과음악도 국악으로 작곡하여 쓰면 국악의 활성화와 창작진흥에 도움이 되고 사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③ 공　　연 : 예술은 직접 느끼고 감동해 보는 경험이 필요하다. 국악공연을 활성화하여 보다 쉽게 국악을 현장에서 감상할 수 있게 해야한다. 특히 직장단위의 국악공연이나 학생을 위한 국악공연을 이벤트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④ 국악산업 : 국악감상용 음반이 많이 나와야 한다. 해설이 있는 음반도 필요하고 특별히 기획된 재미있는 음반도 필요하다. 또 교육용 국악 비디오도 많이 개발되어야 한다. 결혼식이나 회갑연에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음향자료도 개발했으면 한다. 교육용 악기나 간이 악기(예를 들면 4분의 3 가야금)

를 개발해야 한다.

2. 전통음악의 재창조와 관련된 문제

전통음악이란 문화의 근간이 되는 언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자생적으로 발달한 음악이 외래음악의 영향을 받아서 발전하여 재래음악이 되고, 그 재래음악이 또 외래 음악과 교섭하며 다음 시대의 음악으로 발전하고, 그것이 또 다른 나라의 음악과 교섭하여 새 음악을 만들면서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 간다. 자생음악이나 재래음악은 외래음악을 수용하여 풍부해 지고 외래음악은 재래음악의 토양에서 토착화하여 한국음악으로 흡수된다.

그런데 외래의 악기나 외래의 음악미 등은 재래의 것에 보태어져서 조화롭게 유입되는 경우가 많지만 외래의 음악 문법은 재래의 것과 상충될 경우 그대로 유입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우리 나라가 중국의 음악문화를 수용할 때 악기나 음악철학 등은 거의 그대로 받아 들여 우리 것으로 삼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음악문법 즉 음악내용과 음악표현양식은 중국 것을 그대로 받아 들일 수 없었다. 예기(禮記)에서 말하는 '樂之器 樂之文 樂之情'으로 따진다면 악지기와 악지정은 중국 것을 토착화하여 수용한 것이 많이 있지만 악지문은 중국의 것을 유지한 것이 거의 없고 한국화했거나 아니면 도태되어 버렸다. (한국에서 작곡한 응안지악만 전승되고 있다.)

중국의 음악은 한국에 들어오더라도 얼마 가지 않아 한국화된다. 그렇게 한국화하면 그 음악의 생명은 지속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 음악은 도태되어 버리고 만다. 사실은 악기도 우리식 음악 특성에 적응할 수 있는 것만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것은 퇴화해 버린다. 해금이나 아쟁은 우리 음악의 특성인 떠는 음이나 꺽는 음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속음악에서도 널리 쓰이지만 편종이나 편경은 그런 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엄청난 명분에도 불구하고 퇴화해 버렸다. 금(琴)이나 비파(琵琶)도 같은 이유로 전승이 끊겨 버렸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국악의 현대화 방법도 생각해야 된다. 국악의 가치와 전통성을 살리면서 서양음악을 수용하고 현대의 여건에 적응하도록 해야지 우리의 음악역사를 관류하는 전통을 무시하고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는 식의 국악현대화는 좋지 않다는 것이다. 국악의 전통성은 국악이 자생할 수 있는 한국문화와의 동질관계를 배경으로 확립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화에 있어서 동질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해 보겠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한국문화와 이질관계에 있는 것을 한국문화에 접

목시켰을 때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끝내 완전한 우리 것이 되지 못한다. 우리는 중국의 한문을 천년이 넘게 우리 것으로 만들어 쓰려고 노력했다. 우리 말과 이질관계에 있는 한문이지만 오랜동안의 토착화 노력으로 뜻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 말 새김과 글자의 음가까지 만들어 내었다. 또 토를 고안하여 한국식 한문이 되게 하였다. 그러나 한문과 우리 말과의 이질성은 완전히 극복되지 않았다. 특히 어순이 우리 말과 어긋나는 어순이었다. 그래서 한문은 오랜세월에 걸쳐서 우리 말을 오염시켰고 우리말을 외화시켰다. 또 한문은 한문대로 일상 생활용의 우리글이 되기에는 너무나 불편했다.

한편 우리말과 동질관계에 있는 한글의 형편은 어떠한가? 해방 50년을 맞으면서 우리문화의 가장 큰 변화는 한글의 발달과 언어생활의 발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글은 우리말과 동질관계이다. 말을 하면 글이 늘고 글을 쓰면 말이 조리있게 된다. 漢文과 우리말은 異質關係여서 서로가 상충이 되지만 한글과 우리말은 동질관계여서 서로 상보(相補)가 된다는 말이다. 우리가 한글을 공식적으로 국민의 글로 가르친 것은 해방 후가 처음인데 그 동안에 한글의 기능과 역할은 비약적으로 확대되었고 오늘날 찬란한 한글문화를 이룩하게 되었다. 한글소설·한글시·한글수필 무엇이든 이제는 한글 위주의 문예가 발달하지 않았는가? 불과 50년도 않되는 기간에, 어디 그뿐인가 한문이 순식간에 도태되고 있지 아니한가? 동질적인 한글은 단기간에 엄청나게 문화전반을 발달시키지만 이질적인 한문은 순식간에 도태되어 죽어가고 있다. 문화에 있어서 동질성과 이질성은 이처럼 중요한 것이다.

세종 임금이 대단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전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점이다. "우리 나라의 말이 중국말과 달라서 중국의 글로서는 우리 나라 사람들의 하고 싶어하는 사연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한 그 훈민정음 서문의 시작이 얼마나 대단한 발견인가? 세종은 바로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글을 창제하시고 이어서 여민락, 정대업, 보태평 같은 신악을 작곡하셨다. 신악은 한국어와 동질관계를 가진 한국식 음악문법으로 작곡한 한국식 아악이다. 악기는 당시에 통용되던 雅樂器, 唐樂器, 鄕樂器 등을 다 사용하고 음악미는 아악이 지향하는 음악미를 가지면서도 음악문법은 한국식으로 작곡했다는 말이다. 한국식 음악문법으로 新樂을 작곡했다는 것은 중국식 음악문법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그래서 세종때에는 중국식의 아악인 응안지악(凝安之樂)도 작곡하고 한국식 아악인 여민락(與民樂), 정대업(定大業), 보태평(保太平) 등도 작곡하였다.

아악의 본래 모습은 중국 음악문법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중국음악의 표현양식은 중국말과 동질관계라고 생각하면 된다. 중국어는 4성의 성조에 따라 뜻이

달라진다. 음의 높 낮이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셈이다. 중국의 음악도 높낮이가 중심이다. 음의 길고 짧음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말은 그렇지 않다. 같은 발음이라도 길고 짧음에 따라 뜻이 달라진다. 음의 高底보다는 음의 長短이 더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음의 길고(- -) 짧은(-)것이 2:1의 비율로 결합하면서 다양한 장단을 만들어 낸다. 세종께서는 이점을 깨달았기 때문에 한국식 아악을 작곡했을 뿐만 아니라 음의 고저(Pitch)와 장단(Duration)을 표기할 수 있는 정간보를 창안하기도 하였다.

우리 문화와 다른나라 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은 심미안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과정이다. 나의 나다움은 다른 사람과 다른 점에 있다. 우리가 흔히 특징이라고 하는 것도 나의 것과 남의 것이 다를 때 그것을 특징이라고 한다. 내가 남과 똑 같아진다면 나는 특징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우리 음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국악의 국악다움을 살리는 것 그것이 국악을 가꾸는 방법이지 국악을 양악과 똑 같이 만드는 것은 국악을 가꾸는 방법이 아니다. 때문에 국악의 현대화는 국악의 국악다움과 국악의 가치를 살리면서 현대에 필요한 음악을 만들어야지 국악을 서양음악과 비슷하게 만드는 것이어서는 않된다.

여러가지 방법 중에서 어떠한 방법이 우리에게 적절한 방법인지 몇가지의 예를 검토하면서 나의 견해를 피력해 볼까 한다.

1) 정경태의 시조

석암제라고 하는 정경태의 시조는 오늘날 전국적으로 보급되어 애창되고 있다. 그래서 석암제 시조가 전국을 통일했다고 말하기도 한다. 지방에 따라 다양하게 발달하는 시조음악을 통일한다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고 어쨌든 석암제 시조는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그의 시조가 애호되는 이유는 역시 석암제 시조의 작품성이 다양하고 우수하다는 것이다. 그가 작곡한 시조는 완제를 바탕으로 하면서 가사나 가곡의 가락을 도입하여 화려하고 격조있는 시조를 다양하게 만들었다. 그의 온질림 반각시조 등은 여가 선용의 시조에서 성악적인 시조로 발전시킨 멋진 작품이다. 정경태의 창작은 어디까지나 전통의 범위 안에서 전통의 방법으로 기존음악의 수준을 높이고 영역을 확대하여 시조음악을 한 단계 높게 발달시켰다. 그는 또 곡선으로 된 그림악보를 창안하여 시조음악의 기보법에도 공헌하였다. 그는 현대의 전통적인 음악가라 할 수 있다.

2) 김덕수패의 사물놀이

1978년에 등장한 사물놀이 음악은 기존의 풍물놀이를 현대의 여건에 맞게 새로운 공연물로 재창조한 음악이다. 철저히 재래의 악기와 재래의 가락을 그대로 쓰면서 달라진 공연여건에 맞게 다른 음악을 만든 것이다. 기존의 풍물 놀이는 야외의 열려진 공간에서 한 나절쯤으로 시간을 잡아 조금은 느슨하게 죄었다 풀었다 하며 진행하던 극히 민속적인 놀이였다. 그런데 김덕수를 비롯한 사물놀이 연주자들은 극장식의 무대공간에서 30- 40분쯤의 일정한 시간에 밀도있게 연주할 수 있도록 새 음악을 짜서 연주하였다.

작곡방법으로 보면 별것 아닌것 같이 보일런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가깝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어느 구석 하나 옛것 아닌 것이 없는데 어느 구석 하나 새롭지 않은 것이 없는 그런 작품이었다. 옛날 풍물놀이 가락처럼 쉽게 귀에 들어오는 음악인데 전혀 새로운 감동을 불러 일으키는 신선한 음악이 된 것이다. 기존의 풍물놀이에서 살 릴 것은 살리고 바꿀 것은 바꾸었기 때문에 현대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 전통악기와 전통음악문법을 쓰면서 현대사회용의 현대음악미를 구현한 것이다. 그래서 전통을 현대에 접목시킨 가장 한국적인 음악을 창출해 낸 것이다.

'大樂必易'라 했던가? 이런 음악은 누구나 감동시킨다. 청소년들이 열광하고 외국인도 호응한다. 전통음악의 전통성을 지키며 상황에 적응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만약 사물놀이가 양악식으로 작곡된 3박자나 4박자의 곡을 악보를 보고 지휘에 맞추어 두드려 댄다고 가상해 보라 어떤 음악이 되었을까? 때문에 사물놀이야 말로 매우 바람직한 국악현대화의 표본이라고 생각한다.

3) 박중후 작곡 '사자의 고향'

이 작품은 국악악기를 사용하여 재래식의 주법이 아닌 새로운 주법으로 전혀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 낸다. 그래서 독특한 음향의 현대음악을 만들어 내는데 국악악기의 새로 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하다. 김정길의 '추초문'도 유사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악악기를 사용하면서도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새롭게 소리를 내게 하기 때문에 우연성이 많은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국악악기를 사용하여 현대적인 음악미를 표현해 보는 것은 필요한 일이고 효과도 있다고 본다. 또 현대 국악이 가야할 한 방향이 된다고 본다. 국악악기는 양악기와 음질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훨씬 다른 현대음악을 개척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4) 김희조의 '단소와 관현악을 위한 수상곡'

1950년대에 작곡했다는 이 곡은 단소의 선율이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그대로 나타내면서 관현악과 어울어지게 많든 것이다. 이 곡이 그러한 장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국악을 잘 아는 이병우씨가 단소로 관산융마를 연주하고 그 가락에 맞게 관현악곡을 작곡했기 때문이다. 기존의 전통가락이 관현악의 도움을 받아 훨씬 풍부해지고 신식으로 치장한 것과 같이 되어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박범훈의 사물놀이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신모듬' 이나 이성천의 '타령 주제에 의한 전주곡' 등이 다 그러한 유인데 전통음악을 다른 양식으로 꾸며서 치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를 거들수 있다. 앞으로 많은 전통음악 소재를 이러한 방법으로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 민요나 전통음악을 주제로 한 관현악곡·협주곡·합창곡·실내악곡. 행진곡 등을 만들면 다양한 새 음악을 얻어 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악 현대화에 있어서 기피하여야 할 것은 어줍잖은 서양화를 피해야 된다는 것이다. 악기를 양악기 비슷하게 개조한다든지 Phrasing을 서양민요식으로 한다든지 하는 현대화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다. 그것은 한국음악의 아름다움과 거리가 먼 것이고 한국문화의 동질성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악의 현대화는 국악의 예술적 가치와 국악의 현대적 기능이 충족되는 현대화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가지 국악의 미적특징은 지속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판소리의 발성이나 대금의 소리 같은 그런 소 리가 음악의 재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소리 하나로서 많은 사연을 표현하는 그 소리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저버리지 말았으면 한다. 또 선율법에 있어서 시김새가 성악이나 기악에 다 살아나도록 했으면 한다. 시김새는 한국음악의 중요한 특징인데 창작곡에서는 그것이 거의 무시되어 왔다. 합주의 얼개도 각 악기의 음악이 독립성을 가지면서 전체의 음악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살려 나갔으면 좋겠다. 서양음악이 가지지 않은 우리의 독특한 방법이면서 현대감각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장단이나 판소리의 붙임새, 산조나 가곡의 형식 같은 것도 현대가 잘 수용했으면 좋겠다. 때문에 국악 현대화의 방법은 전통음악의 전통 자체에서 찾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 라고 생각한다.

■ 편집위원 ■

백 남 욱	장 철 수
천 화 숙	한 춘 섭

성남의 역사와 문화

발 행 일 : 1998년 2월 10일
발 행 처 : 사단법인 성남문화원
주　　소 :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96-2
전　　화 : (0342) 781-1020
팩　　스 : (0342) 709-5246
인　　쇄 : 동아인쇄(755-1571~2)

이 책을 이용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 회원자격은 성남시민과 성남소재 직장인, 학생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대출기간은 14일이며 7일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 성남시공공도서관이 소장한 책에 한하여 예약이 가능합니다.(상호대차 운영)
- 책을 소중히 다루어 주십시오.

성남시 중앙 도서관

